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발표자료집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주제: “한국어 어휘의 삶, 그 탐구와 활용”

일시: 2023년 10월 5일(목)~10월 6일(금)

장소: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aT센터), 4층 창조룸 II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일정표 (국어사학회+구결학회)

주제: “한국어 어휘의 삶, 그 탐구와 활용”

일시: 2023년 10월 5일(목)~10월 6일(금)

장소: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aT센터), 4층 창조룸II

< 1일차: 2023.10.5.(목) 오후 > - 구결학회 주관

시간	발표 내용	참여자
13:30 ~ 13:40 (10분)	개회사	김성주 (구결학회회장)
<자유 주제 발표>		사회: 이용(서울시립대)
13:40 ~ 14:20 (40분)	향가의 어휘	발표: 황선엽(서울대) 토론: 김지오(동국대)
14:20 ~ 15:00 (40분)	의궤류의 어휘	발표: 황금연(전남대) 토론: 이화숙(대구가톨릭대)
15:00 ~ 15:10 (10분)	(휴식)	
15:10 ~ 15:50 (40분)	고문서 이두의 어휘	발표: 조남곤(고려대) 토론: 오창명(제주국제대)
15:50 ~ 16:30 (40분)	대명률직해의 어휘	발표: 진윤정(고려대) 토론: 박진호(서울대)
16:30 ~ 17:30 (60분)	종합 토론	좌장: 이건식(단국대)

< 2일차: 2023.10.6.(금) 오전 및 오후 > - 국어사학회 주관

시간	내용	참여자
10:00 ~ 10:15 (15분)	개회사	김유범 (국어사학회회장)
<자유 주제 발표>		사회: 백채원(서울대)
10:15 ~ 10:50 (35분)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	발표: 안예리(한중연) 토론: 이준환(전남대)
10:50 ~ 11:25 (35분)	‘청년-소년-청소년’의 개념과 의미 분화	발표: 이성우(한림대) 토론: 최준호(서울대)
11:25 ~ 12:00 (35분)	어휘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	발표: 정한데로(가천대) 토론: 오규환(동덕여대)
<기획 주제 발표>	<한국어 어원 사전 편찬>	사회: 김건희(강원대)
13:30 ~ 13:50 (20분)	국어 어원 사전의 집필과 감수	발표: 최준호, 신현규(서울대)
13:50 ~ 14:10 (20분)	국어 어원 관련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발표: 도원영(고려대), 김숙정(호남대)
14:10 ~ 14:30 (20분)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발표: 김한별(서강대), 정은영(대가대)
14:30 ~ 14:50 (20분)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	발표: 김현주(공주교대), 정한데로(가천대)
14:50 ~ 15:10 (20분)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의 실제	발표: 허인영(인하대), 오민석(고려대)
15:10 ~ 15:30 (20분)	(휴식)	
15:30 ~ 16:30 (60분)	종합 토론	좌장: 장경준(고려대) 토론: 이지영(서강대), 봉미경(연세대), 이정원(서강대), 장요한(계명대), 박진호(서울대)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발표자료집 - 목차

〈기획 주제 발표 : 한국어 어원 사전 편찬〉

- 국어 어원 사전의 집필과 감수 / 최준호, 신현규(서울대) 2
- ‘국어 어원 사전의 집필과 감수’에 대한 토론문 / 이지영(서강대) 23

- 국어 어원 관련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 도원영(고려대), 김숙정(호남대) 28
- ‘국어 어원 관련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에 대한 토론문 / 봉미경(연세대) 43

-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 김한별(서강대), 정은영(대구가톨릭대) 45
-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에 대한 토론문 / 이정원(서강대) 69

-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 / 김현주(공주교대), 정한데로(가천대) 71
-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에 대한 토론문 / 장요한(계명대) 94

-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의 실제 / 허인영(인하대), 오민석(고려대) 97
-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의 실제’에 대한 토론문 / 박진호(서울대) 118

〈자유 주제 발표 : 구결학회〉

- 향가의 어휘 / 황선엽(서울대) 123
- ‘향가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 김지오(동국대) 141

- 의궤류의 어휘 / 황금연(전남대) 144
- ‘의궤류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 이화숙(대구가톨릭대) 164

- 고문서 이두의 어휘 / 조남곤(고려대) 167
- ‘고문서 이두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 오창명(제주국제대) 200

- 대명률직해의 어휘 / 진윤정(고려대) 204
- ‘대명률직해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 박진호(서울대) 222

〈자유 주제 발표 : 국어사학회〉

-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 /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227
-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에 대한 토론문 / 이준환(전남대) 250

- ‘청년-소년-청소년’의 개념과 의미 분화 / 이성우(한림대) 254
- ‘“청년-소년-청소년”의 개념과 의미 분화’에 대한 토론문 / 최준호(서울대) 271

- 어휘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 / 정한데로(가천대) 275
- ‘어휘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에 대한 토론문 / 오규환(동덕여대) 307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발표자료집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기획 주제 발표

<한국어 어원 사전 편찬>

국어사학회 발표문
2023.10.06.

국어 어원 사전의 집필과 감수

최준호(서울대)
신현규(서울대)

발표의 목적

- 본 발표는 “2023년 국어 어원 사전 편찬” 프로젝트에서 집필·감수팀이 현재까지 작업해 온 상황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크게 ‘현황 소개’ 및 ‘쟁점 제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함.

차례
- 현황 소개 -

- 어원 사전 집필 계획
- 어원 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구성
- 집필 및 감수 현황
-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차례
- 쟁점 제시 -

-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작업 \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표제어 선정 및 집필·감수	≡≡≡≡ 집필 항목 선정 ⇒⇒⇒⇒⇒								마무리
	⇐ 집필·감수 시스템 구축 ⇒								
	⇐ 집필 지침 초안 ⇒		≡≡≡≡≡≡≡≡ 집필 지침 보완 ⇒⇒⇒⇒⇒⇒⇒⇒⇒						
	⇐ 시험 집필 ⇒		≡≡≡≡≡≡ 집필 ⇒⇒⇒⇒⇒⇒⇒⇒⇒						
			≡≡≡≡≡≡≡≡ 감수 ⇒⇒⇒⇒⇒⇒⇒⇒⇒⇒⇒⇒⇒						

작업 \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표제어 선정 및 집필 · 감수	≡≡≡ 집필 항목 선정 ⇒⇒⇒⇒⇒								마무리
	⇐집필·감수 시스템 구축⇒								
	⇐집필지침 초안⇒		≡≡≡≡≡≡≡ 집필지침 보완 ⇒⇒⇒⇒⇒						
	⇐시험 집필⇒		≡≡≡≡≡≡ 집필 ⇒⇒⇒⇒⇒						
			≡≡≡≡≡≡≡≡ 감수 ⇒⇒⇒⇒⇒						

어원 사전 집필 계획

- 집필 항목 선정: 올해 작업할 4,000개 항목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차년도부터 집필할 약 20,000여 개 항목에 대한 선정도 완료되었음.
- 집필·감수 시스템 구축: 《우리말샘》과 연동된 집필기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8월 중순부터 집필진 및 감수진이 사용하여 집필기를 활용하여 집필 중임.
- 집필지침: 집필지침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집필지침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험 집필 및 집필: 9월 6일까지, 4,000개 항목 중에서 2,901개 항목이 집필되었음. 후술함.
- 감수: 9월 6일 현재, 628개 항목에 대한 감수가 완료되었음. 후술함.

어원 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현황

- 어원 사전 집필/감수팀에서는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 감수자와 집필자를 팀으로 편재하여 운영하고 있음.
- 1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팀 안에서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전체 회의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함.
- 공동연구원 및 집필진, 감수진은 모두 국어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음.

어원 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구성

어원 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구성

- 공동연구원: 황선엽, 조남호
- 보조연구원: 최준호, 신현규
- 집필진: 고경재, 김남경, 김지오, 김천학, 김태우, 김한결, 문현수, 백채원, 서정호, 선한빛, 안주현, 여은지, 이상금, 이상훈, 이성우, 이소흔, 이수진, 이용, 이화숙, 장고은, 전기량, 정연정, 정연주, 하귀녀, 하정수 (총 25명)
- 감수진: 김성주, 김양진, 김유범, 박부자, 박진호, 서형국, 신종진, 안예리, 유필재, 이건식, 이동석, 이병기, 이상신, 이안구, 이지영, 장윤희, 한성우 (총 17명)
- 감수진 중에서도 항목 집필에 참여하고 계신 연구진도 있음.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 어원 사전 집필기는 《우리말샘》과 연동되어 작동함.
- 그로 인해, 아래와 같이 《우리말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연동된 상태에서 집필 중.

우리말샘

옛한글 Q 자세히 찾기 >

검색기

검색 어휘를 입력하십시오.

검색

선택한 어휘 기본 정보 가져오기 (라디오버튼, 동그라미버튼)

선택한 어휘 연결/해제 (체크박스, 네모버튼)

기존 사전 어휘 연결

*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스크롤을 끝까지 아래로 내려주세요.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우리말샘

옛한글

Q

자세히 찾기 >

검색기

서운하다

검색

☒ 서운-하다[서운하다 ㄱ] 서운하여[서운하여] (서운해[서운해]), 서운하니[서운하니]
☒ 서운-하다*001 형용사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 서운-하다
☐ 서운-하다*002 형용사 '시원하다'의 방언

1/1

선택한 어휘 기본 정보 가져오기(라디오버튼, 동그라미버튼)

선택한 어휘 연결/해제(체크박스, 네모버튼)

가존 사전 어휘 연결

서운하다 001 (출처 : 우리말샘)

*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스크롤을 끝까지 아래로 내려주세요.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변화 정보

저장

옛 한글 입력기

특수 문자 입력기

추가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마상 ☒ 20세기

서운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마상 ☒ 20세기

서운하다

☐ 노출 제외

삭제

▲

▼

언어 내적 정보

'서운하다'의 옛말인 '서운하다'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서운하다'는 어근 '서운'과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16세기 문헌에서는 '서운하다, 서운하다, 서운하다'의 이형태도 나타난다. '서운하-', '서운하-'는 양성 모음 'ㅛ'가 사용된 형태이다. 몇몇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서운코'(서운하-+고)와 같이 '서운하-'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19세기에 'ㅅ' 아래에서 'ㅈ'와 'ㅊ'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고, 'ㅅ' 소리는 없어졌지만 'ㅅ'와 'ㅈ'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20세기 문헌에 '서운하다, 서운하다, 서운하다'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데 '서운하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언어 외적 정보

추가

삭제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세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표기 서운히-, 서운히-, 서운후-, 서운ㅎ-

용례 삭제 ▼ ▲

용례 하 보내기 {서운히여} 두꺼니와

출전 16세기 말 순김 009

원문

현대어역 보내기가 많이 서운하여 두꺼니와

이형태/이표기 서운히-, 서운히-, 서운후-, 서운ㅎ-, 서운후-, 서운하-

어원 사전 집필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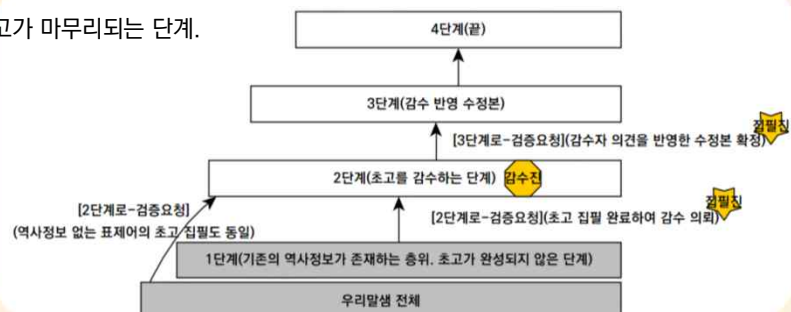
☐ 어휘 ▾ ▾	뜻풀이 ▾ ▾	편찬 단계/상태	올린 사람	올린 날짜 ▾ ▾	고친 사람	고친 날짜 ▾ ▾	검증한 사람	검증 날짜 ▾ ▾
☐ 서운하다 『001』 보기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어원사전 수정	2 단계 검증 대기	어원사전 027 (ety027) 분과	2023-09-08 09:45:09	어원사전 027 (ety027) 분과	2023-09-08 11:06:32	어원사전 027 (ety027) 분과	2023-09-08 11:04:03

집필 및 감수 현황

집필 및 감수 현황

1. 집필 및 감수 단계_현 《우리말샘》 집필기 내의 명칭을 바탕으로 한 소개

- 0단계: 《우리말샘》에 등재된 전체 표제어 중 '어휘 역사 정보'가 없는 표제어에 해당.
- 1단계: 기존 '어휘 역사 정보'가 있는 표제어에 해당.
- 2단계: 집필진에 의한 집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감수진의 1차 감수가 완료된 단계.
- 3단계: 1차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진의 수정이 완료된 단계.
- 4단계: 최종 감수자의 검토를 거쳐 원고가 마무리되는 단계.



집필 및 감수 현황

2. 집필 현황

- 2023년의 어원 사전 집필 목표 단어의 수는 총 4,000개임.
- 9월 6일까지 총 2,901개 항목에 대한 집필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72.52%에 해당.

5월	6월	7월	8월	9월
884	438	649	928	2
계	2901			

-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우리말샘 내 집필기에서의 집필 착수.
- 9월 상순 현재는 신규 집필보다 기존 집필본을 수정하며 집필기에 입력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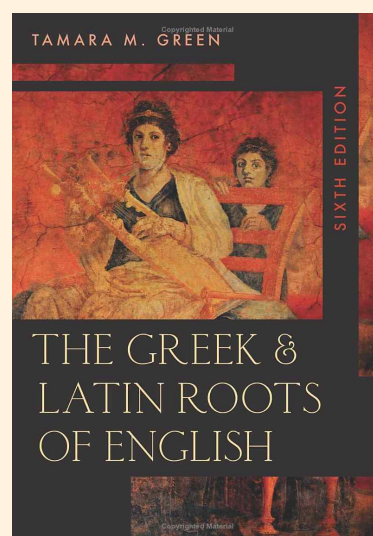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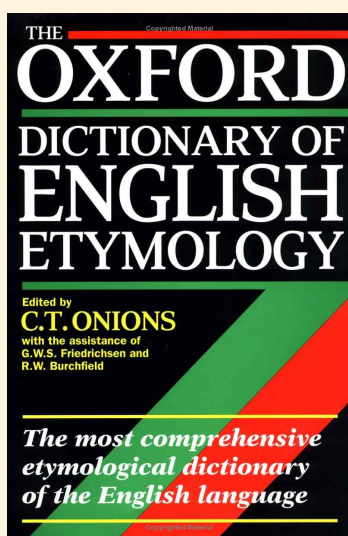
집필 및 감수 현황

3. 감수 현황

- 집필 지침의 보완 단계에 맞추어 한 차례의 시범 감수가 시행됨.
 - 1,163개 항목에 대한 감수 요청이 있었고, 이 중 628개 항목의 감수 완료.
 - 집필진은 접수된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면서 집필기에 등록 중.
- 아직까지 감수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새로운 집필기에 기존 집필본 입력 시기 이후로 감수를 유보해 옴.
 - 《우리말샘》 집필기에서 실시간 감수 요청 및 감수 의견 전달, 반영이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에 더욱 원활한 감수 및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국어 어원 사전 편찬’임.
-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에 대해서는 어원 사전(Dictionary of Etymology)의 명칭이 포함된 사전이 다수 존재함.
- 그런데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원”을 기술할 수 있는 단어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 실제로 ‘어원’에 대해 기술한다면, 모든 표제항마다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① 국어 어휘와 다른 언어 어휘와의 관계, 즉 차용 관계(특히 한자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로부터 차용된 외래어 관계)
- ② 국어 어휘와 국어와 동일한 계통을 가진 언어의 어휘들과의 관계 (제 알타이어와의 관계)
- ③ 각 어휘의 역사
- ④ 각 어휘의 형태론적 분석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 그러나 우선 국어의 계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의 방법으로 어원론을 전개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음.
- 고유어의 경우 한글 창제 이전의 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1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움.

‘어원 사전’인가 ‘어휘 역사 사전’인가

- 한편, 2차년도부터 진행될 한자어 역시 ‘어원’을 기술하는 것이 무척 어려움.
- 가령, ‘보살(菩薩)’이라는 한자어의 어원을 기술한다면, 어느 시대부터 기술할 것인가?
- 이 단어의 산스크리트어 어형이 무엇인지는 기술할 수 있음.
- 그런데 중국에서 어느 시대에 번역되었고, 최초 출현형은 언제 나타나는지, 언제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한국에서의 최초 출현형은 어떤 문헌에서 나타나는지 등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 따라서, 현재는 어떠한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쓰임을 보였으며, 의미/형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초점을 두어 ‘어휘 역사’에 대한 기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 I. 《우리말샘》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 추출
- II. 기타 항목 추가
- III. 어원 논저
- IV. 사용 빈도 고려
- V. 어원 집필 후보 목록 정리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I. 《우리말샘》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 추출

1. 《우리말샘》에서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가 있는 표제어 목록을 추출.
2. 중복 집필 정보(다의어)는 풀이 하나만 남기고 제거.
3. 의미/형태 기준의 어휘 역사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간 일부 항목 제거.

구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

「방언」

'015, '굴레'의 방언(경북, 중국 흑룡강성).

역사 정보

설명

15세기 초 자료인 《조선관역어》에는 '방언 主音 屈梁'로 표기되어 있다.

이형태/이표기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II. 기타 추가 항목

1. 근대어 중심으로 어원 정보 제시가 필요하다고 선별한 단어
2. 집필자/감수자가 집필하겠다고 요청한 단어
3. 한중연 사업 결과물인 신어db에서 자료 추가

III. 어원 논저

1. 자료팀에서 정리한 어원 사전 목록
2. 《표준국어대사전》 사업의 어원 논저 요약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IV. 사용 빈도 고려

- 기준: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2005)
- 일반 어휘 통계
빈도순으로 10,142개(빈도 30회 이상)

순위	빈도	어휘 / 품사 / 품사	순위	빈도	어휘 / 품사 / 품사	순위	빈도	어휘 / 품사 / 품사
1171	1	가(가)	1172	1	가(가)	1173	1	가(가)
1174	1	가(가)	1175	1	가(가)	1176	1	가(가)
1177	1	가(가)	1178	1	가(가)	1179	1	가(가)
1180	1	가(가)	1181	1	가(가)	1182	1	가(가)
1183	1	가(가)	1184	1	가(가)	1185	1	가(가)
1186	1	가(가)	1187	1	가(가)	1188	1	가(가)
1189	1	가(가)	1190	1	가(가)	1191	1	가(가)
1192	1	가(가)	1193	1	가(가)	1194	1	가(가)
1195	1	가(가)	1196	1	가(가)	1197	1	가(가)
1198	1	가(가)	1199	1	가(가)	1200	1	가(가)
1201	1	가(가)	1202	1	가(가)	1203	1	가(가)
1204	1	가(가)	1205	1	가(가)	1206	1	가(가)
1207	1	가(가)	1208	1	가(가)	1209	1	가(가)
1210	1	가(가)	1211	1	가(가)	1212	1	가(가)
1213	1	가(가)	1214	1	가(가)	1215	1	가(가)
1216	1	가(가)	1217	1	가(가)	1218	1	가(가)
1219	1	가(가)	1220	1	가(가)	1221	1	가(가)
1222	1	가(가)	1223	1	가(가)	1224	1	가(가)
1225	1	가(가)	1226	1	가(가)	1227	1	가(가)
1228	1	가(가)	1229	1	가(가)	1230	1	가(가)
1231	1	가(가)	1232	1	가(가)	1233	1	가(가)
1234	1	가(가)	1235	1	가(가)	1236	1	가(가)
1237	1	가(가)	1238	1	가(가)	1239	1	가(가)
1240	1	가(가)	1241	1	가(가)	1242	1	가(가)
1243	1	가(가)	1244	1	가(가)	1245	1	가(가)
1246	1	가(가)	1247	1	가(가)	1248	1	가(가)
1249	1	가(가)	1250	1	가(가)	1251	1	가(가)
1252	1	가(가)	1253	1	가(가)	1254	1	가(가)
1255	1	가(가)	1256	1	가(가)	1257	1	가(가)
1258	1	가(가)	1259	1	가(가)	1260	1	가(가)
1261	1	가(가)	1262	1	가(가)	1263	1	가(가)
1264	1	가(가)	1265	1	가(가)	1266	1	가(가)
1267	1	가(가)	1268	1	가(가)	1269	1	가(가)
1270	1	가(가)	1271	1	가(가)	1272	1	가(가)
1273	1	가(가)	1274	1	가(가)	1275	1	가(가)
1276	1	가(가)	1277	1	가(가)	1278	1	가(가)
1279	1	가(가)	1280	1	가(가)	1281	1	가(가)
1282	1	가(가)	1283	1	가(가)	1284	1	가(가)
1285	1	가(가)	1286	1	가(가)	1287	1	가(가)
1288	1	가(가)	1289	1	가(가)	1290	1	가(가)
1291	1	가(가)	1292	1	가(가)	1293	1	가(가)
1294	1	가(가)	1295	1	가(가)	1296	1	가(가)
1297	1	가(가)	1298	1	가(가)	1299	1	가(가)
1300	1	가(가)	1301	1	가(가)	1302	1	가(가)
1303	1	가(가)	1304	1	가(가)	1305	1	가(가)
1306	1	가(가)	1307	1	가(가)	1308	1	가(가)
1309	1	가(가)	1310	1	가(가)	1311	1	가(가)
1312	1	가(가)	1313	1	가(가)	1314	1	가(가)
1315	1	가(가)	1316	1	가(가)	1317	1	가(가)
1318	1	가(가)	1319	1	가(가)	1320	1	가(가)
1321	1	가(가)	1322	1	가(가)	1323	1	가(가)
1324	1	가(가)	1325	1	가(가)	1326	1	가(가)
1327	1	가(가)	1328	1	가(가)	1329	1	가(가)
1330	1	가(가)	1331	1	가(가)	1332	1	가(가)
1333	1	가(가)	1334	1	가(가)	1335	1	가(가)
1336	1	가(가)	1337	1	가(가)	1338	1	가(가)
1339	1	가(가)	1340	1	가(가)	1341	1	가(가)
1342	1	가(가)	1343	1	가(가)	1344	1	가(가)
1345	1	가(가)	1346	1	가(가)	1347	1	가(가)
1348	1	가(가)	1349	1	가(가)	1350	1	가(가)
1351	1	가(가)	1352	1	가(가)	1353	1	가(가)
1354	1	가(가)	1355	1	가(가)	1356	1	가(가)
1357	1	가(가)	1358	1	가(가)	1359	1	가(가)
1360	1	가(가)	1361	1	가(가)	1362	1	가(가)
1363	1	가(가)	1364	1	가(가)	1365	1	가(가)
1366	1	가(가)	1367	1	가(가)	1368	1	가(가)
1369	1	가(가)	1370	1	가(가)	1371	1	가(가)
1372	1	가(가)	1373	1	가(가)	1374	1	가(가)
1375	1	가(가)	1376	1	가(가)	1377	1	가(가)
1378	1	가(가)	1379	1	가(가)	1380	1	가(가)
1381	1	가(가)	1382	1	가(가)	1383	1	가(가)
1384	1	가(가)	1385	1	가(가)	1386	1	가(가)
1387	1	가(가)	1388	1	가(가)	1389	1	가(가)
1390	1	가(가)	1391	1	가(가)	1392	1	가(가)
1393	1	가(가)	1394	1	가(가)	1395	1	가(가)
1396	1	가(가)	1397	1	가(가)	1398	1	가(가)
1399	1	가(가)	1400	1	가(가)	1401	1	가(가)
1402	1	가(가)	1403	1	가(가)	1404	1	가(가)
1405	1	가(가)	1406	1	가(가)	1407	1	가(가)
1408	1	가(가)	1409	1	가(가)	1410	1	가(가)
1411	1	가(가)	1412	1	가(가)	1413	1	가(가)
1414	1	가(가)	1415	1	가(가)	1416	1	가(가)
1417	1	가(가)	1418	1	가(가)	1419	1	가(가)
1420	1	가(가)	1421	1	가(가)	1422	1	가(가)
1423	1	가(가)	1424	1	가(가)	1425	1	가(가)
1426	1	가(가)	1427	1	가(가)	1428	1	가(가)
1429	1	가(가)	1430	1	가(가)	1431	1	가(가)
1432	1	가(가)	1433	1	가(가)	1434	1	가(가)
1435	1	가(가)	1436	1	가(가)	1437	1	가(가)
1438	1	가(가)	1439	1	가(가)	1440	1	가(가)
1441	1	가(가)	1442	1	가(가)	1443	1	가(가)
1444	1	가(가)	1445	1	가(가)	1446	1	가(가)
1447	1	가(가)	1448	1	가(가)	1449	1	가(가)
1450	1	가(가)	1451	1	가(가)	1452	1	가(가)
1453	1	가(가)	1454	1	가(가)	1455	1	가(가)
1456	1	가(가)	1457	1	가(가)	1458	1	가(가)
1459	1	가(가)	1460	1	가(가)	1461	1	가(가)
1462	1	가(가)	1463	1	가(가)	1464	1	가(가)
1465	1	가(가)	1466	1	가(가)	1467	1	가(가)
1468	1	가(가)	1469	1	가(가)	1470	1	가(가)
1471	1	가(가)	1472	1	가(가)	1473	1	가(가)
1474	1	가(가)	1475	1	가(가)	1476	1	가(가)
1477	1	가(가)	1478	1	가(가)	1479	1	가(가)
1480	1	가(가)	1481	1	가(가)	1482	1	가(가)
1483	1	가(가)	1484	1	가(가)	1485	1	가(가)
1486	1	가(가)	1487	1	가(가)	1488	1	가(가)
1489	1	가(가)	1490	1	가(가)	1491	1	가(가)
1492	1	가(가)	1493	1	가(가)	1494	1	가(가)
1495	1	가(가)	1496	1	가(가)	1497	1	가(가)
1498	1	가(가)	1499	1	가(가)	1500	1	가(가)

3. 일반 어휘 통계 : 35 ▶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V. 어원 집필 후보 목록 정리

1.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처리

- 다의어는 하나의 항목으로 집필(동음이의어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견 접수)
- 동음이의어에 대한 집필이 필요할 경우에 집필자가 직접 추가 집필.

어형 검색을 통한 용례 확인 과정에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음.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V. 어원 집필 후보 목록 정리

2.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면서 후보가 될 수 없는 항목은 제외

- 〈출처〉가 [역사정보]이거나 [어원정보]인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도 제외하지 않음.
- 《우리말샘》 표제어와 비교
 - 일본어에서 온 말, 속담 등이어서 우리말샘에 없는 것은 제외.
 - 잘못된 검색용 어휘는 수정.
 - 《우리말샘》에 있고 집필 후보인데 최종적으로 어원 집필 후보로 부적절한 것은 제외.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V. 어원 집필 후보 목록 정리

3. 집필 후보가 되지 못할 아래와 같은 표제어들은 일일이 확인하면서 삭제

- 전문성이 강한 표제어
- 1945년 이전에 쓰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
- 《우리말샘》에 표준어로 오르지 않은 표제어(옛말, 방언, 오표기 등)
- 접사나 어미인 표제어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

V. 어원 집필 후보 목록 정리

4. 일부 항목들은 일괄 조정

- ‘-뜨리다’, ‘-트리다’는 둘 다 있는 경우 ‘-트리다’만 대상으로 삼았음.
- ‘-뜨리다’만 있는 경우에는 ‘검색용 어휘’를 ‘-트리다’로 수정했음.
- ‘X-디-X다’ 형용사는 모두 제외.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세기별 용례 제시에 관한 문제

1. 자료의 성격 문제

- 중간본에서 초간본의 어형을 대체로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음.
- 당대 표기 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되기도 하는데

(예) △ → ○: 동오도다 → 동오도다, 앞이 → 양이 《두시언해》 중간본

이들 문헌에 보이는 것을 중간본 간행 시기의 어형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초간본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중간본에서의 용례는 세기별 형태로 제시하지 않기로.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세기별 용례 제시에 관한 문제

2. 말뭉치 범위 밖의 어형

- 가능한 한 많은 문헌을 확보해 구축한 말뭉치를 토대로 어형 변화를 기술하고자 함.
-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에서 취해야 할 어형 정보, 용례 등이 있음.

(예) 이번 사업의 말뭉치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성통해》에 ‘골아마귀’ 형태가 등장함.

역사 정보

골가마귀(16세기~17세기) > 갈가마귀(18세기~20세기) > 갈까마귀(20세기~현재)

(참고) 현재 《우리말샘》에 제시된 ‘갈-까마귀’의 역사 정보

→ 집필기의 표제어별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추후의 검토 및 보완하기로 함.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활용형의 줄어든 말: '그러나, 그러면' 등 사례

• 활용형의 줄어든 말: '그러나, 그러면' 등 사례

- 우리말샘에서는 부사 '그러면'과 용언 활용형의 줄어든 말인 '그러면'을 다의어로 처리.

그러-면 [그러면 ㄹ]

- **그러-면** 「001」 「부사」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 **그러-면** 「002」 「부사」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
- **그러-면** 「003」 '그리하면'이 줄어든 말.
- **그러-면** 「004」 '그러하면'이 줄어든 말.

- 각 용법의 분리 기술, 또는 한 기술 내에서의 아우르는 기술이 문제시됨.

집필의 실제 및 집필 과정에서의 문의 사례

활용형의 줄어든 말: '그러나, 그러면' 등 사례

- 한 항목에 대한 기술 내에 부사 '그러면', '그리하다'의 활용형, '그러하다'의 활용형의 어휘 역사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줄어든 말로서의 용법에 대한 집필은 본딧말 집필과 충돌 또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다음 23개 항목은 《표준》에서 부사로도, 용언 활용형의 준말로도 등재됨.

게다가,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저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럼1, 금세1, 아무래도, 아무튼지, 어쨌든지, 어쨌건, 어쨌든, 어쨌든지, 어쩌다2, 어쩌다가, 어쩌면, 여하-튼(如何튼), 여하-튼지(如何튼지), 이러나-저러나

- 줄어든 말로서의 용법은 기술에서 제외하도록 함.

감사합니다

‘국어 어원 사전의 집필과 감수’에 대한 토론문

이지영(서강대학교)

두 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국어 어원 사전은 2023년 3월에 시작하여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뭉치나 집필 지침 등 사전 집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보완되고 있고, 집필 및 감수도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들의 발표를 통해 사업 진행의 전체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토론의 책임을 맡은 제 입장인데요. 현재 세부적인 것을 다듬어 가면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사전 집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필 지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발표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 할지 조금은 난감한 점도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사업 진행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덧붙일 것은 없을 듯하고,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을 좀 보탬 수 있는 부분은 쟁점 제시라고 하여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것뿐일 듯합니다.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순서에 따라 조금씩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쟁점은 현재 집필하고 있는 사전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어원사전” 인지, “어휘 역사 사전” 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텐데요. 현재 사업 진행 계획이나 이행 과정,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 사업의 결과물은 “어휘 역사 사전” 인 셈입니다. 사전의 기술(혹은 설명) 범위(혹은 전문성의 정도)를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쟁점은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의 선정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 주신 여러 말씀들은 쟁점이라기보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성격이 더 강한 듯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일관되게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쟁점은 실제 집필 과정에서 문의가 있었던 몇 가

지 사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료의 성격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본이 해당 시기의 어형보다는 초간본의 어형을 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간본과 중간본이 모두 있다면 중간본의 형태 및 용례는 세기별 형태 및 용례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원칙은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필 항목에 따라서는 특정 세기의 용례가 앞에서 언급하신 중간본 외에는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말뭉치 범위 밖의 어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집필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뭉치에 없는 자료의 경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추후 검토 및 보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집필자 분들이 사용하는 말뭉치와는 별도로 말뭉치 팀에서 말뭉치를 수정하고 자료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보완된 말뭉치가 2차년도 집필 작업에 사용된다면, 그때는 2차년도의 새로운 항목 집필을 하면서 동시에 1차년도에 작업한 4,000개의 집필 항목을 마치 처음 집필하는 것처럼 다시 수정 집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기별 용례를 추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표기 변화나 설명을 바꿔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소수의 인력이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러나, 그러면’ 등과 같은 활용형의 줄어든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줄어든 말로서의 용법은 기술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전에서 집필 대상이 되는 것은 (품사가 지정된) 어휘가 될 것이므로, ‘그러나, 그러면’ 및 사례로 드신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샘>의 의미 기술에서 “줄어든 말” 혹은 “준말” (발표문에 “용언 활용형의 준말”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줄어든 말”과 “준말”을 동등한 의미 기술 용어로 이해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시는 듯합니다.)로 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는 언급하신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말” 혹은 “준말”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성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우리말샘>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게’의 경우

게

게 「003」 「대명사」 ‘거기’의 준말 ㉠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게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오너라.

게 「004」 「대명사」 ‘거기’의 준말 ㉠ 지금 신촌에 가겠다니, 게가
어디라고 이렇게 늦은 밤에 너 혼자 간단 말이나?

게 「005」 「대명사」 ‘거기’의 준말 ㉠ 이 일에 대해서 게는 어떻게
생각해?

‘게’는 <우리말샘>에서 “준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품사가 지정되어 있
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하자면 ‘게’는 집필 대상이 아닐 수도 있
겠습니다만, 기초 어휘인 대명사이고 ‘거기’에서 ‘게’로 줄어든 과정은
어휘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터이므로 가능하다면 집필 대상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게’에 대한 역사 정보와 용례를 ‘거기’ 항목에
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 정보 집필 내용은 현재의 형태인 ‘거기’에 초점을
두어 수립되는 방식으로 기술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게’의 용례와
설명을 보탠다는 것은 그리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2) ‘내’의 경우

나 「003」 「대명사」 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
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
사 ‘가’가 붙으면 ‘내’가 된다. ㉠ 나의 소망. / 나는 학생이다.

내 「004」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을 때의 형태. ㉠ 내가 살던 집. / 범인은 내가 아니다.

내 「015」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 ㉠ 내 것

‘내 015’는 “줄어든 말”로 되어 있고 품사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015’의 의미 기술은 공시적 정보(현재의 용법)의 성격보다는 통시적 정보(현재의 형태와 용법을 가지게 된 과정)의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말샘>의 사전 기술이 적절한 것인가는 차치하더라도, “줄어든 말”로 기술된 ‘내 015’는 어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집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듯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원칙대로라면 배제되었지만요. 그러나 ‘내 015’에 관한 역사 정보를 ‘나 003’ 혹은 ‘내 004’에 포함시켜 설명하게 된다면, 역사 정보 기술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보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 003’이나 ‘내 004’의 공시적 의미 기술에는 관형격 조사와 결합한 형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내 015’에 대한 역사 정보를 이들 항목에서 기술하려 한다면, ‘나 004’나 ‘내 004’의 공시적 의미 기술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역사 정보로 제시되는 내용들은 좀 매끄럽지 않게 기술되거나 설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말샘>의 조사 ‘게’에 대한 의미 기술에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용법을 가지는 인칭 대명사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명사로 명시된 ‘내 004’는 주격과 보격의 용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품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줄어든 말”인 ‘내 015’는 결국 관형격의 용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게’와 결합하여 부사격이 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셈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말샘>에서 “줄어든 말” 혹은 “준말”로 의미 기술되어 있는 항목들은 통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경우는 공시적인 사전 기술을 조정하고 어떤 경우는 통시적인 사전 기술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f. 게

게 「011」 「조사」 ((주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에 붙거나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너희’, ‘저희’, ‘우리’, ‘뉘’ 따위 뒤에도 붙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낸다. [예] 네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참] 에게

게 「012」 「조사」 ((주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에 붙거

나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너희’, ‘저희’, ‘우리’, ‘뉘’ 따위 뒤에도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을 내게 다오.

㉮ 에게

게 「013」 「조사」 ((주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에 붙거나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너희’, ‘저희’, ‘우리’, ‘뉘’ 따위 뒤에도 붙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왜 내가 네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 에게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원영(고려대학교), 김숙정(호남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와 방향
3.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대상
4.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5. 결론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 어원사전 편찬자에게 공신력 있는 참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어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 대상, 방법을 소개하는 데 있다.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사전, 논문, 저술서, 기사 등을 포괄하여 정보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어원 연구 성과를 사전 편찬 자료로서 전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여 이후 관련 연구와 사전 편찬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말 어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종종 특정 어휘의 어원이나 유래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이슈에 대해 신뢰도 높은 설명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수의 어원사전이 출간된 바 있으나 종이사전 이용자가 줄어든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우리말샘>에는 5천 항목의 어휘 역사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규모가 적다.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사 전공자들이 국어 어원사전 편

찬을 시작하게 되었다. 편찬의 기초를 닦는 데에는 집필 지침을 작성하고 시범 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원사전 집필자를 위한 기반 자료 조성 또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어원사전 집필자 개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리말 어원을 기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 어원에 대한 선학들의 성과, 즉 사전이나 논저 등 여러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¹⁾ 특히 어휘의 유래 속에는 언어 정보 외 다양한 언어 외적 정보가 녹아 있기 때문에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음악사, 복식사, 건축사, 음식사, 과학사 등 다양한 분과 학문의 어원 논의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집필자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원 정보 참조 데이터베이스이다. 어원 관련 사전과 논저의 핵심 정보를 집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말 어원에 대한 기술은 정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²⁾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2.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와 방향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편찬 자료로서 각종 자료를 수집,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현경·남길임(2009:16~17)에서는 사전 원고 기술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지원 도구 개발을 사전 편찬의 세 단계 중 제1단계로 보았다. 국어 어원사전의 경우 대규모의 연구진이 수년간 참여하여 공동

1) 국어 어원사전을 편찬하려면 우리말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자료를 한데 모아 검색할 수 있도록 국어사 말뭉치도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경준·허인영(2019) 참조.

2) 이용(2021: 31-41)에서는 『한글문화지식사전』 편찬 사업을 소개하면서 다수의 집필자가 참여하더라도 결과물의 집필 수준 및 내용의 일관성, 통일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통일성’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집필자들의 차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상세한 지침과 다수의 감수도 중요하지만, 참조 자료의 공유도 필수적이다. 참조 데이터베이스는 첫 집필자뿐만 아니라 감수자, 교열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집필자가 자료의 이해 및 정리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었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집필한 것인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집필하는 편찬 프로젝트이니만큼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어원사전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주요 자료의 최대 수집을 목표로 한다.

개인이 편찬하는 사전이라면 편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하고 내용에 반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사전 편찬 시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연구진이 참여하는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각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전 집필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사전 전체의 균형성에도 문제가 된다.³⁾ 무엇보다 어원과 관련된 타 분야의 연구 성과까지 충실히 참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원사전의 집필에 도움이 되는 사전,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단행본, 나아가 기사문을⁴⁾ 자료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련성이 높은 어휘 데이터베이스도 수집 범위에 둔다.⁵⁾

둘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정한다.

어원사전의 참조 자료는 사전, 논문, 단행본, 나아가 신문과 잡지의 기사 등도 포함된다. 각 텍스트의 성격이 상이한바,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집필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각 자료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되, 미시 항목을 통일시킨다. 단, 자료의 특징을 보여야 하는 항목도 포함하되, 무관한 자료의 경우 공백으로 남기는 방식을 택한다.

셋째, 어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명하게 보이도록 한다.

어원을 다룬 논문이나 저술서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제시하는 것만

3) 김무림(2019:68, 79)에서는 전문적인 어원사전의 경우 어원론의 심도를 높이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필자에게 학계에서 논의된 성과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잡지의 경우 학술적 성격을 띤 매체가 상당하여 이를 포함해야 한다.

5) 단, 저작권자 승인을 받은 자료를 넣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으로는 집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일이 관련 논저를 찾아 읽지 않고도 필자가 언급한 어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어와 요약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를 확인한 필자가 해당 논문이나 저술서를 직접 확인할 것일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활용 편의성을 도모한 검색기를 개발한다.

어원 관련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으로는 대규모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확인하기 어렵다. 이미 국어사전 편찬 팀들은 각기 기존의 자원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통합사전 검색기를 개선하여 사전 및 논저 정보도 다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⁶⁾

3.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대상

앞서 언급한 어원사전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묶을 수 있다. 바로 어원사전 데이터베이스와 어원 관련 학술 논저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장에서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상과 수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기출간 어원사전 데이터베이스

기출간 어원사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어원사전의 모든 내용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떠올릴 것이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일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는 출판물의 형식과 저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어원사전은 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므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6) 기존의 통합사전검색기(일명 쟁구사전)와 말뭉치 검색기인 깜짝새(SynKDP)를 통합하여 개발하고 있다.

사전의 미시 구조를 통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배치해야 한다. 각 사전을 별개의 파일로 만들면 미시 구조의 통일 과정이 필요 없으나, 매번 각 자료를 따로 검색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는 낮아진다. 각 사전의 미시 구조를 분석하여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제어 하나하나의 집필 내용을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이 이상적이지만 어원사전 편찬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각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목록의 대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제어의 수록 여부를 한 권 한 권 확인하는 소모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출간된 어원사전은 20여 종이 넘는다. 이 중 대국민 어원사전의 편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원사전 10종을 선택하여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0종의 목록은 국어 어원사전의 집필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의견을 수집하고 어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어원사전 목록

- (1)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2)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상, 하, 박이정.
- (3)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 (4)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5)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6)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본(2004).
- (7)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 (8) 조항범(2022),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9) 홍운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 (10) 김무림(2015),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이 외에 <우리말샘>에 수록된 어휘 역사 정보 역시 수집의 대상이 될 만하다. 우리말샘에는 4,700여 개의 표제어에 어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밀하고 상세한 형태 변화 과정 설명과 풍부한 용례, 정확한 출전 정보가 담겨 있어 가치가 있다. 다만 이미 웹 검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3.2.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그 첫 번째 단계, 즉 연구 목록을 검색하여 수합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한 참조 자료이다. 또한 집필자가 표제어 집필에 필요한 논문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논저에 수록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집필 수준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어원 관련 논저의 목록은 논문 제목 및 주제어를 검색하여 1차 수집을 하였다. 검색어의 목록은 ‘고어, 어원, 어형 변화, 어휘 변화, 의미 변화, 형태 변화, 어휘사, 우리말의 역사, 유래, 재구형, 최초 출현형, 최초형 등’이다. 수집된 논문 목록을 바탕으로 각 논문의 참고문헌과 인용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여 1차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목록을 보완하였다. 인용 논문 목록은 학술지 인용 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을 활용하였다.

인용 알림
관심 논문 등록

‘돼지’의 語彙史

A Family History of the Korean Word ‘돼지(a Pig)’

한국어 의미학
 2002, vol.11, pp. 13-38 (26 pages)
 UCI : G704-001001.2002.11..002 ⓘ
 발행기관 : 한국어의미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 한국어와문학

조형범 /Cho, Hang-bum¹
¹충북대학교

피인용 횟수

KCI	9회
FWCI	(2023-07-26 기준) 1.52 ▼
173 회 열람	
KCI 원문 미리보기 ⓘ	

7) 그 외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은 관련 사전 DB도 확보하여 검색기에 탑재하였다.

KCI에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는 9건입니다. ▲

1. 꽃 이름의 통시적 고찰	장충덕 2009.11 언어학 연구 (15) 185 ~ 201	피인용횟수: 2
2. '아기'의 語源에 대한 再考察	조재형 2009.12 국제어문 (47) 99 ~ 127	피인용횟수: 5
3. '이어괴, 그어괴, 더어괴'에 대한 考察	조재형 2010.03 어문연구(語文研究) (38 (1)) 103 ~ 129	피인용횟수: 11
4. 構造的 相關性으로 본 雙花店	여강석 2010.12 고전문학연구 (38) 241 ~ 278	피인용횟수: 8
5. 어휘 연구와 방언의 역할	장충덕 2012.12 방언학 (16) 75 ~ 98	피인용횟수: 2

[그림1] 학술지 인용 색인 검색 및 피인용 횟수 검색 사례

현재까지 확보된 수집 대상 규모는 학술 논문 약 2,600여 건,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10종에서 누락된 사전을 포함한 단행본 700여 건, 학위논문 80여 건이다(총 3,380여 건).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각 자료를 실제로 확인하고 읽으면서 구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목록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락 목록이 보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목록이 제외되고 있다. 최종 목록은 위의 수치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기초 자료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3년 6월부터 9월 현재 작업을 기준으로 논문 한 편당 평균 15개 정도의 표제어가 추출되었다. 논문을 읽고 표제어를 추출한 뒤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숙달된 작업자도 1시간에 1편 정도 작성한다. 이에 집필 팀의 표제어 목록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방언 어휘, 고유 명사 등의 목록을 나열한 논문의 경우 구축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4.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앞서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자료로서 '기출간 어원사전 10종의 표

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와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필요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기출간 어원사전, 어원 관련 논저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은 각 사전 단위로 최소한의 일관성이 보장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구축하기에 적합하였다. 특히 어원사전 표제어 선정의 주요 자료여서 신속하게 완료해야 했다. 이에 다양한 구조의 어원사전 10종을 하나로 수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뒤 해당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에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두 데이터베이스에는 동일한 미시 구조를 적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료의 활용성'이다. 구축된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번의 검색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과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구축하였으나,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시 구조를 일치시킨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수의 작업자에 의해 진행되는 공동 작업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지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이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지침 역시 실제 작업 과정에서 보완되어 버전을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작업자 전체 회의를 열어, 작업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공유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미시 항목은 최종적으로 '표제어, 검색형, 원어, 내용, 관련어, 출처, 주제어, 비고'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현재 작성된 지침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1) 표제어

표제어는 각 사전의 표제어와 논문의 주요 대상이 되는 표현형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표제어 항목에는 사전 및 논저의 등재형을 그대로 적는다.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뿐만 아니라 숫자 및 알파벳, 기호 표기 등도 그대로 적는다.

안옥규(1989) 표제어형	<우리말샘> 표제어형
예수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3.8 국제부녀절	국제부녀절, 삼팔국제부녀절, ⁸⁾ 국제 여성의 날
《샤만》호	제너럴서먼호

[표1] 안옥규(1989)와 <우리말샘> 표제어형 대조

예를 들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안옥규(1989)에는 위와 같이 ‘예수 크리스트, 3.8 국제부녀절, 《샤만》호’ 등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우리말샘>에는 표 오른쪽 열에 제시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우리말샘>에서는 2017년 수정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 표제어의 형태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표제어에 한글 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제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전의 등재형을 그대로 적도록 하였다. 표제어형을 수정할 경우 해당 사전이나 논저를 실물로 확인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둘 이상의 표제어형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행으로 분리하고, 분리 기록을 별도의 항목(비고)에 기록하였다. 또한 각 사전이나 논저에서 부여한 동형어 구분 번호는 삭제하였다.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는 표제어의 선정부터가 문제가 된다. 논저의 주요 어휘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어휘 추출 범위를 ‘제목, 초록, 키워드, 서론, 결론, 논문 내에서 표 등으로 별도 처리된 목록’으로 제한하였다.

2) 검색형

검색형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항목이다. 하나의 어휘소가 취할 수 있는, 즉 사전 및 논저에 수록될 수 있는 표제어형은 다양하다. 구결 표기형, 한자 표기형, 한글 표기형, 중세, 근

8) ‘국제부녀절’과 ‘삼팔국제부녀절’은 ‘‘국제 여성의 날’의 북한어. ‘로 수록되어 있다.

대, 현대 국어형, 규범의 적용 및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권의 사전 내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두어 표제어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본 작업은 다양한 사전과 논저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한 모든 형식의 표제어가 수록될 수밖에 없다. 이에 표제어와 별개로 검색을 위한 형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전의 표제어형을 정렬하면 동일 형태의 표제어가 상당히 발견된다. 이때 검색형을 부여하여 각각의 형태가 동형어인지, 동일한 단어인지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번호는 <우리말샘>의 의미 구분 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의 검색형에는 출전정보를 붙였다.

또한 동일한 표제어가 표기의 차이로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기 기호를 한글로 통일하고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을 모두 표준어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띄어쓰기 및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사어가 되어 대응되는 한글 표기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나 연구자들 간에 독법이 통일되지 않은 차자 표기 등은 표제어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형에 넣었다. 이러한 표제어형은 기출간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침에만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표제어	검색형	내용	출처
가래	가래004		김무림(2020), 한국어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가래	가래004	【명】 흙을 파헤치는 농사 도구. [어원 √갈-[耕]+애[접사]. ※ '가래'는 경작(耕作)을 의미하는 '(논밭을) 갈다'에서 직접 파생된 말이지만, 이 '갈다'는 본래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루'와도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 민간 幹兒(東言攷略 45: 搗을 '갈아'라 흙은 幹兒 니, 木幹으로써 長柄을 혼 者 니 라.)]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4		백문식(2014), 우리말어원사전, 박이정.
가래	가래004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가래	가래006	【명】 가랫과의 여러해살이 풀. [어원 미상. 변화 ㄱ. 래훈해:25] > 가래]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8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가래	가래008	허파에서 후두에 이르는 사이에서 생기는 끈끈한 분비물. 잿빛 흰색 또는 누런 녹색의 차진 풀갈이 생겼으며 기침 따위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다.	염광호(2021), 우리말어원산책, 역락.
가래	가래-서정범(2018)	삿대. 서까래, 넝가래의 가래와 같음. 어근 '갈'은 나무를 뜻함.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표2]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3) 원어

원어는 표제어의 어종을 밝히는 항목이다. 각 사전이나 논저에 제시되어 있는 어원 정보를 우선 제시하되, 누락되어 있는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하였다.

표제어	검색형	원어
가야	가야001	伽倻/伽耶/加耶
가히	가히003	可히
각저	각저002	角抵
갈범	갈범	葛범
깁-깁	깁깁	←kinkan[金柑]
부다가야	부다가야	Buddha-Gayā
쓰레빠	슬리퍼001	▼←surippa
카:-스테레오	카스테레오	▼car stereo
코리안 드림	코리안드림-이근화(2009)	Korean dream

[표3]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어원 항목 일부

4) 내용

내용은 표제어에 대한 사전 및 논저의 기술 내용을 요약하는 항목이다.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의 경우에는 기술 내용 전체를 등록할 수 있으나,⁹⁾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약·윤문하여 등록하였다. 논저의 경우 내용 항목을 필수적으로 채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전의 경우 <우리말샘> 미등록 표제어, 즉 검색형의 동형어 구분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내용 항목을 채우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표제어가 수록된 김민수 외(1997)는 사전 내용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9종의 경우 집필자가 직접 사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전 및 논저의 기술 내용이 워낙 다양하여 내용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내용을 요약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는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9) 앞서 언급한 10종의 사전에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료는 김민수 외(1997)가 유일하다.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구축의 과정이나 방식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논저에서 추출된 표제어 중에는 논저 내에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는 해당 논문이 표제어의 어원사전 집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안내하는 메타 정보를 수록하도록 하였다.

표제어	내용	출처
견독병	『외과총론』(1910)에서 '공수병, 광견병'을 이르는 말.	송미영(2020), '제증원 한글 의학 교과서에 나타난 전염병 관련 어휘에 대한 고찰',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33-263.
곶	곶창이처럼 뽕족하게 생긴 물건', '바다, 강,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 등의 의미. 이 중에 '곶창이'가 그 원의(原義)이다. 원의로서의 '곶'이 '곶'으로 이어졌으나 근대국어 이후 등장한 '곶치(>곶치)', 곶창이(>곶창이)' 등에 밀려나 사라졌다. 현대국어의 '곶'에는 '바다, 강,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이라는 의미만 남아 있다.	조항범(2012), '곶[串]' 계열 어휘의 形成과 意味에 대하여, "국어학" 63, 국어학회, 37~71.
도포	남자용 상의, 조정아(2014)는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에 나타난 복식명을 보이고, 이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살핌.	조정아(2014),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에 나타난 복식명 연구",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136-166.

[표4]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

5) 관련어

관련어는 표제어에 대해 사전 및 논저에서 제시한 관련 어휘나 표현을 수록하는 항목이다. 사전의 경우 관련어로 구분해 놓은 어휘나 표현을 수록하였고, 논저의 경우 주요 표현을 설명할 때 함께 언급된 것들을 제시한다. 사전이나 논저에 제시된 형태를 그대로 등록하였다. 관련어는 상당히 넓고 모호한 범주이므로 작업 초기에 가장 많은 질문이 제기된 항목이었다. 이에 저자가 관련어로 제시한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가 관련어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어휘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큰 노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본의 의도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피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어에는 동형어 번호를 넣지 않았다.

표제어	검색형	관련어
괘종시계	괘종시계	괘종, 괘시계, 벽시계
부짓대	부지깽이	(불)-짚다
지저귀다	지저귀다	(소리)지르다, 지껄이다
호열자	콜레라	괴질, 아세아호열즈, 칼러라, 아세아괴질, 룬질, 곽관, 쥐통, 쥐병, 호역, 회통

[표5]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6) 출처

출처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밝히는 항목이다. 데이터베이스 수집 대상이 다양하므로 해당 표제어와 그에 따르는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적어 두어야 한다. 서지 정보의 형식을 통일하도록 안내하였다.

7) 주제어

주제어는 최근 학술 논문에 제시된 논문의 키워드, 핵심어, 주제어 등을 수록하는 항목이다.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설정되지 않았으나,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추가하였다. 관련어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정보의 성격이 달라 구분하였다.

표제어	관련어	주제어
결핵	결핵병	전염병, 두창(痘瘡), 콜레라, 『병리통론』(1907), 『외과총론』(1910)
남치마	갈미치마	언간,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물명, 복식명, 어휘 관계, 어휘 변화
왕솔나무	곰솔	어원, 유래, 이름, 기원형, 의미, 어휘사

[표6]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

8) 비고

비고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이다. 처리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해결 뒤

비고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였다.

표제어	원어	검색형	내용	관련어	키워드	논저
가야	伽倻/伽耶/加耶	가야001	가야(Gaya)의 명칭은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가야' 이전에 '구야'(Guya, 狗耶)의 용례가 보이고 있다. '구야'는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 서기 297년 편찬)에 최초의 사용례가 보이고 있다. 아무튼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가야'는 대개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해서 명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부다(보드)가야의 내포를 둘러싼 그 외연과 계승으로 자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산명과 지명 등에서 확인되는 '가야'라는 명칭도 당시 사람들이 부다(보드)가야를 해당 지역에 재현하거나 계승하기 위해 명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야	가야, 부다가야, 가야사, 가야불교, 십육 나한, 일곱 성인, 대왕사, 왕후사	고영섭(2017), "가야(Gaya) 명칭의 어원(語源)과 가야불교의 시원(始原)", "한국불교사연구" 12,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4-48.
가히	可訶	가히003	어루/어로'는 훈민정음 초기부터 활발히 쓰이다가 번역소학에서부터 유의어 '가히'로 서서히 자리 바꿈을 하고 있다.	어루	어휘사, 분가적 발달, 본래부사, 합성부사, 상정부사	이승명(2002), '중·근세 국어 부사 어휘의 변천',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123-156.
각저	角抵	각저002	고대 중국의 원시시대부터 진한삼국시대에 분포한 격투무예의 어원과 기원을 분석함. "수박, 상박, 각저"는 특정 무예의 이름이 아니라 "싸움기술"의 의미를 갖는 일반명사로 쓰였음. 진한삼국시대에 "각저"는 "상저축(相抵觸), 각력(角力), 각기예(角技藝)"로도 부르기 포함.	상저축(相抵觸), 각력(角力), 각기예(角技藝), 각저(角抵), 각력희(角力戲), 각저희(角抵戲)	격투무예, 수박(手搏), 상박(相搏, 相撲), 각저(角抵)	송일훈·김산(2008), '한·중·일 격투무예의 어원 및 기원에 관한 연구(2): 고대 중국의 원시시대부터 진한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19(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04-116.

[표기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예시]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축 대상과 처리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결과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2차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참조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준 높은 어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고, 실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향후 관련 연구자와 기관이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데이터베이스는 수정 및 보완이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그 활용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수집의 과정 및 지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훌륭한 사전 및 논저가 또 새롭게

축적되면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무림(2019), “국어 어원사전의 연구성과.”, 『국어사연구』28, 67-91쪽.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이용(2021), “『한글문화지식사전』의 편찬 현황과 과제.”, 37차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장경준 외(2018), 『국어 어휘 역사 사전 편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장경준·허인영(2019), “〈우리말샘〉의 어휘 역사 정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전학』33, 116-152쪽.

정유남·도원영·김숙정(2019), “국어어원사전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한국사전학』33, 153-181쪽.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토론문

봉미경(연세대학교)

본 발표문은 국어 어원사전 편찬자에게 참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어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 대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소개해 주신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사전, 논문, 저술서, 기사 등을 포괄하고 있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구축 방법과 세부적인 지침, 구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토론자로서 드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가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몇 가지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통합사전검색기와 말뭉치 검색기를 통합하고 해당 검색기에 새로 구축한 어원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새로운 통합사전검색기에 기존 통합사전검색기에 탑재되어 있던 국어사전들도 계속 탑재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만일 탑재될 예정이라면 해당 국어사전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논저의 기술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이 표제어의 어원 집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안내하는 메타 정보를 수록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원사전 집필에 필요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면 구축 내용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메타 정보를 수록하기로 한 것은 어떤 활용 가치를 염두에 두신 것이 궁금합니다. 사례를 보여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출간 어원사전, 어원에 대한 논저 등의 저자와 특정 표제어가 중복되는 일이 다수 발견될 것 같습니다. 동일 표제어가 동일 저자의 여러 논저에서 어원 설명과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출처만 다를 뿐 어원 설명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모두 중복하여 입력하게 되는지 궁

금합니다. 만일 중복 처리하실 예정이라면 출처 정보와는 별도로 저자 정보도 미시구조에 포함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처리로 해당 정보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자명만 검색하거나 소트할 수 있다면 동일 저자, 동일 표제어의 중복 등을 필터링할 수 있어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넷째, 새로운 통합사전검색기의 배포에 대해서도 덧붙여 여쭙고 싶습니다. 말뭉치 검색기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은데 어원사전 편찬자들에게만 제공되는지 이후 배포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김한별(서강대학교) · 정은영(대구가톨릭대학교)

차례

1. 도입
2. '미정비 말뭉치'의 목록 확정을 위한 선결 작업
3. '미정비 말뭉치'의 목록 확정 과정
4. '미정비 말뭉치' 목록 확정 결과

1. 도입

(1)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사 개관

□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와 그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과정	21세기 세종 계획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기타
시기	1994~1997년	1998~2007년	2014~2016, 2018년	개인이나 각 기관 에서 각자의 목적 에 따라 그에 부합 하는 형식의 말뭉 치를 구축
분량	600만 어절	1,165만 어절 (기존 자료 포함)	700만 어절	
비고		원시 말뭉치	• XML 형식으로 정제 • 연해 자료는 대응 한문 원문까지 포함	

(2) '미정비 말뭉치'의 개념과 대상

□ 용어의 개념 정의:

- '기(既)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기정비 말뭉치'):

① 국립국어원의 2014~2016년 및 2018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정비한 국어사 말뭉치와,

② 개별 연구자나 연구 집단이 그러한 형식을 준용하여 구축한 국어사 말뭉치.

* 위 ①의 “일정한 형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해본의 언해문과 한문 원문 간에 일대일 대응(병렬 말뭉치 형식)을 이루도록 한 것임.

- '미(未)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미정비 말뭉치'):

- 국립국어원의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해야 하는 국어사 말뭉치로서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따라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정비한 말뭉치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것은 '미정비 말뭉치'로 취급하기로 함.

☞ 언해본 중에서 '언해문-한문'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

2. '미정비 말뭉치'의 목록 확정을 위한 선결 작업

(1)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

<표 1> 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주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	가집二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	하	35,193
2	가집一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	하	24,582
3	감사별곡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18XX(作), 1931(筆寫)	하	512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 각본전집1	미상	20C	19XX	하	17,217
5	계우사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미상	19C	1890?(筆寫)	중	8,827
6	경세종	김필수	20C	1908	상	5,519
7	경허당가가가음석문의범	경허성우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375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	미상	16C	1577	제외	3,295
9	고대소설양산백전구활자본고소설전 집26권	미상	20C	19XX	상	12,510
10	고디초한전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 15권	미상	20C	1917	상	15,056
11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미상	20C	1917(刊行)	상	9,581
12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미상	20C	1917(刊行)	제외	9,669
13	관음경언해(관음경언해)	미상	15C	1485	상	1,818
14	광제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933
15	구의산	이해조	20C	1912	상	24,632
16	국문정리서울대규장각소장본	미상	19C	1897	상	1,229
17	국민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학부편집국 編	19C	1895	상	9,580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학부편집국 編	19C	1895	제외	9,562
19	권불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491
20	권왕가석문의범	東化竺典 /안진호 편	20C	19C 말(作), 1935(刊行)	상	3,396
21	권용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일권	미상	20C	1918(刊行)	중	21,113
22	권익중실기활자본고소설전집1권	미상	20C	1936(刊行)	중	11,040
23	귀일가한국불교가사전집	최취허 /이상보 편	20C	1912(作, 筆寫)	상	79
24	금강별곡명춘유고	박순우	20C?	1739(作),1969 ?(刊行)	하	955
25	금강취류활자본고소설전집1권	미상	20C	1915(刊行)	중	10,899
26	금방울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 집4	미상	20C	19XX	하	5,133
27	기념가한국불교가사전집	김정혜 /이상보 편	20C	1911(作), 1912(刊行)	상	146
28	김씨열행록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 권	미상	20C	19XX 전기(刊行)	중	4,401
29	김인향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38(刊行)	중	8,083
30	김진옥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18(刊行)	중	13,438
31	김학공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23(刊行)	중	9,570
32	김희경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22(刊行)	중	26,998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33	낙도가조선가요집성	나옹화상 /김태준	20C	1934	하	185
34	남강월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15(刊行)	중	10,563
35	녀장군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미상	20C	19XX	상	16,541
36	녀중호걸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미상	20C	19XX	상	25,965
37	당태종전경판2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20C	1921(印出)	하	6,719
38	대명성주현신개운년/大明聖主賢臣 開運傳	미상	19C?	18XX	제외	74,086
39	동각한매	현공렴	20C	1911	상	4,574
40	두견성	선우일 著 /이해조 閱	20C	1912	상	39,206
41	두시언해초간본3권	미상	15C	1481	제외	5,470
42	마상루	민준호	20C	1912	상	10,556
43	만인계	엠티워쓰 저; 최창선 역	20C	1912	상	10,874
44	망월가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 이상보 편	20C	20C 초(作), 1930(刊行)	상	39
45	명월정	박이양	20C	1912	상	14,951
46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9,031
47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9,419
48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7,439
49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154
50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8,681
51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429
52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5,434
53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5,869
54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401
55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306
56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058
57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294
58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066
59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7,214
60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617
61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10,981
62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11,051
63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8,218
64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6,681
65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30,841
66	명주보월빙(필사본)	미상	20C	19XX	중	28,509
67	목단화	김교제	20C	1911	상	17,929
68	몽환가석문의범	미상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56
69	몽환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XXXX(作), 1829/1889(筆 寫)	하	711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주정) 시기		주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70	민속극	전경옥역주	20C	채록: 1930(양주별 산대놀이) / 1975~1980(송파산대놀이) / 1936(봉산탈 춤) / 1943(강령탈 춤) / 19XX 전기(은율탈춤)/ 1956(서흥탈 놀이) / 19XX 전·중기(수영 야유) / 19XX 중기 이후(동래야유)/ 1958(통영오 광대) / 1960(고성오 광대) / 1975(가산오 광대) / 1928(진주오 광대) / 미상[1966 이전](통천가 면극) / 1959(하회별 신가면극) / 1960년대(꼭 두각시놀음)	하	65,742
71	박씨부인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25(刊行)	중	11,342
72	반씨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18(刊行)	중	5,620
73	발원문한국불교가사전집	혜연선사 /이상보 편저	20C	XXXX(作), 19XX(筆寫 또는 刊行)	하	314
74	배비장전웅고집전	정병욱	20C	19XX	하	7,919
75	백마강가17세기가사전집	황일호 /이상보	20C?	1625(作), XXXX(筆寫). 입력 대본: 황용주의 《昌原黃氏家 乘》(필사 시기 불확실).	하	242
76	백발가안진호편석문의범	미상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39
77	백학선전(경판24장본)경인고소설판 각본전집일	미상	19C	18XX	하	6,580
78	법문국한국불교가사전집	경허당 /이상보 편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704
79	법화일승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XXXX(作), XXXX(筆寫)	하	833
80	별회심곡석문의범	휴정/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928
81	비행선	김교제	20C	1912	상	17,320
82	사각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미상	20C	1927(刊行)	중	8,633
83	사체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편	20C	18XX(作), 1931(筆寫)	하	788
84	산양디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오권	미상	20C	1916	상	7,519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85	산천초목	이해조	20C	1912	상	10,674
86	삼생기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미상	20C	1922(刊行)	중	19,194
87	삼선기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미상	20C	1918(刊行)	중	14,329
88	삼설기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19C?	18XX	하	10,157
89	생륙신전활자본고소설전집5권	미상	20C	1929	상	5,985
90	서정별곡17C가사전집	박권/이상보 편	18C	1694(作), 1781(筆寫)	하	801
91	석존일대가한국불교가사전집	이응섭/이상 보편	20C	20C 전후(作), 1927(刊行)	상	3,953
92	선심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796
9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상	16C	1560	제외	1,257
94	성산명경	최병헌 著 /존로스 閱	20C	1911	상	12,059
95	성탄경축가석문의범	권상로/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2
96	설명산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30	상	16,106
97	소대성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 집1	미상	20C	19XX	하	4,806
98	소상강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	미상	20C	1912	상	6,194
99	소디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25	상	6,678
100	소운면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18	상	13,671
101	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미상	19C	1895	상	3,865
102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405
103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342
104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31,178
105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2,324
106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5,680
107	송뢰금	육정수	20C	1908	상	17,058
108	쇼학스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17	상	16,556
109	숙영낭주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5권	미상	20C	1915	상	5,618
110	숙영낭자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 전집2	미상	20C	19XX	하	4,572
111	숙향전(경판64장본)경인고소설판각 본전집4	미상	19C	1858	하	15,846
112	신년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102
113	신숙주부인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8 권	미상	20C	19XX	상	5,849
114	신약전서개화기국어자료집성10	박이정	20C	19XX	제외	67,110
115	신자전	조선광문회	20C	1915	상	15,201
116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강한영교주	20C	19XX	중	32,411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17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강한영교주	20C	19XX	중	30,808
118	신정심상소학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미상	19C	1896?	상	8,475
119	쌍옥적	이해조	20C	1911	상	15,753
120	아악부가집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1935(筆寫)	하	29,870
121	아악부가집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1935(筆寫)	하	33,723
122	악부上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25,338
123	악부上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37,807
124	악부下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46,876
125	악부下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36,947
126	악장가사한국고전총서(Ⅱ)	미상	19C?	XXXX(刊行), 1801~1834(補寫)	하	2,410
127	애닦은노래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 또는 그 이후(筆寫)	하	408
128	약산동대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미상	20C	1913	상	12,587
129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1,268
130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2,781
131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7,428
132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3,297
133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32,685
134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4,715
135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3,515
136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 전북대국문과영인본	미상	19C	18XX	제외	605
137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미상	20C	19XX	중	28,332
138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미상	20C	19XX	중	26,987
139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미상	20C	19XX	중	30,276
140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미상	20C	19XX	중	29,727
141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미상	20C	19XX	중	17,410
142	열반가석문의범	권상로/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85
143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16,830
144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16,274
145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25,088
146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31,747
147	옥호괴연	미상	20C	1912	상	8,049
148	웅고집전배비장전.웅고집전	정병욱	20C	19XX	하	2,889
149	완월루	미상	20C	1912	상	10,457
150	왕생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96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주정) 시기		주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미상	17C	1636	제외	680
152	원앙도	이해조	20C	1911	상	12,747
153	원적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289
154	월왕전(경판63장본)경인고소설판각 본전집이	미상	20C	1847~1885(刊行), 1921(印出)	하	13,074
155	월하가인	이해조	20C	1911	상	18,333
156	유충열전(완판86장본)경인고소설판 각본전집이	미상	20C	19XX	하	21,141
157	윤음	미상	18~19C	17XX~18XX	제외	15,807
158	응진경연해한국정신문화연구원소장 본	미상	18C	17XX	제외	3,042
159	이봉빈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7	미상	20C	1925(刊行)	중	14,439
160	인목대비내인계축일기	미상	?	16XX(作)	제외	16,699
161	인생탈출한국불교가사전집	이홍선/이상 보 편	20C	1956(作), 1978(刊行)	상	382
162	임장군전27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미상	20C	186X(刊行), 1920(印出)	하	6,354
163	장안걸식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20C?	XXXX(作), XXXX(筆寫)	하	1,099
164	장자방전(경판58장본)전3권3책목판 본(국지)	미상	19C	18XX	제외	29,623
165	재봉춘	이상협	20C	1912	상	20,998
166	정을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0	미상	20C	1917/1918(刊 行)	중	8,914
167	정진사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0	미상	20C	1918(刊行)	중	14,467
168	주교요지	미상	19C	18XX	제외	13,082
169	죽서루	현공렴	20C	1911	상	8,103
170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경허당/이상 보 편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483
171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이 상보 편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163
172	채미가17C가사전집	김기홍/이상 보	20C	1675 이후(作), 1924(筆寫)	하	194
173	철세계	이해조	20C	1908	상	13,883
174	청구영언(진본)	김천택	18C	1728	상	12,249
175	청춘과부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20C	XXXX(作), 1926(刊行)	하	1,109
176	초암가	용암대사/감 응 편	19C	18XX	제외	377
177	초한전(완판88장본)경인고소설판각 본전집삼	미상	20C	18XX(刊行), 1908(印出)	하	18,253
178	추풍감수록	이해조	20C	1912	상	10,884
179	충의소설십생구사구활자본고소설전 집8권	미상	20C	1923	상	7,071
180	토굴가한국불교가사전집	영암화상/이 상보 편	20C	XXXX(作), 1964(筆寫)	하	1,120
181	통학경편(경북영천간행)	황응두	20C	1921	상	4,166
182	판소리수궁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16,757
183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31,662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84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무	20C	1970s(採錄)	하	19,356
185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무	20C	1970s(採錄)	하	16,814
186	판소리흥보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무	20C	1970s(採錄)	하	21,417
187	한국고전문학전집3가사	최강현편	20C	작품별로 간행/필사 시기가 제각각임.	하	17,681
188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1	임석재채록	20C	1927, 1931~1940(採錄)	하	83,871
189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2	임석재채록	20C	1927, 1931~1940(採錄)	하	79,544
190	해동가요(주씨본)	김수장	20C	1763(編纂), 1930(刊行)	하	11,518
191	해탈곡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이상보편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54
192	행락도	민준호	20C	1912	상	19,214
193	현미경	김교제	20C	1912	상	26,399
194	현수문전(경판75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오	미상	19C	18XX	하	17,601
195	현씨양웅쌍린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십이권	미상	20C	1920(刊行)	중	23,385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3	미상	19C	18XX	하	5,364
197	홍도화	이해조	20C	1912	상	28,352
198	화중화	미상	20C	1912	상	7,794
199	회심가보권념불문	휴정	18C	1776(해인사판) / 1787(선운사판)	상	691
200	회참곡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20C 전후	XXXX(作), 20C 전후(筆寫)	하	1,045

□ 목록의 수: 총 200개

- 단, 이 200개의 각 항목이 개별적인 문헌에 대응하는 것은 아님.

□ 간행/필사/채록 연대: 주로 19~20세기이거나 연대 미상의 자료가 많음.

□ 자료의 성격: 구비문학, 고소설, 신소설 등 문학 작품이 주류임.

(2) 위 목록을 대상으로 한 선결 작업

□ 문헌 자체에 대한 검토

- 각 문헌의 간행/필사/채록 시기를 추정함으로써 문헌별 가치를 일차적으로 매김.

- 여기서 말하는 ‘문헌의 가치’란, 어디까지나 ‘국어사 문헌 자료로서의 가치’를 뜻함.

- 목록에서 주류를 이루는 문학 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문헌별 가치를 일차적으로 ‘상, 중, 하’ 세 등급으로 판정함.

- ① 창작된 시기가 명확함.
 - ② 수록된 문헌의 간행/필사 시기가 명확함.
 - ③ 위 ①·② 시기의 간극이 크지 않아 ② 시기만으로도 그 작품에 반영된 언어를 특정 시기의 것으로 비정할 수 있음.

- 비문학 자료에도 위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 중, 하’ 세 등급을 매김.
- 그렇게 판정한 가치 등급은 이후 ‘올해(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다소 수정됨. 이에 대해서는 후술.

□ 말뭉치에 대한 검토

- 문헌별 말뭉치에 반영되어 있는 편저자 및 문헌명의 오류를 바로잡음.
- 각 말뭉치의 상태와 입력 저본의 상태를 확인함.
-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구축한 언해본 말뭉치 중 한문 원문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파악함.

3.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과정

3.1. 목록에서 ‘제외’한 문헌

(1)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200개) 가운데 ① 기정비 말뭉치 목록(1,023개)과 중복되거나, ② 미정비 말뭉치 목록 내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헌은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 그 문헌의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	미상	16C	1577	제외	3,295
12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미상	20C	1917(刊行)	제외	9,669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학부편집국 編	19C	1895	제외	9,562
38	대명성주현신개운년/大明聖主賢臣 開運傳	미상	19C?	18XX	제외	74,086
41	두시언해초간본3권	미상	15C	1481	제외	5,470
9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상	16C	1560	제외	1,257
114	신약전서개화기국어자료집성10	박이정	20C	19XX	제외	67,110
136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 전북대국문과영인본	미상	19C	18XX	제외	605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미상	17C	1636	제외	680
157	윤음	미상	18~19C	17XX~18XX	제외	15,807
158	응진경언해한국정신문화연구원소장 본	미상	18C	17XX	제외	3,042
160	인목대비내인계축일기	미상	?	16XX(作)	제외	16,699
164	장자방전(경판58장본)전3권3책목판 본(국지)	미상	19C	18XX	제외	29,623
168	주교요지	미상	19C	18XX	제외	13,082
176	초암가	용암대사/감 응편	19C	18XX	제외	377

□ <표 2>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8]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文 합본)은 『명지어문학』 10·12·13호에 영인된 송광사판(1577)임. 이 문헌은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참고로, '3,295어절'은 언해문만을 대상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구축된 것은 한문 원문까지 포함하여 9천여 어절에 이름.

- <표 1>의 [연번 11]과 [연번 12] 『곽해룡전』은 동일 문헌으로 둘의 어절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말뭉치의 태그 방식이 상이하고 후자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연번 11]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함.

- <표 1>의 [연번 17]과 [연번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후자를 정비 대상에서 제외함.

- [연번 38] 『대명성주현신개운던』은 『대명영렬전』 권1의 권수제(卷首題)로 본 서명은 『대명영렬전』임. 『대명영렬전』은 권1~8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2014년에 정비된 『우역방』과 같은 문헌이나, 판본의 차이가 있음. 2014년에 정비된 『우역방』은 일본의 개인 소장 초간본(1541년)을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필사한 책을 입력한 것임.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1636년 중간본으로 일사문고 소장본을 입력한 것임. 각 말뭉치의 입력 대상인 두 문헌은 이본 관계에 있는데 이본을 모두를 말뭉치로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따라서 그중 선본을 정하여 구축한다는 기존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 자료는 중복 문헌으로 간주하고 후대의 중간본인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 [연번 158] 『응진경언해』는 『쥬싱연스묘 응진경』이라는 서명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두 말뭉치는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입력되었음.

(2) 연대 미상의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가운데 간행/필사/채록 연대가 미상의 문헌이 상당수임. 이에 따라 그 연대를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그런데 후대에 채록된 구전 문학 작품의 경우 창작 및 채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많음. 따라서 이들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음(최종 가치: 하).

<표 3> 연대 미상의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79	법화일승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XXXX(作), XXXX(筆寫)	하	833
163	장안걸식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XXXX(作), XXXX(筆寫)	하	1,099
187	한국고전문학전집3가사	최강현 편	20C	작품별로 간행/필사 시기가 제각각임.	하	17,681

(3) 말뭉치 입력이 불완전한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가운데 완전히 입력되지 않아 추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입력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헌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함.
- 그 목록은 아래 <표 4>와 같음(최종 가치: 하).

<표 4> 말뭉치 입력이 불완전한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43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16,830
144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16,274
145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25,088
146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미상	20C	1906~1909	하	31,747

□ <표 4>에 대한 특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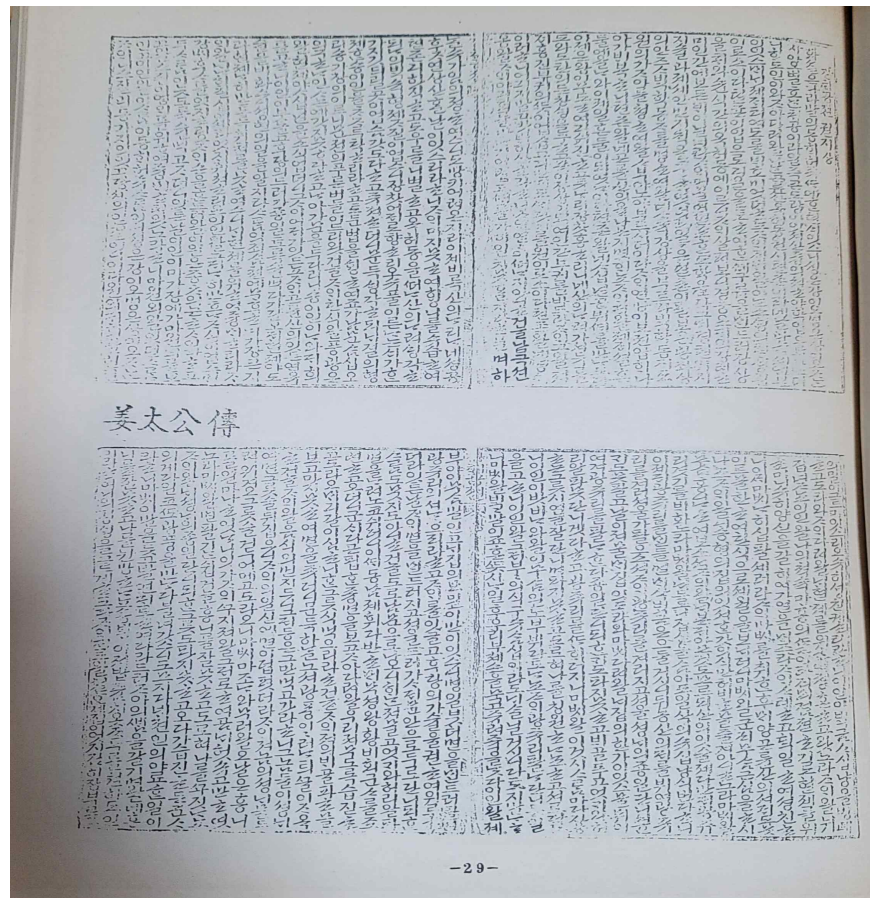
- 서울대 도서관본 『옥루몽』은 14권 14책인데, 기존의 말뭉치는 권1~8까지만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권9~14는 미입력 상태임. 이미 구축된 8권의 분량이 약 9만 어절임을 고려할 때 나머지 6권의 분량은 6만7천 어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이 분량을 단기간에 입력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문헌은 정비 목록에서 제외함.

3.2. 제외/포함 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문헌

(1)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에는 경인 판각본 자료가 여러 종 있음.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방각본 고소설로, 1973년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한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을 대상으로 입력한 말뭉치임.

□ 그런데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은 축쇄 영인본인 데다 판각본을 영인한 것이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음. 따라서 이 영인본을 바탕으로 말뭉치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헌들은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보류함.



<그림 1> 경판본 『강태공전』 영인본

□ 다만,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에 수록된 문헌 가운데 [연번 88] 『삼설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록에 포함함.

- 영인 상태와 입력 말뭉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 다양한 어휘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목록에 포함해 달라는 집필팀의 요구가 있었음.

□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를 보류한 문헌의 목록은 아래 <표 5>와 같음(최종 가치: 하).

<표 5>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20C	19XX	하	17,217
26	금방울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4	미상	20C	19XX	하	5,133
37	당태종전경판2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20C	19XX(刊行), 1921(印出)	하	6,719
77	백학선전(경판2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일	미상	19C	18XX	하	6,580
97	소대성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20C	19XX	하	4,806
110	숙영낭자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미상	20C	19XX	하	4,572
111	숙향전(경판6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미상	19C	1858	하	15,846
154	월왕전(경판63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미상	20C	1847~1885 (刊行); 1921(印出)	하	13,074
156	유충열전(완판86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미상	20C	19XX	하	21,141
162	임장군전27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미상	20C	186X(刊行), 1920(印出)	하	6,354
177	초한전(완판88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삼	미상	20C	18XX(刊行), 1908(印出)	하	18,253
194	현수문전(경판75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오	미상	19C	18XX	하	17,601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3	미상	19C	18XX	하	5,364

(2) 비교적 후대의 문헌

□ 연대 추정은 가능하나 그 시기가 비교적 후대인 문헌은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국어사 자료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정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류함.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간행/필사/채록 시기가 20세기 중반 전후인 문헌, 또는
- ② 간행/필사/채록 시기가 위 ①보다는 다소 앞서더라도 어원 정보를 밝히는 데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운문 문헌.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음(최종 가치: 하).

<표 6> 비교적 후대의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	가집二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	하	35,193
2	가집一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	하	24,582
3	감사별곡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편	20C	18XX(作), 1931(筆寫)	하	512
14	광제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933
19	권불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491
24	금강별곡명춘유고	박순우	20C?	1739(作), 1969?(刊行)	하	955
33	낙도가조선가요집성	나옹화상 /김태준	20C	1934	하	185
68	몽환가석문의범	미상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56
69	몽환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XXXX(作), 1829/1889(筆 寫)	하	711
70	민속극	전경옥역주	20C	채록: 1930(양주별 산대놀이) / 1975~1980(송파산대놀이) / 1936(봉산탈 춤) / 1943(강령탈 춤) / 19XX 전기(은율탈춤) /	하	65,742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956(서흥탈 놀이) / 19XX 전·중기(수영 야유) / 19XX 중기 이후(동래야유) / 1958(통영오 광대) / 1960(고성오 광대) / 1975(가산오 광대) / 1928(진주오 광대) / 미상[1966 이전](통천가 면극) / 1959(하회별 신가면극) / 1960년대(꼭 두각시놀음)		
73	발원문한국불교가사전집	혜연선사 /이상보 편저	20C	XXXX(作), 19XX(筆寫 또는 刊行)	하	314
75	백마강가17세기가사전집	황일호 /이상보	20C?	1625(作), XXXX(筆寫). 입력 대본: 황용주의 《昌原黃氏家 乘》(필사 시기 불확실).	하	242
76	백발가안진호편석문의범	미상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39
80	별회심곡석문의범	휴정/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928
83	사체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18XX(作), 1931(筆寫)	하	788
90	서정별곡17C가사전집	박권/ 이상보 편	18C	1694(作), 1781(筆寫)	하	801
92	선심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筆寫)	하	796
95	성탄경축가석문의범	권상로/ 안진호 편	20C	XXXX(作), 1935(刊行)	하	82
120	아악부가집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1935(筆寫)	하	29,870
121	아악부가집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4~1935(筆寫)	하	33,723
122	악부上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25,338
123	악부上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37,807
124	악부下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46,876
125	악부下	김동욱 /임기중 편	20C	1930~1935(筆寫)	하	36,947
126	악장가사한국고전총서(II)	미상	19C?	XXXX(刊行), 1801~1834(	하	2,410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補寫)		
127	애닦은노래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19C?	18XX(作), 1887 또는 그 이후(筆寫)	하	408
172	채미가17C가사전집	김기홍/이상 보	20C	1675 이후(作), 1924(筆寫)	하	194
175	청춘과부가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이상보 편	20C	XXXX(作), 1926(刊行)	하	1,109
180	토굴가한국불교가사전집	영암화상 /이상보 편	20C	XXXX(作), 1964(筆寫)	하	1,120
182	판소리수궁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16,757
183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31,662
184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19,356
185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16,814
186	판소리흥보가사설과주석	뿌리깊은나 무	20C	1970s(採錄)	하	21,417
188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1	임석재채록	20C	1927, 1931~1940(採錄)	하	83,871
189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2	임석재채록	20C	1927, 1931~1940(採錄)	하	79,544
190	해동가요(주씨본)	김수장	20C	1763(編纂), 1930(刊行)	하	11,518
200	회참곡한국불교가사전집	미상	20C 전후	XXXX(作), 20C 전후(筆寫)	하	1,045

3.3. 목록에 ‘추가’한 문헌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에 없는 문헌이라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기로 함.

- ① 어원사전의 말뭉치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헌.
- ②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결과물 중 한문 원문이 입력되지 않은 문헌.

• 다만, ②의 경우 올해 사업에서는 그중 한문의 입력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문헌만 작업하기로 함.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7>과 같음.

<표7>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한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①	대명률직해	고서경, 김지	14C	1395?	10만(추정)
②	한영자전	게일(Gale, J. S.)	19C	1897	10만(추정)
③	법화경언해 권5~7		15C	1463	10만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		16C	1583	9.3만~
⑤	학봉김선생행장	김주국	18C	1770	2만~
⑥	제국신문(1898.08.10.~1901.03.12.)		19~20C	1898~1901	63만~
⑦	신식부인치가법	시모다우타코[下田歌子]	20C	1925	15,288
⑧	신학신설	지석영	19C	1891	13,304
⑨	언문	지석영	20C	1909	46,146
⑩	포와유람기	현순(玄楯)	20C	1909	7,410
⑪	숙명신한첩 연간		17C	1652~1688	3,413
⑫	숙취신한첩 연간		17C	1653~1696	2,192
⑬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17C	1658~1700	4,886
⑭	은진송씨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17~18C	1684~1709	10,706
⑮	의성김씨 학봉 종가 연간		18~19C	1765~1883. (주로 1830s~1850)	48,821
⑯	추사가 연간		18~19C	1754~1897 (주로 18C 중반~19C 중반)	6,211
⑰	추사 연간		19C	1818~1844	6,221
⑱	홍은위 정재화가 연간		19C	1790~1905 (주로 1790~1830)	12,471
⑲	은진송씨 송병필가 연간		18~19C	1863~1922	15,036
⑳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연간		19~20C	1875~1895	4,521
㉑	순명효황후 연간		19C	1894~1904	875
㉒	가례언해		17C	1632	73,381
㉓	천의소감언해		18C	1756	46,813
㉔	명의록언해		18C	1777	69,103
㉕	속명의록언해		18C	1778	17,221
㉖	한청문감	이담, 김진하 외	18C	1777/1778	?

□ <표 7>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①]은 이두 문헌임. 이 차자표기 문헌 말뭉치는 기정비 언해 자료 말뭉치와 마찬가지로 병렬 말뭉치 형식을 갖추나 현대어역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음.

- [연번 ②] 『한영자전』도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됨.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는 국어(한글+한자)로 작성된 부분만 입력한 것이라 효용 가치가 떨어짐. 따라서 영어로 대역하거나 뜻풀이를 한 부분까지 포함하고자 함.

- [연번 ③] 『법화경언해』 권5~7은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결과물에 누락된 문헌임.

- [연번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은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있는 동명(同名)의 자료(<표 1>의 [연번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의 이본임. 기정비 말뭉치는 송광사판(1577)임. 두 이본은 서로 독립되어 언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봉사판이 송광사판의 중간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고, 서봉사판은 송광사판과 언어 내외적 측면이 꽤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봉사판의 이미지 파일(소창문고본)이 현재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함.

- [연번 ⑤] 『학봉김선생행장』은 학봉 김성일의 한문 행장을 언해한 필사본으로 국어사적·방언사적 가치가 높은 문헌임. 현재 원문 사진과 언해문 및 한문 원문의 입력 자료까지 확보해 둔 상황으로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만 변환하면 됨.

- [연번 ⑥] 『제국신문』은 19·20세기 교체기의 신문 자료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됨. 한국학중앙연구원 DB에 올라와 있는 입력 자료를 이용하되, 오류를 바로잡고 띄어쓰기를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함. 정비 분량은 약 63만 어절에 해당하는, 1898.08.10.~1901.03.12.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만 우선 한정함.

- [연번 ⑦~⑩] 『신식부인치가법』, 『신학신설』, 『언문』, 『포와유람기』는 말뭉치 정비 작업 중 새로 입수한 자료로(기증자: 안예리), 모두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번 ⑪~⑳] 17~19세기 조선시대 인간 자료임. 기정비 말뭉치에는 15~16세기 및 17세기 전기의 인간 5종만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17~19세기 인간 가운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국어사적 자료의 가치가 높은 인간을 선별하여 목록에 추가함.

- [연번 ㉔~㉕] 『가례언해』는 기정비 말뭉치에 그림의 글귀와 주석이 누

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정비하도록 함.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 『속명의록언해』는 한문 원문 없이 언해문으로만 간행된 문헌임. 집필진의 요구에 따라 한문 원문을 추가 입력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하도록 함.

- [연번 ②6] 『한청문감』은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됨. 단, 입력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4. ‘미정비 말뭉치’ 목록 확정 결과

□ 이상에서 밝힌 작업 과정에 따라 추출된 말뭉치 목록의 분량은 올해 작업 분량(370만 어절)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① 현재까지 정비한 문헌들의 유형과 분량, ② 연구보조원들의 인원과 구성에 따른 말뭉치 분배 방법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중’ 등급의 문헌 가운데서 올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말뭉치 목록의 수를 더 추려냄.

□ 그 결과, 올해 작업해야 하는 ‘미정비 말뭉치’ 목록의 최종 목록은 아래 <표8>과 같이 도출됨.

<표8> 미정비 말뭉치 확정 목록

(연번은 국립국어원 제공 초기 목록에 따름)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5	계우사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미상	19C	1890?(筆寫)	중	8,827
6	경세종	김필수	20C	1908	상	5,519
7	경허당가가가음석문의범	경허성우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375
9	고대소설양산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미상	20C	19XX	상	12,510
10	고디조한전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15권	미상	20C	1917	상	15,056
11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미상	20C	1917(刊行)	상	9,581
13	관음경언해(관음경언해)	미상	15C	1485	상	1,818
15	구의산	이해조	20C	1912	상	24,632
16	국문정리서울대규장각소장본	미상	19C	1897	상	1,229
17	국민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학부편집국 編	19C	1895	상	9,580
20	권왕가석문의범	東化竺典 /안진호 편	20C	19C 말(作), 1935(刊行)	상	3,396
21	권용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일권	미상	20C	1918(刊行)	중	21,113
23	귀일가한국불교가사전집	최취허 /이상보 편	20C	1912(作, 筆寫)	상	79
27	기념가한국불교가사전집	김정혜 /이상보 편	20C	1911(作), 1912(刊行)	상	146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32	김희경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미상	20C	1922(刊行)	중	26,998
35	녀장군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권	미상	20C	19XX	상	16,541
36	녀중호걸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권	미상	20C	19XX	상	25,965
39	동각한매	현공렴	20C	1911	상	4,574
40	두견성	선우일 著 /이해조 閱	20C	1912	상	39,206
42	마상루	민준호	20C	1912	상	10,556
43	만인계	엠티워쓰 저; 최창선 역	20C	1912	상	10,874
44	망월가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 이상보 편	20C	20C 초(作), 1930(刊行)	상	39
45	명월정	박이양	20C	1912	상	14,951
67	목단화	김교제	20C	1911	상	17,929
78	법문곡한국불교가사전집	경허당 /이상보 편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704
81	비행선	김교제	20C	1912	상	17,320
82	사각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미상	20C	1927(刊行)	중	8,633
84	산양디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오권	미상	20C	1916	상	7,519
85	산천초목	이해조	20C	1912	상	10,674
86	삼생기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미상	20C	1922(刊行)	중	19,194
88	삼설기고소설판각본전집1	미상	19C?	18XX	중	10,157
89	생륙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5권	미상	20C	1929	상	5,985
91	석존일대가한국불교가사전집	이응섭/이상 보편	20C	20C 전후(作), 1927(刊行)	상	3,953
94	성산명경	최병헌 著 /존로스 閱	20C	1911	상	12,059
96	설명산실기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30	상	16,106
98	소상강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	미상	20C	1912	상	6,194
99	소디성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25	상	6,678
100	소운면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18	상	13,671
101	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미상	19C	1895	상	3,865
102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405
103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342
104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31,178
105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2,324
106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미상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5,680
107	송뢰금	육정수	20C	1908	상	17,058
108	쇼학스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7권	미상	20C	1917	상	16,556
109	숙영낭조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5권	미상	20C	1915	상	5,618
112	신년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102
113	신숙주부인전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8	미상	20C	19XX	상	5,849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권					
115	신자전	조선광문회	20C	1915	상	15,201
116	춘향가,심청가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강한영교주	20C	19XX	중	32,411
117	박타령 적벽가,변강쇠가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강한영교주	20C	19XX	중	30,808
118	신정심상소학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미상	19C	1896?	상	8,475
119	쌍옥적	이해조	20C	1911	상	15,753
128	약산동디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미상	20C	1913	상	12,587
129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1,268
130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2,781
131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7,428
132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3,297
133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32,685
134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4,715
135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미상	20C	19XX	중	23,515
142	열반가석문의범	권상로/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85
147	옥호괴연	미상	20C	1912	상	8,049
149	완월루	미상	20C	1912	상	10,457
150	왕생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96
152	원앙도	이해조	20C	1911	상	12,747
153	원적가석문의범	학명선사/ 안진호 편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289
155	월하가인	이해조	20C	1911	상	18,333
161	인생탈춤한국불교가사전집	이홍선/이상 보 편	20C	1956(作), 1978(刊行)	상	382
165	재봉춘	이상협	20C	1912	상	20,998
169	죽서루	현공렴	20C	1911	상	8,103
170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경허당/이상 보 편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483
171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이 상보 편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163
173	철세계	이해조	20C	1908	상	13,883
174	청구영언(진본)	김천택	18C	1728	상	12,249
178	추풍감수록	이해조	20C	1912	상	10,884
179	충의소설십생구사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미상	20C	1923	상	7,071
181	통학경편(경북영천간행)	황응두	20C	1921	상	4,166
191	해탈곡한국불교가사전집	학명선사/이 상보 편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54
192	행락도	민준호	20C	1912	상	19,214
193	현미경	김교제	20C	1912	상	26,399
195	현씨양응쌍린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십이권	미상	20C	1920(刊行)	중	23,385
197	홍도화	이해조	20C	1912	상	28,352
198	화중화	미상	20C	1912	상	7,794
199	회심가보권념불문	휴정	18C	1776(해인사 판) / 1787(선운사 판)	상	691
①	대명률직해	고서경, 김지	14C	1395?		10만(추정)
②	한영자전	게일(Gale,	19C	1897		10만(추정)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J. S.)				
③	법화경언해 권5~7		15C	1463		10만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		16C	1583		9.3만~
⑤	학봉김선생행장	김주국	18C	1770		2만~
⑥	제국신문(1898.08.10.~1901.03.12.)		19~20C	1898~1901		63만~
⑦	신식부인치가법	시모다우타 코[下田歌子]	20C	1925		15,288
⑧	신학신설	지석영	19C	1891		13,304
⑨	언문	지석영	20C	1909		46,146
⑩	포와유람기	현순(玄楯)	20C	1909		7,410
⑪	숙명신한첩 연간		17C	1652~1688		3,413
⑫	숙휘신한첩 연간		17C	1653~1696		2,192
⑬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17C	1658~1700		4,886
⑭	은진송씨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17~18C	1684~1709		10,706
⑮	의성김씨 학봉 종가 연간		18~19C	1765~1883. (주로 1830s~ 1850)		48,821
⑯	추사가 연간		18~19C	1754~1897 (주로 18C 중반 ~19C 중반		6,211
⑰	추사 연간		19C	1818~1844		6,221
⑱	흥은위 정재화가 연간		19C	1790~1905 (주로 1790~ 1830)		12,471
⑲	은진송씨 송병필가 연간		18~19C	1863~1922		15,036
⑳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연간		19~20C	1875~1895		4,521
㉑	순명효황후 연간		19C	1894~1904		875
㉒	가례언해		17C	1632		73,381
㉓	천의소감언해		18C	1756		46,813
㉔	명의록언해		18C	1777		69,103
㉕	숙명의록언해		18C	1778		17,221
㉖	한청문감	이담 김진하 외	18C	1777/1778		?

‘미정비 역사 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에 대한 토론문

이정원(서강대학교)

김한별·정은영 교수의 ‘미정비 역사 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은 말 그대로 아직 말뭉치 목록으로 정비되지 않은 역사 자료 중에서 무엇을 정비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글입니다. 말뭉치 목록은 후속 연구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이 목록의 갖는 의의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고전문학 전공자인 제가 이 중요한 작업에 의견을 보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다만 역사 자료들 중에서 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몇 있어서 채언을 내고자 합니다.

1. 20세기 초 신소설 또는 신작 구소설

1906년 이해조의 ‘혈의 누’가 나온 이후, 비슷한 성격의 신소설이 쏟아져 나와 1910년대에 유행하고, 다시 그 영향을 받아 신작 구소설 또는 개작 구소설 등이 나오게 됩니다. 문학사적 의의는 제쳐두더라도, 이 시기의 문헌들은 1900~1910년대의 언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의 언어 상황을 보여주는 문헌들은 잡지나 신문 등도 상당하여 비단 소설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니, 자료적 가치를 따질 적에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출판년도가 30년대나 40년대일지라도 신소설과 신작 구소설은 대개 1910년대와 1920년대에 창작 및 출판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것은 이것들의 재판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비행선』(81번, 김교제, 1912년, 상) 『산천초목』(85번, 이해조, 1912년, 상) 등을 ‘상’으로 자료 가치를 평가하여 목록으로 제시한 것은 두루 주변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런 성격의 자료들, 그러니까 1910년대 초에 근대소설가가 창작한 소설들은 여기 목록에 제시된 것 말고도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 경판 소설들

아시다시피 경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 지향성을 띠었고, 완판은 확대 지향성을 띠었습니다. 그러니 경판의 경우 혹 20세기에 출판되었어도 장수가 많으면 19세기 중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62번 임장군전27장은

판권지 등이 없으니 당연히 정확한 시대를 알기 어렵지만, 정황을 고려하면 19세기 중엽일 것입니다(경판의 출판 시기는 이창헌의 박사논문 참조). 임장군전은 이후 축소되어 안성에서 21장본이 1917년에 출판되어 나옵니다(개판기는 丁亥孟冬, 1887년). 그리고 이것이 다시 축약되고 개각되어 20장본이 나옵니다(개판기 庚寅早秋布洞重刊, 1890년). 임장군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판각본의 경우 판권지의 출판년도가 아니라 개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본문에 반영된 언어의 시대를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4번 강태공전(경판39장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를 20세기본으로 보는 것은 정황상 이상합니다. 아마도 판각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연도가 비정된 판본들과 견주어보면 어느 정도 자료적 가치를 판정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 확보

개별 구축 국어사
말뭉치 수집 작업

ON GATHERING
SCATTERED CORPUS OF
HISTORICAL KOREAN
TEXTS

1

여는 말: 작업의 배경

- 한국어 형태소, 단어들의 어원 정보에 대한 수요
 - 우리말샘 어원 정보의 불충분함
 - 어원 사전 출판 요청
-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말뭉치가 필요함
 - 기존 국어사 말뭉치의 수정 및 보완
 - 우선순위를 정해 미정제 말뭉치 정제
 - 개별적인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어사 말뭉치의 수합 및 정제
 - 가능한 한 최대로 수합
 - 이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제 작업

2

개별 구축 국어사 말뭉치 수집 (1)

- 개별 연구나 연구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어사 말뭉치들이 존재함
- 두루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었음
 - 남이 공들여 만든 말뭉치를 공짜로 몰래 쓰면 안 된다는 학계의 윤리
 - 공동 작업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인접 분야의 성과인 경우 연구 네트워크가 약한 것도 문제임

→ 이번 국립국어원 주관 어원사전 편찬 준비 사업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마련됨

3

개별 구축 국어사 말뭉치 수집 (2)

-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개별 구축 말뭉치 수합 관련 홍보 메일 발송
 - 4월 초에 발송하여 한 달 동안 수합
 - 저간의 맥락을 공유하는 연구단 내부 구성원들에게 먼저 발송하고
 - 유관 학회를 통해 외부(?)에도 홍보
 - 알고 있는 학회들을 먼저 추리고
 - KCI에서 *문학회, *어학회, *사학회 등으로 검색하여 추가로 추림
 - 300여 곳 중 중복이나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여 학회로 추림
 - 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회의 대표 메일로 홍보 요청을 보냄

4

개별 구축 국어사 말뭉치 수집 (3)

•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개별 구축 말뭉치 수합 관련 홍보 메일 발송

국어 어원사전 기초자료 구축 사업단 참여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말뭉치 팀 김현주입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도움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원사전 집필 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한국어 역사 말뭉치와 완성도 제고의 일환으로 국어원의 기존 역사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50세기 원본기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의 한글 문헌에 대해 http://tdc.doc.go.kr 등의 텍스트 형식으로 직접 구축하여 가지고 계신 연구자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의 연구자가 이 시기의 문헌을 원상화하여 연구에 활용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경우 답 메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체 이론 자료의 출처를 말뭉치에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해 주신 자료가 어원사전 구축에 보탬이 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참여와 제보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뭉치 팀 김현주 올림

추신:

연락을 주시는 경우의 답안은 4월 30일경 드리겠습니다.

국 어 원 사 전 기 초 자 료 구 축 사 업 단 참 여 선 생 님 들 께

[홍보 요청] 국립국어원의 어원사전 편찬 준비 사업 관련 협조요청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사 연구실 연구원입니다.

개별 구축 국어사 말뭉치 수집 (4)

• 말뭉치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경향이 생김

- 개인이 구축한 말뭉치는 개인의 기증을 통해
 - 구입도 고려하였으나 선의로 기증하는 경우만 연락이 옴. 판매 타진 없음.
- 기관이 소유한 말뭉치는 국어원의 기관 접촉을 통해 확보
 - 말뭉치를 소유한 기관이 대개는 국가 기관
 - 한림학술원처럼 국가 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었으나 해당 기관의 자료가 국편이나 한중연 등에도 있음

확보 자료1: 개인 기증 자료

- 고성익 기증
 - 사업에 대한 환영 및 기대를 드러내며 가장 먼저 연락을 줌
 - : 15, 16세기 자료, 국어원에서 확보 중인 자료임 > 확보
- 이상훈 기증
 - “속삼강행실도”(1581) 선조대 중간본,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확보
 - “삼강행실도”(1726) 영조대 중간본, 평안도 감영본, 버클리대 소장본 > 확보
- 안예리 기증
 - “사민필지”, “신식부인치가법”, “신학신설”, “언문”, “포와유람기” > 확보
 - 중요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확보 자료2: 기관 기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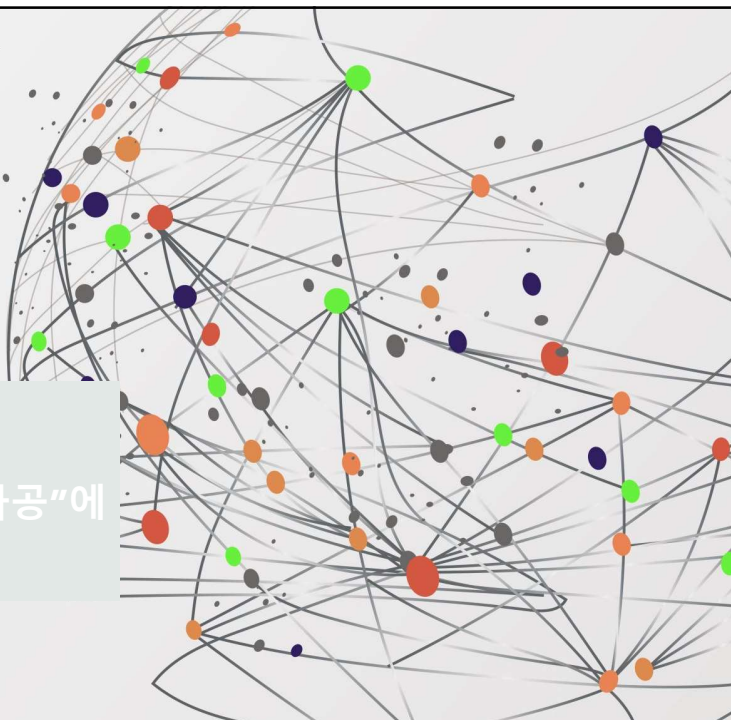
- 국어원의 기관 접촉을 통해 입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제국신문
 -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근대 잡지 말뭉치
- 고전번역원
 - 대명률직해 번역문/원문

확보 과정 중에 있는 자료

- 漢淸文鑑
 -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입력했다는 전언
 - 이를 서형국 교수가 수정했다는 전언
 - 서형국 교수는 자신은 얻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을 뿐이므로 함
 - 老朴集覽
 - 고려대 김유범 교수 외 구축
 - 출판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차후에 기증하기로 함
- [참고] 20세기 초 유성기 음반의 말뭉치는 확보가 난해한 상황
- 대학 연구소와 개인이 모두 자료 공유에 소극적

맺는 말: 애로 사항에 대한 견해

- 입력자가 단체이거나 하여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향후 각 연구 사업으로 코퍼스를 구축하게 될 때 연구재단 등에서 이런 점을 명기하면 좋겠음
- 열심히 입력한 개인 자료를 선뜻 내놓기 싫은 인지상정
 - 개인이 자료를 구축한 것도 연구물로서 존중을 받는 문화
- 20세기 전반기 소설의 저작권 문제
 - 이들 자료에는 20세기 초의 생생한 언어 자원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
 - 연구자들 개인의 연구에서는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음
 -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으로 검색은 되지만 원본은 볼 수 없게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규 역사 말뚝치의 “가공”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 가공 - 말뭉치 가공 방식과 작업 지침 -

정한데로(가천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말뭉치 가공 방식
3. 작업 지침 변경 사항
 - 3.1. 수정 항목
 - 3.2. 추가 항목
 - 3.3. 삭제 항목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국어 어원사전 편찬’ 말뭉치 팀에서 수행한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가공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뭉치 구축 과정에서 논의된 자료 가공 방식, 지침 변경 등 실제 사항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4~2016년, 2018년의 기간 동안 ‘역사자료종합정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역시 앞서 완료된 이들 과제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선행 사업과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기존의 말뭉치 구축 방식이나 작업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중 수정·추가·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의

말뭉치 가공 방식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작업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말뭉치 가공 방식

이번 사업 말뭉치 팀의 목표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300만 어절의 기구축 말뭉치를 정비하고, 신규로 70만 어절 이상의 말뭉치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말뭉치 형식은 기구축 자료와 동일하게 XML 형식으로 가공하였으며, 글의 분절 단위, 즉 자료 검색 시 노출되는 기본 단위는 절(節, clause)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짧은 단위일수록 가독성이 높고, 짧게 분절된 표현은 비교적 손쉽게 다시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15년 역사자료종합정비 사업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원칙이다.

분석 항목 및 sent type에 적용된 분류 표지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항목

항목 표지	의미 및 용법	특기 사항
sent type	sentence type	해당 구절의 텍스트적 성격
lang	language	해당 구절이 표상하는 언어
page		해당 구절이 나타난 면의 정보
n	number	해당 구절이 나타난 상대적 위치

<표 2> sent type의 분류 표지

표지	의미 및 용법	특기 사항
title	제목, 편명, 시명, 권호명 등	문헌에 따라 'title'이 편명 등을 나타내기도 함. 큰 제목, 작은 제목이 있을 때 'title2', 'title3'과 같이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theme, main title, head' 등은 사용하지 않음.

main	본문, 표제어 등	한 단을 내려 쓴 본문의 경우 'main2'로 나타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anno	주석	주석에 대한 주석이나 본문2에 대한 주석일 경우, 'anno2'로 나타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author	필자명	
date	발행일 등	연속간행물 등에서 사용됨.

먼저, <제국신문>, <법화경언해>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1> '제국신문'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입력 예시

```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제국신문</title>
<title lang="chi">帝國新聞</title>
<abbre> </abbre>
<volume n="제1권 제1호"/>
<author></author>
<date>1898-08-10-수</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제국신문[帝國新聞]</title><!--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3-->
<pubPlace>한국학중앙연구원</pubPlace>
<publisher>한국학중앙연구원</publisher>
<date></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date>2023/03/21</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홍길동</name><!--연구보조원-->

```

```

</respStmt>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김철수</name><!--공동연구원-->
</respStmt>
</revisionDesc>
</teiHeader>
<!--‘page="01_곡가"'에서 앞의 숫자 ‘01’은 신문의 면 수, ‘곡가’는 기사 분류 유형을 가리키
며 이들 사이의 기호는 언더바(_)로 입력한다.-->

```

<titleStmt>: 문헌명, 권차, 저자(알 수 없는 경우 미상), 간행년(필사년, 정확하지 않을 경우 ‘18세기, 18세기 중엽’ 등도 가능)

<notesStmt>: 영인본 서지사항(서명, 간행지, 간행기관/출판사, 간행연도)

<revisionDesc>: 작업 완료 일자, 입력자와 교정자를 기입함.

※ 웹사이트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원문을 입력한 경우, 출판사 정보 대신에 웹사이트 정보와 해당 문헌의 원소장처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1-2> ‘제국신문’의 본문 입력 예시

```

<pages n="0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기타" n="2">상리(生理)</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3">문</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4">사람의 정신은 어디 있뇨</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5">답</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6">머리통 속에 두부 갓흔 골이 있논디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7">그 두부 갓흔 것슬 뢰(腦)라 호고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8">뢰를 속담에 골이라 호느니</sent>
(중략)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20">하나라</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시사" n="21">農業概要</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시사" n="22">농수란 것은</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시사" n="23">곡식만 심으논 것썩 안이라</sent>

```

‘제국신문’의 경우, 문헌 특성상 섹션명, 기사 제목 등에 따라 여러 층위의 title로 분류되었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력하였다.

<표 3> title 층위 구분에 따른 sent type 입력

구분	내용	태그 예시
title	1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할 때에 title 을 입력한다.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title2	섹션명(광고, 잡보, 논설 등), 기사 제목 위계는 ‘title2’로 입력한다. 2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하지 않아 ‘title’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섹션명(광고, 잡보 등)이 등장한다면 ‘title2’를 입력한다.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2">잡보</sent>
title3	다음 위계의 기사 제목이 있을 경우에 ‘title3’을 입력한다.	

<자료 2-1> ‘법화경언해 권5’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입력 예시

<pre><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법화경언해</title> <title lang="chi">法華經諺解</title> <fullname>묘법연화경언해</fullname> <generalname>법화경언해</generalname> <abbre>법화</abbre> <volume n="5"/> <author>세조 외</author> <date>1463</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大提閣</title> <pubPlace></pubPlace></pre>	[기본 정보] [입력 저본]

<publisher></publisher>
<date></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date>1996/09/15</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송기중</name>
</respStmt>
<item>권2~권6</item>
</revisionDesc>

[전사 정보1]

<revisionDesc>
<date>1996/09/30</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송기중</name>
</respStmt>
<item>교정</item>
</revisionDesc>

[전사 정보2]

<revisionDesc>
<date>1998/10</date>
<respStmt>
<resp>프로젝트 책임자</resp><name>김흥규</name>
<resp>연구원</resp><name>차준경</name>
<resp>프로그래머</resp><name>이애란</name>
</respStmt>
<item>파일 변환, 세종 21 프로젝트 헤더 붙임, 마킹</item>
</revisionDesc>

[전사 정보3]

<revisionDesc>
<date>2009/12</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홍윤표</name>
</respStmt>
<item>출판 연도 교정</item>

[전사 정보4]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5]

<date>2014</date>

<respStmt>

<resp>교감자</resp><name>고성익·이토 다카요시</name>

<resp>출처</resp><name>“국어사 원문 전산입력자료 1 - 15·16세기 편 ver.1.0”, 전자입력
공개자료.</name>

</respStmt>

<item>전면적인 교감 및 재편집 작업</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6]

<date>2022/8</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오민석</name>

</respStmt>

<item>xml 형식으로 변환 및 부분 교감</item><!--"anno" 유형은 戒環의 解이다. ""anno2"
는 계환의 해와 일여의 집주 말미에 있는 본문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 】는 一如의 集註
이다. 【② ②】는 주석 속의 주석이다. "main" 유형은 經의 본문이다. -->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7]

<date>2023/7</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장경준</name>

</respStmt>

<item>(1) 텍스트 분절을 역사 자료 말뭉치의 성격에 맞게 문맥을 고려하여 세분함</item>

<item>(2) 【 】로 표시된 一如의 集註 부분은 언해되지 않았으므로 제거함</item>

<item>(3) 입력된 텍스트의 누락 부분, 오타자,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수정함</item>

<item>(4) 이전 버전에서 "anno2"로 표시한 것은 (언해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본문 내용에
대한 과판(科判)이므로 "title2"로 수정하고, 언해문 안에 포함된 협주를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
한 경우에 "anno2"로 표시하였다.</item>

</revisionDesc>

</teiHeader>

<자료 2-2> ‘법화경언해 권5’의 본문 입력 예시

```

<pages n="04b">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 n="1">讚持品事也 ㅎ시니라</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 n="1">持品入 이를 讚歎 ㅎ시니라</sent>
<sent type="title2" lang="chi" page="04b" n="2">二請後</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4b" n="3">世尊하 菩薩摩訶薩이 於後惡世에 云何能
說是經 ㅎ리잇고</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4b" n="3">世尊하 菩薩摩訶薩이 後 惡世에 엇데 ㅎ
야사 이 經을 能히 니긔리잇고</sent>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 n="4">請問 ㅎ샤디</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 n="4">請 ㅎ야 묻조오샤디</sent>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05a" n="5">云何所行이라사 乃能說是經호디 得無
諸難 ㅎ리잇고 ㅎ시니 </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05a" n="5">엇데 行호미라사 能히 이 經을 닐오
디 시러 諸難이 업스리잇고 ㅎ시니</sent><!--이 ^ 經을-->
</pages>

```

이어서 <두견성>, <천의소감언해> 등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3> ‘두견성’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본문 입력 예시

```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두견성</title>
<title lang="chi">杜鵑聲</title>
<fullname> </fullname>
<generalname> </generalname>
<abbre> </abbre>
<volume n="상"/>
<author>선우일 著 ; 이해조 閱</author>
<date>1912</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韓國 開化期 文學叢書, 1: 新小說·鰲安(譯)小說 7</title>

```

[기본 정보]

[입력 저본]

<pubPlace>서울</pubPlace>
<publisher>아세아문화사</publisher>
<date>1978년</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전사 정보1]
<date>2003/9</date>
<respStmt><resp>프로젝트 책임자</resp><name>임용기</name></respStmt>
<item>세종21프로젝트 헤더붙임</item> - 교정 사항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2]
<date>2023/05/16</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오민석</name>
</respStmt>
<item>국립국어원 국어 역사 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규정에 맞게 xml 형식으로 변경</item>
</revisionDesc> - 교정 사항

<revisionDesc> [전사 정보3]
<date>2023/06/01</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오필애</name><!--연구보조원-->
</respStmt>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허인영</name><!--공동연구원-->
</respStmt>
<item>전면적인 교감 및 적절한 문장 내지 절 단위로 분절</item>
</revisionDesc> - 교정 사항
</teiHeader>

<pages n="권1_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 n="1">두견성(상) [杜鵑聲]上</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2">綠東鮮于日 著</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3">悅子李海朝 閱</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 n="4">●데일회</sent>

```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5">이 층 높은 집에 주렴을 반쯤 짓고</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6">디동강 건너편 금슈봉 허리로</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7">거진거진 넘어가는 히를 무심히 바라보는
부인은</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8">나이 불과 열 팔구 세가량쯤 되얏는디
</sent>

```

한편, 이미 정비된 말뭉치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원문 추가 입력 작업을 진행하였다. ‘명의록언해, 천의소감언해, 가례언해’ 등을 대상으로 병렬 말뭉치 방식의 원문 입력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 4> ‘천의소감언해’의 한문 원문 입력 예시

```

<pages n="어제유찬슈제신:1a">
<sent type="title"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1">御製諭纂修諸臣</sent>
<sent type="title"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1">어제유찬슈제신</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2">噫 諸逆之罔測語逼於予者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2">희라 모든 역적이 내게 망측
히 어핍흔 거슨</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3">蒼穹昭昭 陟降下臨 皇兄俯
燭 ,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3">창궁이 쇼쇼헝오시고 덕강이
하림헝오시고 황형이 부촉헝오시니</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4">其雖痛心 何累於予</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4">그 비록 막음이 통박헝나 내
게 므슴 뉘 되리오마는</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5">而但語逼東朝者 爲人子者
痛隕欲溘然無知</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5">다만 동묘씩 어핍헝온 거슨
인즈 되엿는 재 통운헝미 합연히 아릅미 업고더 헝며</sent>

```

<자료 5> ‘가례언해’의 한문 원문 입력 예시

<pages n="02b">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1">凡禮有本有文</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1">므룣 禮 本이 이시며 文이 이시니</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2">自其施於家者言之</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2">그 집의셔 施행하는 거스로브터 니르건댄</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3">則名分之守 愛敬之實 其本也</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3">名分の 디킬 것과 愛敬하는 實은 그 本이 오</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4">冠昏喪祭儀章度數者 其文也</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4">冠례며 혼례며喪스며祭스의 儀章과 度數는 그 文이라</sent>

3. 작업 지침 변경 사항

이번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존 작업 지침과 비교할 때에 새롭게 수정, 추가, 삭제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수정 항목

기존 지침을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문의 표기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고자 장바꿈에 관한 정보는 주석으로 대신함.

(3) 장 바꿈(page break) 표시

- 원문 형식을 그대로 입력하고, 장 바꿈 표시는 주석으로 별도 표시한다.

① 장이 바뀌는 위치는 ‘^’으로 표시한다. 한문 원문에는 장 바꿈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② 장 바꿈 위치가 어절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 앞뒤를 모두 붙여 쓴다.

(전략) 다 一乘 爲_h샤물 브터</sent><!--爲_h^샤물-->

③ 장 바꿈 위치가 어절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 앞뒤를 모두 찍어 쓴다.

(전략) 다 一乘 爲_h샤물 브터</sent><!--爲_h샤물 ^ 브터-->

2. 재점에 관한 기술을 명확히 함. (기존 2가지 방식 허용 → 1가지 방식 통일)

② 재점(ː): 재점을 해당 글자로 바꿔서 입력하고 주석을 통해 문헌에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명ː백ː_h다’의 입력

<sent type="anno" lang="kor" page="85b" n="1">명명백백_h다</sent><!--뒤에 오는 '명'과 '백'은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

3. '협주' 표시를 위한 기호를 수정함. (이전의 '[]' 기호에서 '【 】'로 수정함.)

나. 협주가 짧은 경우

협주 앞 본문, 협주, 협주 뒤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협주 부분은 【 】으로 표시한다. (‘【’는 유니코드 3010, ‘】’는 유니코드 3011)

```
<sent type="main" lang="kor" page="9b" n="3">嗚呼 ㅎ야 【嗚呼는 애와티는 마리라】  
기피 내 贅호디 엇데 내 모물 소기거뇨 ㅎ다니</sent>
```

4. '제국신문'의 경우, 문헌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 분류 정보'(곡가, 관보, 광고, 급보, 논설, 별보, 사고, 사보, 시사, 외국통신, 외보, 잡보, 전보, 기타)를 태그에 포함함.

<!-- 'page="01_광고"'에서 앞의 숫자 '01'은 신문의 면 수, '광고'는 기사 분류 유형을 가리키며 이들 사이의 기호는 언더바(_)로 입력한다. 한 기사가 두 면(1~2면)에 걸친 경우는 'page="01-02_광고"'와 같이 하이픈(-)을 입력한다.-->

```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기타" n="2">심리(生理)</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3">문</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4">사람의 정신은 어디 잇는뇨</sent>
```

```
<pages n="0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기타" n="1"></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2"></sent>  
(중략)  
<sent type="main" lang="kor" page="01-02_기타" n="77"></sent>  
</pages>  
  
<pages n="02">  
<sent type="main" lang="kor" page="02_기타" n="1"></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2_잡보" n="2">잡보</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_잡보" n="3">○ 우리나라</sent>
```


5. ‘제국신문’의 경우, 아래와 같이 sent type 정보를 제시함.

- ‘title’ 제시 방법		
구분	내용	태그 예시
title	1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할 때에 title을 입력한다.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title2	섹션명(광고, 잡보, 논설 등), 기사 제목 위계는 ‘title2’로 입력한다. 2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하지 않아 ‘title’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섹션명(광고, 잡보 등)이 등장한다면 ‘title2’를 입력한다.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2">잡보</sent>
title3	다음 위계의 기사 제목이 있을 경우에 ‘title3’을 입력한다.	

6. ‘미완, 연속(련속)’ 등 신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예시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④ ‘미완’, ‘연속’ 등의 표현: 해당 표현의 ‘sent type’은 ‘note’로 처리한다.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8">뢰를 속담에 골이라 헉느니</sent> <sent type="note" lang="kor" page="01_기타" n="9">(미완)</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10">잡보</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잡보" n="11">농수란 것은</sent>

3.2. 추가 항목

지침에 새로 추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보 입력>

(6) 연간류의 경우

- ① sender는 '발신자', writer는 '작성자', receiver는 '수신자', year는 '발신 연도', envelop은 '봉투 유형'을 입력한다.
- ② '발신 연도'는 연(年) 단위까지만 입력하되, 정확한 연도를 밝힐 수 없는 편지는 '19세기 중반', '1851~1857년' 등과 같이 그 추정 시기를 입력한다.
- ③ 봉투가 하나인 '단봉(單封)'은 다시 '별봉(別封, 별도로 만든 것)'과 '자봉(自封, 내지가 봉투를 겹친 것)'으로 나뉜다. '별봉'은 envelop1-1로, '자봉'은 envelop1-2로 입력한다. 단봉을 다시 쓴 '중봉(重封)'은 envelop2로 입력한다.

<형식 정비 방법>

1. 난상 내용 입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5) 난상 내용 처리

- 난상의 내용은 표시된 해당 문장 뒤에 제시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달리 표시한다.

①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

난상 내용을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주석 태그를 통해 난상임을 밝힌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5">방옥지 동서에 맞당이</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2b" n="5">방옥에 창호는 만을수록 더욱 묘현이
라</sent><!--난상에 기입됨-->
```

② 그 외(교정 내지 교감, 발음 정보 따위)의 경우

주석 태그로만 처리한다.

```
<mark type="section_begin">主</mark><!--난상에 主가 적힌 권점-->
```

<내용 정비 방법>

1. 부속문자 입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부속문자 입력

행간의 여백을 이용하여 본문 글자의 위나 옆에 한자 또는 한글로 음이나 훈이 병기된 경우에는 '대괄호([])'를 추가하여 해당 문자 오른쪽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위[魏]를 히[害]햐 군심[軍心]을 산란[散亂]케 햏오니

2. 중복된 내용의 목차에 관한 정확한 지침 사항을 추가함.

(4) 중복 내용의 목차 입력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의 목차는 추가로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주석을 활용하여 동일 내용의 목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3. 문장부호 및 기호에 관한 지침 사항을 추가함.

③ 쉼표(,)와 마침표(.),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 자료에 표기된 방식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에 ‘학교(學校)’와 같이 소괄호가 기술된 경우에 그대로 입력한다. 세로쓰기에서 쓰인 모점(、)과 고리점(。)은 각각 쉼표(,)와 마침표(.)로 바꾸어 입력한다.

④ 줄임표(...): 원문의 줄임표는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유니코드 2026)로 통일하여 ‘…’를 1회 입력한다.

3.3. 삭제 항목

기존 지침 내용 중 삭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백’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

③ 유의미한 공백: 유의미한 공백은 ‘~’로 표시한다.

昔者 信陵君이 豪~富貴호디 「墳山恢復謝恩歌清溪歌詞」

4. 맺음말

말뭉치 구축 자료 입력 과정에서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 간, 작업자 간 결과물의 통일성 및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완전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가령 문장 분절 기준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본 원칙은 '절'을 기본 단위로 삼아 분절하는 것이지만, 내포절 또는 협주를 포함한 문장과 같이 원칙 적용이 어려운 예도 존재한다.

둘째, 각 연도별 사업 결과물 간에 종합적인 통일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전 정비 말뭉치와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자료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헌 간 차이가 일부 관찰된다(예. sent type 표기 방법, 문장 부호 사용, 장바꿈 표시 방법 등). 제한적이긴 하나 kohico 내에서 기존 정비 말뭉치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비 말뭉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통일화 종합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번 작업에서 이두 자료, 언간 자료, 20세기 신문 자료 등을 신규로 추가하기는 했으나, 그밖에 20세기 잡지, 자전류 등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여러 시기의 어휘 자료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전류의 경우, 어떤 수준에서 외국어 및 뜻풀이를 신규 입력할 것인지의 문제, 당시 한자의 정밀한 의미를 말뭉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의 확보와 가공’에 대한 토론문

장요한(계명대학교)

개인이나 기관이 구축한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를 기증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몇몇 개인이나 기관의 기증 자료를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증이 계기가 되어서 역사자료 말뭉치의 통합 관리 방안이 공론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역사자료 말뭉치를 특정 양식에 따라 가공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정비하느라 애쓰셨을 것입니다. 이번 태깅 방식(지침)이 이번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자료 말뭉치의 통합화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적으로 구축된 역사자료 말뭉치 목록

개별 연구나 사업팀 연구를 통해 구축된 역사자료 말뭉치가 상당수 흩어져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현황 목록이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사업 결과물로 제출된 말뭉치나 개별 사업팀의 연구에서 구축된 말뭉치의 목록이 우선 확보된다면 어원 사전 편찬뿐 아니라 추후 신규 역사자료 말뭉치 통합적 관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사업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 말뭉치 목록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기왕 시작한 일이니 품이 들더라도 흩어져 있는 역사자료 말뭉치 목록을 확보하면 어떨까 합니다.

2. 개인이나 기관의 역사 말뭉치 확보 방안

발표문의 맺는말 ‘애로 사항’에서 개인이나 기관의 말뭉치 자료를 기증받는 어려운 점을 밝히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혹시 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예 이참에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소설 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태그 지침의 복잡성

절이나 문장 단위로 구분하여 태그하는 것은 전산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해 보이나 복잡한 태그 지침으로 구축된 말뭉치 파일의 가독성은 아쉽지만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태그 자료를 이용해서 강독을 한다든지 필요한 문장을 검색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편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개인 연구자가 말뭉치의 공유를 위해서 본 사업팀에서 제시한 정비 태그의 지침을 따라 작성한다고 할 때 지침에 맞춰 태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그 지침을 익혀 태깅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뭉치 파일의 통합화를 위해서라도 태그 지침의 단순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태그 지침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절 단위 분석의 어려움

절 단위로 가공하여 태그하는 과정에서 절 단위의 분절 분석 결과가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문에 제시된 예들의 경우에서도 분절의 분석 차이가 확인되는데 분절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분절의 지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추가 구축 자료

신규 70만 어절 말뭉치를 추가로 구축하였다고 하였는데(이두 자료, 언간 자료, 20세기 신문 자료) 이 외에도 19세기-20세기 고소설 자료나, 발표문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자전류의 말뭉치 구축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 자료들은 본 사업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가 구축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전소설 자료(세종역사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말뭉치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도 추가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근대 국어 말뭉치 관련 자료 정보가 이래호(2022, ‘근대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사학회 발표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6. 태그 항목

말뭉치의 구축 방안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한 태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태그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마련한 인간류 지침 중에서 발신자와 작성자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발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지 혹은 발신자와 작성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신한첩』과 같이 선대의 편지를 후대에 성첩한 경우에는 성첩자와 성첩시기가 중요한 서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태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의 실제

허인영(인하대학교)·오민석(고려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kohico에 대해
3. 말뭉치 정비 작업 현황
4. 사용자 경험과 보완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진행 중인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 가운데 말뭉치팀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kohico’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며, 사용자 경험과 보완 방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은 집필·감수팀, 말뭉치팀, 자료구축팀이 작업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말뭉치팀은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5인, 연구보조원 30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보조원 6명이 한 팀이 되고 공동연구원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말뭉치팀에서는 미정비 원시 말뭉치를 검토하여 300만 어절을 일관된 원칙과 방법에 입각해 XML 형식으로 정비하고, 7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XML 형식으로 추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2014-2016, 2018년에 수행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는 말뭉치를 구축하고 정비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서

‘흔글’이나 ‘엠에디터(EmEditor)’ 등의 문서편집기로 작업한 파일을 일일이 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는 작업자들마다 작업 환경이 달라지고 파일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작업하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키 기반 플랫폼 ‘kohico’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kohico’라는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과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한 다음, 사용자 경험과 보완 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2. kohico에 대해

2.1. kohico의 제작 의도 및 말뭉치팀의 이용 배경

kohico는 ‘Korean Historical COrpus(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의 줄임말이다. kohico 누리집(<https://kohico.kr/>)은 말뭉치의 입력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 kohico의 기반이 된 핵심 데이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xml 형식의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2014~2016, 2018)의 결과물이다.

kohico의 주요 서비스는 XML 구조의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자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변환한 뒤,¹⁾ 깜짝새 검색을 위한 2b 형식의 파일로 가공·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구축 말뭉치의 교정과 신규 말뭉치의 추가가 용이하여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도 적합하다.

말뭉치의 이용 편의성, 말뭉치의 오류 교정, XML 구조 개선 등 kohico를 운영하면서 확인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말뭉치 구축 플랫폼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에서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말뭉치팀이 이용하고 있다.

1) 필자는 XML 파일 자체를 연구에 이용하기가 불편하여서 국어사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깜짝새에 이용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한 끝에 kohico 누리집을 제작하였다. 최근 논의에서도 XML 파일과 관련된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고성익(2023: 59)에서는 실제 원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량의 태그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보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허인영(2023: 135)에서는 XML이 적절하게 처리·출력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서 많은 국어사 연구자들이 XML 말뭉치를 단순 검색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2. DokuWiki를 이용한 이유

위키 엔진(wiki engine)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사용자들 여럿이서 웹 페이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하는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이다 (위키백과 ‘위키 소프트웨어’ 항목 참조).

	개발자	코드처리	다언어	프로그램 언어	데이터 처리방식	HTML	환경 변수	문서명 변경	공개용	한정 공개	기업용	교육용	내부망	개인용	과학 기술
Media Wiki	Wikimedia Foundation	UTF-8	지원	PHP	MySQL, PostgreSQL, SQLite	지원	부분적 지원	지원 (새주소로 보내기)	적합	적합	적합				
Php Wiki	Steve Walstead 등	ISO8859-1, UTF-8	지원	PHP	Berkeley DB, Flat-file, MySQL, PostgreSQL, Microsoft SQL Server, Oracle 8, Firebird	추가 프로그램 필요 (PlugIn)	테마	지원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Pm Wiki	Patrick Michaud	ISO8859-1, UTF-8	지원	PHP	Flat-file, My SQLite(plug-ins)	지원 (module)	테마 등	지원 (module)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Wacko Wiki	Roman Ivanov		지원	PHP	MySQL	지원 configurable/safe	테마, 스타일	지원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Wikiwig	Steve Goldman (Formerly Starcrouz)		지원	PHP	MySQL	지원	부분적 지원	지원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Wikka Wiki	Wikka Development	ISO8859-1	지원	PHP	MySQL	지원 configurable/safe	지원 (파일 등)	지원 (새주소로 보내기)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Doku Wiki	Andreas Gohr	UTF-8	지원	PHP	File system	지원 (선택사항)	다양한 환경설정 지원	추가 프로그램 필요 (plugin)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표 1 다양한 위키엔진의 비교(김학재 2016)

DokuWiki 엔진을 XML 파일의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의 변환에 이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가. UTF-8 코드처리

나. 다언어 지원

다. MySQL 등의 DB 처리방식이 아닌 TXT 기반의 파일 시스템

라. 플러그인(plugin)을 이용한 다양한 확장 기능

첫째,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은 모두 “<?xml version=“1.0“ encoding=“UTF-8“?>”이라는 XML 선언문으로 시작한다. XML 파일의 문자 코드가 UTF-8 이므로 DokuWiki를 사용하면 별도의 코드변환이 필요 없다.

둘째, 다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에 원문과 언해문을 함께 제공하는 병렬말뭉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²⁾

셋째, XML 파일은 확장명만 TXT로 바꾸면 TXT 파일이 되기 때문에 DB 서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TXT 파일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위키 엔진이라는 점은 DokuWiki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XML파일을 단순히 TXT파일로 변환하여 웹상에 출력해주는 것이 전부이고, 결정적인 동기는 다양한 플러그인(plugin)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kohico의 말뭉치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은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XSLT 플러그인을 통해 XML 파일의 구조를 감싸새 검색에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고, DISCUSSION 플러그인을 통해 각 페이지마다 토론창을 활성화하여 오류 교정과 말뭉치 개선에 협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diffpreview 플러그인을 통해 이전 저장 파일과 새로 저장할 파일의 수정 내용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 Include 플러그인을 통해 1000여 개의 파일을 20여 개의 파일로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2.3. kohico에 이용된 DokuWiki의 주요 플러그인

kohico 제작 전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이용된 DokuWiki의 포매팅 문법³⁾과 주요 플러그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주로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현재는 언해본 중 중국어(한자) 원문만 입력된 상태이나, 역학서 자료를 고려하면 일본어(가나), 만주어(만주문자), 몽고어(몽고문자)의 입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선교사나 외교관이 펴낸 문헌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권 언어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언어의 추가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3) DokuWiki 내부에서 데이터 파일을 쉽게 읽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이다. 포매팅 문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https://www.dokuwiki.org/ko:syntax>’를 참고할 수 있다.

① DokuWiki 포매팅 문법을 이용한 페이지 구성

DokuWiki의 각 페이지는 ‘root 폴더(kohico)\data\pages’에 TXT 파일로 저장된다. 포매팅 문법은 pages 폴더에 저장된 TXT 파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말뭉치팀’의 공지 페이지를 만들고 업무 지시 사항과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아래는 말뭉치팀의 첫 화면이다.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말뭉치팀

-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내이벤터

1. 작업 안내

- 작업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 xml(extendible markup language, 확장 마크업 언어)의 기본 구조
- [1] 연구보조원 안내_자료_20230330.hwp
- [2]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_공제회의_230329

2. xml 형식별 예제 파일

- 언어류 입력 양식^[1]([1] hwp바전_언어류_xml_샘플파일) [1] btt바전_언어류_xml_샘플파일
- 산문류 입력 양식^[2]([2] hwp바전_산문류_xml_샘플파일) [2] btt바전_산문류_xml_샘플파일
- 어간류 입력 양식^[3]([3] hwp바전_어간류_xml_샘플파일) [3] btt바전_어간류_xml_샘플파일
- 자서류 입력 양식^[4]([4] hwp바전_자서류_xml_샘플파일) [4] btt바전_자서류_xml_샘플파일

입력 지원 누리집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사전DB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_국문사전

3. 토론창 최근 댓글 현황

댓글 번호	댓글 내용	댓글 작성자	댓글 작성일	댓글 작성시간	댓글 작성시간
04 7월 전반부	2023/08/17 18:58	오영석	5 댓글		
03 5월 후반부	2023/05/26 22:41	오영석	2 댓글		
1901 국문사전 19010107	2023/05/14 13:47	오영석	2 댓글		
1900 국문사전 19000723	2023/05/07 04:06	오영석	2 댓글		
1899 국문사전 18990316	2023/05/03 23:48	오영석	1 댓글		
1900 국문사전 19000809	2023/05/03 23:42	오영석	1 댓글		
1900 국문사전 19000807	2023/05/01 13:36	오영석	1 댓글		
1899 국문사전 18990310	2023/05/01 07:40	오영석	2 댓글		
1899 국문사전 18990309	2023/05/01 03:28	오영석	1 댓글		
1899 국문사전 18990524	2023/04/26 17:29	오영석	2 댓글		

4. 업무 분담표

- [국문사전] 작성 분담 구급 시도
- 4월 전반부 작성 분담표
- 4월 후반부 작성 분담표
- 5월 전반부 작성 분담표
- 5월 후반부 작성 분담표

- [자서] 작성 분담 구급 시도
- 5월 전반부 작성 분담표
- 5월 후반부 작성 분담표

5. 기증받은 말뭉치 아카이브

기증받은_말뭉치_아카이브

6. 어원사전 집필 감수용 말뭉치

어원사전 집필 감수용 말뭉치

1) 이후의 업데이트 상황은 [국문]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2)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lang="chi"와 lang="kor" 속성이 나란히 있는 구조. 장차 역시 앞/뒤면에 맞게 01a/01b처럼 a/b로 나뉘어 있다.

3) 더릴 언어 말뭉치 형식으로, lang="kor" 속성만 있다. 장차에 a/b의 구분이 없다. 나머지는 언어류 말뭉치 형식과 동일하다.

4) 편집자, 국문 태그인 <letter> 태그를 상위 노드로 하여, 한자에 앞선 자 태그인 <sender>, 작성자 태그인 <writer>, 수신자 태그인 <addressee>, 편집자 태그인 <year>, 편집 내용 태그인 <edit>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분류'도 같이 적혀 있기도 하여 속성 정보에 type="envelope1", type="envelope2" 태그도 포함하였다.

5) 자서류의 일반적인 구조에 맞게 한자(Chinese character) 태그인 <ch>태그의 하위에 자음 태그인 <g>, 외음 태그인 <m>, 소리의 태그인 <v>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본문 첫줄에 제목이 있기도 하므로, 첫줄의 앞 말부분에 <sent type="title"> 태그를 제시하였다.

그림 1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말뭉치팀 프로젝트 첫 화면

다음은 kohico에서 사용된 주요 플러그인이다. DokuWiki의 플러그인들은 각각의 개발자가 작성한 자세한 사용 안내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각 URL 주소를 참고할 수 있다.

① XSLT 플러그인(<https://www.dokuwiki.org/plugin:xslt>)

XSLT를 이용해 원하는 문서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와 XSL(XSLT)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 두 문서를 연결시켜 줘야 한다. 그런데 XSLT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하나의 TXT 문서 안에 XML 문서와 XSLT 문서를 포함시킬 수 있고 웹 화면(html 문서)에서 XSLT 문서에 의해 XML 문서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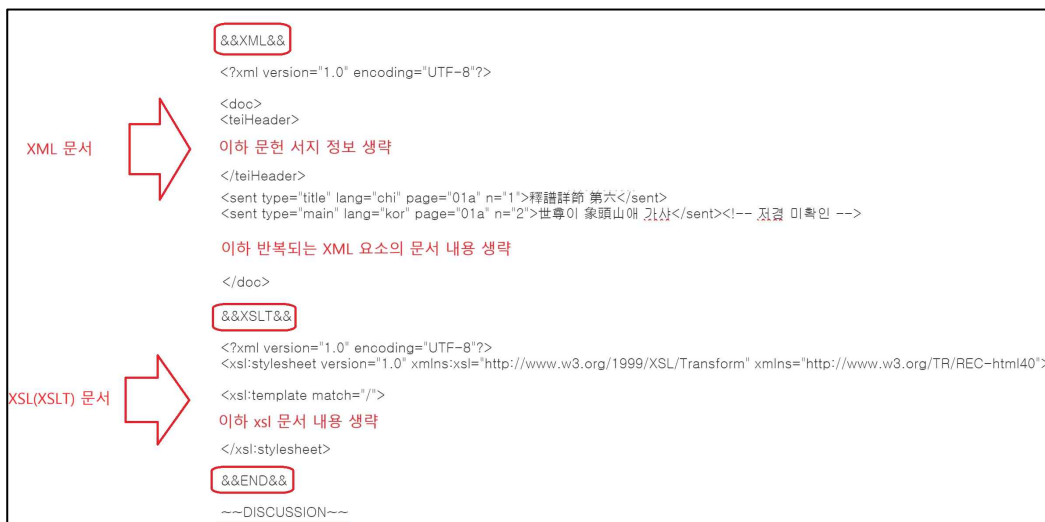


그림 2 XSLT 플러그인을 이용한 kohico 문서(석보상절 권6)의 편집창 화면

```
<1447_석보상절6 유형=title 언어=chi 장차=01a:1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釋譜詳節 第六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2 입력저본=디지털한글박물관>
世尊이 象頭山애 가샤
(--- 저경 미확인 ---)
```

그림 3 XSLT 플러그인을 이용한 kohico 문서(석보상절 권6)의 웹 실행화면

② DISCUSSION 플러그인(<https://www.dokuwiki.org/plugin:discussion>)

편집창 화면에 ‘~~DISCUSSION~~’ 을 입력하면 DISCUSSION 플러그인이 실행된다. DISCUSSION 플러그인이 적용된 페이지의 하단부에는 토론창이 생성되고 토론창에 작성된 내용은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ohico의 이용자들이 토론창에 남기는 내용은 기구축 말뭉치의 경우, 주로 말뭉치의 내용 오류에 관한 것이고, 신규 말뭉치의 경우 ‘2023 국어 어원사전 편

찬:말뭉치팀’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교류에 관한 것이다.

<1447_석보상절6 유형=title 언어=chi 장차=47a:6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釋譜詳節 第六

토론

댓글을 입력하세요. 위키 문법이 허용됩니다:

B*I*U**TT**~~S~~



저장 미리 보기

그림 4 ‘~~DISCUSSION~~’ 입력으로 생성된 토론창 화면

start

토론 중재

영인대조:1459_월인석보19

영인대조:1459_월인석보19
* □ 2022/08/09 19:59: (단락 구분 변경) <1459_월인석보19 유형=main 언어=chi 장차=77b-78a:3 입력자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或現大身滿虛空中, <1459_월인석보19 유형=main 언어=kor 장차=77b-78a:3 입력자본=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시작 ...

상태: [열기] [바꾸기]

국어사:1677_박통사언해_中

국어사:1677_박통사언해_中
* □ 2023/08/07 18:19: 오자가 있습니다. 我先來你來? <1677_朴通事諺解 中 유형=main 언어=kor 장차=57b:6 입력자본=朴通事諺解> 내 본자 너를 짐작후나 "짐작" → "짐작" "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짐작"이 맞음.
* □ 2023/08/08 00:10: 지적하신 사항을 교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열기] [바꾸기]

영인대조:1464_금강경언해상

영인대조:1464_금강경언해상
* □ 2023/08/07 15:11: (이표는 선생님 교정 제안, 입력 누락) <1464_금강경언해 출전약호= 권차_장차=상=52b 6번쨰_문장 유형=anno 언어=kor 입력자본=금강경언해 (불갑사 디지털)> 후로 歡心이 → 만후로 歡心이

상태: [열기] [바꾸기]

영인대조:12c_화엄경소_권35

영인대조:12c_화엄경소_권35
* □ 2023/07/26 16:03: 구절 자료의 "lang="mod"를 "lang="pdk"로 변경함, pdk는 present-day Korean의 약어임.

상태: [열기] [바꾸기]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3_5월_후반부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3_5월_후반부
* □ 2023/05/25 18:01: "심생구사_구할자본고소설전집9편" → "심생구사_구할자본고소설전집8편"으로 수정 요망
* □ 2023/05/26 22:41: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열기] [바꾸기]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5월_전반부_제국신문:1900_제국신문_19000723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5월_전반부_제국신문:1900_제국신문_19000723
* □ 2023/05/06 22:31: 원문 사진 1,2,3이 보이지 않습니다.
* □ 2023/05/07 04:06: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열기] [바꾸기]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4월_후반부_제국신문:1899_제국신문_18990316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4월_후반부_제국신문:1899_제국신문_18990316
* □ 2023/05/03 23:48: 02면 50줄에 "자고맛 가에 전차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태: [열기] [바꾸기]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5월_전반부_제국신문:1900_제국신문_19000609

2023년_국어_어원사전_편찬_말뭉치팀:01_제국신문:5월_전반부_제국신문:1900_제국신문_19000609
* □ 2023/05/03 08:42: 영인본상으로는 "기통국"으로 보이나 제국신문 DB에는 모두 "기통국"으로 입력되어 있음. 입력자의 주의 요망.

상태: [열기] [바꾸기]

그림 5 관리자의 토론 중재 화면

③ INCLUDE 플러그인(<https://www.dokuwiki.org/plugin:include>)

INCLUDE 플러그인은 XSLT 플러그인이 적용된 1000여 개의 파일을 취합하여 2b 파일로 변환하는데 유용하다. 1000여 개의 파일을 일일이 2b 파일로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비효율적이다. INCLUDE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여러 페이지의 웹 화면을 묶어서 한 페이지의 웹 화면에 보여준다. INCLUDE 플러그인은 편집창에 “{{page>파일의 경로}}”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를 불러온다.

```
{{page>국어사:1446_훈민정음_해례본}}  
{{page>국어사:1447_석보상절03}}  
{{page>국어사:1447_석보상절06}}  
{{page>국어사:1447_석보상절09}}  
{{page>국어사:1447_석보상절11}}
```

그림 6 편집창 화면(INCLUDE 플러그인의 소스)

<1446_훈민정음_해례본 유형=main_정인지_후서 언어=chi_장자=33a-33b:34 입력자본=간송본>
實惠大夫體曹判書集賢殿大 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大體“審判”---)

© 2021/06/22 01:01 · 0 댓글

문집 (국어사:1446_훈민정음_정인지)

기본정보

- 서명: 석보상절3釋讀詳節3
- 지자:
- 간행년도: 1447(1561重刊本)

입력저본

- 서명: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천명식)
- 소장처/간행처: 무량사개관
- 소장자/간행자:
- 간행년도/발간년도:

전사정보

- 입력일:
- 입력자: 이의종
- 교정자:

그림 7 웹 실행화면

(XSLT에 의해 변환된 훈민정음과 석보상절 권3이 한 페이지에 이어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말뭉치 구축·정비 작업 현황

3.1. 기구축 말뭉치의 정비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의 말뭉치 정비가 주로 내용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면, kohico의 기구축 말뭉치에서 중점을 둔 정비는 XML 구조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있다.

다음은 감작새 검색을 위해 XML 파일을 변경한 주요 사항들이다.

1) 파일명 변경(간행연도 추가, 한글서명으로 통일)

감작새의 2b 파일 합치기 기능을 이용할 때 연대순으로 정렬하여야 검색 시에도 연대순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여 ‘간행연대_문헌서명’의 형식으로 파일명을 통일한 후 정렬하였다.⁴⁾ 또한 파일명에 한자 서명과 한글 서명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한글서명으로 통일하였다.

2) 파일의 분할

『맹자언해』와 『청어노걸대』와 같이 여러 권을 함께 묶어 놓은 단일 파일의 경우 권별로 파일을 나누었다. 또한 이렇게 묶인 파일을 권별로 나눈 후 <teiHeader>의 하위 노드에 <volume n='01'>과 같이 태그와 속성을 추가하여 권차 정보를 노출시켰다.

3) 문헌 서지 정보 변경(<teiHeader> 하위 태그 통일)

2016, 2018년에 작업한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 중 일부 <annosStmt> 태그를 <notesStmt>태그로 통일하였다. 또한 2014, 2015년에 작업한 파일 중 <meta>태그를 2016, 2018년의 <teiHeader> 태그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teiHeader>의 본문에 제시한 영인본 웹주소의 경우 특수문자로 인해 파싱 시 에러가 발생하여 주석문(<!-- -->)으로 바꾸었다.

4) 주석 태그

2면에 걸친 문장에 표시한 장차 부호(^)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앞뒤 1음절씩과 함께 주석문형식(<!-- -->)으로 바꾸었다.

4) 파일 통일은 INCLUDE 플러그인을 이용하였다.

5) 속성값 변경

『석보상절』 권19, 『용비어천가』 권1, 『창진방찰요』, 『한불자전』 등의 열말뭉치에서 일부 'n=번호'가 맞지 않는 것을 변경하였다.⁵⁾ 또한 lang 속성의 “chi/kor” 값이 뒤바뀐 것들을 수정하였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시가의 특성상 엽수보다 장(章)과 기(其)에 의한 위치 파악이 더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름 감안하여 ‘page’의 속성 값에 『용비어천가』는 장(章) 정보를, 『월인천강지곡』은 기(其) 정보를 추가하였다.

6) 어원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1.0 제공

kohico에서 수정·보완한 기구축 말뭉치를 바탕으로 집필진에서 요구한 집필 감수용 말뭉치의 형식은 우리말샘과의 통일성이었다. 이에 맞춰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1.0을 제공하였다.



그림 8 우리말샘의 ‘ㄱ름’에 대한 예문 정보

위의 예는 우리말샘에서 ‘ㄱ름’을 검색할 때 나오는 예문 정보인데, ‘《》’ 속 정보가 매우 간략하다. 서명은 약호만 제시되어 있고 ‘권차:장차’ 형식으로 위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말샘의 경우 약호명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의 예처럼 ‘석보상절(1447)’이라는 ‘서명(간행연도)’ 정보가 뜨기 때문에 약호명만 노출하여도 어떤 문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kohico에 수록된 기구축 말뭉치에는 약호 정보가 없어서 ‘<abbre>’ 태그를 추가하였다. 문헌의 부정확한 연대를 교정하는 작업도 하였고, 추가

5) ‘n’ 속성의 오류는 인지한 것들만 수정한 것으로 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로 엽수의 앞/뒷면 정보를 ‘a/b’ 에서 ‘ㄱ/ㄴ’ 으로 교체하였다.

kohico의 통합 말뭉치(2022년10월 버전)	어원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1.0
<1447_석보상절6 유형=title 언어=chi 장차=01a:1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釋譜詳節 第六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2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 저경 미확인 ---)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3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과 鬼神과 위후야 說法후더시다 (--- 저경 미확인 ---)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4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鬼 위후야 說法후사미 부엌 나히 설흔돌허러시니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5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穆王 여섯갓 히 乙酉 라 <1447_석보상절6 유형=section_begin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6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爾時世尊告目犍連。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6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부테 目連이든려 니르샤디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7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汝今往彼迦毘羅城。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7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네 迦毗羅國에 가아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8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問訊我父闍頭檀王。并我姨母波闍波提。 <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8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바넝고와 아즈마넝고와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9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즈마니온 大愛道를 니르시니 <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1b:10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大愛道 摩耶夫人 見尼미시니 (---人^人^--)	<1447-석상 6:01> 釋譜詳節 第六 <1447-석상 6:01>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주석: 저경 미확인) <1447-석상 6:01> 龍과 鬼神과 위후야 說法후더시다 (주석: 저경 미확인) <1447-석상 6:01> 龍鬼 위후야 說法후사미 부엌 나히 설흔돌허러시니 <1447-석상 6:01> 穆王 여섯갓 히 乙酉 라 <1447-석상> ○ <1447-석상 6:01> 爾時世尊告目犍連。 <1447-석상 6:01> 부테 目連이든려 니르샤디 <1447-석상 6:01> 汝今往彼迦毘羅城。 <1447-석상 6:01> 네 迦毗羅國에 가아 <1447-석상 6:01> 問訊我父闍頭檀王。并我姨母波闍波提。 <1447-석상 6:01> 아바넝고와 아즈마넝고와 <1447-석상 6:01> 아즈마니온 大愛道를 니르시니 <1447-석상 6:01> 大愛道 摩耶夫人 見尼미시니 (주석: 人^人^)

표 2 kohico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2b 통합 말뭉치와 집필·감수용 말뭉치의 비교

3.2. 신규 말뭉치의 정비·구축

말뭉치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이제까지 kohico에서 말뭉치팀 5명의 팀장 +30명(현재 29명)의 연구보조원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먼저 말뭉치 정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연구원들이 예비작업을 해본 뒤,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kohico 관리자의 회의를 통하여 기초적인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kohico 내부에 작업 안내 페이지([그림 1])를 작성하였다.

말뭉치 작업이 개시된 뒤부터는 팀원의 질문에 대해 팀장이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팀별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kohico 내에서 토론 기능([그림 4, 5])을 사용하여 각 문서를 작업하는 담당 연구보조원이 질문을 올리면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다.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kohico 내 안내 페이지([그림 1])를 작성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참여자 명단, 지침 변경 및 추가 사항, 담당 문헌 배정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4월부터 5월 전반까지 공동연구원들 중 일부가 미정비 문헌 목록에 포함된 문헌들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일단 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규 자료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신문 자료를 DB화한 ‘제국신문 DB’에서 『제국신문』의 내용을 연구보조원당 5일치, 또는 8일치씩 배정하여 절 단위로 분절하고 XML 형식에 맞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제국신문』은 하루치가 1,000어절 정도라고 가정하고 4월 전반 5일치(5000어절), 4월 후반 8일치(8,000어절)를 배정하였으므로 총 13,000어절을 작업할 것이 기대되었다. 실제로 4월 말에 작업한 결과물을 수합해서 어절 수를 계산한 결과 1인당 평균 29,865.1어절을 작업하였다(1인당 16,000어절 초과 달성). 이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XML 태그가 부착된 뒤 말뭉치의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과 달성으로 인해 5월 전반까지 100만 어절이 넘는 분량의 말뭉치가 구축되었다.

5월 후반부터는 미정비 자료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나온 활자본 고소설이나 신소설을 배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안예리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기증한 『신식부인치가법』, 『신학신설』 등 20세기 초 말뭉치 자료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근대 신어들의 용례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원사전 편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현재 90개 문헌 2,542,579 어절에 대해 작업 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272,553 어절이 정비·구축 완료되었다.⁶⁾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370만 어절의 정비·구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사용자 경험과 보완 방향

4.1.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kohico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UX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보조원들이 처음 kohico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접속하여 작업을 시작할

6) 현재 정비 진행 중인 자료와, 정비가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정비 완료된 자료의 어절 수가 보고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분량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에는 ‘흔글’ 등 문서편집기가 아닌 웹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낮설어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처음 작업하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XML 태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kohico에서는 XML 형식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 스타일시트를 사용하여 변형된 형식을 보여준다.

```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데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논설" n="2">논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3">턴하에 데일 도흔 음식이 잇스니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4">이 음식은 사릅이 몬든 것도 아니
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5">신선이 보넌 것도 아니라</sent>
```

표 3 『제국신문』 정비 결과물(XML 형식, 부분)

```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제호 1번째_문장> 데국신문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2번째_문장> 논설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3번째_문장> 턴하에 데일 도흔
음식이 잇스니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4번째_문장> 이 음식은 사릅이
몬든 것도 아니오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5번째_문장> 신선이 보넌 것도
아니라
```

표 4 kohico상에서 [표 3]의 내용이 XSLT 스타일시트로 렌더링되어 보이는 화면

처음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화면과 ‘편집’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이 다르다는 것에 혼동을 느끼는 연구보조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보조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적응하였다.

우리는 kohico의 UX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말뚝치팅에서 진행 중인 작업 및 kohico 사용과 관련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33명 가운데 14명(42.4%)이 응답하였다.

1) 이전에 국어사 말뭉치와 관련된 작업(구축, 정비 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14명 중 10명(71.4%)은 국어사 말뭉치 관련 경험이 있었고 4명(28.6%)은 없었다.

응답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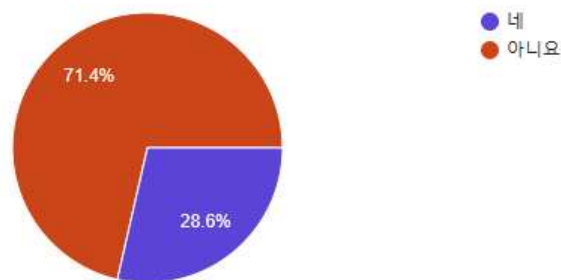


그림 11 설문조사: 말뭉치 관련 작업의 경험 유무

2) 이번에 말뭉치 정비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 긍정적

- <역사자료 말뭉치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때보다 훨씬 체계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방식인 점, 분류가 폴더 방식으로 잘 돼 있는 점,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점 등이 좋습니다.
- 작업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신속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짐. Kohico를 활용해서 작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운영됨.
- kohico와 공유 문서 등을 통해 연구원 전체가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업이 처음이라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팀장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려운 점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작업이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말뭉치 구축을 하면서, 당시의 문헌을 꼼꼼히 읽어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력되어 있는 문헌을 교정하는 작업이어서 비교적 수월한 것 같습니다.
- 제국신문 작업을 통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신문에 실린 글임에도 불구하고

고 표기법이 매우 혼란하다는 점을 느꼈다.

- 입력하면서 새로운 문법사적 사실이나 표기법 등을 관찰하게 되어 흥미로움
- 그 시대의 사용했던 어휘, 문법, 표기 등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다.

▲ 부정적

- 절 단위 판단이 쉽지 않다.
-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뜻을 파악하여 문맥에 맞게 분절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 처음 하는 작업이라 힘들었고, 문헌 종류에 따라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검토진과 집필자가 메신저만으로 묻고 답하고 해야해 잘 소통이 안되는 점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 생각보다 일정이 빠듯하네요

긍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보인다.

- ① 말뭉치 구축 작업의 체계적 진행
- ② 공유 문서, 빠른 피드백 등 원활한 소통
- ③ 정비 대상 문헌의 검토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전공과 관련된 지식

이전에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말뭉치 정비 및 구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 ① 절 단위 분절의 기준을 잡기 어려움
- ② 메신저를 통한 팀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③ 타이트한 작업 일정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처음 작업하는 경우에 더 크게 느낀 것 같으나, 지금은 거의 적응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작업 지침을 확충하고 각 팀 내외의 피드백을 활성화하며 작업 일정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 3) 현재 사용 중인 kohico 사이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접근의 용이성('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 비하여 접근하기 쉬움), ② 수정·보완의 편리성(관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음), ③ 자료 축적의 체계성(향후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
-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현황을 한눈에 보고 공유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kohico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말뭉치 공동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 개개인이 할당된 자료만 작업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구축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작업 현황,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어서 할당된 부분을 작업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어디서든 접근이 쉽다.
- 실시간 피드백 가능
-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점
- 하나의 서버에서 실시간 중앙 관리가 용이함.
-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어서 좋고, 토론 공간도 있어서 좋음.
- 직관적입니다.
- 원본 이미지가 함께 실려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헌별로 사진과 텍스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음.
-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생각해보지 않음

kohico의 장점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았다.

- ① 접근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음.
- ② 편의성: 누구나 편집 가능하고 이미지가 있는 경우 함께 볼 수 있음.
- ③ 체계성: 현황 파악이 직관적이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음.

‘흔글’이나 ‘엠에디터’ 등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일일이 수합하여 정리하던 과거의 방식에 비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kohico의 방식이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위키의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hico의 경우에는 팀장이 팀원이 작성한 문서를 팀원 아이디로 따로 로

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4) 현재 사용 중인 kohico 사이트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없습니다.
- 없는 것 같음
-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종종 글자가 깨진다. 날개셋이 설치된 컴퓨터가 많지 않은 만큼 날개셋을 통하지 않더라도 옛한글이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훨씬 편하겠다.
- 느립니다~~~~
- 속도가 너무 느림. 피드백을 할 때 편집이 쉽지 않음. 간단한 수정만 가능. 행 바꿈 등 전반적인 수정은 어려움.
- 다른 사이트에 비해 로딩시간이 길어요. 누르면 바로 문헌들이 뜨면 좋겠습니다.
- 속도가 느림.
- 속도가 너무 느려 사용하기 불편함. 이 점만 개선하였으면 좋겠음.
- 잘 모르겠으나, 굳이 꼽자면 가끔 사이트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 약간 아쉬움.
- 입력한 말뭉치 파일에 태그 등 형식 오류가 생겼을 때 당황하는 팀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xml editor 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kohico 안에서 자세히 안내되면 좋겠고, (더 욕심내자면) 입력할 때 kohico 안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발견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가령 no30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하나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게 될 때 처음부터 다시 번호매김을 해야 하는데, 내용 수정을 하면 줄표시 숫자가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 작업 분량이 미리 업로드되었으면 합니다
- 원문을 xml 형식에 맞추어 입력할 때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개선점으로 요구된 것은 kohico 사이트 자체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NAS에 설치된 서버에서 DocuWiki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NAS는 그래픽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만 없을 뿐이지 개인용 컴퓨터(PC)와 내부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NAS는 일반적으로 테라바이트(TB)급의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하는 데 쓰이므로 고사양의 CPU나 RAM이 사용되지 않는다. DocuWiki는 텍스트

트 파일 기반 위키이므로 설치, 백업, 복구와 설정 및 사용법이 간단하나, 페이지가 늘어나면 검색이 느려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 NAS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회선이 500Mbps의 가정용 회선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인근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많거나, kohico에 접속자가 물리게 되면 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 고속 회선과 대용량의 서버를 임대하고, 속도가 빠른 DB 기반 위키를 설치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①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XML 태그셋에 문장 번호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절 단위 분절을 하다가 판단이 바뀌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음.

② XML 형식에 오류가 있으면 아예 문서가 깨져버리는 DocuWiki 특성상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그림 12 kohico의 오류 메시지

4.2. 보완 방향

① 문헌 종류에 따라 입력 방법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운 문제

앞으로 국어사 자료에 대한 XML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사 자료에 대한 XML 구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텍스트 부호화 주도 기구(Text Encoding Initiative: TEI)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② 어휘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2.0

Ver. 1.0을 집필자들이 사용하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메타 정보를 많이 노출시켜 집필 시에 정보의 부족함이 없도록 XML 구조를 개선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 가운데 말뭉치팀에서 국어사 말뭉치를 정비하고 구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위키 플랫폼 ‘kohico’와 해당 플랫폼상에서의 작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사용자 경험과 보완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kohico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수작업으로 결과물을 수합했던 과거 방식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방식임이 분명하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다. DocuWiki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를 다루는 말뭉치 정비·구축 작업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웹 플랫폼에서의 작업을 통한 접근성, 편의성, 체계성, 토론란을 통한 실시간 소통은 물론이고, 작업하는 각 팀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톡방 운영,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한 작업 현황 공유 등의 장치 또한 말뭉치 정비·구축 작업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본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휘발되지 않고 다른 유사 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 문헌】

- 김미형(2020), 「쉬운 공문서 판단 기준 문제와 과제」, 『공공언어학』 4호, 한국공공언어학회, 1-35.
- 김학재(2014), 「한국고전 관련 사전 및 공구서 편찬의 과제와 전망」, 『2014 고전번역연감』, 한국고전번역원, 134-145.
- 김학재(2013), 「《다산학사전》 편찬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한국학 사전 편찬의 현황』, 지식과교양, 49-66.
- 김학재(2016), 「위키소스(Wiki Source)를 이용한 사전 편찬」, 『기초반 사전 편찬 교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139-142.
- 이정선(2016), 「‘디지털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2016년 제7회 디지털아카이브·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대회의 참관기」, 『개념과 소통』 18,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309-323.
- 장경준 외(2019), 「국어 역사 말뭉치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황선엽 외(2015), 「2015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황선엽 외(2016), 「2016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황선엽 외(2018), 「2018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우재남(2015), 『이것이 리눅스다』, 한빛미디어.
- 케빈 골드버그 지음, 전현정 옮김(2015), 『핵심만 골라 빠르고 쉽게 배우는 XML 퀵스타트 가이드』, 프리렉.
- 벤 포터 지음, 김경수·이종진·신나라 옮김(2019), 『손에 잡히는 10분 정규 표현식』, 프로그래밍인사이트.
- 홍성용(2015), 『XML 그로그래밍: 체계적으로 배우는 XML 원리와 응용』, 한빛아카데미.
- 고경희(2017), 『Do it! HTML5+CSS3 웹 표준의 정석(전면개정판)』, 이지스퍼블리싱.
- 연규동·박진호·최운호(2003),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 태학사.
- 박건숙(2020), 『한국어 인공지능 I: Python으로 시작하는 한글 처리』, 노드미

디어.

홍윤표(2012), 『국어 정보학』, 태학사.

김현주·김홍규(2013), 「‘세종역사말뭉치’의 몇 가지 현안과 그 개선 방안」,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85-114.

장경준(2019), 「역사 자료 말뭉치의 보완과 활용: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3, 한말연구학회, 183-218

고성익(2023), 「국어사 말뭉치 구성의 실무적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 『2022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어사학회, 53-70.

허인영(2023), 「국어사 말뭉치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111-143.

【누리집】

송인재(한림대, 2021.4.27.), 2021 디지털 인문학 특강 02, 중국화 분야 디지털 인문학 플랫폼의 구성과 활용

https://youtu.be/wi_IWXhVmJg?si=c11Ed4Nc2ZiwpCdf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Chinese Text Project: <https://ctext.org>

http://dh.aks.ac.kr/~red/wiki/index.php/Chinese_Text_Project

DokuWiki 개발자 누리집: <https://www.splitbrain.org/projects>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의 실제’에 대한 토론문

박진호(서울대학교)

1. XML의 기본 원칙

- 하나의 XML 문서는 하나 이상의 element로 이루어져 있다.
- 하나의 element는 단순 문자열을 데이터로 가질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child element를 포함할 수도 있다.
- 하나의 element는 하나 이상의 attribute 및 그에 대응하는 value를 가질 수 있다.
- 어떤 정보가 미리 정해진 닫힌 집합의 원소들 중 하나일 때, 또는 숫자와 같이 정형화된 형태일 때는 그 정보를 attribute-value로 제공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 문자열 데이터로 제공한다.

2. 국어사 자료에 XML을 적용할 때의 요령

- 하나의 문헌 또는 그 문헌의 특정 권차를 하나의 element로 한다.
- 하나의 문헌(또는 권차) element는 문장(또는 문단) element를 child element로 갖는다.
- 원문과 번역문으로 이루어진 문헌의 경우, 문헌 element가 원문과 번역문을 child element로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각 element 층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문헌명, 간행연도 같은 정보는 문헌 element 차원에서 주고, 언어 정보는 (문헌 element의 child인) 원문 또는 번역문 element 차원에서 주고, 장차, 문장번호 같은 정보는 (원문 또는 번역문 element의 child인) 문장 element 차원에서 주면 된다.

--- 예시 ---

```
<book id="17" year="1463", volume="1">
<title>법화경언해</title>
<original>
<sentence page="1a" serial="1"> ... </sentence>
<sentence page="1a" serial="2"> ... </sentence>
.....
```

```

<sentence page="1b" serial="1"> ... </sentence>
<sentence page="1b" serial="2"> ... </sentence>
.....
</original>
<translation>
<sentence page="1a" serial="1"> ... </sentence>
<sentence page="1a" serial="2"> ... </sentence>
.....
<sentence page="1b" serial="1"> ... </sentence>
<sentence page="1b" serial="2"> ... </sentence>
.....
</translation>
</book>

```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을 구성하면, 정보를 경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원문과 번역문을 짝짓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음.

파일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element나 attribute의 이름을 축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예: volume->vol, sentence->sent, page->pg, serial->ser

3. kohico 말뭉치의 XML 포맷에 대한 제안

- 문헌명, 간행연도, 언어, 입력저본 등의 정보가 각 문장마다 붙어 있어서 비경제적임. 이런 정보는 문장보다 더 높은 층위의 element로 옮기는 게 나음.

- 각 element의 이름은 그 element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짓는 게 좋음. 현재 kohico 말뭉치에서는 각 문장 element의 이름이 “1447_석보상절6” 과 같이 되어 있고, 장차 등의 attribute를 통해 각 문장이 구별되게 하고 있는데, 이는 XML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임.

- 정보가 각 문장 element마다 반복되고, 각 문장 element에 딸린 attribute 도 많기 때문에, 웹에서 이를 처리할 때 시간과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게 됨.

4. 애초에 국어사 말뭉치의 XML 포맷을 XML의 기본 원칙과 다르게 한 이유

- XML 파일의 크기가 크고 구조가 복잡할 때, XML parser가 이를 파싱해서 메모리에 load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

- XML의 위계적 구조를 참고해서 정보를 추출해야 할 때는 파싱 과정이 필요함.

- XML의 위계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plain text로서 취급하여 가벼운 tool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때가 많음.

- 국어사 말뭉치를 가지고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작업은 용례 검색이고, plain text의 문자열 검색을 위해서는 grep, ag 같은 좋은 command-line tool 이 많이 나와 있음.

- 뒤에 서술할 바와 같이, 정보를 반복해서 제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XML의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이 좋음.

* 번역문의 ‘~홀 디 아니~’ 및 그 원문을 검색한 화면

-B(=Before) 스위치 뒤에 숫자 n을 써 주면 타깃 문자열이 있는 라인뿐 아니라 그 라인 앞의 n개의 라인도 함께 보여줌.

```
synpjh@ynpjhui-MacBookPro corpus % ag -B1 "홀 ?디 아니"
1481두시연해05.xml
631:<sent type="main" lang="chi" page="32b-33a" n="7">將驕益愁思 身貴不足論</sent>
632:<sent type="main" lang="kor" page="32b-33a" n="7">主將이驕慢호시더욱 淸대 시름한노니 @내 모^□□□요곤모히 謹1홀 디 아니니라</sent>

1481내훈2상.xml
359:<sent type="main" lang="chi" page="42b" n="1">人이 未必當自生子 | 니 但患2養이 不2至耳니라</sent>
360:<sent type="main" lang="kor" page="42b" n="1">사2란이 반2기 제 아2들나하사 홀 디 아니니 오직 어엿비 너겨 길우미 至極 디 문호물分別 홀2미라</sent>

1481내훈1.xml
764:<sent type="main" lang="chi" page="70b" n="2">扶養者는 則不必然2離니라 其居喪에 聽樂及嫁娶者2는</sent>
765:<sent type="main" lang="kor" page="70b" n="2">더위자바 養2한 오로매 그리 홀 디 아니니라 그 거상2아서 音樂 드르며 嫁娶2한</sent>

1482금강경상가해4.xml
527:<sent type="anno_ham" lang="chi" page="10b" n="14">如是伎倆은 匪從他得이니라</sent>
528:<sent type="anno_ham" lang="kor" page="10b" n="14">이 군2조는 남2조차 得2홀 디 아니니라</sent>

1482금강경상가해3.xml
2927:<sent type="anno_ham" lang="chi" page="58a" n="8">佛不外求 | 라</sent>
2928:<sent type="anno_ham" lang="kor" page="58a" n="8">부터 求2밧기求2홀 디 아니라</sent>

1465원각경언해2-2.xml
650:<sent type="anno2" lang="chi" page="35a" n="3">佛止云不須汝等 護持是經</sent>
651:<sent type="anno2" lang="kor" page="35a" n="3">부테 말이사 니 護2디 구2되여 너희 이 經 護持2홀 디 아니라</sent>

1465원각경언해상1-2.xml
1487:<sent type="anno" lang="chi" page="148a" n="1">妄執身心이 苦無過患인댄 任其長執2하 不必化之어니와</sent>
1488:<sent type="anno" lang="kor" page="148a" n="1">身과 心과 妄2히 자2보미 한다가 過患 업슬댄 그 기리 자보물맞더 구2되여 化2홀 디 아니어니와</sent>

1481두시연해21.xml
784:<sent type="main" lang="chi" page="37a-37b" n="10">有能市駿骨 莫恨無龍媒</sent>
785:<sent type="main" lang="kor" page="37a-37b" n="10">能2히 ^駿馬의 媒2를 사미 이시면 @도 혼2로 업수물 슬2홀 디 아니니라</sent>
```

* 원문의 ‘不必’ 또는 ‘不須’ 및 그 번역문을 검색한 화면

-A(=After) 스위치 뒤에 숫자 n을 써 주면 타깃 문자열이 있는 라인뿐 아니라 그 라인 뒤의 n개의 라인도 함께 보여줌.

nynpi h@nynpihui-MacBookPro corpus %ag Al (「不」)(必「須」)
1481두시언해 10.xml
662:<scent type='min' lang='chi' page='33a' n='1'>兒童解豎語 不必作參軍</scent>
663:<scent type='min' lang='kor' page='33a' n='1'>아리이 蠻人의 말에 아니 @ 구미여 參軍이 된디 아니 하도 후로다 </sent>

1599사적역.xml
145:<scent type='anno' lang='kor' page='3b' n='9'>托言貴族當時의 마을指所私之人^三姓也</scent>
146:<scent type='min' lang='chi' page='3b' n='10'>以爲兄兒</sent>

1459월인석보17.xml
510:<scent type='min' lang='chi' page='36b-37a' n='6'>「阿過多!是善男子、善女人,不須爲我復起塔寺。及作僧坊、以四事供養眾僧。」</scent>
511:<scent type='min' lang='kor' page='36b-37a' n='6'>阿過多야 이 ^善男子 善女人이 구미여 날 爲 하야 塔寺 세며 僧坊 지서四事로 衆僧 供養 아니 하야도 한다 </sent>

--
544:<scent type='anno' lang='chi' page='40a' n='1'>「...」復起塔寺及造僧坊供養眾僧。</scent>
545:<scent type='anno' lang='kor' page='40a' n='1'>구미여 다시 塔寺 세며 僧坊 지서衆僧 供養 아니 하야도 한다 한다 </sent>
--
564:<scent type='anno' lang='chi' page='42a' n='2'>又云不須復起塔寺，非廢於行也，姑離事順理，使人深遠不滯於途而已。</scent>
565:<scent type='anno' lang='kor' page='42a' n='2'>또니 ㅅ나디 구미여 塔寺 세디 말라 하시니 行을廢 해는 디 아니라 안죽이 불어 회여 理 불나토사 사면 기피 다사 차치에 걸디 아니케 할 쉰 니 </sent>

481두시언해 11.xml
416:<scent type='min' lang='chi' page='28b' n='2'>竹葉於人數無分 菊花從此不盡開</scent>
417:<scent type='min' lang='kor' page='28b' n='2'>땃니 피 사 玆開 하 분이 업스니 @菊花닐로 보르터 구미여 프디 아니 하야도 후로다 </sent>

1518별곡초학 07.xml
181:<scent type='min' lang='kor' page='18b' n='3'>唯五十以上에 血氣既衰 하야 必資酒肉扶養者 則不然然耳나 </sent>
182:<scent type='min' lang='kor' page='18b' n='3'>오직 언 후에 그우니 사오나와 모로메 술 고기 불며 게사살리느 구미여 그리 마라도 한다 </sent>

1517장전방합요.xml
270:<scent type='min' lang='chi' page='25b' n='1'>四五日其瘡大小不一等 根聚紅光澤明淨 不必藥 稠密脂頂灰白色滿齒者 宜服十一味木香散 送下七味肉豆蔻圓 /</scent>
271:<scent type='min' lang='kor' page='25b' n='1'>나흘 다섯째 의 瘡이 글고며 고미고 혼 혼? 아니오 터히 불고 빛나고 ㄱ든 약을 말오 비비기 봐오 뜸드고 보힌 것 고 조식 오 같거든 심일미 국 향 달린 油 를 침 두근 두근을 ㅅ하 느니 </sent>
272:<scent type='min' lang='chi' page='26a' n='1'>六七日其瘡根色黃赤如米 身溫氣促口乾咽脈足指痛者重 十一味木香散 加丁香肉桂 </sent>
273:<scent type='min' lang='kor' page='26a' n='1'>여닐곱 에 그瘡이 염그 붉고 빛나니 瘡 경한 반지 알과 할가 모미 담고 수미 재고 이비 무고 비 땀한 해 발라기 찬 물디 심일미 국 향에 藥과 계피와 가 하야 머기라 </sent>
274:<scent type='min' lang='kor' page='26b' n='1'>八九日其瘡長足肥滿蒼蠶者輕 不必藥 若參戰亂腹脹脈沉濁氣咬牙者至重 宜十一味木香散 加丁香肉桂 如不效 急煎十二味烏雞散之 </sent>
275:<scent type='min' lang='kor' page='26b' n='1'>九하 아애에 그瘡이 불거지고 부러 얹그려 뜨른 밀 7번 瘡心이 말라 하얗 치위 너림으 답답한 해 땀한 고 ㅅ하 여 열것 거 갈래 술 찜되 였니 7하 지극 풀린 심일미 국 향에 藥과 계피와 가 하야 머기 드려 아니커든 瘡이 살미라 되니 머거 구로 </sent>
276:<scent type='min' lang='chi' page='27a' n='1'>十日十一日其瘡當醫瘡而欲落者欲愈也 不必藥 若瘡當不屬身或熱或不壯肚脹煩渴 不可與水蜜冷水 若與之瀉而死 急煎木香散飲之 </sent>

- 이러한 tool의 단순한 검색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추출된 용례에 관한 모든 정보(문헌명, 간행연도 등)가 각 용례와 매우 가까이 있어야 함.
- 애초에 국어사 말뭉치의 XML은 이러한 용도를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서, 각 문장의 정보를 문장 element마다 반복해서 제시하도록 한 것임.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발표자료집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자유 주제 발표

<구결학회>

향가의 어휘

황선엽(서울대학교)

차례

- 0. 일러두기
- I. 『삼국유사』 향가
- II. 『균여전』 향가

0. 일러두기

-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가를 구분하여 어휘를 정리하였다.
- 명사, 대명사, 수사를 구분하지 않고 체언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용언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 체언, 용언, 부사, 관형사, 감탄사 아래의 하위 분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구분한 것이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 어형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15세기 표기법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다.
- 각 용례에서 대해서는 ‘말음표기가 없는 것 / 말음표기가 있는 것’의 순서로 제시를 하되 ‘/’로 구분을 하였다.
- 용례 ‘物叱(13-1)’에서 ‘13’은 향가 번호, ‘1’은 해당 구절을 나타낸다.
- 용례 출처 표시에 사용된 향가 번호는 다음과 같다.

1. 慕竹旨郎歌
2. 獻花歌

3. 安民歌
4. 讚耆婆郎歌
5. 處容歌
6. 薯童謠
7. 禱千手觀音歌
8. 風謠
9. 願往生歌
10. 兜率歌
11. 祭亡妹歌
12. 彗星歌
13. 怨歌
14. 遇賊歌
15. 禮敬諸佛歌
16. 稱讚如來歌
17. 廣修洪養歌
18. 懺悔業障歌
19. 隨喜功德歌
20. 請轉法輪歌
21. 請佛住世歌
22. 常隨佛學歌
23. 恒順衆生歌
24. 普皆廻向歌
25. 摠結無盡歌

I. 『삼국유사』 향가

1. 체언

- (1) 고유어: 말음표기 무 / 말음표기 유
갓: / 物吐(13-1)

갓/가지: 枝(11-7) / 枝次(4-9)
겨슬: 冬(13-4)
곧: 處(11-8)
꽃: 花(2-4), 花(10-2)
구름: / 雲音(4-3)
굴형/골: 巷(1-8)
그리메/그림제: / 影支(13-5)
길ㅎ: / 道尸(1-7, 12-7)
ㄹ슬ㅎ: / 秋察(11-5), 秋察尸(13-2)
ㄹ: 过(2-1), 邊(12-4) / 際吐(4-8)
나: 呑(2-3, 7-7, 7-9, 11-3, 11-9) - 내(속격): 呑(5-5, 5-7)
나라ㅎ: / 國惡支(3-8), 國惡(3-10)
나리: / 川理(4-6), 汀理?(4-4)
날: 日(14-2)
남: 他(6-2)
낫: 面(13-4)
너: 汝(10-2, 13-3)
네ㅎ: 四(5-4)
너리: 舊理(12-1)
누리: / 世理(15-8)
눈: / 目煙(1-5)
눈: 雪(4-10, 7-5)
누: / 誰支(5-6)
님/니람: 主(6-1)
냇: 葉(11-6)
다붓: / 蓬次(1-8)
다짐?: / 誓音(9-5)
더: 彼(11-6)
도ㄹ-?: 還於尸朗也(14-6)
두볼: 二(7-7) / 二盼(5-5, 5-6), 7-2(二尸)

던뵈/들 외: / 紫布(2-1)

들/드라리: 月(5-1, 9-1, 12-6) / 月羅理(4-2, 13-5), 達阿羅(12-9)?

말?: 辭叱(11-3)

몰애?: 沙(13-6)

못: 淵(13-5)

무릎: 膝(7-1)

물?: 徒(8-3)

믈결?: 浪(13-6)

믈슴: / 心末(1-7, 4-8), 心音(10-3), 心米(14-1)

바?: 波(12-6)

바회: / 岩乎(2-1)

밤: 夜(5-2, 6-4) / 夜音(1-8)

별: / 星利()

봄: 春(1-1)

브름: / 風末(11-5)

사름: 人(12-8)

새: 東尸(12-1)

손: 手(2-2, 7-5)

수플?: 藪(4-5), 藪(12-4) / 藪末(14-4)?

시름: / 憂音(1-2)

스시?: / 七史伊(1-5).

싸흠: 地(3-7)

아미: 父(3-1),

아히: / 阿孩(3-3)

암쇼?: 母牛(2-2)

어드(레): / 放冬矣(7-10)

어드(리): / 於冬是(3-7)

어시: / 母史(3-2)

여리: / 倭理(12-3)

열?: 今呑(14-4)

오름?: / 岳音(12-5)

이: 此(3-6, 10-1, 11-2, 11-6, 12-10, 14-7)

이더?: / 伊底(9-1)

자리?: / 寢矣(5-3)

잣: / 栢史(4-9, 13-1)

잣: / 城叱(12-2)

제: / 自矣(14-1)

즈믄: / 千隱(7-5)

중: / 兇史(1-4, 4-5, 13-7, 14-2)

직벽: / 積惡(4-6)

하/해: 下(5-5, 5-6, 5-7)

허뒤: / 脚烏伊(5-4)

흐든: / 一等(7-6, 7-8), 一等下(7-6), 一等隱(11-7)

미상: 花判(4-10), 汀叱(12-1), 第(13-8) / 阿冬音(1-3), 年數就音(1-4), 窟理叱大(3-5), 掌音(7-2), 安支下(4-3), 所音物生(3-5), 友物北所音(12-10), 彗叱只(12-10), 兵物叱(14-7), 尙宅(14-10)

(2) 한자어

(가) 고유명사

耆郎(4-5)

東京(5-1)

薯童房(? , 6-3)

善化公主(6-1)

(나) 불교 관련

乾達婆(12-2)

功德(8-4)

道(11-10)

無量壽佛(9-3)

彌勒座主(10-4)

彌陀刹(11-9)

四十八大願(9-10)

散花(10-1)

生死路(11-1)

西方(9-2)

慈悲(7-10)

尊(9-5)

千手觀音(7-3)

破?主(14-5)

(다) 기타

軍(12-3)

郎(1-7, 4-7)

命(10-3)

三花(12-5)

前(乃)(9-3)

太平(3-10)

彗星(12-8)

(3) 한문구

願往生(9-7)(2회)

(4) 훈독 여부 불명

君(3-1, 3-9)

今日(10-1)

慕人(9-8)

民(3-3, 3-4, 3-9)

烽(12-4)

臣(3-2, 3-9)

兩手(9-6)

前(7-3)

此身(9-9)

2. 용언: 말음표기 무 / 말음표기 유

가-: 去隱(1-1), 去於丁(3-7), 去如(6-4), 去賜里遣(9-2), 去內如(11-3), 去內尼叱
古(11-4), 去奴隱(11-8), 去遣省如(14-4)

가식-: / 改衣賜乎隱(13-4)

겨-: / 折叱可(2-4)

곧-: / 直等隱(10-3)

그리-: / 慕理尸(1-7)

기드리-: / 待是古如(11-10)

기티-: / 遺知支賜尸等隱(7-9), 遺也(9-9)

깃-: / 居叱沙(1-2)

깊-: 深史隱(9-5)

나-: 出古(11-7),

나토-: / 露曉邪隱(4-2)

내-: / 生以支(3-5)

녀-/니-: 行齊(1-4), 行乎尸(1-7), 行齊教因隱(13-3), 行尸(13-6)

노니-: 遊行如可(5-2)

노히-: / 放教遣(2-2)

놀-: 遊烏隱(12-2)

높-: 高支好(4-9)

놓-: 放(7-6)

니르-: 云遣(11-4)

다스리-?: 治良羅(3-6)

닷-: 修良(11-10) / 修叱如良(8-4)

덜-: 除惡支(7-6)

돌-/도르-: 廻於尸(1-5)

똥-: 好尸(14-8) / 好支賜烏隱(1-3), 好支(13-1)

두-: 置古(6-2), 置內乎多(7-4), 置遣(9-9)
 듣-: 聞古(12-5)
 들-: 入良沙(5-3)
 디-: 墮支(1-4), 墮米(13-2)
 디나-: 過出知遣(14-3), 過乎(14-7)
 디니-: / 持以支(3-8), 持以支如賜烏隱(4-7)
 돛-: 愛賜尸(3-2), 愛尸(3-4),
 맞보-: / 逢乎(11-9), 逢烏支惡(1-6)
 먹-: 喰惡支(3-6)
 모도-: / 集刀花乎(9-6), 毛乎支內良(7-2)?
 모룩-?: / 毛冬乎丁(11-8)
 피시/모리시-: / 陪立羅良(10-4)
 받-: 獻乎理音如(2-4)
 보-: 見昆(5-3), 見賜烏尸(12-5)
 붓그리-: / 慚盼伊賜等(2-3),
 부르-: 唱良(10-1)
 브리-: / 使以惡只(10-3)
 빌-: / 祈以支(7-4)
 바라-: / 望良古(12-2, 12-7), 望阿乃(13-7)
 브리-: 捨遣只(3-7)
 봄-: / 明期(5-1)
 떠가-/쓰가-: 浮去隱(4-3), 浮去伊叱等邪(12-9)
 떠디-: 浮良落尸(11-6)
 쓰-: 用屋尸(7-10)
 쓸-: 掃尸(12-7)
 새파룩-?: / 沙是八陵隱(4-4)
 센-: / 哀反多羅(8-2), 哀反多(8-3),
 숨-?: 逸烏(4-6)¹⁾, 逸烏隱(15-8)?

1) 이임수: 현재 '수모내, 수몬내, 시모내, 시무내' 등으로 불림. 현재 행정명으로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廿川里)'이며 17세기 '동경잡기'에는 '二十乃里'라 기록돼 있음. '수무내'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숨어 있는 '숨은 내(마른내)'를 의미함.

슬이-/티-: / 燒邪隱(12-4)

숯-: 白屋尸(7-4), 白遣賜立(9-4), 白良(9-6), 白遣賜立(9-8) / 白反也(12-8)

알-: 知古如(3-4, 3-8)

알안-: / 卵乙抱遣(6-4)

앗-: 奪叱良乙(5-8)

얼-: 嫁良(6-2)

얼ㅎ-?: / 狂尸恨(3-3)

오-: 來如(8-1(3회), 8-2, 8-4), 來叱多(12-3)

외오-: 非乎隱焉(14-5)

울-: 哭屋尸(1-2)

울월-: 仰支(9-5), 仰頓隱(13-4)

이르-: 早隱(11-5)

이울-: 爾屋支(13-2)

일-: 成遣賜去(9-10)

잇/이시-: 有如(9-8), 有阿米(11-2) / 有叱下是(1-8), 有叱多(12-8), 有叱故(12-10)

자-: 宿尸(1-8)

잡-?: / 執音乎(2-2)

죃-: 遂內良齊(4-8)

짓-/일-?: 作乎下是(1-6)

크-: 根古(7-10)

ㅎ-: 爲賜尸知(3-3), 爲內尸等焉(3-9), (太平)恨音叱如(3-10), 爲理古(5-8)

히/희-: / 白(4-3)

미상: 乃乎尸(4-10), 念丁(9-2), 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7-8), 以支(13-6) / 皆理米(1-1), 咽鳴爾處米(4-1), 古召旆(7-1), 于萬隱(7-7), 惱叱古音多可支(9-4), 巴寶白乎隱(10-2), 次盼伊遣(11-2), 數於將來尸(12-6), 古理因(13-5), 毛達只將來吞隱(14-2), 沙也內乎吞尼(14-8), 伊吾音之叱恨隱(미상), 漣陵隱(14-9), 都乎隱以多(14-10)

3. 부사

(1) 부정사

몬: 毛冬(1-2, 4-10)

몰다?: 毛如(11-4)

아니디: 不喻(2-3)

아니들: 不冬(13-2)

(2) 논항을 취함(활용형의 특성이 있음)

그스기: 密只(6-2)

다히: 如(3-9: 2회), 多支(3-9), 如支(13-6)

드리: 入伊(5-2)

조초: 遂于(4-3)

미상: 於多支(13-3)

(3) 기타

다몬?: 但(14-5)

본딕: 本矣(5-7)

엇다: 何如(5-8)

오직: 唯只(14-9)

미상: 八切爾(12-6), 安支(14-10)

4. 관형사: 모두 대명사로 처리할 수 있음.

이: 以(1-2)?, 此(3-7)

어느: 於內(11-5)

5. 감탄사

後句(3-9, 12-9), 阿耶(4-9, 14-9), 阿邪也(7-9), 阿邪(9-9), 阿也(11-9)

II. 『균여전』 향가

1. 체언

(1) 고유어: 말음표기 무 / 말음표기 유

길ㅎ: 道(18-2) / 道尸(21-7)

ㄱ슬: / 察(20-10)

ㄹ: 際(16-7, 25-4), 邊(25-3)

나: 품(19-4, 19-5, 20-3, 22-4, 23-6, 24-1, 24-10, 25-2)

날ㅎ: 日(25-2) / 日尸恨(24-5)

남: 人(24-10)[사름?]

네/녀리: 舊留(24-8)

누리: / 世呂(21-4, 22-2)

드틀: 塵(22-5)

몸: 身(16-6, 19-4, 24-10) / 身萬隱(15-3), 身靡只(22-5)

물: 群(21-8, 24-4)

물: 水(23-3)

ㅁ슴: 心(22-9) / 心未(15-1), 心音(19-10, 25-9)

바: 所(25-6)

바들: 海(24-3) / 海等(16-3, 24-5)

밤: / 夜未(21-5)

밭: 田(20-8)

벗: 朋(21-6)

불휘/불히: / 根中(23-2)

사름: 人(19-7) / 人音(19-4), 人米(19-6)

새박: 曉(21-5)

손: 手(17-5, 17-6, 21-3)

숫?: 間(16-8)

스ㅅ?: 歲史(22-6)

아춤: 朝(21-5)

여름: / 菓音(20-9)

우리: 我(22-1)

이(대명사): 此(15-10, 25-5), 伊(17-10, 19-9, 21-7, 25-5, 25-10)

이(의존명사): 伊(馬落)(19-6)

일: 事(24-8, 25-8)

주비?: 部(18-7) / 部伊(16-1)

혀: 舌(16-2)

미상: 夫作(15-10), 火條(17-1), 善陵(19-7, 24-2, 25-6)²⁾

(2) 한자어

覺樹王(23-1)³⁾

覺月(20-10)

供(17-6)

功德(16-6)

九世(15-8)

來際(18-10)

大悲(23-3)

大海(17-4)

德(16-9)

德海(16-7)

緣起(19-2)

理(19-2)

無明土(20-5)

煩惱熱(20-6)

法(17-6)

法界(15-4, 17-5, 17-7)

法界(15-7, 18-4)

法界(20-2)

法界(23-5)

法供(17-9)

2) 용언의 동명사형일 가능성도 있음.

3) , ‘보리수’는 구마라집이 창안한 번역으로, 구마라집 이전에 있었던 ‘불수(佛樹)’, ‘도수(道樹)’, ‘각수(覺樹)’ 등의 의역과 달리, ‘보리’라는 음역을 채택하고 있다(船山徹, 2018: 146-147)[후나야마 도루. 2018.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의 ‘불교’의 탄생』. 이향철 역. 서울: 푸른역사.)

法性(24-7)

法雨(20-4)

菩提(18-1, 20-9)

普賢(25-9)

佛(19-3)

佛道(22-9)

佛佛(17-8)

佛前燈(17-2)

佛會(20-2)

三業(18-5)

生界(25-1)

善芽(20-7)

須彌(17-3)

十方(18-8)

業(24-6)

願(22-3, 25-2)

願海(25-4)

一念(16-4)

一毛(16-9)

顛倒(18-1)

淨戒叱主(18-6)

灯油(17-4)

灯炷(17-3)

造物(18-10)

衆生(19-3, 20-8, 23-9, 24-3, 25-3)

塵塵(15-5)

嫉妬(19-10)

刹(15-5)

刹刹(15-6)

懺悔(18-7)

最勝供(17-10)

化緣(21-2)

(3) 한문구

難行苦行(22-3)

南无佛(16-2)

念念相續无間斷(23-7)

同生同死(23-6)

無盡辯才(16-3)

迷悟同體(19-1)

普賢行願(25-7)

身語意業无疲厭(15-9)

衆生界盡我懺盡(18-9)

塵塵虛物(16-5)

(4) 귀화어

부터: 佛體(15-2, 15-5, 15-7, 17-7, 18-8, 21-1, 22-1, 22-8, 23-8, 23-10,
24-5, 24-9, 25-8)

분: 筆(15-1)

(5) 훈독 여부 불명

今日(16-1, 18-7)

宅(24-7)

道(25-6)

命(22-6)

寶(24-7)

習(18-5)

前(15-2)

他道(22-10)

他事(25-10)

2. 용언: 말음표기 무 / 말음표기 유

(1) 고유어

고티-: / 直體良焉多依(17-2)

그럿ㅎ-?: / 然叱爲賜隱伊留兮(22-8), 然叱爲(24-8)

그리-[畵]: / 慕呂白乎隱(15-2)

기리-: / 讚伊白制(16-8)

길-: 永良(18-10) / 長乙隱(20-7)

깃-: 喜好尸(19-8), 喜賜以留也(23-10)

나니-: / 出隱伊音叱如支(18-4)

남-: / 餘音玉只(18-4), 餘音良

냥-: 進良只(20-3)

내-?: 出米(20-6)

넙-: / 仍反隱(20-1)

녀-: 行等(19-9), 行齊(22-10), 行根(25-5)

니르-: 至去良(15-4), 至刀(19-10)

다리-: 煎將來(20-6)

다으-: 盡良(15-8), 盡尸等隱(25-1), 盡尸(25-2)

닷-: 修將來賜留隱(22-2) / 修叱賜乙隱(19-5), 修叱孫丁(19-5), 修孫(24-1)

도르-: 廻良只(24-2)

두-: 置乎理叱過(19-8)

디-: 落臥乎隱(18-5)

디나-/니(거)-?: 往焉(22-2)

머플우-?: 止以友白乎等耶(21-4)

몯-: / 惡寸隱(18-3), 惡寸(18-8, 24-6)

모리-?: / 邀里白乎隱(15-6, 16-5)

문-: / 埋多(20-5)

뮌-: 動賜隱乃(21-2)

베프-?: 施好尸(22-6)

보-: 見根(19-2)

부비-?: 寶非(21-3)
 비기-/너지-?: / 擬可(19-9)
 밋-: 乞白乎叱等耶(20-4)
 뵈-: 斜良只(22-10)
 브리-?: 捨齊(18-10, 25-10)
 브스-: 碎良只(22-5)
 뵈-: / 明斤(20-10)
 삼-: / 沙音賜焉逸良(23-2)
 삼-?: / 沙毛叱等耶(15-10)
 솟나-?: 涌出去良(16-4)
 슬-/쉴-?: 哀呂舌(21-8)
 슬-: 白孫(16-2), 白乎隱乃兮(16-10)
 씨든-: 悟內去齊(24-4)
 알-: 知良閭尸也(21-6), 知皆矣(22-7)
 얻-: 得賜(19-6)
 없-: 無叱昆(19-6)
 오-: 來去(19-10)
 울-: 鳴良尒(21-3)
 이루-?: / 逸留去耶(17-4)
 이울-: / 萎玉內乎留叱等耶(23-4)
 일-: / 成留焉(24-5)
 임-: / 迷波(18-2), 迷火隱乙(23-2), 迷反(21-8, 24-4), 伊波?(24-10)
 잇/이시-: 仁伊而也?(25-2) / 有叱下呂(19-4, 24-10)
 적시-: / 潤只沙音也(20-8)
 절-?: 拜內乎隱(15-3)
 젓-: 潤良只(23-3)
 좃-: 逐好友伊音叱多(22-4)
 짓-: 造將來臥乎隱(18-3)
 찻-: 尋只(19-2)
 침-: 滿賜隱(15-7), 滿賜仁(17-7)

하-?: 多奈(17-9)

호-: 爲𡵓(17-5), 爲米(21-7), 好尸(22-7)?, 爲乙(23-6), 爲尸(23-8)

미상: 向焉(18-2)-向隱(22-9)-向屋賜尸(21-6)-向乎仁(25-6), 闕遣只賜立(18-8) / 于萬隱(16-7)-于音毛(25-3), 執音馬(17-1), 依波(17-10), 卜以支乃遣只(18-6), 烏乙反隱(20-9), 羅波處也(20-10), 敬叱好叱等耶(23-8), 趣可(25-5), (阿)于波(25-9)

(2) 한자어

供호-: 供爲白制(17-8)

對호-: 對爲白惡只(16-6)

禮호-: 禮爲白齊(15-8), 禮爲白孫隱(24-9)

安호-: 安爲飛等(23-9)

懺호-: 懺爲如乎仁(24-6)

3. 부사

(1) 부정사

모들: 毛冬(16-8, 20-7), 毛等(16-10), 毛冬留(25-4)

아니디: 不喻(19-4)

아니들: 不冬(19-8, 22-10, 23-4)

(2) 논항 취함[용언적 특성]

ㄹ득?: / 居得(23-5)

다: 盡良(16-10), 盡(21-2)

다히: 如(23-8, 25-5)

업시: 无史(24-4)

미상: / 毛叱所只(15-4, 19-3), 毛叱色只(17-5)

(3) 기타

구물구물: 丘物叱丘物叱(23-5)

기피: / 深以(20-5)

비록: 必只(16-9)[반득?], 必于(21-2)

또: / 又都(25-8)

미상: / 周物叱(17-8), 頓部叱(18-7, 19-5, 22-4, 24-2)-頓叱(20-3, 23-10), 然叱
皆(22-7)

4. 관형사

더: 彼(20-1)

모든: 皆(21-1, 22-2, 22-8, 24-1)

어느: 於內(19-7)

一切(24-2)

5. 감탄사[後句]

阿耶(17-9, 25-9)

病吟(24-9), 城上人(22-9), 打心(23-9)

歎曰(15-9)

隔句(16-9), 落句(18-9, 21-9), 後句(19-9), 後言(20-9)

미상: 伊波(25-7)

향가의 어휘 토론문

김지오(동국대학교)

향가 연구가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향가 연구는 해독이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강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향가 자료의 어휘, 음운, 문법의 체계를 확립하고 세부적인 특징들을 연구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향가의 어휘를 총정리하는 이런 연구가 이에 해당하며, 진일보한 향가 연구의 시작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어휘 분류 작업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제안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미상’으로 처리된 어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독에 따르면, 너무 많은 어휘 형태들이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善陵’, ‘頓部叱’, ‘古召拏’, ‘于滿隱’, ‘惱叱古音多’, ‘向-’, ‘執音馬’, ‘烏乙反隱’, ‘敬叱好叱等耶’ 등이 그렇습니다.

- 膝拏 古召拏 <도천 01> = 兩手 集刀 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원왕 6>
- 二 于萬隱 吾羅 <禱千 8>, 際 于萬隱 德海拏 <稱讚 7>, 曉留 朝 于萬 夜未 <請仏 5>, 衆生 邊衣 于音毛 [원문 : 無邊] <摠結 3>
-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多 <원왕 04> → 뜻풀이 주석이 달려 있음
- 向- : 무퇴 올라 將次스 길흘 아사 가느니 [登陸將首途] <杜詩8:53b>
菩提 向焉 道乙 迷波 <懺悔 2>, 佛道 向隱 心下 <常隨 10>

오히려 ‘눈-目煙’, ‘새파랗-?: 沙是八陵隱’, ‘숨-?: 逸-<우적가>’ 이 미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류 항목에 포함된 ‘?’과 ‘미

상’의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상>인 어휘 형태를 처리할 때 ‘미상’인 정도를 단계를 두어서 분류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A : 뜻은 비교적 명확한데 독법(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古召旆

B : 뜻은 명확하고 음도 추정 가능하지만 문증이 안 되는 경우 - ‘善陵’, ‘頓部叱’

C : 뜻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반복된 문맥이나 한시와의 대응으로 의미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于萬

D : 뜻도 음도 전혀 추정이 어려운 경우

2. 말음첨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음첨기가 있는 표기와 없는 표기를 ‘/’로 구분하여 제시하셨습니다. ‘뉘: 誰支’, ‘빌-: 祈以支’의 ‘支’와 ‘다리-: 煎將來’의 ‘將來’를 말음첨기로 보시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향가 해독에서 말음첨기처럼 확실한 표지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훈독자인지 음독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독되었으리라 믿어지는 기초 어휘들도 ‘前乃’, ‘民隱 如’처럼¹⁾ ‘앞아’아 아닌 ‘전’으로, ‘민’으로 음독되었다는 표지들이 나타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훈독된 글자와 음독된(특히 한자어) 글자 판별에 사용하셨던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어휘의 출처 표시가 새롭고 유용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죽>, <헌화>처럼 노래의 제목을 줄여서 출처를 표시해 왔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노래에 번호를 부여하고 행수를 표시해 간편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순서, 행 분절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특히 삼국유사 원문에는 공란으로 띄워져 있지만 한 행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구절, 공란은 없지만 끊어

1) 이런 예를 보면 ‘民’은 ‘음독자’가 확실해 보이는데, ‘民’자를 음독/훈독 여부가 불분명한 글자로 분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읽는 구절, 특히 ‘悼二將歌’는 행 구분이 없어 행 분절이 제각각인 경우), 노래의 순서와 표시 방법(지금처럼 일련의 번호보다는 삼국유사-균여전은 구별하는 방식이 필요), 행 분절에 대해 공식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숫자 표기식으로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의궤류의 어휘

황금연(전남대학교)

차례

1. 들어가기
2. 기존 연구 검토
3. 차자어 자료 및 해독
4. 나오며

1. 들어가기

이 글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의궤(儀軌)에 기록된 차자 표기 어휘의 해독에 대한 고찰이다. 의궤에는 한자를 이용한 이두, 한문, 물명(物名) 표기, 단위명사 표기 등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물명 표기는 건축, 도구명, 음식, 복식, 음악 등과 관련된 어휘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건축 관련 어휘와 도구명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차자 표기 양상, 해독의 문제, 의궤 차자 표기의 특징과 위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행사, 국왕의 혼인, 세자 책봉, 혼례, 장례, 궁의 건축, 진연 등의 의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 행사의 내용을 기록한 명칭은, 행사(?)의 주인공은 다르지만, 대체로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가례도감의궤, 존숭·존호도감의궤, 제기악기도감의궤, 책례도감의궤, 산릉건릉도감의궤, 악기조성청의궤, 진안의궤, 진연의궤, 진찬의궤, 친경의궤, 인정전영건도감의궤 등과 같이 맨 끝에 ‘~의궤’가 붙어 있다.¹⁾

의궤에 담긴 자료는 건축, 음악, 미술, 복식, 음식 등 분야에서 연구의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어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건축 어휘, 복식 어휘, 음식 어휘, 음악 어휘 등 일반명사와 단위명사 위주의 어휘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어휘는 상당 부분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 복식, 음식, 음악 등과 관련된 전문 용어로 볼 수 어휘라 할 수 있다. 이들 차자 어휘들은 근대의 문헌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해독을 정확히 한다면 어휘적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의궤의 차자 표기 어휘[이하 ‘차자어’]를 제시하고, 건축과 도구 관련 차자어의 양상과 해독, 특징, 위상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최근 의궤에 대한 국역(國譯)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 국역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차자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지 차자어를 현행 한자음으로 읽어 기록한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³⁾ 의궤의 차자어에 대한 오역된 몇 예를 제시한다.⁴⁾

송방송 · 고방자(2000)의 국역서에는 ‘只’를 모두 ‘지’로 번역하고 있다. 마땅히 ‘지’의 표기에 쓰인 경우도 있지만 ‘기’로 쓰이는 일이 훨씬 많다. 𦵑只(갈지), 上下莫只(상하막지), 月乃莫只(월내와 막지). 熟麻三甲所(물들인세겍 삼), 三甲所(삼갑소), 鴨項鐵(압항철), 迭乃(거내), 非只音金(비지음금), 加莫金(가막금), 加耳(가위).

경기문화재단(2007)에서 간행한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의 “직광시(直光屎)⁵⁾→광이(光屎): 곧은 광이, 직광이를 지칭한다. …곧은 광이가 광이의 일종

1) 의궤는 선조때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에 705종이 제작되었는데 그중 68종이 분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637종이다(한영우, 2005:868). 한글본 의궤 <조경도전작정례의궤>, <경내의궤>를 제외하고 모두 한문본이다.

2) <역주영조갑자진연의궤>, <국역고종대례의궤>(상하), <국역숙종조기해진연의궤>, <국역순조기축진찬의궤>(권1-3), <국역영조조갑자진연의궤>, <국역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국역정조국장도감의궤>(1~4), <국역풍정도감의궤>, <국역헌종무신진찬의궤>(1-3)[출판사 민속원 검색], <국역가례도감의궤>[민족문화추진회], <경모궁의궤>, <친경 친장의궤>, <사직서의궤>, <영종대왕실록청의궤>, <종묘의궤>, <진연의궤>, <천의소감찬수청의궤> [고전번역원]

3) 번역상의 오류는 김연주, 오창명, 황금연 등의 일련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4) 저자들을 펴내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님을 밝히며, 더불어 양해를 구한다.

5) 이 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표제어를 현행 한자음으로 읽은 듯하지만, ‘屎’는 ‘시’와 ‘히’의

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모양이나 용도는 알 수 없다.”의 ‘直光屎’의 해독도 오류이다. ‘直光屎’의 ‘直’은 음차한 것이 아니라 훈차 표기 ‘곧(곧)’의 표기로 봐야 한다. 즉 ‘곡괭이’를 표기한 것이다. ‘곡괭이’의 차자 표기인 ‘串光屎’의 다른 표기가 ‘直光屎’인 것이다.

다음은 번역자의 오류라기보다는 차자어의 독법과 관련된다. 사실 차자어를 해독하다 보면 고민해야 할 일이다. 즉 음차 표기자인지 훈차 표기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木이 ‘목’ 또는 ‘나무’인지, 金이 ‘쇠’, ‘김’, ‘금’ 중 어떤 것인지, 鐵이 ‘쇠’, ‘철’ 중 어떤 것인지, 釘이 ‘정’, ‘못’ 중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차자어 ‘擔桶’은 의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아래의 한글본 의궤에 ‘멜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만하다.

案板八坐 擔桶二坐(木[舉乙]筴具) <慈慶殿進爵定例儀軌, 器用>⁶⁾

안반팔좌 **멜통**이좌(목걸줄구) <죽경던진작정례의궤, 器用>

擔桶二介 舉乃二介 <殯殿都監>

童筴一箇 擔桶五部 <正祖健陵山陵>

담통(擔桶)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표준>⁷⁾에는 ‘질통(-桶)=수통(-桶):(광업) 통이나 가마니 같은 것에 멜빵을 매어 만든다.’, ‘들통(-桶):(큰 들손이 달린 그릇.)’이 올라 있다. 장기인(1985)에는 질통, 들통, 담통(擔桶)이 모두 올라 있다. 박소동(1997:54)에는 擔桶을 ‘질통’으로 나타낸다. 擔의 훈에 ‘지다, 메다, 들다’ 등의 뜻이 있으니 어느 것으로 해독해도 무방한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3. 차자어 자료 및 해독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해독된 차자어를 제시하고, 이들 해독에서

음이 있기 때문에 ‘히’로 독음해야 한다.

6) 의궤 자료는 황금연(1997)에서 대부분 가져 온 것이다.

7)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발생하는 문제, 차자어의 표기의 특징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⁸⁾ 우선 앞서 밝힌 바대로 건축과 도구 관련 차자어를 제시한다.

3.1. 건축 관련 차자어와 해독 자료

[가막쇠] 加莫金 加莫鐵 加莫釧 [可莫金 𠵿末金 甘莫金]⁹⁾
 [덧보] 加樑 加樑 加樑 [가지방] 假地防 [加之防]
 [갈] 𠵿:單𠵿 兩𠵿 三𠵿 [갈고리] 𠵿拘里 加古里 介乙古里 介古里
 [갈기] 𠵿只(𠵿只丁·𠵿只金·𠵿只刀·𠵿只機)
 [감좌비] 甘佐非 甘佐伊 甘自非 甘執非 甘執伊 甘執只 [紺佐非]
 [*곳정(못)] 古叱丁 串丁 串叱丁 串釘 [열쇠] 開金 (開金大 開金家)
 [걸이] 舉里 𠵿伊 鉤里 舉乙里 [걸이쇠] 巨里金 巨里釧 拘伊金
 [거덜못] 巨勿釘 巨勿丁 巨物丁 舉勿丁 去勿釘
 [거쇠] 특金 [들문] 舉門 [*걸강쇠] 舉乙江金 去江金
 [걸환] 舉乙環 扌環 [걸쇄] 扌鎖 舉乙鎖 舉乙金 掛鐵 去乙金 巨鎖 舉金
 [들줄] 舉乙𠵿 [*고골지(쇠)] 古骨之 古骨之金 [고두쇠] 古道金
 [고막이돌] 古莫只石 高莫只石 庫莫石
 [고무쇠] 古尾金(鐵) 古無金 [古無金 古無釧]
 [고삭쇠] 古索金 [괘쇠] 塊音鐵, 高音鐵
 [곡쇠] 曲金 [*굽쇄] 曲塞 [*굽못] 曲釘 曲丁
 [다리쇠] 橋鐵 橋金 [脚金] [*노로기쇠] 蘆蘆只鐵
 [달고] 達毆 達固 槌古 [단혀] 短舌 短椽 [대공] 臺工 大工
 [대접쇠] 大貼金 [대파] 大波 代破 大破
 [도래쇠] 道乃金 道乃 [돌쩌귀] 𠵿迪耳 道乙迪耳 𠵿赤耳 [道迪耳]
 [동마기] [同磨只刀] [동발이] 童發里 童發伊 東發里 同發耳 [同發伊]
 [동귀틀] 同耳機 童耳機 [동줄] 童𠵿, 同𠵿
 [둔대] 屯太
 [등자쇠] 登子金 鐙子金 凳子金 鐙子釧 [양판] 涼板 樑板

8) 제시하는 차자어는 황금연(1997)의 자료에 김연주(2015)와 오창명(2008, 2017)을 보충하였다.

9) []의 차자 자료는 김연주(2015)에서 가져온 것이다.

[요구쇠] 要拘金 要鉤金,腰鉤金 要鉤金 撩鉤金 [마고리] 𠂔古里
 [매잡이] 每佐非 [모로] 毛老 [모로대] 毛老臺 毛老大 [毛老竹 毛老檣]
 [모탕] 毛湯 [隅湯] [모탕판] 毛湯板
 [목지연] 木只椽 [木只 木妓 方只 某叱只 毛只 隅只 隅叱只]¹⁰⁾
 [박을못(정)] 朴乙丁 朴乙釘 [朴文乙釘] [막새]防草 莫沙¹¹⁾
 [배목] 排目 [삼배목] 三排目
 [밀지레] 排地乃 排支乃 排之乃 排只乃 排持乃
 [보아지] 甫兒之 甫兒只 [祿阿只, 祿兒之, 甫我之, 祿兒只, 祿阿支, 樑我之,
 浮阿只, 浮兒只, 浮阿]¹²⁾
 [바지랑] 捧持郎 捧支郎 [부들] 夫道乙 夫月
 [붙박이] 付叱朴只, 接朴只 貼朴只
 [비김쇠] 非音金 非只音鐵 飛音鐵 [非其音鐵, 非其鐵, 飛只音金, 非只音布
 非只音]¹³⁾
 [비비]·[비비쇠]·[비비날] 非排 非背 非非 [飛排 飛飛金 飛背竹 飛非刀]¹⁴⁾
 [사래] 蛇羅 [사북못] 沙卜丁 [사살] 沙𪛗 沙瑟 絲𪛗¹⁵⁾
 [살미] 山彌 [沙乙味, 箭尾, 𪛗味, 𪛗尾, 沙乙尾]¹⁶⁾ [산방] 散防
 [산자] 散子 散坐 [산지] 山支 散支 [삼갑바] 三甲所 三甲索
 [서도리] 西道里 書道里 [서살] 西𪛗 [선자귀] 先佐耳 [혀쇠]舌金 舌鐵
 [쇄기] 所也只 所惡只 [바침(쇠)] 所枕 所枕金 [바탕] 所湯
 [바탕쇠] 所湯金 [못줄] 束𪛗 [심줄] 心𪛗 [아리쇠] 阿里金 阿耳金
 [오리목못(쇠)(줄)] 鴨項丁 鴨項釘 鴨項鐵 鴨項𪛗 鴨項[金主乙]
 [연합] 椽含 連含 [모판/목판] 隅板¹⁷⁾ [斗隅板[말목판[닐]]
 [우리] 𠂔里 [원산] 遠山 [머름(대)] 遠音 遠音竹 遠音大 [다리]月乃

10) 오창명(2008:242-243)에서 가져 온 것이나 이들의 후부에 ‘椽’이 결합하였거나 이를 지칭하는 표기로 쓰인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木只’ 단독형으로 ‘椽’을 쓰이기도 하지만 ‘대패’의 하나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11) <덩니의궤>에는 방초(防草)를 “막새”로 풀이하고 있다(옥영정, 2015:285)참고.

12) 오창명(2008:239)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13) 김연주(2015:283)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14) 김연주(2015:286-287)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15) 鐵絲𪛗四十八巨里 <萬機要覽 軍政 三 摠戎廳,軍器> 鐵沙瑟四十一巨里 <華城城役 卷五, 財用上>

16) 오창명·천득염(2017:24)에서 가져온 자료이다.

17) <조선시대의궤용어사전> I (2012)에는 ‘우판(隅板)’ :재궁(梓宮)에서 사용하는 판자.로 기술되어 있다.

[귀틀] 耳機 童耳機 歸機¹⁸⁾ [장부쇠]·[장부] 丈夫金 杖夫
 [장산] 長山 長散伊 獐山伊 [장혀] 長舌 長椽 [장지] 障子
 [적첩] 赤貼 [줄바] 條所 條索 [줄정] 𢵿丁 𢵿釘 造乙釘 𢵿錠
 [새발쇠못] 鳥足鐵釘 [중깃] 中衿 [집개] 執介 執箇 執舉 [執巨]
 [비너못] 釵丁 釵釘 叉丁 叉釘 [날개] 飛盖 飛蓋 飛介 飛箇
 [새날개] 草飛乃 [추녀] 春舌 [탕개] 撐介 [타리개] 他里介 台里介
 [통개] 筒箇 [찰쇠] 佩金 [화쇠] 靴金 [확쇠] 確金 [환철] 環鐵 環鐵
 [활기] 活只 弓只 [감이] 回伊

3.2. 건축 관련(연장) 차자어와 해독 자료

[가귀] 加耳 加ㄱ耳 角耳 [가래] 加乃 [가래장부] 加乃杖夫 加乃丈夫
 [자래] 込乃 [고미레] 古尾乃 [古未乃 古門乃] [고지] 串之 串只 古之
 [광이] 光伊 光屎 銑耳 廣伊 鏤伊 [넙광이] 廣光伊 廣光屎 葉光耳
 [곡광이] 串光屎 串鏤伊 直光伊 [개탕] 開湯 [다갈] 多曷 多葛
 [동곶] 童串 同串 [막이] 莫只 防只 𢵿只 [마치] 𢵿赤 𢵿致 / 𢵿伊
 [모끼] 木只(刀) [몽동이] 夢同伊 蒙同 [글개] 文乙介 [바곶] 朴串 所串
 [방마치] 方𢵿赤 朴𢵿赤 方罔致 [변탕] 邊湯 [언미리] 彦尾里 唵尾里 唵未里 焉
 尾里 [웅미리] 雍尾里 雄尾里 玉未乃 [雄味里 甕米里]
 [자귀] 佐耳 者耳 斫耳 [장도리] 掌道里 長道里 長𢵿伊 掌道耳 [壯𢵿伊 章道
 里] [적첩] [赤貼 積貼 接貼] [오리(목)] 條里(木)
 [조리개] 助耳介 助里介 照伊介 [줄정] 𢵿丁 𢵿釘 鉉乙釘 刀
 [평미레] 平尾里 平未里 [平味里, 平尾乃] [한마치] 汗𢵿赤 汗麻致 汗磨致
 [汗馬赤 汗了赤] [홍두개] 弘道介 紅都叱介 洪都介 橫搗介 [紅都岔]

3.3. 용기(用器) 관련 차자어와 해독 자료

[개야] 盖兒 盖也 [蓋兒 箇兒 介兒] [고리] 古里 [남날개] 南飛介 南飛箇 南
 羅箇 [노구] 爐口 鑪口 老口 嘯口 [접시] 葉匙 [단지] 短知

18) 오창명(2017:26)에는 ‘귀틀’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종류를 제시하였다. 實耳機[관귀틀], 同耳機, 同歸機 童歸機[동귀틀], 立耳機[선귀틀], 耳機木, 歸機木[귀틀목], 耳機石[귀틀돌/귀틀석], 長耳機, 長歸機[장귀틀], 短耳機[단귀틀], 平歸機[평귀틀], 都耳機[도귀틀], 間耳機[간귀틀], 童子耳機[동자귀틀].

[대야] 大也 [대접] 大楫 大貼 大接 [도마] 刀馬 刀𠂔 刀磨 屠𠂔 都𠂔 [刀磨]
 [동고리] 同古里 [동이] 東海 [두모] 豆毛 [斗母 頭毛] [두지] 斗之 豆之
 [양푼] 涼盆 [마날개] 𠂔飛介 𠂔飛箇 末乙飛介 [末飛箇] [마요] 馬要 馬腰 𠂔
 要 𠂔腰 每要 [磨要] [마요틀] 𠂔要機 馬要機 [막자] 莫子 [먹서리] 覓西里 [모
 소레] 毛掃乃 毛土乃 [바리] 鉢里 [방구리] 方文里 方古里 [보아] 甫兒
 [부도기] 夫獨只 浮都只 夫都只 浮獨只 浮豆只 [뒤탈대야] 北鑊 [푼지] 盆子 分
 之 盆之 [새옹] 沙要 沙用 砂甕 [砂用] [삼태] 三太 三(參)台 三筴 [설쇠] 鏹金
 [雪釧] [속고리] 所古里 束古里 [소라] 所羅 [소용] 所用 [바탕이] 所湯 所湯
 伊 [波湯伊 波湯 波蕩] [시접] 匙牒 匙貼 [안반] 案板 [요강] 要江 溺江 溺釧
 [귀대야] 耳鑊 [구기] 耳只 [菊只, 句只] [넉자] 莛子 [[莛叱]子 莛坐] [자배기]
 者朴只 [적곳] 炙串 [적쇠] 炙金 [炙釧] [접시] 牒匙 貼匙 貼是 接匙 [조릭] 釣
 乃 釣來 鳥乃 助乃 [종지] 鍾子 [종지쇠] 鍾子金 [주걱] 周特 朱特 [멜통] 擔
 桶 [주발] 周鉢 [朱鉢] [초아] 召兒 炒兒 招兒 [타구] 唾口 [함지]·[함지박] 函
 之 含之 函只 函之朴 咸之朴 [석쇠] 口禾金 口禾鐵 [錫釧] [석자] 口禾
 者 口禾煮 [鏹煮, 鏹者, 和者] [불지래] 火地乃 火持乃 火持來 指乃 [불우리]
 火丐里

의궤의 차자어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건축, 용기, 음식, 복식, 음악 등
 관련된 어휘이며, 이들 어휘의 단위명사로 한정할 수 있다. 이들 차자어는
 역사 문헌 자료에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문헌 자료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역사 문헌 자료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차자어를 해독, 해석하
 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자어의 해독은 현대의 여러 사전,
 건축 용어, 각종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 분류사전, 각종 옥편 등에 기대
 어 이루어지는 형편에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의궤에 기록된 근대국어시기의
 표기를 정확하게 재구하기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먼저, 차자어가 지시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이
 다. 근현대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차자어일 경우 다분히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1) 右甘結 石手所用召乙丁五介 串叱丁八介 <仁政殿 稟目>

召乙丁四十二介 古叱丁二十五介 <仁政殿 用後還下秩>

串丁九十五介 <景慕宮>

위의 串叱丁, 古叱丁, 串丁은 ‘곶(곶)정’ [곶-] 또는 ‘곶(곶)뭇’의 표기로 추정된다. ‘串叱丁’은 ‘고질정(뭇)’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표기와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叱’은 ‘串[곶, 곶]’의 말음첨기로 볼 수 있다.

2) 殯殿幄次所盛...古骨之十八箇 <正祖國葬都監 四, 別工作>144

漚匠所用...挾刀一箇 古骨之四箇 <正祖國葬都監 四, 別工作>162,233

金漚匠...所用 古骨之照伊介三箇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 4 造作>

‘古骨之’도 역시 근현대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음차(音借)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 쓰는 줄을 만드는 줄장(漚匠)이 쓰는 도구라는 점은 확실하게 보인다.

3) 雄尾里二箇...抹樓未里三箇... 平尾里八箇 <健陵山陵, 爐冶所>

cf. 抹樓宗心七箇...抹樓七間半<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抹樓未里는 抹樓와 未리로 분석할 수 있다. ‘抹樓’는 ‘마루’의 차자이며¹⁹⁾ ‘未里’는 대파를 나타낸다.²⁰⁾ ‘*마루미리’의 구체적 기능은 알 수 없다.

古索金, 朴乙丁·朴乙釘·朴文乙釘 등도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해독하는 데 애를 먹는 차자어이다.

또한 丁, 釘은 뭇, 정의 표기자인데 뭇, 정 어느 것의 표기자인지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다. 金, 鐵은 쇠, 철, 擧는 거, 들, 只는 기, 지 등도 마찬가지다.

둘째, 문헌에 한글 표기로 남아 있는 어휘와 해독한 차자어가 해독의 차이를 보일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거덜뭇²¹⁾은 “거덜뭇(銅子)<漢

19) <한국한자어사전>(2) 참고. 抹樓와 결합하는 여러 어휘가 있다. 抹樓板, 抹樓童子柱, 抹樓中枋, 抹樓耳機.

20) 의례에서 대파를 나타내는 차자어에는 大波 代破 大破[대파], 尾里 未里 未乃[미리], 湯[탕]이 있다.

310d>” 으roman 기록되어 있는데 차자어는 ‘巨勿釘 巨勿丁 巨物丁 舉勿丁 去勿釘’ 로 기록되어 거물뭇의 표기가 분명하다.²²⁾ 거물뭇과 거물뭇을 당시에 모음 교체된 표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것인지 또는 ‘뭇’ 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없어서 ‘물’ 로 적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나 예를 더 들자면, 걸강쇠의 한글 표기로 “걸강쇠(鉤子)<譯上 22>” 가 있다. 의례의 舉乙江金, 去江金는 ‘*걸강쇠’ 로 해독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에 대한 해석은 ‘거물뭇’ 과 거의 비슷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의례의 차자어는 하나의 어휘만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차자어로 둘 이상의 표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자어 ‘썰只’ 는 ‘갈기(<값이)′ 의 표기로 해독된다.

4) 磨鏡匠所用漚二介廣漚썰只各四介 <社稷樂器 別工作>

豆錫匠所用小漚五介썰只三介小漚丁二介<社稷樂器>

위의 썰只는 금속 세공품을 값아 광택이 나게 하는 쇠 연장인 ‘갈기’ (<값이)의 표기로 추정된다. 이를 근간으로 썰只金, 썰只刀 등도 확인된다. 다음 5)의 썰只는 4)의 그것과는 다르다.

5) 杻三台一千五百箇 썰只二百三十箇 <昌德宮營建, 實入>

위는 ‘싸리삼태기…갈기… 망울…’ 로 해석되는데, 삼태기. 갈기. 망울(망울)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기물의 배열로 볼 때 ‘갈퀴’ 의 표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퀴’ 를 표기할 적절한 한자의 부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1) 나무 그릇 따위의 터지거나 벌어지는 곳이나 벌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 거물장처럼 겹쳐서 박는 뭇.<표준>

22) 의례의 차자어 해독은 차자의 음과 훈(造字(造字)된 한국한자의 음)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뭇’ 을 ‘勿’, ‘物’ 로 표기하였더라도 ‘勿’, ‘物’ 은 음으로 ‘물’ 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 이후에 ‘뭇’ 이 ‘물’ 로 표기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김연주(2015)에서는 차자의 해독을 다음 설명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차자 伊가 ‘이’, ‘니’, ‘릭(릭)’, ‘잉’, ‘ㅣ’의 음표기에 쓰인다고 하고 각각 썰伊匠(갈이장), 都良伊(도가니), 助(乙)伊(조릭(릭)), 雄尾伊(웅미리), 伊我(잉아), 執巨伊(집게)를 제시하고 있다(김연주, 2015:445). ‘伊’는 ‘이’ 또는 ‘ㅣ’로만 해독될 만한 차자이다. 발표자가 잘못 이해했다면 양해를 바란다.

- 6) 後舉乙鎖兩排具十一介<景慕宮> 沙𪛗鎖壹介 <仁政殿>
 上下去乙金三箇 甘伊次白休紙二兩 <正祖國葬都監>
 舉乙金十介 <仁政殿> 大舉乙金兩排具二介 <景慕宮>
 馬腰舉乙金兩排具八箇 <仁政殿重修, 實入> 掛鐵二介 <景慕宮>
 後舉乙金兩排具四箇 <進饌 戊申 一>
 舉金排目具重一斤十三兩六錢 <華城城役 卷四, 式例>
 樂器入盛櫝子舉金二介三寸<仁政殿>
 正輦二坐每坐新造所入...鐙子舉乙釧二箇 <高宗御眞, 稟目>155

결쇠의 차자어로 巨鎖, 𪛗鎖, 舉金, 舉乙鎖, 舉乙金, 掛鐵, 去乙金 등이 다양하게 쓰였다. <표준>에 따르면 ‘결쇠’는 5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의례의 차자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결쇠’의 의미는 “①대문이나 방의 여닫이문을 잠그기 위하여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② 걸창이나 분합(分閤) 따위를 떼올려 거는 쇠갈고리.=들쇠. ③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화로 위에 올려 놓을 때 걸치는 기구.=다리쇠.” 등 3가지 정도이다. 앞의 차자어는 의례의 제시된 환경(?)에 따라 ①, ②, ③ 중 하나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차자어 木只²³⁾는 서까래[椽]와 대패를 나타낸다. 건축 부재인 서까래에는 연(椽)이 결합하고, 대패를 나타낼 경우에는 날[刃]이 결합하여 쓰였다.

- 7) 木只椽二十六介 <華城城役 卷五, 財用上>
 木只椽三十箇 <昌德宮營建, 實入>
 8) 匠人所用..錐子二十六箇 木只刃二箇 <昌德宮營建, 實入>
 木只刃一箇 <正祖健陵山陵 造成所>

차자어 所湯은 첫째, 물체의 주요 부분을 가리키거나 둘째, 구체적인 기물을 지시하거나 셋째, 용기를 지시하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시하는 동음

23) 오창명(2008:242-243)에는 서까래를 나타내는 차자어로 ‘木妓 方只 某叱只 毛只 隅只 隅叱只 木只’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이의어(<조선시대의궐용어사전> I)이다.

앞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 예문의 차자어는 단위어 ‘箇’로 이루어 구체적인 기물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大造殿四十五間...虛家道里柱各四箇 所湯二箇 椽四十箇 <昌德宮營建>²⁴⁾

9)는 “대조전 45칸... 허가²⁵⁾도리, 허가기둥 각 4개, 바탕 2개, 서까래 40개”로 해석된다. 단순히, 기둥보다 적은 개수라면 所湯[바탕]은 물체의 뼈대나 틀(의 개수)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0) 光明臺每部所湯次松板一尺二寸柱次小小條里木<景慕宮>

10)은 ‘광명대 매부 바탕 감 송판1자2촌 기둥 작은 소조리목’으로 해석된다. 광명대는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등잔걸이인데, 이때의 所湯[바탕]은 등잔걸이의 맨 밑바닥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용기를 나타내는 차자어다. 용기를 나타낼 때는 재료적 속성을 나타내는 ‘陶’가 선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所湯 또는 所湯伊로 표기된다.

11) 陶所湯伊三坐 <進宴儀軌 己亥 二 78ㄴ>

陶所羅 陶東海 陶所湯<進饌儀軌 己丑>

木臼一坐 陶所湯二坐 <慈慶殿 卷二29>

바탕이: 所湯伊 <조경년진작정례의궤, 권지삼 기용>

차자어 月乃是 ‘달늬(다리)’로 해독된다.

12) 中櫓二坐 每坐所入左右月乃次厚板三尺五寸二片 <進饌 戊申 二> ²⁶⁾

24) 황금연(1997:83)에서는 물체의 틀이나 골격을 이루는 주요 부분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고가 필요한 설명이라고 여겨진다.

25) 허가(虛假): 지붕 물매를 고르게 하려고 옥어진 곳에 이어 짓는 집<표준>.

26) 김연주(2015:391)에는 이와 비슷한 예 “左右月乃次薄松板”(<가례하 1866>)를 들고 ‘말다래’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月乃次椶板一立 <景慕宮>

12)의 月乃是 ‘관(棺)의 양 옆에 대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敵二部所入...月乃莫只次薄松板二立 <景慕宮> 81

13)은 악기 어(敵)의 부재이지만 12)와 유사한 부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月乃莫只是 악기를 올려 놓는 틀의 다리 밑에 막아 대는 널빤지를 뜻한다. 月乃莫只是 月乃와 莫只로 분석되며, 月乃가 악기 틀(밑)의 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4) 馬勒鞍匣月乃汗於赤<책례 1667>²⁷⁾

偃赤四十部 達乃四十部 <萬機要覽 軍政 二 訓練都監, 服着・諸鎮>

14)의 月乃 達乃是 말다래²⁸⁾의 차자어이다.

15) 勒子具壹部裏次生布及月乃褙紙等物 <殯殿都監>

16) 豆錫匠所用粧飾八染次三甫三月乃 <景慕宮>

15)는 ‘다리’²⁹⁾를 가리키며, 16)은 단위어 ‘타래’의 표기이다.

차자어 迭乃, 自乃³⁰⁾[자릭]는 일반 명사와 단위 명사로 쓰이는데 의궤에는 단위명사로만 쓰인다. ‘迭’은 음은 ‘겹’ 훈은 ‘자릭’이다.³¹⁾ 의궤에는 迭乃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自乃가 쓰이기도 한다.

27) 김연주(2015:391)에서 가져온 것이다.

28) ㄷ래(障泥)<物譜 牛馬>

29) ‘정리가례시일기’에 ‘月乃[들릭]’가 쓰였는데, 여자들이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판머리의 뜻으로 쓰였다.(황문환 외, 2010:42) 참조. 이 月乃是 ‘들릭’의 차자어인데 <표준>에는 한자어 월내(月乃)로 올라 있고, 고유어로 ‘다리’가 올라 있다.

30) 김연주(2015:376)에서 가져온 것이다.

31) 迭音怯俗訓子乃<五洲衍文長箋散稿>, 束薪稱迭자릭<晝永篇 下> 迭 즈래 ○ 柴一束也○柴木之大者爲迭 <행용이문>. <표준>에는 ‘자래’는 보통명사로, “심마니들의 은어로, ‘떨나무’ 또는 ‘생나무’를 이르는 말.”로 기술되어 있는데, ‘심마니들의 은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17) 祭器等鑄成所用松明吐木二迭乃 <祭器樂器>

松明一自乃 <英祖國葬都監> 松明半自乃 <孝懿王后國葬都監>

‘迭乃:자릭’³²⁾의 대응을 ‘迭’은 ‘자/즈’의 혼독자, ‘乃’는 ‘릭(래)’ 음가자로 해석한 경우(김연주, 2015:376-377)가 있다. 그런데 이 ‘迭乃:자릭’는 기계적인 대응관계의 해석보다 ‘迭’의 혼이 ‘자릭’임을 감안해야 한다. 즉 ‘迭’과 ‘자릭’가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역으로 보면 ‘자릭’는 ‘迭’의 혼을 빌린 것이다. ‘乃’는 ‘자릭’의 2음절을 표기한, 즉 말음첨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³⁾

넷째, 차자어의 해독 후에 의미 설명에 차이가 날 경우에 처리도 난감한 문제다.

다음 18)의 雄尾里, 雍未里, 玉未乃是 각각 웅미리, 웅미리, 옥미릭³⁴⁾로 해독할 수 있다. 이들은 ‘옥-’³⁵⁾을 근간으로 한 이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웅미리는 자음동화, 웅미리는 웅미리의 모음교체로 파악할 수 있다.

18) 匠人所用...雄尾里三箇 齡尾里三箇 平尾里 <昌德宮營建, 實入>

飛梢 雍尾里 童串各一箇 <正祖國葬都監 四>

刻刀十箇 玉未乃四箇 <進饌 二 己丑,稟目>

‘옥미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제시한 “雄尾里三箇 齡尾里三箇 平尾里”에서 후행하는 齡未里³⁶⁾, 平未里 등이 대패라는 점을 고려하면 ‘옥미리’는 대패의 한가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래의 사전 내용을 참고하여 의미를 설명할 때, 송곳이라 해야 할지 연장[도구]의 하나라고 기술해야 할지 난감하다.

32) <한국한자어사전>(4)에는 迭乃를 ‘거내’로 해독하고 있다.

33) 1음절의 차자로 표기의 불완전성(?)에 따른 첨기로 파악할 수도 있을 듯하다. 향가 표기의 ‘마^ㅁ’은 ‘心’으로도 충분하지만 2음절의 ‘음’을 ‘音’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34) 평목(平木)인 평미레에 평미리가 있음을 참고하면, 옥미릭은 옥미레, 옥미리로 볼 수 있다.

35) 옥다/옥다: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우그러져)있다 <표준>.

36) <한국한자어사전>(1)의 齡尾里와 齡尾里는 “옥밀이(나무를 대충 밀어 깎는 대패의 한 가지)”로 풀이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다.

옥밀이: 도래송곳같이 생기고 끝이 구부러진, (중략) **연장**. <표준>

옥밀이: 새김질에 쓰는, (중략) **연장**. <새우리말 큰사전>.

옥밀이: 도래송곳같이 생기고 끝이 구부러진 **송곳**. <조선어사전>

옥밀이: 새김질에 쓰는 **연장**. (중략) <조선말큰사전>

3.4. 차자어의 특징

의례의 차자어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구어적 표현을 반영하여 표기되고 있다. 예컨대 ‘감잡이’ (감잡이 鐵鉤搭, 한청288b)는 ‘감자비’로 연음된 채 표기된다. ‘거리쇠’는 ‘걸+이+쇠’로 분석되는데 차자어는 연음되는 ‘巨里金(거리쇠)’이다. ‘갈기’는 ‘감+이’로 분석되는데 ‘罽只(갈기)’로 표기된다. ‘엇밀이’의 彦尾里(언미리), ‘옥미리(옥미리)’의 ‘雄尾里’(웅미리), ‘옥미리’의 雍尾里(옥미리) 등이 그러하다.

둘째, 한자어가 우리말 표기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부적절한 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덧보(加樛 加樛 加樛) [막새] 莫沙 [장도리] 掌道耳 [각귀] 加耳 등.

셋째 한 어휘를 나타내는 데 다양한 차자어가 사용된다. 한 어휘에 대해 하나의 차자로만 일관되게 표기된 예도 없지 않다. 그만큼 여러 한자가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표기들을 볼 수 있다. 몇 예만 들어둔다.

19) 단일 표기형: 갈기(罽只) 열쇠(開金) 모로(毛老) 배목(排目) 사래(蛇羅) 산방(散防) 바탕(所湯) 못줄(束漚) 심줄(心漚) 모판(隅板) 원산(遠山) 다리(月乃) 귀틀(耳機) 장지(障子) 춘녀(春舌) 찰쇠(佩金) 화쇠(靴金) 확쇠(確金) 대야(大也) 동이(東海) 양푼(涼盆) 먹서리(覓西里) 보아(甫兒) 뒷대야(北鐺) 소라(所羅) 소용(所用) 안반(案板) 종지(鍾子) 멜통(擔桶) 가래(加乃) 개탕(開湯) 변탕(邊湯)³⁷⁾ 오리(條里)

37) 국어사전에는 개탕(開鎗), 변탕(邊鎗)으로 올라 있다. 의례에 ‘鎗’ (변탕:대패)으로 쓰인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20) 복수 표기형: 3가지 이상 중 일부만 들.

가막쇠: 加莫金 加莫鐵 加莫釧 可莫金 𠵿末金 甘莫金

걸쇠: 𠵿鎖 舉乙鎖 舉乙金 掛鐵 去乙金 巨鎖 舉金

동발이: 童發里 童發伊 東發里 同發耳

보아지: 甫兒之 甫兒只 祿阿只 祿兒之 甫我之 祿兒只 祿阿支 櫟我之

넷째, 조자(造字)된 고유한자가 빈번하게 쓰인다.

軼(각): 加ㄱ耳(軼耳)

𠵿(갈): 𠵿只 𠵿末金 𠵿拘里

[介乙](깁): 介乙古里

[古叱](긔): 古叱丁

𠵿(굴): 𠵿伊

[舉乙](걸/들): 舉乙里

𠵿(극): 𠵿金 周𠵿

𠵿(걸): 𠵿環 𠵿鎖

𠵿(돌): 𠵿迪耳 壯𠵿伊

𠵿(살): 𠵿尾

𠵿(샐): 沙𠵿 西𠵿

𠵿(엇): 𠵿尾里

𠵿(줄): 𠵿釘

𠵿(줄): 束𠵿

[金主乙](줄): 鉦乙釘刃 鴨項金主乙

𠵿(설): 𠵿金 𠵿煮

다섯째, 생략표기도 보이지만 첨기표기도 활발하다.

갈고리: 加古里: 𠵿拘里 介古里: 介乙古里

걸경쇠: 去江金: 舉乙江金

걸쇄: 巨鎖: 𠵿鎖 舉金: 舉金 𠵿鎖

고막이돌: 庫莫石: 高莫只石

박을못: 朴乙丁: 朴文乙釘

비김쇠: 非音金 非只音鐵 飛音鐵 非其音鐵 非其鐵 飛只音金

마지막으로 한 차자어가 여러 어휘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면 차자어의 통용 또는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앞의 4)~16)의 차자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감잡이(甘佐非)를 비롯하여 여럿이 있다.

한편 의궤의 차자어는 고유어를 한자로 적은 어휘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들 중에는 현대에 한자어로 정착(?)³⁸⁾하기도 한다. 앞서 본 월내(月乃)는 ‘다릭’의 차자 표기인데 사전에 한자어로 올라 있다. 변탕(邊湯), 개탕(開湯)은 변탕, 개탕의 음차 표기인데, ‘湯’이 대패를 뜻하는 ‘錫’으로 교체되어 한자어 변탕(邊錫), 개탕(開錫)으로 올라 있다. 목지연(木只椽)의 ‘목지’는 ‘모끼’의 차자 표기인데 사전에 한자어로 등재되어 있다. 서까래는 한자어와 고유어 모끼연(--椽)으로, 대패는 ‘모끼’로 남아 있다. 방초(防草)는 ‘막새’의 차자어인데 현재 같이 올라 있다. 배목의 차자어 排目은 취음(取音)이라 하여 한자어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목 셋을 꿰어 만든 삼배목은 삼배목(三排目)으로 올라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간행된 방대한 양의 의궤 자료 중 극히 적은 자료의 차자어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살펴 보았다. 의궤 637종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지 발표자로서는 알 수 없다. 의궤 자료에 대한 연구는 건축, 복식, 음악, 미술, 음식,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국어학 분야의 연구는 답보 상태에 있다. 의궤의 차자어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많아야 6여 명 정도일 듯하다. 아마도 의궤의 차자 표기의 연구 가치 또는 연구물의 저평가와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한편으론 국어를 전공하지만 연구 자료

38) 한 어휘가 사전에 따라 한자어로 등재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데 한자어로 올라 있는 경우를 우선한다.

들은 건축, 연장, 복식 등 연구자에게는 생소한 어휘의 표기에 대한 이해, 한자에 대한 지식 등을 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그렇다할지라도 누군가는 의궤의 차자어에 대한 정확한 해독,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면 누군가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을 들어 두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의궤 연구에서 항상 아쉬웠던 것은 용어의 해석 문제이다. 지금은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이두 표기는 의궤 연구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용어의 문제는 어느 분야든지 절실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박정혜, 2012 :237)[국립중앙박물관(2012)] .

【참고 문헌】

- 건축용어사전(대한건축학회; <https://www.aik.or.kr/>)
- 경기문화재단(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 국립고궁박물관(2014),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민속원.
- 국립중앙박물관(2012),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 김연주(2002), 營造儀軌의 工匠道具 표기 연구,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69-88쪽
- 김연주(2003), 영건의궤(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주(2004), 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연구-표기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45, 한민족어문학회, 109-144쪽
- 김연주(2009), 의궤 번역에 있어서 차자 표기 해독, 민족문화33, 한국고전번역원, 55-83쪽
- 김연주(2012), 규장각 소장 가례관련 연향의궤의 음식 관련 차자 표기 연구, 사상과문화, 461-488쪽
- 김연주(2014), 의궤의 복식관련어휘연구-규장각 소장 嘉禮 관련 의궤를 중심으로-, 사상과문화73, 한국사상문화학회, 325-353쪽
- 김연주(2015), 조선시대 의궤 차자 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 남영신(1992), 우리말분류사전(이름씨편)1, 한강문화사. (『분류사전』)
- 동양학연구소(1992), 한국한자어사전(권1), 단국대학교 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93), 한국한자어사전(권2), 단국대학교 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95), 한국한자어사전(권3), 단국대학교 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97), 한국한자어사전(권4), 단국대학교 출판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편(2012), 조선시대의궤용어사전 I, 경인문화사.
- 문세영(1940), (수정증보)조선어사전, 영창서관.
- 박소동 역(1997), 국역가례도감의궤, 민족문화추진회.
- 송방송·공방자외(2000), 국역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민속원.

- 신기철·신용철(1986),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오창명·손희하(2008), <儀軌>류의 고건축 어휘 해독과 건축 용어 선정, 호남문화연구42, 호남문화연구소, 231-272쪽
- 오창명(2016), <韓國漢字語辭典>의 차자와 한자어, 이두와 이두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53-182쪽
- 오창명·천득염(2017), 몇 개의 전통 건축어휘의 어원과 표기, 건축역사연구 26권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28쪽
- 옥영정(2009), 화성성역의궤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한글본 덩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성역’의 분석과 비교-, 서지학연구 42집, 한국서지학회, 5-45쪽
- 옥영정(2015), 한글 의궤문헌의 주석 유형과 물명 기록 연구-덩니의궤 ‘화성성역’의 註釋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20호, 국어사학회, 253-299쪽
- 유창돈(1964, 1987),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이화숙(2009), <<즈경던 진작 정례의궤>의 어휘와 번역 양상,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321-352쪽
- 이화숙(2011), 한글본 의궤의 어휘적 특징-<<덩니의궤>>와 <<즈경던진작정례의궤>>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159-178쪽
- 장기인(1985),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Ⅳ), 보성문화사.
- 한글학회(<https://www.hangeul.or.kr>), 조선말큰사전.
- 한영우(2005), 조선왕조의궤, 일지사.
- 황금연(1989), 화성성역의궤의 한자차용표기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금연(1997ㄱ), 의궤류의 한자 차명 표기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금연(1997ㄴ), 현대 한자 어휘의 기원에 대한 고찰,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 (성재 이돈주 선생 회론), 태학사, 235-261쪽
- 황금연(1999), 의궤의 어휘 표기 형태와 해석(1)-연장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3집, 한국언어문학회, 671-693쪽
- 황금연(2002), 度支準折의 어휘 표기에 대한 일 고찰, 한국언어문학 49집, 한국언어문학회, 647-670쪽
- 국립중앙박물관(2012), 조선왕조위궤 현황과 전망.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I, 국립중앙박물관, 276-277쪽

황문환 외(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황선엽(2008), 정미가례시일기의 어휘(1)-어휘의 일반적인 특징과 인명을 중심으로-, 藏書閣1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95-110쪽

“의궤류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이화숙(대구가톨릭대학교)

황금연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의궤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중 건축과 건축 도구 그리고 용기와 관련한 차자 표기 어휘를 찾아내어 해독의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의궤의 차자 표기 어휘에 나타나는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의궤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필사본이 다수이기 때문에 차자 표기를 가려내고 이를 다시 건축 관련 용어로 분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자 표기 자료와 함께 해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발표문을 읽는 것만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갖게 된 몇 가지 궁금증과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달고] 達毆 達固 槿古’에서 차자 표기에 대한 해독 결과로 ‘[달고]’를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달고’를 한글 표기의 대표 형태로 보고 제시한 것이라면 이러한 대표 형태를 설정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달구’로 남아 있고, 차자 표기에도 제2음절에 모음 ‘ㅓ’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達毆’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궤의 편찬 시기에 따라 차자 표기를 달리 해독할 여지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른 우리말의 표기와 음운 변화가 의궤의 차자 표기에도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달고] 達毆 達固 槿古’의 경우 ‘[달고] 達固 槿古(예: 達固木二百<인목 왕후산릉도감의궤(1632) 99a>, 圓達固二十介 長達固三百介 <인원왕후산릉도감의궤(1757) 90b>), 槿古木次小小 椽木四十箇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1802) 하:266>’와 ‘[달구] 達毆(예: 達毆木四千四百七十八箇 <화성성역의궤(1801) 5:26>’로 해독할 경우, 현대 국어 ‘달구’가 ‘달고>달구’의 변화를 겪은 것을 차자 표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 ‘[쇄기] 所也只 所惡只’, ‘[동이] 東海’, ‘[새옹] 沙要 沙用 砂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所也只’를 ‘소야기(또는 쇠야기)’로, ‘所惡只’를 ‘소아기’로, ‘東海’를 ‘동희/동해’로, ‘沙用’을 ‘사용’으로도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차자 표기에 쓰인 한자를 해독할 때 음독을 해야 할지 훈독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문헌에 따라 음독과 훈독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글 의례인 《덩니의례》(18세기 말~19세기 초)와 《즈경던진작정례의례》(1828년)를 통해서 차자 표기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를 비교해 보면 《덩니의례》보다 《즈경던진작정례의례》에서 음이 반영된 예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예: 陶東海-질동해<덩니 32:49L:4>, 도동희<정례 3:23T:4>; 鐵隅路-쇠모로<덩니 32:51L:8> 鐵毛老-철모로<정례 3:22L:3>) 그리고 단일어는 주로 음독되고, 합성어와 파생어는 훈독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차자어’에서도 해독과 관련하여 특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건축 관련 차자 표기를 해독하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독과 관련한 경향성을 파악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3. 의례의 차자어의 특징으로 제시하신 ②우리말 어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⑤생략표기와 첨기표기가 활발하게 나타남 이 두가지는 음절 단위보다는 단어 단위의 표기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단어 단위의 표기 지향’을 의례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의 한 특징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4. 차자어 자료 중 “[갈] 𪛗:單𪛗 兩𪛗 三𪛗<4쪽>”의 경우 “두공, 첨차, 한대, 제공, 장여, 화반 따위를 받치는 네모진 나무<표준국어대사전>”를 뜻하는 ‘소로’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에는 ‘單𪛗小累一千三百十二箇兩𪛗小累三百三十六箇三𪛗小累四十八箇<인정전영건도감의례 12>’처럼 나옵니다. 차자 표기 어휘 자료로 각각 ‘單𪛗小累’, ‘兩𪛗小累’

累’，‘三罽小累’를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雍尾里’의 경우 “雄尾里三箇齡尾里三箇平尾里一箇<창덕궁영건도감의궤(1833-1834) 107>”, “雄尾里三箇齡尾里三箇平尾里一箇<창경궁영건도감의궤(1830-1834) 75>” 처럼 대패의 일종인 齡未里, 平未里 등과 함께 나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뾰족하고 뚫거나 꽃는 기능을 하는 ‘비비’, ‘둥곳’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雍尾里’도 확인되며(예: 穿穴次雍尾里二飛襟二介<숙종국장도감도청의궤(1720) 2:345a>) ‘雍尾里’를 ‘구멍을 뚫는 용도[穿穴次]’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예: 飛排雍尾里童串各一箇<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1805) 4:4a>) 의궤의 종류(또는 사용처인 영건과 국장)나 편찬된 시기에 따라서 ‘雍尾里’가 다른 사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됩니다. 대패와 송곳으로 크거나 생김새가 다른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날의 형태가 오목한 것이 비슷하고 홈을 파는 기능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울러서 ‘雍尾里’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雍尾里’는 출처와 맥락을 고려하여 2종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궤와 고문헌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어휘와 해독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고전 국역에서 차자 표기가 오독되거나 문헌마다 달리 제시되는 예가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서 이두의 어휘
-명사류·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조남곤(고려대학교)*

차례

1. 서론
2. 명사류 이두
3. 동사류 이두
4. 결론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요 약

본고는 고문서 이두문에 쓰인 어휘들 가운데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새로 발견된 이두를 소개하고, 기존에 논의된 이두 가운데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이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2장 명사류 이두에서는 새로운 이두를 발견하여 소개하였다. 多勿沙里는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이두어이다. 고문서 이두문에 출현하는 多勿沙里는 주로 ‘담살이’ 혹은 ‘사환 노비’를 지칭하는 명사류 이두이다. 召史는 양인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로 설명되어 왔으나 고문서 이두문에서 召史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민과 천민 여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이두어이다. 夜伊/夜是/夜味는 지금까지 모든 이두사전과 연구에서 [배미]로 읽어온 명사류 이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이두가 생겨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밤이]로 읽히다가 후대에 [바미]와 독음이 혼용되었고, 18~19세기 교체기에 [배미]가 나타나서 점차 [배미]로 음이 굳어진 것으로 기술하였다. 1.2. 형식명사에서는 分에 대하여 다시 논하면서 필자의 기존 견해를 발전시켰다. 分을 처격조사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다. 分은 시간명사 뒤에서 ‘즈음’의 뜻으로 쓰이는 형식명사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제3장 동사류 이두에서는 斜/斜只/斜是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다 먼저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고문서를 예로 들어 斜가 이른 시기부터 동사류 이두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 斜/斜只/斜是가 ‘증명’, ‘증명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 ‘확인 문기’ 또는 ‘확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음을 예문을 들어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斜只가 문서로서의 개념을 가진 것은 대체로 16세기 중엽 이후부터라고 추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동사류 이두 向의 독음과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고문서 이두문에 쓰이는 단일동사 ‘向/앗-’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向이 지닌 뜻을 바탕으로 ‘행하다’나 ‘하다’로 파악하였다.

1. 서론

본 연구는 고문서에 쓰인 이두의 어휘에 대하여 명사류·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국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서란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發受되는 문서로서 대체로 1910년 이전의 낱장 옛문서를 말한다.¹⁾ 이두는 일반적으로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을 가리킨다.²⁾ 여기서 이두문이란 관청의 행정 문서나 민간의 분재·매매 문서 등에 주로 쓰이는 실용적인 문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러한 고문서에 쓰인 이두의 어휘에 대한 것이다.

이두의 형태는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두의 어휘 형태는 다시 명사류 이두, 동사류 이두, 부사류 이두로 나눌 수 있고 이두의 문법 형태는 조사류 이두, 어미류 이두, 접사류 이두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두의 어휘 형태 중에서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로 쓰이는 이두 어휘에 대해서 소개하고, 새로 발견한 이두어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이두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문서 이두의 어휘를 다룬 선행 연구에는 이승재(1992), 오창명(1995), 박성중(1996), 조남곤(2019) 등이 있다. 이승재(1992)는 고려 시대의 이두 자료 50여 종을 모아서 이를 주로 공식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두를 처음으로 명사류, 조사류, 동사류, 부사류, 어미류 이두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 고문서 자료가 많지 않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 오창명(1995)는 조선 전기에 쓰인公私의 고문서들에 나타나는 이두를 추려내고 이를 명사류, 조사류, 접사·계사류, 부사류, 동사류로 나누어 논의한 귀중한 연구이다. 박성중(1996)은 조선 왕조의 창건으로부터 15세기 말까지의 이두 자료를 문서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국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이다. 또한 박성중(2016)은 박성중(1996)의 증보판으로 대상 자료를 16세기의 전적류와 고문서로 확장하여 살펴본 연구물로서 여기에는 이두 문법 형태뿐 아니라 어휘 형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남곤(2019)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나타난 이두

1) 최승희(1989: 22) 및 박성호 외(2020: 15) 참조.

2) 남풍현(2000: 12) 참조.

를 정리하고 前代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이두의 어휘 형태를 소개하였다. 또한 ‘分’이 처격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가 아니라 명사류 이두(형식명사)임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이두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찰한 연구물들이지 이두 어휘만을 모아 집중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이두 어휘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연구되었고 좋은 연구 결과물도 나왔지만 고문서에 쓰인 이두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좀 더 실증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고문서 이두의 어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려고 한다.

본고는 고문서 이두의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논하는 첫 연구이다. 또한 새로운 이두어를 소개하고 아직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이두 어휘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그 독음과 의미, 특성을 밝혀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의 이두 어휘 연구의 발전에 작으나마 기여하리라 믿는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명사류 이두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종류를 표로 정리한 후, 명사류 이두 가운데 자주 쓰이는 이두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만한 이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동사류 이두의 종류를 단일명사, 합성명사, 계사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중 중요한 이두어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하고 얻은 결과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2. 명사류 이두

고문서의 명사류 이두는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조사류에 선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명사류 이두에는 실질명사, 형식명사, 대명사가 있다. 품사 분류의 주된 기준이 형태와 기능이고 의미는 품사 분류의 주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대명사를 굳이 명사와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명사를 명사류 이두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이두문으로 쓰인 고문서 중에서 자주 사용되었거나 중요한 명사류 이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1) 실질명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庫/庫叱	곳	논밭이 있는 땅, 처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
2	庫庫	곳곳	곳곳, 여러 곳
3	拷音	다답	관아에서 백성을 다그쳐서 확실한 대답을 받거나 대답을 받은 陳述書. 혹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이행할 것을 맹세하는 말
4	衿	깃	재산이나 물건 등을 나눈 한 몫
5	多勿沙里	다물사리	담살이, 가내 노비, 사환 노비
6	貌/兒	죽	모양, 모습
7	白活	발괄	백성이나 하급관리가 사정을 官에 하소연하는 일이나 그 문서
8	捧上	받자	돈이나 물품, 다짐 등을 받는 것
9	事	일	일
10	上下	자하	官에서 돈이나 물건을 내어 주거나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
11	上項	웃목	위의 항목, 위의 내용
12	召史	조이	양민이나 천민 여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
13	身	몸	몸
14	曖昧	애매	억울함
15	夜伊/夜是/夜味	밤이	배미, 논배미
16	葉作	엽질	날날의 문서
17	隅	몽	까탈, 까탈 부리는 일
18	印	글	끝
19	銓次	전츠	까닭, 갖추 말씀드리기 위함
20	節	디위	이번, 이때, 지금
21	題音	테김	官에서 백성의 訴狀이나 請願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던 글발. 題辭
22	知音	알음	알림, 통지
23	持音	디님	지님
24	作文	질문	문서, 관청의 토지 대장이나 호적 문서
25	次知	츠디・*ㄱ슴아리	담당, 담당자, 주인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종
26	頃下	탈하	탈, 탈이 난 사유, 탈이 난 사유를 기록하는 것
27	向前	앗전	앞, 이전, 지난번

3) 이두 어휘에 대해서는 박성중(2016)에서 상세히 소개하였기에 본고에서는 고문서에서 자주 사용되었거나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두 어휘, 그리고 이두사전에 새로 추가할 만한 이두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8	爻周	효주	삭제, 말소, 취소

(2) 형식명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等	덕 · 둔 · 들	때문, 것은, 것을
2	味	맛	의미, 취지
3	分	분	즈음
4	所	바	바
5	樣	양	양
6	第	데	적, 제
7	次	츠	때

(3) 대명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其	그, 저	그, 저 · 자기(재귀대명사)
2	汝	너	너
3	矣	의	나
4	矣身	의몸	나
5	自	저	저(겸칭)

1.1. 실질명사

1) 庫(庫叱)〔곳〕

『吏文襟例』에서 庫叱을 ‘곳’으로 혼독하였고, 『吏讀集成』에서는 庫를 ‘곳’으로 읽었다. 庫는 『訓蒙字會』(歡山本 中5)에도 ‘곳’으로 표기되어 있다. 후기중세국어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받침 ‘ㄷ’과 ‘ㅅ’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⁴⁾, 이 『訓蒙字會』에 나타난 庫의 새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庫 혹은 庫叱은 후기중세국어에도 ‘곳’으로 혼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이른 시기에는 ‘곧’으로 읽혔을 가능성도 있다. 아래 (1ㄱ)과 같이 ‘곧(處)’을 뜻하는 이두 庫의 용례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보이기 때문이다. 庫는 이두문에서 주로 ‘논밭이 있는

4) 안병희(2003: 175-198) 참조.

땅’의 뜻으로 쓰였는데 ‘처소’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로도 쓰였다. 이는 후기중세국어의 ‘곧(處)’과 일치하고 현대국어의 ‘곳’에 해당한다.

- (1) ㄱ. 參知政事崔 祝聖油香寶以 施納 寶城郡任內 南陽縣_圀 鹽田七庫 山田三庫 并 三結七十_卜 昇平郡地 吐叱村 鹽田六庫 <1220년대 修禪社寺院現況記 163-164> (참지정사 최이가 축성보, 유향보로 시납한 것이 보성군의 지경 안인 남양현의 땅에 염전 7곳, 산전 3곳, 모두 3목 70짐, 승평군 땅 툇촌의 염전 6곳인데)
- ㄴ. 父祖傳來田畝等乙良 各村各庫員 伏 四標內 日耕數_爻乙用良 <1392년 太祖土地賜給文記 02> (선조로부터 전하여 온 전답들은 각 마을 각 땅의 들판에 있는 사방의 경계표 안의 하루같이 수효로써)
- ㄷ. 奴 順命 名付 同員 畝 上夜伊 正租 壹斗落只 貳_卜 二束庫 并 折 木綿 肆同內 正租 貳拾五石 禾 柒 雄馬 一隻 木綿 壹_丁 依數 捧上爲遣 永_々放賣爲去乎 <1537년 배천석 토지매매명문> (노 순명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된 같은 들의 논 윗배미 좋은 논 1마지기 2짐 2束의 땅을 값을 정하여 모두 목면 4동 안에 벼 25석, 이빨이 7개인 수말 1척, 목면 1정 등을 수대로 받고 영영 방매하였으니)
- ㄹ. □…□斗落只_廬 伏在 於雪梅谷里 <1857년 소지> (□…□ 마지기의 땅이 설매곡리에 있습니다.)

(1ㄱ)은 庫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로 쓰였고 (1ㄴ, ㄷ)의 庫와 (1ㄹ)의 廬은 ‘논밭이 있는 땅’의 뜻으로 쓰였다.

2) 庫庫〔곧곧〕

庫庫는 ‘곧곧’으로 읽히는 합성명사 이두로서 15세기 국어의 ‘곧곧’과 일치하고, 현대국어의 ‘곳곳’, ‘여러 곳’에 해당한다. 庫庫의 용례도 고려 시대부터 보인다.

- (2) ㄱ. 參知政事崔 祝聖油香寶以 施納 宣給文付 昇平郡 葦長伊村 鉄谷村 新谷村 等 叱 庫庫 并十結五十□(卜) <1220년대 修禪社寺院現況記 155> (참지정사 최이가 축성보, 유향보로 시납한 것이 선지로 지급한다는 공문이 붙은 승평군의 위장이촌, 철곡촌, 신곡촌 등의 곳곳 모두 10목 50짐이다.)

- ㄴ. 田畚段 某畚某田不爲 庫庫 懸錄爲遣 <1678년 김번 형제 화회문기> (전답은 모답 (某畚), 모전(某田)의 곳곳을 장부에 올려 적지 않고)

3) 俵音 [다짐]

俵音은 조선 후기의 이두 학습서에서 ‘다담’ 또는 ‘다짐’으로 읽었다. 주로 재판 용어로 쓰이는 이두어이다. 俵音의 俵는 동사 ‘*다디-’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한국 한자[國字]이며 音은 말음첨기로 명사과생접미사이다. 이 말은 관아에서 백성을 다그쳐서 확실한 대답을 받거나 대답을 받은 陳述書를 뜻한다. 혹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이행할 것을 맹세하는 말이다. 한자어로는 招辭 또는 供招라고 한다. 俵音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⁵⁾ 조선 전기의 고문서에 보이는 이두어 俵音의 용례 중 일부를 아래에 제시한다.

- (3) ㄱ. 永樂 六年 二月 廿六日 俵音 前 神虎衛 精勇敢員 朴弘義 年 六十五 幼學 申緝 年 二田一 <1408년 訂人 朴弘義 筆執 申緝 俵音 01-03> (영락 6년 2월 26일 다짐. 전 신호위 정용산원 박홍의 나이 65, 유학 신집 나이 21)
- ㄴ. 豐基官良中 付官爲白有卧乎 其矣 入役各處 役價 生徵爲白只爲 傳來 國籍 相考 俵音 捧上 立案 成給爲白只爲 <1490년 배이순 호노 풍기관 사급입안 05-06> (풍기관에 올린 저의 각처에서 종사한 품삯을 강제로 징수하도록 전하여 온 천적을 상고하여 다짐을 받고 입안을 만들어 주도록)
- ㄷ. 元隻 俵音是乎 等用良 相考爲乎矣 <1517년 김효로 입안, 068-069> (원고와 피고의 다짐을 가지고 상고하되)
- ㄹ. 多勿沙里亦 自現 俵音 內 其 父乙 營奴 從山是如 納招爲白遣 <1586년 이지도 입안, 210-211> (다물사리가 스스로 나타나 다짐 안에 그 아버지를 영노 종산이라고 초사를 바쳤고)

(3ㄱ)은 <1408年 尼僧張氏 楊州府 許與斜給立案>에 점련되어 있는 증인과 필집의 俵音 중 일부이다. 이승 장씨가 양주부에 사급입안 신청 소지를 증인과 필집이 서압한 별급문기와 함께 올리자 관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증인과 필집을 불러 다짐을 받은 것이다. 이 문서는 이두어 俵音이 나타난

5) 19세기 필사본 『견문잡기(見聞雜記)』에 ‘山僧德妙戲色改過俵音’ (산승 덕묘가 여자를 희롱하고 허물을 고치면서 한 다짐)이란 글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俵音은 관아에서 백성을 다그쳐서 확실한 대답을 받거나 대답을 받은 글을 뜻하지 않고, 일반적인 ‘다짐’의 뜻으로 쓰였다.

현전 최초의 자료로 보인다. (3ㄴ)의 俵音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3ㄷ)의 俵音은 始訟 다짐이며, (3ㄹ)에 쓰인 俵音은 다물사리가 스스로 官婢라고 진술한 것이다.

4) 衿〔깃〕

衿은 ‘깃’으로 읽히며, 분재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유어 이두어이다. 이두문에서 衿은 주로 ‘재산이나 물건 등을 나눈 한 몫’이란 뜻으로 사용 되는 상속 관련 용어로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자주 쓰인다. 衿記(깃기), 衿給(깃급), 衿得(깃득), 衿付(깃부), 分衿(분깃)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일종의 혼종어⁶⁾로 볼 수 있다. 다음은 衿에 대한 용례 중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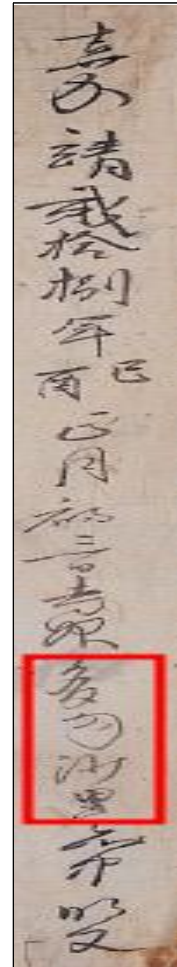
- (4) ㄱ. 長女 進士 妻以順妻衿婢 苟陽非矣 小生 奴 千文 年 丁卯生 <1491년 김유지 처 배씨 분재기> (장녀 진사 배이순의 처의 몫. 비 작양비의 소생 노 천문 나이 정묘생)
- ㄴ. 外祖父母教是置 奴婢外 各衿 分給 不得教是遣 並只 俱沒教 非用良 <1503년 만남 박씨 5남매 화회문기>(외조부모께서도 노비 외에는 각 몫을 나누어 주지 못하시고 모두 함께 돌아가신 까닭으로)
- ㄷ. 妻邊祭祀 勢難辦行乙仍于 衿得婢愛仙 年十二 乙丑生身果 <1637년 김이성 허 급명문> (처가의 제사를 마련하여 지내기가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몫으로 받은 비 애선(12세, 을축생)의 몸과)
- ㄹ. 地巨員 畝 貳夜 貳斗落只 庫 加錄分衿下 俾爲藥債爲旆 <1661년 장자 고 유학 김운겸 처 신씨 등 오남매 화회문기> (지거원 답 2배미 2마지기의 땅을 나누어 준 몫 아래 더 기록하여 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약 값으로 하게 하며)

5) 多勿沙里〔다물사리〕

多勿沙里는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이두 어휘이다. 이 이두는 고문서에 종종 출현하였는데 보통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고유명사 곧 人名에 쓰이기도 한 명사류 이두이다.

6) 혼종어(混種語)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뜻한다.

多勿沙里에 대해 처음 논의한 것은 임상혁(2010)이다. 임상혁(2010)은 조선 시대의 한 소송 관련 고문서를 다루면서 피고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多勿沙里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하여 추적한다. 임상혁(2010)은 ‘담살이’를 多勿沙里的 준말로 보았다. ‘담살이’란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얹혀사는 노비나 양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른 집의 담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의미이거나 하인들의 거처가 주로 담 밑에 있어서 생긴 말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임상혁(2010)에서는 多勿沙里를 ‘담’과 ‘울’(울타리)과 ‘살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고문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多勿沙里를 ‘담+울+살이’로 형태 분석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多勿沙里는 ‘담살이’나 ‘더부살이’를 뜻하는 중세국어 어휘 ‘다므사리’(<다믈사리>)와 관련이 깊은 말로 보인다. ‘다므사리’는 ‘다믈사리(다믈사리)’⁸⁾에서 ‘ㄷ’이 탈락한 형태일 것이다. 한국어에서 폐쇄음 ‘ㄷ’은 마찰음 ‘ㅃ’ 앞에서 항상 탈락하기 때문이다.⁹⁾ 그러면 고문서에는 왜 ‘다믈사리’나 ‘다믈사리’가 아니라 ‘다물사리’로 읽히는 多勿沙里만으로 표기되어 있을까?¹⁰⁾ 그것은 한 문에는 ‘믈’이나 ‘믈’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勿[믈]’¹¹⁾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문서 이두문에 출현하는 多勿沙里는 주로 ‘담살이’ 혹은 ‘사환 노비’를 지칭하는 명사류 이두이다. 다음은 고문서 이두문에 쓰인 多勿沙里的 예들이다.



<그림 1> 1549년 명문

(5) ㄱ. 婢 多勿沙里 年 拾伍 <1528년 안동부 호적 단편> (비 다물사리 15세)

ㄴ. 嘉靖 貳拾捌年 己酉 正月 初三日 寺奴 多勿沙里亦中 明文 <1549년 시노 다물사리 토지매매명문> (가정 28년 기유 정월 초3일 관청에 딸린 노 다물사

7) 備 ㅅㅂㅅ ㄱ 役賃謂雇作者 初學字會云다므사리 ㄱ <訓蒙字會 中1b>

8) ‘다믈, 다믈(<다믈>’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을 지닌 중세·근대국어 어휘이다.

9) 배주채(2011: 138-139) 참조.

10) 이두가 쓰인 고문서에는 ‘담살이’가 항상 多勿沙里라는 차자 형태로 나타난다.

11) 勿의 중세국어 독음은 [믈]이다. 勿 말 믈 <光州·石峯千字文 24b>.

리에게 밝히는 글)

- ㄷ. 奴 允必 良妻 多勿沙里 并産 一所生 婢 仁伊 年 四十九 戊戌 <1586년 나주 목 결송 입안 345-346> (노 윤필과 양인 아내 다물사리가 함께 낳은 1소생 비 인이(49세, 무술생))
- ㄹ. 安東居 進士 裴龍吉 戶奴 多勿沙里 <1594년 배용길 호노 다물사리 소지> (안동에 사는 진사 배용길의 호노 다물사리)

(5ㄱ)은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안동부의 호적대장의 한 면에 적혀 있는 婢의 이름 多勿沙里이다. 여기에 쓰인 다물사리는 ‘담살이’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비의 실제 이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호적대장에 기재된 다른 婢들은 모두 다물사리가 아니라 고유한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5ㄴ-ㄹ)에 쓰인 多勿沙里는 모두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 (5ㄴ)의 다물사리는 관청에 속한 노비로 관청의 담 밖에 살면서 사환하는 노비이고, (5ㄷ)의 多勿沙里는 노 윤필의 양민 출신 아내이다. 임상혁(2010: 161-162)은 이 여성의 신분을 1522년의 호적(壬午帳)과 1540년의 호적(庚子帳)에 근거하여 이 씨 성을 가진 자유인으로 추정하였다. (5ㄹ)의 多勿沙里는 진사 배용길 집안의 戶奴로서 가내 노비(사환 노비)로 추정된다. 위의 예를 통해 多勿沙里란 이름이 남녀노소와 良賤을 구별하지 않고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多勿沙里는 일반적으로 ‘담살이’ 혹은 ‘가내 노비(사환 노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였으며, 간혹 인명으로 쓰이기도 했다.

6) 召史〔췌시〕

召史는 조선 후기 이두학습서에서 ‘조이’, ‘소사’ 등으로 읽었다. 『吏讀集成』에서는 ‘췌이’로 읽었다. 보다 이른 시기에는 ‘췌시’나 ‘췌이’로 읽었다고 보는 견해¹²⁾가 다수이며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召史는 양민이나 천민 여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이다. 『吏讀辭典』(단국대학교출판부)과 『이두자료 읽기 사전』(한양대학교출판부)에는 양인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는 부정확한 기술이다. 고문서 이두문에서 召史는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양민과 천민 여자를 가리킬 때 쓰이며, 姓에 불

12) 오창명(1995: 73) 참조.

어 쓰이기도 하고 성 없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 이두어이다. 召史의 용례는 고려 시대자료인 유경의 〈상서도관첩〉(1262년)에서부터 보이는데 조선 시대에는 召史뿐 아니라 召吏나 助是, 造是의 형태로도 쓰였다.¹³⁾

- (6) ㄱ. 婢 召史 年二十四 父 丁吏 守光 母 婢 馬藥 婢 召史 年八 父 奴 永長 母 婢 仍次伊 等乙良 <1262년 상서도관첩, 106-107> (비 조이 24세, 부는 정리 수광, 모는 비 마약. 비 조이 8세, 부는 노 영장, 모는 비 잉차이 등은)
- ㄴ. 婢 小斤召史 所生 奴 方哲 年四拾 <1429년 金務奴婢都許與文記, 259> (비 작은 여자가 낳은 노 방철 40세)
- ㄷ. 妻 良女 李召史 年卅一 丁卯 <1586년 이지도 입안, 298-299> (처 양녀 이조이 31세 정묘생)
- ㄹ. 妻 私婢 助是 年六十 己未 本密陽 主 忠淸道 韓哥 <1738년 사노 수돌이 준호구, 04-05> (처는 사비 조이로 60세 기미생 본관은 밀양임. 주인은 충청도 한가임.)
- ㅁ. 率女 造是 年十 己酉 等 乙卯戶口相准給者 <1738년 사노 수돌이 준호구, 06> (함께 사는 딸 조이 10세 기유생 등을 을묘년에 호구를 서로 대조 확인하여 내 주는 것임.)

7) 夜伊/夜是/夜味〔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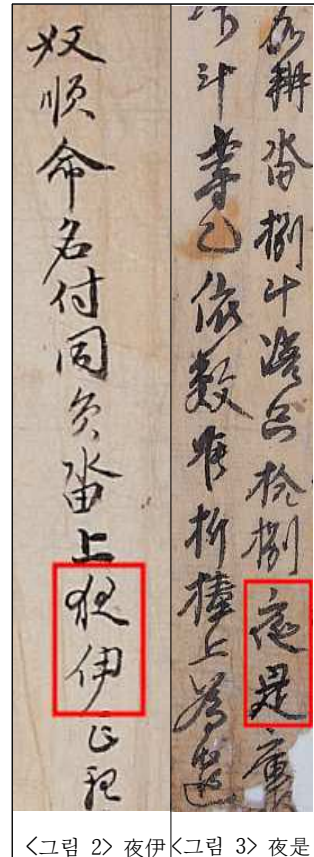
분재기 고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두어 중 하나가 ‘夜味’이다. ‘夜未’의 형태도 종종 보인다.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을 하나하나의 구역, 곧 논배미(준말은 배미)를 의미하는 이두어이다. 『古今釋林』과 『語錄辯證說』에서 ‘夜味’를 ‘밤이’로 읽었는데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이 이두어를 ‘배미’로 읽어 왔다.¹⁴⁾ 그러나 ‘夜味’의 대표 독음을 ‘배미’로 보는 견해는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오창명(2005: 75-76)은 ‘夜味/夜未/夜’의 대표 독음을 ‘배미’로 보았고, 독음의 ‘배미’는 ‘바미’의 음라우트의 결과라고 적었는데, 이 견해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¹⁵⁾ 그러나

13) 이에 대해서는 조남곤(2019: 43)을 참조할 것.

14) 홍기문(1957)은 夜味를 ‘바미’로 읽었다.

15) 오창명(2023ㄱ),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제63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113-123 참조. 이번에 『口訣研究』 제51집에 수록된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는 다소 달라진 견해〔바미〕를 보여주고 있으나 본고의 필자는 ‘논배미’를 뜻하는 이두어의 대표 독음을〔밤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오창명(2023ㄴ)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바미〕는〔밤이〕를 연음한 음성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夜味 등의 독음이 옴라우트의 결과라면 ‘배미’는 18세기 말 이후에나 나타나는 독음이다. 그렇다면 18세기 이전에는 ‘논배미’의 뜻을 나타내는 이두어의 독음이 ‘배미’가 아니라 ‘밤이’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석림』에 보이는 ‘밤이’와 『어록변증설』에 적힌 ‘밤이’를 들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사전에 제시된 것들이라서 ‘夜味’의 독음을 ‘밤이’로 추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접한 고문서에서 ‘夜味’의 독음을 ‘밤이’로 볼 만한 용례가 발견되었다. <1537년(중종 32) 裴天錫 土地賣買明文>에 쓰인 ‘夜伊’(그림 2)와 <1553년(명종 8) 化寧宅 戶奴 璽石 土地賣買明文>에 쓰인 ‘夜是’(그림 3)가 바로 그것이다.¹⁶⁾ 여기에 표기된 ‘夜伊’와 ‘夜是’는 ‘밤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1537년 배천석 명문>은 畚主人 禹纘이 自筆한 문서이다. 필집 우찬은 訓導를 역임한 인물이므로 이두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1553년 돌석 명문>을 작성한 필집은 관아의 구실아치인 書員이므로 이두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림 2> 夜伊 <그림 3> 夜是

이른 시기부터 [밤이]로 읽던 ‘夜伊’나 ‘夜是’ 형태는 점차 ‘夜味’ [밤이/바미]와 혼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681년(숙종 7) 奴子 日卜 土地賣買明文>에 쓰인 ‘所味’를 통해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¹⁷⁾ 여기서 所 자는 틀림없이 ‘바’로 읽었을 것이다. 광주천자문(1575)과 석봉천자문(1583) 13b에 쓰여 있는 所의 독음이 모두 ‘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미’를 뜻하는 이두의 독음은 18세기 말 이전에는 [밤이(바미)]였다고 보아야 한다.

16) 장서각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십만 점의 이두가 쓰인 문중 고문서가 보관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중 고문서는 지금도 계속 고문서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 연구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두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이두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縣地 白也只 堂丘員 伏在 玆字畚 貳所味 柒斗落只 <1681년 奴子 日卜 土地賣買明文> (현의 땅 백야지 당구원에 있는 진자답 2바미 7마지기).

夜味는 조선 후기에 ‘밤이’와 ‘바미’의 독음을 혼용하다가 18세기 말 이후 점차 그 독음이 ‘배미’로 굳어져 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夜是’와 ‘所味’뿐만 아니라 ‘夜味·夜未·夜尾·夜米’ 등의 이두 독음도 모두 그 대표 독음을 ‘밤이’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밤이〕로 읽은 이두어 몇 가지를 소개한다.

- (7) ㄱ. 奴 順命 名付 同員 畚 上夜伊 正租 壹斗落只 貳卜 二束庫 并 折 木綿 肆同 內 正租 貳拾五石 禾 柴 雄馬 一隻 木綿 壹丁^ㄱ 依數 捧上爲遣 <1537년 裴天錫 土地賣買明文, 3> (노 순명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재된 같은 들의 논 윗배미 좋은 논 1마지기 2짐 2뭇의 땅을 모두 값을 정하여 목면 4동 안에 벼 25섬, 이빨이 7개인 수말 1척, 목면 1정 등을 수대로 받고)
- ㄴ. 矣 名字付 加乙員 平加耕畚 捌斗落只 拾捌夜是 庫乙 <1553년 化寧宅 戶奴 玆石 土地賣買明文, 3> (저의 이름자로 기록되어 있는 가을원 평자 가정답 8마지기 18배미의 땅을)
- ㄷ. 元旨員 矣 先同名字付 歡字內畚 西过 參斗落只 貳夜味 庫乙 價折 正租 玖石 玖斗 依數 捧上爲遣 <1567년 손진충 토지매매명문> (원지원 저의 선동 이름자로 등재되어 있는 관자 안의 논 서쪽 3마지기 2배미의 땅을 벼 9섬 9말로 값을 정해 수대로 받고)

8) 隅〔뭉〕

隅는 宣傳消息, 立案, 明文, 別給文記 등 여러 종류의 고문서에 쓰인 이두어이다. ‘모, 모통이, 구석’을 뜻하는 말이므로¹⁸⁾ 훈을 빌려 ‘뭉, 모’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고문서에 쓰인 隅는 ‘까탈’이나 ‘까탈 부리는 일’ 정도로 해석된다. (8ㄱ-ㄴ)은 隅의 용례 중 일부이다. 특히 <1408년 尼僧 張氏 別給文記>에는 隅가 ‘구석’의 뜻으로도 쓰이고 이두로서 ‘까탈’의 뜻으로도 쓰여서 흥미롭다. 『吏讀辭典』(단국대학교출판부)에는 隅〔뭉〕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隅〔뭉〕는 이두어가 확실하므로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 (8) ㄱ. 爭望爲行 隅 有去等 禁止爲遣 鎮長 屬社令是良於爲 教 <1281년 修禪社主乃

18) 隅는 모히라 <法華經諺解 3:162>. 隅 모 우 <新增類合 上2>.

老宣傳消息, 11-12>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면 금지하고 영영 절에
예속시키도록 하심)

ㄴ. □(萬)分 矣 同腹三寸 戈只 起云爭望 隅 有去等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
許與斜給立案, 17> (만일 나의 형제와 삼촌들이 일어나 말하고 다투고 원망
하는 까탈이 있으면)

ㄷ. 扶護 隅 無平等用良 六寸 孫女子 故 聞慶監務 林乙材妻□…□ / □微少時始
叱 長養爲乎 在亦 …중략… 萬分 爭望 隅 有去等 此文字 內 事意乙
用良 告官辨別□…□ <1408년 尼僧 張氏 別給文記, 2-3, 8> (도와서 보호할
구석이 없으므로 6촌 손녀딸 고 문경 감무 임을재의 처 … 아주 어렸을 때
부터 길렀던 일이 있다. …중략… 만의 하나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
면 이 문서 안의 내용으로써 관에 알려 변별)

ㄹ. 矣 族類中 他條以 爭望 隅 有去 ㄱ <16세기 裴習讀主 明文, 6> (나의 일가붙
이 중에 다른 이유로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면)

1.2. 형식명사

형식명사로는 等〔ㄷ·든·들〕, 味〔맛〕, 分〔분〕, 所〔바〕, 樣〔양〕,
第〔데〕, 次〔츠〕 등이 쓰였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 가운데 等과
分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等〔ㄷ·든·들〕

等は 고문서 이두문에서 주로 형식명사로 쓰이는 이두이다. 복수접미사
‘들’이나 구속형 연결어미 ‘든’으로 쓰이기도 하지만¹⁹⁾ 형식명사로 더
자주 출현한다. 이두어 等は 후기중세국어의 형식명사 ‘ㄷ’나 이 ‘ㄷ’에
대격조사 ‘ㄹ’ 혹은 보조사 ‘ㄴ’이 결합된 형태에 대응하며, 동명사어미
뒤에 쓰인다. 等は 고문서 이두문에서는 정자체로 표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초서체(草)로 표기된다. 현전 고문서 중에서 等이 형식명사로서 처음
쓰인 것은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로 보인다. 다음은 형식명사로 쓰인
等の 예 가운데 일부이다.

19) 이에 관해서는 박희숙(1985: 226)에 정리되어 있다.

- (9) ㄱ. 同生兄 副戶長稟柔亦 公山新房依止修善僧竟由 本貫壽城郡乙 繼願成畢爲 ㄸ
勸善爲 <103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8-9> (형 부호장 품유가 팔공산
신방에 머무르며 수행하던 스님 각유-본관은 수성군-에게 발원을 이어서 일
을 완성할 것을 권선하여)
- ㄴ. 右如 付置有在 等以 <103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24> (이와 같이 기
록되어 있으므로)
- ㄷ. 應爲 處 追于 立是白乎 味 了在乎 ㄸ用良 <103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
記, 26> (마땅한 곳을 좇아서 세우는 뜻을 마치었으므로)
- ㄹ. 右 婢矣 所生等乙 官文成給教 ㄸ用良 <1281년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 6> (이
비의 자식들을 관문서를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 ㅁ. 節 季女亦 京中居計以 遠方出歸爲卧乎 等乙用良 <1503년 배이순 처 김씨 자
매 화회문기(1491년 전준), 18-19> (지금 막내딸이 서울에서 살 계획으로, 먼
곳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하므로)

(9ㄱ)의 爲等は ‘홀들’로 읽고 ‘할 것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동명사어미 표지가 쓰이지 않았으나 동명사어미 ‘-르’을 넣어 읽어야 한다. (9ㄴ)의 等과 (9ㄷ)의 ㄸ의 앞에는 각각 동명사어미 在/견와 乎/온이 쓰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읽으면 된다. (9ㄴ)의 有在等以는 ‘잇견드로’로 읽을 수 있고, (9ㄷ)의 了在乎ㄸ用良은 ‘못겨온들쓰아’ 정도로 읽을 수 있다. (9ㄹ)의 教ㄸ用良의 경우는 동명사어미 ‘-ㄴ’을 삽입하여 ‘이신들쓰아’ 정도로 읽을 수 있고, ‘하신 까닭으로, 하셨으므로’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9ㅁ)의 等は 뒤에 대격조사 乙이 쓰였기 때문에 ‘드’로 읽힌다. 爲卧乎等乙用良는 ‘흐누온들쓰아’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등이 형식명사 ‘드’를 나타내거나 형식명사를 포함한 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 이두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分〔분〕

- (10) ㄱ. 至今玖戌申七月 分 祝聖觀音尊像願成爲乎拈 安邀處所 奏請爲乎亦中 <1198
년 長城監務官帖²⁰⁾, 6-7> (지금부터 9년 전인 무신년 7월 즈음 성화를 위
해 관음 존상을 조성하려고 발원하며 봉안할 곳을 주청한 때에)

20) 이 책은 『朝鮮寺刹史料』 上(1911년)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다. 원문서는 전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연대 추정, 개요, 원문교감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명호 외(2000: 363-372)를 참조할 것.

- ㄴ. 丙子年 分 入內侍文正 奉 (空格) 宣鎮兵條以 施納 油香寶 一百石 <1220년대 修禪社寺院現況記, 5> (병자년 즘, 입내시 문정이 봉선진병의 명목으로 시납한 유향보 100석이다.)
- ㄷ. 壬辰年 分 蒙古大兵亦 京師乙 圍攻爲去乙 <1262년 柳璈尙書都官貼, 81-82> (임진년 즘 몽고의 대병이 서울을에위싸고 공격하므로)

分은 시간 명사 뒤에서는 항상 ‘즈음’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명사로 쓰인다. 分의 이두 독음은 확실치 않으나 조선 후기 한글 고문서에서 ‘분’이나 ‘븐’으로 표기한 예가 있으므로 ‘분’으로 읽었다고 볼 수 있다.²¹⁾ 이전에는 分이 시간 명사 뒤에서 처격조사로 기능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승재(1992)와 박성중(2016)이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남곤(2019, 2021)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시간 명사 뒤에 쓰인 分이 처격조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의 두 예문으로 입증된다.

- (11) ㄱ. 況於 去 丙辰年 分良中置 冒受議送 到付 接訟爲如可 無緣退縮 寂無蹤跡 爲如乎 樣是如中 <1560년 손광현 경주부 결송입안, 048-049> (하물며 지난 병진년 즘에도 함부로 의송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다가 까닭 없이 움츠리고 물러나 종적도 없이 잠잠하던 터이건대)
- ㄴ. 前年 七月 分良中沙 本府來到 接訟爲白有矣 <1578년 이준 형제 흥해군 결송입안, 0994-0995> (지난해 7월 즘에야 본 경주부에 와서 송사를 접수하였는데)

(11ㄱ)과 (11ㄴ)의 分은 모두 뒤의 ‘良中’과 결합되어 쓰였다. ‘良中’은 이두문에서 처격조사로 쓰이므로 ‘良中’ 앞의 分은 처격조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서종학(1995: 104-105)에서 밝혔듯이 分은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단어와만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공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결합되지 않으므로 처격조사로 보기 어렵다.²²⁾ 그리고 (11ㄱ)과 (11ㄴ)의 分은 모두 관형어로 기능하는 시간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고, 뒤에 처격조사 ‘良中’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分의 문범 범주는 체언, 그 중에서도 명사임이 틀림없다. 따

21) <1816년 유풍천 손부 조씨 소지>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156691 <金北實手記>를 참조할 것.

22) 서종학(1995: 104-105)는 일부 시간 표시어에만 통합되고 ‘즈음’, ‘무렵’의 뜻으로 해석되는 分을 보조사로 간주하고 있다.

라서 分은 시간명사 뒤에서 ‘즈음’의 뜻으로 쓰이는 형식명사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한편 分은 형식명사로서 사람을 높여 이르거나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 때의 分은 ‘분’으로 읽는다.

1.3. 대명사

고문서 이두문에 쓰인 대명사로는 其〔저, 그〕, 汝〔너〕, 矣〔의〕, 矣身〔의몸〕, 自〔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其와 矣, 矣身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其〔저, 그〕

其는 고문서 이두문에서 흔히 재귀대명사로 쓰인다. 앞에 나온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두문에서 其는 대부분 其矣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의〕로 읽을 수 있다. 이승재(1992: 84)에서는 其를 재귀대명사로 보았다. 其가 항상 선행사를 가지고 있고 선행사는 인간명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其를 재귀대명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其는 이두문에서 ‘그’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其를 재귀대명사 ‘저’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문서 이두문 속의 其의 정체는 통사 구조의 파악만으로는 완전하게 밝히기 어렵다. 상황과 문맥 또는 화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12) ㄱ. 戶奴 龍萬矣 大父 群百姓 卜莊亦 其矣 出父 百姓 狄三 許與論當 子 龍萬亦
中 婢 永珎衣 許與 內 監當教是旆 斜是 監踏印 許文成給向叱教是 事乙良
<1386년 南永蕃 奴婢許與 斜給立案, 2-5> (나의 집 수노²³⁾인 용만의 할아버지 군 백성 복장이 저의 친부 백성 적삼이 증여한 것을 마땅히 논하여

23) 수노(首奴): 집안의 대표 노비.

손자 용만에게 비 영진의를 증여한 내용의 마땅함을 살피시고 확인하시어
관인을 찍은 문서를 허락하여 작성해 주실 일은)

- ㄴ. 蓮芝段 无子息爲昆 上項 其矣 衿 奴婢乙良 生前 使用爲如可 身後乙良 本孫
四寸中 孝道處 傳係 田畚乙良 任意區處爲乎矣 <1469년 전양지 처 하씨 접
련문기 36-37> (연지는 자식이 없으니 위의 저의 몫의 노비는 생전에 부리
다가 죽은 다음에는 본손 사촌 중 효도한 에게 전계하고 전답은 마음대로
처분하되)
- ㄷ. 婢 泉莊 所生 奴 內隱同 亦 去 丙午年 二月 分 逃亡爲白去乙 推尋 不得爲
白有如乎 次 尙州 比園 處 橫行 隱接爲白有如可 今年 二月 分 還來爲白
去乙 豐基官 良中 付官爲白有卧乎 其矣 入役各處 役價 生徵爲白只爲 傳來
國 籍 相考 俦音 捧上 立案 成給爲白只爲 豐基官 行下向教是 事 望白內卧
乎 事是亦在 所陳 <1490년 裴以純 逃奴推刷 豐基官 斜給立案, 2-7> (비 녹
장의 자식 노 논동이 지난 병오년 2월 즈음 도망하였는데 찾아내어 가지지
못하였던 터에 상주, 비안 등지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며 숨어 지냈다가
올해 2월 즈음 돌아왔으므로 풍기관에 넘긴 그의 각처에서 일한 품삯을 강
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하여 온 천적을 상고하여 다짐을 받고 입안을 만
들어 주도록 풍기관에 명하실 일을 바라옵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뢰니
다.)
- ㄹ. 官門親審時 元無傷處萬無其理 一夜之間 五十度 亂杖處何至快完如常之境
乎 舉此一款 其矣 所謂轉仆荊棘解髮 結縛說 皆 歸虛套是乎脉 <1713년
崔壽學 原情> (<대구 관관이> 관문에서 직접 조사할 때에 원래 상처가 없
어지는 그러한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50대 난장한 곳이
어찌 완쾌되어 평상시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 한 항목을 들어 보
건대 그의 이른바 나무의 온갖 가시에 굴러 넘어뜨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
고 결박했다는 등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꾸민 일로 돌아갔으며)

(12ㄱ)에 쓰인 其矣는 문맥상 ‘저의’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
에 쓰인 ‘其/저’는 앞에 나온 명사 ‘용만’을 다시 가리켜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귀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주어나 주제어일 때 쓰이
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행사가 관형어인 점이 특이하다. (12ㄴ)의
其矣도 ‘저의’나 ‘자기의’로 해석된다. (12ㄷ)의 경우는 其矣를 ‘그의’
와 ‘저의’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의’로 해
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12ㄹ)의 其矣는 ‘그의’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其는 재귀대명사 ‘저’나 ‘자기’로 많이 쓰

이지만 3인칭 대명사 ‘그’로도 종종 쓰이는 이두어이다.

2) 矣〔의〕

矣는 이두문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1인칭 대명사로 ‘의’로 읽고 ‘나’나 ‘저’로 해석한다. 원래는 臣, 僧, 女, 崔埴 등과 같은 보통명사나 고유명사의 뒤에서 속격조사로 쓰였는데 앞의 명사를 생략하고 쓰는 관습이 굳어져 1인칭 대명사로 정착한 것으로 본다. 〈長城監務官帖〉(1198년)과 〈劉璈尙書都官帖〉(1262년)에 ‘명사+矣段’ 형태가 각각 2개와 4개가 보이고, 속격조사 矣도 여러 개가 쓰였으나 1인칭 대명사 矣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矣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때는 13세기 후반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13) ㄱ. 矣 出父 禮賓卿 梁宅椿亦中 卒 宰臣 鄭晏 婢 世屯矣 所生 婢 古次左 年 四十八矣 身 及 右 婢矣 所生等乙 官文成給教 ㄱ用良 <1281년 修禪社主乃老 宣傳消息, 4-6> (저의 친부인 예빈경 양택춘에게 죽은 재신 정안의 비 세둔의 자식인 비 고차좌 48세의 몸과 이 비의 자식들을 관문서를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ㄴ. □(萬)分 矣 同腹 三寸 ㄱ戈只 起云爭望 隅 有去等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 17> (만일 나의 형제와 삼촌 들이 일어나 말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까탈이 있으면)

ㄷ. 𐄂連段 矣 自買得爲遣 𐄂男 戊生段 女婿亦 準價買得爲有在乎 <1608년 柳涵 妻 金氏 奴婢還付明文, 3-4> (돌련은 나 자신이 매득하고 돌남과 무생은 사위가 값에 따라 매득하였는데)

(13ㄱ)에서 出父 앞에 쓰인 矣는 1인칭 대명사로서 ‘저’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뒤의 체언 出父를 꾸미는 관형어로 쓰였다. (13ㄴ)의 矣도 (13ㄱ)과 같이 1인칭 대명사로서 뒤의 同腹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나’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 예문의 출처가 ‘許與文記’이기 때문이다. 즉 이 예문은 전 珍島郡事 張某가 자기의 장손녀 勿金에게 노비를 증여하고 써 준 許與文記 내용의 일부이다. 이승재(1992: 82)에서는 1인칭 대명사 矣가

현대국어의 ‘저’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하였는데, ‘나’의 의미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3ㄷ)의 矣도 1인칭 대명사 ‘나’를 의미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3) 矣身〔의몸〕

矣는 矣身의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 矣身은 矣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矣身이 ‘~의 몸’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矣〔의〕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 身〔몸〕의 앞에서 속격조사로 쓰인 것이다. 다음은 矣身의 용례이다.

- (14) ㄱ. 矣身亦 出父矣 許與論當 更良 有證成文許與爲去乎 在 等以 <1386년 南永蕃 奴婢許與斜給立案, 8-9> (내가 친아버지의 증여의 마땅함을 논하여 다시 증인을 두어 문서를 작성하여 증여한 일이 있으므로)
- ㄴ. 今如 矣身 年將□(七)十 一任爲乎不喻 <1401년 太祖 別給文記, 2> (지금과 같이 나의 나이가 장차 70이라서 내버려둘 일이 아니므로)
- ㄷ. 矣身亦 艱難所致以 國債停納不得乙 仍于 <1537년 裴天錫 土地賣買明文, 1-2> (내가 가난한 이유로 국채 상납이 밀려 있어서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 ㄹ. 矣身亦 艱難所致以 妻邊傳來 道木員 瑟字畚 陸員 庫乙 價折五六升木伍疋半 依數 捧上爲遣 <1615년 戶奴 愛奉 土地賣買明文> (내가 가난한 이유로 아내 쪽에서 전하여 내려온 도목원 슬자답 6원의 땅을 5, 6승목 5필 반으로 값을 정하여 수대로 받고)

3. 동사류 이두

동사류란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는 부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문서의 동사류 이두는 단일동사와 합성동사, 계사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일동사, 합성동사, 계사의 순으로 동사류 이두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⁴⁾

24) 이승재(1992: 119) 참조.

동사류 이두도 명사류 이두와 마찬가지로 고문서 이두문에서 자주 사용되었거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한 이두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고문서 이두문에서 자주 사용되었거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사류 이두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1) 단일동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敎/敎是	이시-, 이산	하시다, 기능동사+주체높임 선어말어미
2	令/令是	히이-	시키다, 하게 하다
3	望/望良	바라-	브라다
4	無	없-	없다
5	斜/斜只/斜是	빗기-	증명하다, 확인하다
6	使內	브리-	부리다, 사용하다, 행하다, 처리하다
7	餘/余	남-	남다
8	用	쓰-	쓰다, 사용하다
9	爲	-히-	하다(기능동사)
10	有	잇-, 이시-	있다
11	在	겨-	있다
12	的只	마기-	확실하다, 맞다
13	除	덜-	말다, 하지 않다
14	向	앗-	하다, 행하다

(2) 합성동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爲行	히니-	(계속) 하는
2	次知	ㄱ습알-	담당하다
3	向入	앗들-, 앓드려	생각하다

(3) 계사

번호	이두	독음	의미
1	是	-이-	이다

3.1. 단일동사

1) 敎/敎是〔이시〕

敎/敎是는 조선후기 이두학습서들에서 ‘이시-’ 혹은 ‘이산’으로 읽었다.²⁵⁾ 후기중세국어의 ‘히시-’에 대응되며, (기능)동사 어간 혹은 동사파생 접미사로 쓰였다. 다음은 고문서에 쓰인 敎/敎是의 예들 중 일부이다.

(15) ㄱ. 國驢色 題給爲良於爲 敎矣 <1262년 劉璈尙書都官貼, 93> (국신도감에서 제사를 발급하도록 하시되)

ㄴ. 三韓後壁上功臣 一例以 錄券加 施行敎是遣 <1262년 劉璈尙書都官貼, 47-48> (삼한후벽상공신과 같은 예로 녹권을 더하여 시행하시고)

ㄷ. 右 古次左 卑矣 長所生 逸三 奴矣 身乙良 同生弟 別將 梁弼矣 身亦 傳持使用爲遣 出父亦中 賜給敎是 後良中沙 <1281년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 7-8> (이 비 고차좌의 맏아들 노 일삼의 몸은 동생 아우인 별장 양필의 몸이 전하여 가지고 사용하고 친부에게 내려 주신 후에야)

ㄹ. 白等 孫仲噉 子枝 幾人 與否 及 孫光曙 嫡子 有無 與否 并以 推考敎是臥乎 在亦 <1560년 손광현 경주부 노비결송입안, 248> (아닙니다. 손중돈의 자손이 몇 사람인지 여부와 손광서의 적자 유무 여부를 아울러 추고하시는 일입니다.)

(15ㄱ)의 敎는 동사 어간으로 쓰였다. 〔이시〕로 읽고 ‘히시-’의 뜻을 나타낸다. (15ㄴ)의 敎是는 앞의 서술성 명사 施行과 결합하여 서술어 역할을 하는 기능동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체높임법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²⁶⁾ (15ㄷ, ㄹ)의 敎是도 (15ㄴ)과 마찬가지로 기능동사로서의 임무와 높임법의 역할을 하는 이두어이다.

2) 令/令是〔히이〕

令/令是²⁷⁾는 후기중세국어의 ‘히이-’나 ‘히-’에 대응되며 〔히이〕로 읽을 수 있다. <광주천자문>(13ㄱ)에서 令을 ‘히 령’으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로는 ‘시키다’, ‘하게 하다’ 정도로 번역된다. 令/令是의

25) 『吏讀辭典』(단국대학교출판부)의 편찬자는 敎/敎是를 〔기신〕으로 읽었다.

26) 혹은 여기에 쓰인 敎是를 ‘동사파생접미사+주체높임선어말어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7) 令(令是)에 대해서는 서종학(2004)를 참조할 것.

독음 문제는 서종학(2004)의 상세한 연구 이후에는 15세기의 ‘ㅎ이-’의 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습/습是은 사동사 혹은 사동 접미사로 쓰인다. 다음은 고문서에 쓰인 습/습是의 예 중 일부이다.

- (16) ㄱ. 成內 法者 楮根中 香水 散尔 生長습內弥 <755년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3-4> (이룬 법은 닥나무 뿌리 안에 향수를 뿌리어 생장시키며)
- ㄴ. 若卧宿哉 若食喫哉 爲者 香水用尔 沐浴습只 <755년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6-7> (혹 누워 자거나 혹 먹거나 하면 향수를 써서 목욕하게 하고)
- ㄷ. 食佰貳石 并以 佳²⁸⁾受습是遣 在如中 <103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10> (곡식 102섬을 아울러 수에 따라 받게 하고 있던 때에)
- ㄹ. 所司本屬爲在 水梁等乙 全屬습是旅 <1262년 劉璈尙書都官貼, 93> (해당 관청에 본래 속한 수량들을 모두 소속하게 하며)
- ㄷ. 其每 一所生 婢 同今 及 同 婢 一所生 婢 多勿沙里等 二口 去 丙午年 分逃亡습是遣 <1578년 이준 형제 결송입안, 29> (기매의 첫째 자식 여중 동금과 위의 비의 첫째 자식 여중 다물사리 등 2구를 지난 병오년 즈음 도망하게 하고)

(16ㄴ)에는 습是가 아니라 습只가 쓰였는데 只를 ‘기, ㄱ’로 읽어 온 사실을 생각하면 습只는 ‘시기-’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세국어에 보이는 ‘시기-’ (시키-)가 통일신라시대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습只의 용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습 또는 습是의 형태만 보인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 보이던 습只는 적어도 고려 초기에 이르러서는 습是로 그 표기가 통일되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종학(2004)에서는 습只를 ‘*ㅎ기-’로 재구하였는데 이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望/望良〔브라〕

望/望良은 所志類와 같이 청원하는 글에 주로 나타나는 동사류 이두이다. ‘브라’로 읽고 ‘바라다’의 뜻을 나타낸다. 望/望良은 후기중세국어의 ‘브라-’에 대응한다. 고려 시대까지는 望으로만 쓰이다가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望良의 형태도 쓰였다. 望/望良의 뒤에는 주로 선어말어미 ‘白/숄’

28) 准을 佳로 썼다.

이 오지만 ‘望良爲白只爲’와 같이 望/望良와 白 사이에 동사 ‘爲/ㅎ-’가 삽입되기도 한다. 아래에 望/望良의 용례 몇 가지를 제시한다.

- (17) ㄱ. 子孫良中至亦 生徵捧上爲卧乎 等用良 艱苦亦 望白如乎 事是去有 等以
 <1262년 劉璈尙書都官貼, 89-90> (자손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받아내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바라던 일이 있었으므로)
- ㄴ. 科科以 斜只 立案 成給向教 事 望白²⁹⁾內卧乎 事是亦在 <1354년 尹丹鶴奴婢許與斜給立案, 4-5> (날날이 증명하여 입안을 만들어주실 일을 바라옵는 일이라는 것)
- ㄷ. 監踏印立案 成給向教是 事乙良 望白內卧乎 事是亦在 <1427년 張戡妻辛氏所志, 4-5> (살펴 답인한 입안을 성급하실 일은 바라옵는 일이라는 것)
- ㄹ. 伏乞 延賜嚴勘 俾安私分不勝 千萬 望良只 行下爲只爲 行下向教是事 <1806년 최식 소지 초본, 6-8> (엎드려 빌건대 엄히 헤아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의 분수를 편안히 해 주기를 이기지 못함을 천만 번 바라기에 처분하도록 명하실 일입니다.)
- ㅁ. 矣身 世傳之畚 無至見奪之地 千萬 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儒胥必知・權賣田畚不許還退所志> (저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만 번 소망하옵기에 명하실 일입니다.)

4) 斜/斜只/斜是〔빚기〕

斜/斜只/斜是(이하 斜)는 斜給立案에 주로 쓰이는 이두이다.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데 명사인 경우에는 ‘증명서’나 ‘확인 문기’라는 뜻으로, 동사인 경우에는 ‘증명하다’나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斜는 15세기 국어의 동사 ‘빚-’에 대응된다.

- (18) ㄱ. 十月 十日 付 □(依)斜 耽津 監務官 <1354년 尹丹鶴 奴婢許與 斜給立案의 題音> (10월 10일 접수하고 전례에 따라 증명한다. 탐진 감무관)
- ㄴ. 國婢許與文記良中 斜只 監踏印 <1379년 張某 漢陽府 斜給立案, 25-26> (노비 허여문기에 비스듬히 증명하고 살펴 관인을 찍고)
- ㄷ. 右 課 狀內 事慮乙用良 向前 文記良中 斜是 許文 <1386년 南永蕃奴婢許與斜給立案, 25-26> (이 조사한 소지 안의 내용으로써 앞의 문기에

29) 여기의 ‘-白-’은 객체높임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대해 확인하고 입안을 허락하니)

- ㄱ. □…□所乙用良 斜只教□(是)乃 各各 列 白乎所 爲白乎 事是亦在 <1408년 尼僧 張氏 楊州府 斜給立案, 30-31> (…바로써 확인하시나 각각 차례로 아될 바를 한 일입니다.)
- ㄴ. 倭音捧上 粘連 斜只 監踏印爲置 立案退向事 <1408년 尼僧 張氏 楊州府 斜給立案, 37-38> (다짐을 받고 점련한 확인 문기를 살펴 도장을 찍고 입안을 발급할 일입니다.)
- ㄷ. 他奴婢 并付 分執記是乎 等用良 斜只 葉作 粘連 退給爲遣 合行立案者 <1468년 鄭琨 安東府 斜給立案, 70-71> (다른 노비를 함하여 붙인 분집 기이므로 확인한 낱낱의 문서를 이어 붙여서 돌려주고 마땅히 입안을 발급하는 것이다.)

(18ㄱ)은 현전하는 사급입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인 <윤단학 노비 허여 사급입안>에 기록되어 있는 입안 발급 결정 ‘題音〔데깁〕’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斜로 표기되었는데 동사로 쓰였다. 박병호(1996: 621)에서는 斜의 앞에 依 자가 결락된 것으로 보았는데(<그림 4> 참조), <그림 5>를 참조하면 斜 자만 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이 용례는 斜가 이른 시기부터 동사류 이두로 쓰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18ㄴ)의 斜只은 ‘증명하다’나 ‘확인하다’의 뜻으로 쓰인 동사로 판단된다. (18ㄷ)에는 斜是가 표기되어 있는데 동사로 쓰였음이 확실하다. 斜是는 斜只에 비해 그 용례가 많지 않다. (18ㄹ)에는 斜只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斜只가 ‘확인’, ‘증명’을 뜻하는 명사로 쓰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뒤의 동사 教(是)乃를 통해서 확인된다. (18ㄴ)의 斜只도 문맥상 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중(2016: 137)에서는 斜只가 문서로서의 개념을 가진 것은 대체로 16세기 중엽 이후부터라고 추정하였는데 위 (18ㄴ)에 쓰인 斜只를 명사로 본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18ㄷ)의 斜只는 뒤에 ‘낱낱의 문서’를 의미하는 명사 葉作이 이어지므로 동사 ‘확인하다’나 ‘증명하다’의 관형사형으로 보는 것이 좋다.

5) 使內〔브리〕



<그림 4> 斜(1354년 윤단학 사급입안) <그림 5> 斜(1468년 정곤 사급입안)

使內도 동사로 쓰인다. 使內는 ‘브리’로 읽히고, ‘부리다’, ‘행하다’, ‘처리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어간이다. 使內의 ‘內’는 말음첨기로 읽지 않는 글자(不讀字)이다.

(19) ㄱ. 各掌所司戈只 啓受使內良於爲 下都兵馬教事是去有在亦 <1262년 劉璥尙書都官貼, 15-16> (각 담당 관사에서 왕에게 안을 올리고 그에 대한 허락을 받는 일을 행하도록 도병마에 하교하신 일이었으니)

ㄴ. 奴 巾三矣 身以 矣亦中 仰使內如乎 在乙 <1281년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 9> (노 건삼의 몸을 저에게 기대게 하여 부리던 일이 있는데)

ㄷ. 婢矣 父 祖母始叱 館奴婢以 使內如可 婢矣身 健少時 並只 身故爲去乙 <1586년 李止道 決訟立案, 180> (저의 아버지는 할머니 대부터 관노비로 부려지다가 제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19ㄱ)에 쓰인 使內는 ‘행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9ㄴ)의 使內는 ‘부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9ㄷ)의 使內는 문맥상 ‘부려지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남곤(2019: 71)에서는 ‘일하다’로 해석하였는데 ‘부리다’의 피동 표현인 ‘부려지다가’가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6) 向〔앗〕

向은 고문서 이두문에서 출현 빈도가 매우 높은 이두이다. 官의 ‘지시, 명령, 처분’을 뜻하는 行下 뒤에 연결되어 자주 쓰이고³⁰⁾, ‘向事, 向敎事, 向敎是事’의 형태로 실현된다. 向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여러 이두 학습서에 ‘앗’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그 독음을 〔앗〕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의 ‘앗’은 한자 向을 혼차한 표기로 생각되는데 중세국어에 向의 훈을 ‘앗-’으로 표기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³¹⁾ 그런데 向과 같은 뜻을 지닌 首 자를 ‘앗-(←앗-)’³²⁾으로 언해한 예가 있어 주목된다. (20ㄱ)의 언해문에 쓰인 ‘아사’는 한문 원문의 首를 언해한 것으로 ‘앗-+-아’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고, 문맥을 고려하면 ‘향해 나아가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ㄴ)에 보이는 ‘앗외-’는 ‘앗-’의 사동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향해 나아가게 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앗-’은 ‘향해 나아가다’ 정도의 뜻을 지닌 고유어로 판단된다.

(20) ㄱ. 登陸將首途 筆札枉所申

무퇴 올라 將次스 길홀 앗스 가느니 유무를 베풀 바를 구퍼 보내도다 <杜詩諺解 初8:53ㄴ> (물에 올라 앞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나니 소식을 전할 바를 접어 보낸다.³³⁾)

ㄴ. 導師는 法 앗외는 스스이니 如來를 슬브시니라 <釋譜詳節 13:16ㄱ> (도사는 법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스승이니 여래를 사되신 것이다.)

다음의 (21ㄱ-ㄴ)은 向이 단일동사로 쓰인 예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向은 官의 ‘지시, 명령, 처분’을 뜻하는 行下 등의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데 이 선행 명사들은 뒤에 오는 동사 ‘向/앗-’의 목적이 되는 대상어

30) 行下 다음으로는 成給이라는 명사가 向의 앞에서 비교적 자주 쓰인다.

31) 오창명(1995: 311)는 <南宗通記>의 고려말 노비문서로 불리는 <1386년 南永蕃奴婢許與斜給立案>에 쓰인 向叱[예문 (21ㄴ) 참조]을 근거로 들어 向의 독음을 ‘앗’으로 단정하였고 중세국어의 ‘앗-, 앓-’ (首, 導: 앞서다)에 해당하는 표기로 보았다. 向叱을 근거로 向의 독음을 ‘앗’으로 단정한 오창명(1995: 311)의 견해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南宗通記>의 고려말 노비문서는 전사 자료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문서이므로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臥를 叱로 보고 狀을 將으로 옮겨 적는 등 원문서의 草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잘못 옮긴 글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2) 반침 ‘ㅅ’은 유성적 환경에서 ‘ㅅ’으로 나타난다(안병희, 2007: 189).

33) 임홍빈(2016: 169)은 한문 원문의 首를 ‘앞서서’로 해석하였다.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1ㄱ)의 ‘成給向敎事’는 직역하면 ‘입안의 작성 발급을 향해 나아가실 일’로 해석할 수 있고, (21ㄴ)의 ‘行下向敎(是)事’는 직역하면 ‘처분을 향해 나아가실 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승재(1992: 88)에서 向을 동사로 보고 向事의 의미를 ‘(행)할 일’이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직역에 근거할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문서 이두문에 쓰이는 단일동사 ‘向/앗-’의 뜻을 위와 같은 직역에 근거하여 ‘행하다’나 ‘하다’ 정도로 의역하고자 한다.

- (21) ㄱ. 科科以 斜只 立案 成給向敎 事 望白內卧乎 事是亦 在 <1354년 尹丹鶴 奴婢 許與 斜給立案의 證筆人의 所志> (날날이 확인하여 입안을 만들어 주실 일을 바라옵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 ㄴ. 戶奴 龍萬矣 大父 群百姓 卜莊亦 其矣 出父 百姓 狄三 許與論當 子 龍萬亦 中 婢 永珎衣 許與 內 監當敎是 斜是 監踏印 許文 成給向叱敎是 事乙良 <1386년 南永蕃 奴婢許與 斜給立案, 2-5> (나의 집의 수노인 용만의 할아버지 군 백성 복장이 저의 친부 백성 적삼이 증여한 것을 마땅히 논하여 손자 용만에게 비 영진의를 증여한 내용의 마땅함을 살피시고 확인하시어 관인을 찍은 문서를 허락하여 작성해 주실 일은)
- ㄷ. 訂筆 進來 推考 侑音捧上 粘連 斜只 監踏印爲置 立案 退向事 <1408년 尼僧 張氏 楊州府 斜給立案, 37-38> (증인과 필집을 나아오게 하여 심문하며 다짐을 받고 점련한 확인 문기를 살펴 도장을 찍고 입안을 발급할 일입니다.)
- ㄹ. 右所陳爲白內 ㄸ 奴矣段 粘連文記 相考 依例 立案斜給爲白只爲 行下向敎(是) 事 官主 處分 <1594년 裴龍吉 戶奴 多勿沙里 所志, 2-6> (이 소지로 진술하는 것은 저의 경우에는 점련문기를 상고하여 전례대로 입안을 증명하여 발급하도록 분부하실 일입니다. 사또님께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합성동사

1) 向入〔앗들(어)〕

向入은 조선 후기 이두 학습서들에 ‘앗드려, 앓드려, 안들이’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앗들(어)〕이 보다 이른 시기의 독음인 것 같다. 向入은 합

성동사로 ‘생각이 들어’ 나 ‘생각하여’ 정도로 해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단일동사 ‘向/앗-’ 과 ‘向入/앗들-’ 의 ‘向/앗-’ 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른데 필자의 능력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向入에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向入에 연결어미로 쓰이는 良이 결합한 예가 보인다. 다음의 (22ㄷ)가 그것이다. (22ㄱ)에 소개한 자료는 아마도 현재까지 전하여 오는 고문서 자료 가운데 向入이 쓰인 최초의 자료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22ㄴ)이 向入이 쓰인 첫 자료로 알려져 있었다.

- (22) ㄱ. 其矣 □母 之 以上 愛重亦 向入 <1379년 張某 漢陽府 奴婢許與斜給立案, 13-14> (저의 친모 그 이상으로 사랑스럽고 소중히 생각하여)
- ㄴ. 矣 出子 龍金乙 孫子中 別々 孝道爲卧乎 如 餉可 向入 <1386년 南永蕃 奴婢許與 斜給立案, 12-13> (나의 친아들 용금을 손자 중 특별히 효도함에 마땅히 줌직 생각하여)
- ㄷ. 李春壽亦 其矣 偽造形迹 勢難掩覆爲乙去 向入良 又唱邪說爲白乎矣³⁴⁾ <1578년 李浚兄弟 決訟立案, 0879-0880> (이춘수가 저의 위조한 흔적을 가리고 덮기가 어렵게 될까 생각하여 다시 그릇되고 간특한 말을 꺼냈는데)

4. 결론

본고는 이상에서 고문서 이두문에 쓰인 어휘들 가운데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새로 발견된 이두를 소개하고, 기존에 논의된 이두 가운데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이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제2장 명사류 이두에서는 새로운 이두를 발견하여 소개하였다. 多勿沙里는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이두어이다. 이 이두어는 일반적으로 보통명사로 쓰이는데 간혹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다. 고문서 이두문에 출현하는 多勿沙里는 주로 ‘담살이’ 혹은 ‘사환 노비’를 지칭하는 명사류 이두이다. 召史는 양인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로 설명되어 왔으나 고문서 이두문에서 召史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민과 천민 여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이두어이다. 夜伊/夜是/夜味는 지금까지 모든 이두

34) 예문은 조남곤(2019: 77)에서 재인용하였다.

사전과 연구에서 〔배미〕로 읽어온 명사류 이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이두가 생겨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밤이〕로 읽히다가 후대에 〔바미〕와 독음이 혼용되었고, 18~19세기 교체기에 〔배미〕가 나타나서 점차 〔배미〕로 음이 굳어진 것으로 기술하였다. 1.2. 형식명사에서는 分에 대하여 다시 논하면서 필자의 기존 견해를 발전시켰다. 分을 처격조사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다. 分은 시간명사 뒤에서 ‘즈음’의 뜻으로 쓰이는 형식명사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제3장 동사류 이두에서는 斜/斜只/斜是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다. 먼저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고문서를 예로 들어 斜가 이른 시기부터 동사류 이두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 斜/斜只/斜是가 ‘증명’이나 ‘증명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 ‘확인 문기’ 또는 ‘확인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음을 예문을 들어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斜只가 문서로서의 개념을 가진 것은 대체로 16세기 중엽 이후부터라고 추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동사류 이두 向의 독음과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고문서 이두문에 쓰이는 단일동사 ‘向/앗-’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向이 지닌 뜻을 바탕으로 ‘행하다’나 ‘하다’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지면의 제약으로 고문서 이두의 어휘 가운데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일부 어휘만을 살펴보았다. 이번에 살펴보지 못한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 중에도 좀 더 깊이 고찰이 필요한 이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후 적당한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사류 이두에 대해서도 추후 고찰할 생각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 남광우(199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학교출판부.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202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 동양학연구소(1971), 『訓蒙字會』, 단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1972), 『新增類合』, 단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 출판부.
- 장세경(2002),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2. 논저

- 김중훈(2014), 『韓國 固有漢字 研究』, 보고사.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문숙자(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 박병호(1996), “高麗末의 奴婢贈與文書와 立案”, 『近世의 法과 法思想』, 진원, 615-630.
- 박성중(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 박성호·문숙자·손계영·박준호·고민정·김봉좌(2020), 『한국 고문서 입문 1』, 국사편찬위원회.
- 배주채(2011),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 _____ (2004), “借字 ‘令是-’ 攷”, 『口訣研究』 12, 구결학회, 133-155.
- 김영배(2000), 『역주 법화경언해 권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안병희(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오창명(1995), “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研究-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3ㄱ),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제63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113-123.
- _____ (2023ㄴ), “기존 吏讀 자료의 보충과 재해석-濟州 지역 吏讀文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구결학회, 187-214.

- 이기문 · 김진우 · 이상억(2000), 『증보판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임상혁(2010), 『나는 노비로소이다-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너머
북스.
- 임홍빈(2016),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8(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임홍빈 · 안명철 · 장소원 · 이은경(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출판부.
- 조남곤(2019),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_____(2021), “修禪社主乃老宣傳消息에 대한 고찰”, 『古文書研究』 59,
한국고문서학회, 1-33.
-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 홍기문(1957), 『리두연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고문서 이두의 어휘: 명사류 · 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1.

이 발표는 고문서 이두문에 쓰인 어휘 가운데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를 중심으로, 새로 발견된 이두를 소개하고, 기존에 논의된 이두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가 있는 이두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명사류 이두에서는 多勿沙里, 召史, 夜伊 · 夜是 · 夜味, 分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사류 이두에서는 斜 · 斜只 · 斜是, 向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발표문을 보면, 기존 고문서 자료와 새로 확인된 고문서 자료에서 확인되는 명사류 이두와 동사류 이두 가운데 10여 개의 이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논의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특히 독음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 품사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한 듯하다. 그러나 기존 자료에서 새로이 확인된 이두가 거의 없고, 기존 자료에서 새로이 확인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3. 多勿沙里가 명사류 이두일까? 그 음과 형태 분석, 의미와 관련하여

이 발표문의 ‘명사류 이두’ 언급에서, 기존 국어학계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하면서 多勿沙里를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이 多勿沙里는 보통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고유명사, 곧 人名으로 쓰인다고 했다. 그리고서 多勿沙里를 명사류 이두에서 다룬 것은 고유명사로 쓰인 것을 이룬 듯하다.

그런데 발표문에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 婢 多勿沙里, 寺奴 多勿沙里, 良妻 多勿沙里, 戶奴 多勿沙里 등과 같이 人名으로 쓰인 듯한 자료만 있고, 실제

보통명사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래서 고유명사 구성이 아닌, 확실하게 보통명사로 쓰인 예로 볼 수 있는, 다른 예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편 多勿沙里의 음에 대해서, 현대국어 ‘담살이’에 대응하는 옛말, 곧 중세국어의 ‘다믄사리>다므사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적절한 견해로 보인다.

옷 밧고 다므사리 흥야 어미를 이바드며 니푸믈 난비 아니 흥더라(貧窮裸跣 行傭 以供母 周身之物 莫不畢給) <삼강, 효:6>
傭 삭 바들 용 役貸謂雇作者 初學字會云 다므사리 용, 雇 삭 바들 고 客作者 初學字會云 다므사리 고 <훈몽-초, 중:1>

한편 ‘다므사리>다므사리’의 형태 분석에 대해서, 임상혁(2010)에서 ‘담+울+살이’의 구성이라는 견해와 달리, ‘다믄+사리(다믄+사리)’의 변음으로 보고, ‘다믄’은 ‘다믄>다믄’ (더불어·함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중세국어 ‘다믄>다믄’에 대응하는 ‘다믄’의 예가 확인되는지 묻고 싶다.

토론자는 多勿沙리가 ‘다믄사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다믄사리’가 ‘다믄+사리’의 변음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더부살이’가 ‘더불-+살-+-이’의 구성이라면 ‘다믄사리’도 ‘다믄-(다믄의 변음?)+살-+-이’의 구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두 麤에 대응하는 이표기로 串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기존 이두 형태에 대응하는 이표기들 가운데 더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

4. 夜味の 음과 관련하여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이 하나하나의 구역”을 이르거나 “구획된 논을 세는 단위”로 현대국어에서 ‘배미’에 대응하는 이두 夜味,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표기로 쓴 夜伊·夜是·夜味 등에 대응하는 독음이 ‘밤이’와 ‘바미’로 혼용되었다가 ‘배미’로 통일되어 갔다고 했다. 그런데 독음이 ‘밤이’와 ‘바미’로 혼용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5 대명사 矣와 관련하여

대명사 矣는 ‘의’로 읽고, 해석은 ‘저, 나’ 등으로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문기를 쓰는 사람 자신을 이르는 ‘이’로 읽고, ‘이’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7. 斜·斜只·斜是의 품사?

고문서에서 확인되는 斜·斜只·斜是〔빋기〕의 품사가 명사냐, 동사냐의 판단은 쉽지 않다. 다만 斜의 기본 훈인 ‘빋-’이나 ‘빋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사의 뜻으로 쓰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斜가 斜只나 斜是의 뜻으로 쓰일 때는 명사형인지 동사형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斜·斜只·斜是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斜只監踏, 斜只立案, 斜只文書, 斜只文券 등과 쓰였다면 명사형이나 명사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동사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문서의 말미에 서명을 하듯이 쓴 斜가 斜只나 斜是와 같이 동사성의 어휘이긴 하지만, 품사로 분류할 때 동사류 어휘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已陳於兩度斜只呈紙”〈鄭清河宅奴卓寬所志(奴婢)/규장각 고문서 236045/戊辰〉와 “申生員所成明文乙 尚未斜只今番興■兩度斜只有蔽 吾錢則受之 汝之明文則直受於申生員 一番斜只則事甚便當是如爲遣”〈趙奴花+叱議送(奴婢)』/규장각 고문서 236045/乙亥〉, “乾隆廿二年正月日咸昌縣斜只”〈「咸昌縣立案(背頃)」/규장각 고문서 224197-/肅宗46年, 1720年〉, “右謹言所志矣奴矣亦幼學李後膺處奴婢伍口給價買得是去乎 依例斜只成給事”〈「申鎮運所志」/규장각 고문서 218195-1/英祖27年, 1751年〉 등의 문장에서 확인되는 斜只는 분명하게 명사형으로 쓰인 것이다.

한편 斜是白乎等以〈「繼後禮曹立案」/규장각 고문서 210433/正祖9年/1785年〉, 斜是白去乎〈「廉奉善所志(土地關係)」/규장각 고문서 212967/癸巳3月〉, 斜是白去乙〈「各陵修改謄錄」16권/奎12900.1-21/仁祖13年-純祖12年, 1637-1812〉 등에서 확인되는 斜是는 분명하게 동사 어간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斜只가 앞에 붙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데, 고려시대 이두문에서 확인되는 斜只敎-가 유일 예인듯하다.

이런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도 확인된다. “凡他人田宅乙 交易爲乎矣 交易文記稅錢納官斜是 不冬爲在乙良 答五十遣(凡典買田宅 不稅契者 答五十)” <『大明律直解』 권5. 戶律, 田宅, 第101條 典買田宅>에서 확인된다. 이때의 斜是는 사람에 따라서 동사로 보기도 하지만, 명사로 보기로 한다.

그리고 斜只監踏, 斜只立案, 斜只文書, 斜只文券 등의 혼종어 구조는 많이 보이지만, 斜是立案, 斜是文券, 文書立案 등의 혼종어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 이두문에서 斜是 許文, 斜是 許文監踏 등이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大明律直解』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발표문의 ㄷ)에 보이는 斜是는 “右課印狀內 事廬乙用良 向前 文記良中 斜是 許文監踏印 狀員處印 退爲中 蔚珍郡安集別監署 記官印” <南永蕃 斜給立案(1386년)/『南宗通記』 卷之一>에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빚기’로 읽고, ‘비낌’ 정도의 뜻이라고 하면, 동사로 처리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斜是는 “右 謹言所志 矣徒段 直長同正尹光琬亦 子丹鶴亦中 奴婢許與成文良中 訂筆使內白乎事是良尔 科科以 斜只立案<해남윤씨 노비문서 1354>”에서 확인되는 斜只와도 같은 구성으로 보인다.

한편 斜·斜只·斜是이 동사로 쓰일 때, 그 뜻은 의역하여 ‘증명하다’ 또는 ‘확인하다’라고 했는데, 직역하여 증명을 해 줄 때 빅기어(비스듬하게) 서명을 해 준다는 뜻으로 보는 것은 어떤지?

『대명률직해』의 어휘

진윤정(고려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한자어의 유형과 분류
3. 『대명률직해』의 한국한자어
4. 맺음말

1. 머리말

한자어는 국어 어휘 체계의 거대한 한 부류이다. 고유어보다 그 수가 많고 대중이 사용하는 어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여전히 신어 생성에 활발하게 활용된다.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사용 빈도가 말해주듯 한자어는 국어 어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한글 창제 이전, 한자·한문이 우리의 언어 수단이었던 시기의 한자어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

차자표기 자료의 어휘 연구는 고유어의 차자표기나 인명·지명·관직명 등의 명사 표기 그리고 한국 한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한자 어휘’ 보다는 주로 ‘한자’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어 어휘사 연구에서 한자어가 주목되고 한자어 가운데에서도 한국한자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아주 귀중한 문헌이다. 『대명률직해』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태조 4년(1395)에 이두(吏讀)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는 구결(口訣)이나 향찰(鄉札)과 달리 실생활을 반영하는 행정문서에 주로 쓰인 이두 문헌으로 방대한 자료인 만큼 시대를 반영하는 다량의 한자어가 실려 있다. 원문이 있는 번역서라는 특징 역시 한자어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대명률직해』에 실린 한자어들 가운데에는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번역문(이하 ‘직해’로 칭함)에만 나타나는 어휘의 수가 약 1,600여개나 된다는 것이다(진윤정 2016:33). 이들은 모두 잠정적인 한국한자어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¹⁾ 이 어휘들은 중국에서 차용해 사용하던 어휘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자어뿐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잃고 우리만의 새로운 의미나 용법을 가지게 된 한자어, 한자를 조합하여 새롭게 만든 한자어, 한국한자를 이용해 만든 한자어 등으로, 한국에서만 쓰임을 보이는 한자어도 상당하다. 필자는 이러한 한자어 무리에서 보이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에서 <대명률직해>에 나타나는 한국한자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먼저 한자어의 유형과 분류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이 분류에 따라 <대명률직해>의 한국한자어 용례를 제시하고 그 의미와 용법을 고찰하고자 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 어휘들의 사전 등재 여부 및 사전 의미 기술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2. 한자어의 유형과 분류

국어의 어휘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외래어(차용어)로 나뉜다. 현대 시점에서는 이들의 구별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과 중국에서 유입된 어휘들이 모두 한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휘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자어의 개념은 시점(時點)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고대 국어 시기의 관점에서 보아 차자표기법의 문자체계 중 음독자(音讀字)를 한자어로 구분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한자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논의에 앞서 한자어의 유형과 한국한자, 한국한자어의 분류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윤정(2016)에서는 ‘조선한자어’라 칭했다.

이두 문헌의 한자어의 유형에 대해서는 박성중(2011)과 이용(2021)을 참고할 수 있다. 박성중(2011)은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에 나타난 어휘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고, 이용(2021)은 통일신라 이두자료에 나타난 한자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박성중(2011) 이두 번역문 어휘의 유형 - 조선전기

1. 중국계 한자어의 차용

2. 한국한자어

- ① 한국한자와 통합된 한자어 : 人笑
- ② 한국에서만 쓰인 한자어 : 道, 中人, 證保, 內賜, 邊利 등
- 3. 고유어 : 德應[덩]
- 4. 혼종어: 別爲[별 혼], 上下[차하/자하]

(2) 이용(2021)의 한자어 유형 분류 - 통일신라시대

1. 한자차용어

- ① 의미 유지형
- ② **의미 변화형**²⁾ 예) 工尺³⁾ 《南山新城碑銘》(591년)

2. 신어

- ① **신조한자어**: 한어의 형태와 통사를 이용해 한국인이 만든 한자어
예) 除公, 除母, 助女子, 助子, 追女子 등⁴⁾
- ② 혼성한자어: 고유어와 차용어를 결합하거나(예) 佛成文), 한국어화한 한자 접미사와 한자를 결합하여 만든 한자어(예) 工尺, 大工尺, 道尺, 文尺, 匠尺)

3. 고유어를 한자의 음이나 훈을 이용해 적어서 생긴 단어

- 2) 이용(2021)의 각주8에서 “의미 변화형 중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결과의 형식이 우연히 외국어 용어와 같아서 의미가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엔 ‘工尺’이 바로 그러한 예로 보인다. ‘工尺’의 ‘尺’은 한국한자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異音國義字)이고, 중국에서 ‘工尺’은 전통음악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이다.(【工尺】我國民族音樂音階上各個音的總稱, 也是樂譜上各個記音符號的總稱. 符號各個時代不同, 通用的是: 合`四`一`上`尺`工`凡`六`五`乙. 《漢語》)
- 따라서 필자는 이 예가 해당 분류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자차용어의 의미변화형은 유입된 어떤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 예가 바로 아래 신어-혼성한자어에도 포함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 3) ‘尺’은 본래 ‘자 척’으로 길이(1자=약 30cm)를 나타내는 한자어이다(예, 三尺童子). 그런데 이 한자는 그 음을 달리하여 한국에서는 고유의 쓰임을 가졌다. 첫째는 尺[자]로 읽어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을 뜻하는 ‘尺文’으로 이두문에 주로 쓰였고, 둘째는 尺[자이]로 읽어 ‘기술자’를 뜻하는 접미사로 쓰였다. 위 (2)에서 제시된 예 외에도 水尺[무자이], 刀尺[칼자이], 斗尺[말자이] 등 그 예가 많다. 직해에는 ‘尺文’과 ‘斗尺’의 용례가 모두 나타난다.
- 4) 小子, 追子, 助子, 丁(연령에 따른 명칭)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小女子, 追女子, 助女子, 丁女’ 그리고 역(役)에서 제외되었음을 뜻하는 ‘除’자와 복합하여 만든 ‘除公, 除母’ 등이 보통 명사인데 이들 나름대로의 조어론적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이 한국한자어들은 모두 신라에서 조어된 것으로 음독자로 이루어져왔음이 특징이다. 이 음독자들은 한국의 제도와 관습, 문화 및 차자표

위의 두 분류에서 (1)의 ‘한국한자어’와 (2)의 ‘한자차용어-의미변화형’, ‘신어-신조한자어’를 한국한자어로 볼 수 있다. 각주 2와 3에서 언급한 尺[자], 尺[자이]가 결합한 어휘는 (1)의 한국한자어-한국한자와 통합된 한자어로 포함될만한 예이다.

여기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한자어로 굳어진 고유어에 대한 것들이다. 이용(2021)는 한자어를 현대 국어 시점에서 정의하여 “그 기원에 관계 없이, 한자로 표기되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국어 어휘”라고 하였기 때문에 한자어로 표기되는 고유어가 한자어의 유형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예로 더 이상 ‘한사’로는 읽히지 않는 ‘大舍’, 어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角干’, 고유어 표기가 한자로 굳어진 ‘文作人’ 등을 들었다. 직해에도 이와 같이 고유어로서 혼독하던 어휘가 한자음으로 굳어진 ‘次知’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를 한국한자어로 포함시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次知’는 현대국어 ‘차지하다, 독차지’의 어원으로, ‘ㄱ슴알다’의 차자표기이다. 직해에서는 ‘次知官員, 次知官司’와 같이 관형어로 쓰인 예가 대부분이나 ‘次知許給爲脡’와 같이 용언으로도 쓰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대명률직해』에서는 이를 한자어로 처리하였으며 대부분의 이두사전에는 그 음을 ‘츠지/차지’로 기재하였다.⁵⁾ 하지만 ‘次知’의 음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혼독되던 어휘가 음독하게 되는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에 일단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기원이 고유어의 차자표기에 따라 읽혔다면 이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국한자가 결합된 한국한자어는 한국한자의 유형에 따라 더 세분될 수 있다. 이두 자료의 한국 한자에 대해서 일찍이 홍기문(1957)에서는 ‘새로 만든 자’, ‘변해 쓰는 자’, ‘표음하는 자’, ‘변형시킨 자’로 나누고 그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한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종훈(1983)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한자 즉 고유한자를 國字(造字), 國音字, 國義字로 나누고 그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밝혔다.

기의 전통 등에 의해 한자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또는 기존의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박성종 1998:112).
5) 배대운(2003) 『역대 이두사전』에만 ‘ㄱ슴알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고 세 개의 기준을 세워 그 유형을 분류한 것이 박성중(2003b)이다. 이를 인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박성중(2003b) 한국한자의 분류⁶⁾

- I. 國造字 … 일명 國字. 漢字와 전혀 다른 字.
 - ㄱ. 表音國造字
 - ㄴ. 表意國造字
- II. 國義字 … 기존의 漢字를 뜻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字.
 - ㄱ. 異音國義字
 - ㄴ. 同音國義字
- III. 國變字 … 한자와 形은 다소 다르나, 호환성을 가진 字. 異字로 통칭할 수 있음.
 - ㄱ. 省劃字 / 略字 / 符號字
 - ㄴ. 異體字 / 俗字
 - ㄷ. 訛字

위 (3)의 분류는 김종훈(1983)의 분류를 조금 더 세분하여 제시하였는데, 國造字를 表音과 表意로 나누어 제시한 것, 國音字를 없애고 國義字에 同音과 異音을 구별한 것이다. 김종훈(1983)에서 국음자로 분류된 ‘尺[자/자이]’는 이음이면서 국의자이기 때문에, 국의자와 국음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국의자 안에 음을 구별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 國變字는 한국한자어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한자어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4) 한국한자어의 유형

1. 한국한자가 결합된 한자어
 - 1-1) 국조자가 쓰인 한자어
 - 1-2) 국의자가 쓰인 한자어
2. 새로 만든 한자어
3. 한국식 의미와 용법을 지닌 한자어

6) 한국한자를 분류하는 단계적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박성중 2003b:67).

첫째, 한자와 異形이나 同形이나에 따른 분류로서, 전자를 異形字, 후자는 同形字로 나눈다.

둘째, 기존 한자와의 호환성 여부로, 이에 대응하는 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이체자 관계에 있는 한자는 제외하며 한자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우리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글 자는 이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를 일컬어 韓國造字 즉 國造字로 부르기로 한다.

셋째, 音과 義이다. 우리 나라에서 개별 한자를 일컫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釋과 音 중 어느 것을 겨 냈느냐를 의미한다.

3. <대명률직해>의 한국한자어

직해에만 나타나는 한자어의 수가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대명률직해의 번역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해의 번역자는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써서 번역하기 보다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조선에서 더욱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로 바꾸고, 1음절 한자어를 2음절로 바꿀 때에는 해당 문맥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한자를 덧붙이며,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구나 절을 추가하여 삽입하기도 하면서 원문에는 없는 한자어들이 많이 쓰이게 된 것이다. 박성중(2011:52)에서는 한문 원문의 다음절 복합어를 뜻이 비슷한 다른 한자어로 변환하는 경우는 그 수효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지만, 진윤정(2016)에서 전체 텍스트를 대조한 결과 한자어 간 대응 예 중 약 60%(2,000여개)의 어휘가 서로 다른 한자어 간의 대응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번역의 결과 직해에만 나타나는 한자어의 양이 상당히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한국한자어를 보다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한국한자어의 각 유형에 따른 <대명률직해> 한자어의 몇몇 어휘를 선별하여 그 사용례를 살펴보고⁷⁾, 해당 어휘에 대하여 이두사전⁸⁾과 《韓國漢字語辭典》，《漢韓大辭典》，《中朝大辭典》，《漢語大詞典》을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3.1. 한국한자가 결합된 한자어

1) 闕失

‘闕’는 ‘失物’의 뜻을 가진 國造字로서 그 쓰임은 일찍부터 발견된다. 직해에만 총 18회 나타나고 대체로 ‘물건(官物, 文券, 王旨, 官文書 등)’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동물(2회)’⁹⁾이나 ‘시체(1회)’를 대상으로 쓰인 예도

7) 대명률직해의 율문과 직해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校勘標點 大明律直解』를, 현대어역은 『대명률직해』 1~4를 인용하였다.

8) 참고한 목록은 참고문헌 사전류 참고.

발견된다.

(5) 248條 牧養畜產不如法

원문	凡牧養馬、牛、駝、騾、驢、羊，竝以一百頭爲率。若死者、損者、 失者 ，各從實開報。
직해문	凡 馬牛駝騾驢羊等乙 牧養令是乎矣 竝只 一百數以 爲限爲 故失令是旡 瘦弱令是旡 闕失 令是在乙良 字細開坐辨報遣 말·소·낙타·노새·나귀·양 등을 기르게 하는 데에 모두 100마리를 한 단위로 한다. 죽거나, 허약해지거나, 잃어버리면 자세히 사실을 기록하고 분별하여 보고하고,

(6) 299條 發塚

원문	若地界內有死人，里長、地隣不申報官司檢驗，而輒移他處及埋葬者，杖八十。以致屍 失者 ，杖一百
직해문	所居地境內良中 死人有去等 里長及切隣人等亦 官司現告檢屍不冬令是遣 他處移置爲旡 及埋葬爲在乙良 杖八十齊 屍體乙 闕失 爲在乙良 杖一百齊 거주지의 경계 안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장 및 이웃 사람 등이 관사에 직접 보고하여 검시하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두거나 매장하면 장 80이다. 시체를 잃어버리면 장 100이다.

(5)는 동물을 대상으로, (6)는 시체를 대상으로 쓰인 예이다. 조선 시대의 다른 자료에서 ‘**闕失**’이 대체로 물건에만 한정해서 쓰여 직해의 이 부분은 번역이 부정확한 예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일한 의미인 ‘**遺失**’이 원문과 달리 직해에서는 오직 ‘사람’을 대상으로만 쓰인 것을 보면 직해 번역자가 그 잃는 대상이 ‘사람’인지 ‘동/사물’인지를 구별하고자 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양상이 ‘죽다/죽음’을 뜻하는 어휘 번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람의 죽음은 ‘身故’와 ‘死亡’으로¹⁰⁾, 동물의 죽음은 ‘故失’¹¹⁾로 구분하여 번역한 것이다.

9) 169조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費用受寄財産〕

원문: 凡受寄人財物、畜產，而輒費用者，坐贓論，減一等。°詐言死、失者，准竊盜論，減一等。°

직해문: 凡 他矣 財物牛馬乙 達受費用爲在乙良 贓罪以 論爲 減一等齊 **故死闕失爲乎所乙** 妄稱爲在乙良 竊盜例以 准論爲 減一等爲遣

이 예에서 ‘**闕失**’은 ‘동물’을 대상으로 쓰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나 ‘**闕失**’은 재물에, ‘**故死**’가 동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이어지는 ‘**水火盜賊良中闕失爲旡** 牛馬等亦 病死顯迹明白爲在乙良 勿論罪爲乎事’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10)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된 ‘身故’와 ‘死亡’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에 따라 그 쓰임이 구별된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병이나 상처로 인해 자연사한 것은 ‘身故’로 표현하고, 자살이나 죽음 자체의 사실을 나타낼 때에는 ‘死亡’으로 표현하였다.

11) ‘故失’에 대해서는 3.3절 참고.

한편 ‘遺失’의 쓰임도 흥미롭다. 원문에서는 모두 관물이나 문서를 대상으로 쓰이는데 직해에서는 원문의 ‘迷失’에 대응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수류미실자녀’ 조, 2회). 《한한》에서도 이러한 용법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직해에 쓰인 ‘遺失’도 한국식 쓰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闕失’은 이두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만 실려 있고 뜻풀이는 각각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분실”, “잃어버림”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한자어사전》에도 그 용례는 모두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두 사전 모두 ‘동물과 시체’를 대상으로도 사용된 예가 있음을 밝혀주는 편이 좋을 것 같다.

2) 頃下

‘頃(탈)’은 ‘까닭·연고·이유’를 뜻하는 異音國義字이다. 김종훈(2014)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고려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명률직해>에서 보여 직해문의 쓰임이 그 효시(嚆矢)인 듯하다고 하였다. ‘頃下’는 직해에 총 6회 나타나고 ‘사유, 핑계’의 의미로 쓰였다.

(7) 101조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

원문	其所典田宅、園林、碾磨等物年限已滿，業主備價取贖，若典主托故不敢放贖者，答四十。
직해문	典當爲乎 田宅果 園林果 碾磨等物乙 年限已滿爲去乙 本主亦 價本準備 還退爲去等 典買人亦 雜頃下推遣 延拖還給不冬爲在乙良 答四十齊 전당한 땅이나 집과 원림과 연자매 등의 물건을, 연한이 이미 차서 본래 주인이 값을 준비하여 되찾으려 하는데도 전매한 사람이 여러 핑계를 대어 미루고 질질 끌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태 40이다.

(8) 132조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

원문	若內府承運庫收受金、帛，當日交割未完者，許令附簿寄庫。若有餘剩之物，本庫明白立案正收，開申戶部作數。
직해문	內府諸倉庫如爲在 各司納金銀布帛錢糧等乙 卽日交相授受爲乎矣 未收乙良 字細重記頃下施行 假捧上爲遣 剩餘物色乙良 正捧上數以 字細立筭 三司良中 申報爲乎矣 내부의 여러 창고와 같은 각사에 납부하는 금·은·베·비단·전량 등을 그날 그날 서로 주고받는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자세히 중기(重記)에 사유를 기록하여 서류상으로[假] 받아들이고, 남는 물건은 정확히 거두어들인 수로써 자세히 차자(筭子)를 만들어 삼사(三司)에 보고한다.

(7)은 ‘頃下’가 “핑계”라는 의미로, (8)는 “사유”라는 의미로 쓰인 예이다. (8)의 ‘頃下施行’에서 ‘施行’은 원문의 ‘附簿(장부에 적다)’에 대응하여 “기록하다”로 쓰인 한국식 쓰임이다(3.3절 참조). 그런데 아래의 (9)를 보면 같은 구절을 “탈하하다”라고 국역하고 ‘頃下’에 대해 각주에서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탈, 특별한 사정이나 재난이 생겨 대상에서 빼낸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頃下’는 이두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만 실려 있고 뜻풀이는 위와 동일하다.

(9) 138조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	
원문	若知侵欺、盜用、借貸係官錢糧已出倉庫，匿而不舉，及故縱者，竝與犯人同罪。… <u>若官吏虛立文案</u> ，那移出納，及虛出通關，其斗級、庫子、攔頭不知者，不坐。
직해문	官庫錢糧乙 他人亦 偷用借用爲乎爲 庫外已出爲乎所乙 知想只遣 隱而不告爲跡 故只 推考不冬爲在乙良 犯人罪同齊… <u>官吏亦 重記虛頃下施行爲跡</u> 彼此良中 互相出入爲跡 又虛尺文出給爲去乙 使令斗尺庫直等亦 知不得爲在乙良 不論罪 관 창고의 전량을 다른 사람이 훔쳐 쓰거나 빌려 쓰려고 창고 밖으로 이미 내간 것을 알고도 숨기며 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추고하지 않으면 범인과 죄가 같다.…관리가 중기(重記)에 거짓으로 탈하(頃下)하거나, 항목을 바꾸어 이것과 저것을 서로 내고 들이거나, 또는 거짓 문서를 내주었는데, 사령·말잡이·창고지기 등이 알지 못하였으면 논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대체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역(役)을 면제하거나 세(稅)를 면하여 주는 일”로 쓰였다. 하지만 직해에서도 이러한 용어로 쓰였는지는 의문이다. (7)과 같이 단순한 사유나 핑계를 뜻하는 명확한 용례가 보일뿐더러 ‘頃下’ 다음에 “기록하다”라는 동사 ‘施行’이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해에서는 ‘緣故’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나아보인다. 이에 따라 각 사전에 직해에서 쓰인 의미와 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牌字

‘牌[비]’로 읽히는 異音國義字이다. 한국한자 ‘牌’가 쓰인 예는 ‘牌字, 牌子’인데 이는 ‘牌旨’를 뜻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게 공식으로 보내는 편지(《한국한자어사전》)”를 의미한다.¹²⁾

직해에는 주로 ‘信牌’, ‘牌面’, ‘受牌’ 등으로 쓰였으며 이때의 ‘牌[패]’는 어떤 정보나 표식이 있는 나무나 종이의 의미를 나타낸다.

(10) 79조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

원문	凡總兵將軍及各處都指揮使司印信, 除調度軍馬、辦集軍務行移公文用使外, 若擅出批帖, 假公營私, 照送物貨者, 首領官、吏各杖一百
직해문	凡 各道都節制使兵馬使等 軍官印信乙良 全委軍馬抄鍊爲旂 軍事準備爲乎 文字行移良中 用使內遣 軍事外叱 他餘出納牌字良中 擅用印信爲 憑公營私爲在乙良 郎廳及書吏令史 各杖一百遣 각 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 병마사(兵馬使) 등 군관의 인신은 전적으로 위임하여 군마를 뽑아 단련하거나 군사상의 일을 준비하는 문서의 행이에 사용해야 한다. 군사상의 일 외의 여타 출납하는 신포(信牌)나 문서에 인신을 함부로 써서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일을 꾀하면 낭청(郎廳) 및 서리(書吏), 영사(令史)는 각각 장 100이고

직해에는 ‘牌子’와 ‘牌旨’ 용례는 없고 ‘牌字’가 단 1회 나타난다. (10)에서 보면 원문의 ‘批帖’의 역어로 쓰였고, 이를 ‘牌’와 ‘字’를 따로 파악하여 ‘신포나 문서’라고 번역하였다.

직해에 ‘信牌’가 쓰인 예는 信牌조에서만 3회 나타나는데 두 예는 원문의 ‘信牌’를 그대로 가져와 번역한 것이고 한 예는 문맥에 따라 추가한 것이다. ‘信牌’는 각 관사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패나 문서의 형태이다.

원문의 ‘批帖’은 직해에서 대부분은 ‘帖子[체자]’라는 한국한자어를 써서 번역되었고¹³⁾, (10)의 예 역시 ‘문서’를 뜻하는 것이어서 ‘牌字’를 한 단어, 한국한자어의 용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牌字’는 이 두사전에 “패지(牌旨)라고도 하는데 궁방(宮房)에서 그 장토(庄土), 어장(漁場), 염분(鹽盆) 기타에서 수입과 이권을 유지,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을 위

12) ‘牌旨’에 대해 《표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배지(배旨): 「명사」 『역사』 ‘패지’의 변한말.

패지(牌旨): 「명사」 『역사』 조선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이임하던 공식 문서. 특히 양반이 노비에게 금전 거래를 대신하게 하던 위임장을 이른다. ≒패자.

13) 帖子[체자]: ‘帖文’, ‘帖紙’와 같은 의미로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공문”이라는 뜻이다.

임할 때 위임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위임장”으로 의미가 기술되어 있다. 특수 용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해의 쓰임과는 달라, 직해의 예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새로 만든 한자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직해의 한국한자어로는 ‘內賜, 申聞, 邊利, 證保¹⁴⁾, 起揭, 中人, 之次, 次第’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의 쓰임은 찾아볼 수 없는 한국한자어들이다.

1) 現告

‘現告’는 중국에서의 쓰임을 찾아볼 수 없는 한국한자어이다. 직해에는 총 45회 나타나는데, “고발하다, 신고/보고하다”로 29회, “자수하다”로 15회, “적발하다”로 1회 사용되었다. ‘現告’는 이두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만 “범죄 사실을 해당 관아에 즉시 알림”이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고발하다, 신고/보고하다”의 의미를 포괄한다.

(11) 24조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

원문	其知人欲告及逃叛而自首者, 減罪二等坐之。其逃叛者雖不自首, 能還歸本所者, 減罪二等。
직해문	他人亦 現告爲乙去 知想只遣 現告爲旡 罪人亦 逃亡爲旡 叛逆爲有如此 現告爲在 乙良 減二等與罪齊 逃亡背叛罪人亦 必于 現告不冬爲良置 本處良中 還歸爲在乙良 減罪二等齊 타인이 고발할 것이라 여기고 자수하거나, 죄인이 도망하거나 반역(叛逆)하였다가 자수하면 2등급을 줄여 죄를 준다. 도망하거나 배반한 죄인이 비록 자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오면 죄를 2등급 줄인다.

(12) 299조 무덤을 파헤침 [發塚]

원문	若地界內有死人, 里長、地隣不申報官司檢驗, 而輒移他處及埋葬者, 杖八十。

14) 박성중(2003a)에서 다른 한국한자어로 대체로 “증명하는 일” 또는 “증거”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고 “증인”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음을 밝혔다. 진윤정(2016)에서는 “보증하다”, “증언하다”, “보증인”, “증인”라고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에 반해 사전류에는 장세경(2001)의 『이두자료 읽기사전』의 부록인 「특수용어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는데, 둘다 “사실의 진위를 증명하여 책임을 짐”으로 되어 있다. 의미 기술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직해문	所居地境內良中 死人有去等 里長及切隣人等亦 官司 ^{現告} 檢屍不冬令是遣 他處移置爲殮 及埋葬爲在乙良 杖八十齊 구역 안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장(里長)이나 이웃 사람이 관사에 보고하여 검험(檢驗)하게 하지 않고 멋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매장하면 장 80이다.

(11)는 “고발하다”와 “자수하다”의 의미가 모두 들어있는 예이다. 직해에서 “자수하다”는 주로 ‘省覺現告’, ‘自覺現告’로 나타난다. 대체로 “고발하다”는 위법한 사안에 대하여 쓰였지만 (12)와 같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현대어역이 “보고하다”로 되어 있으나 “신고하다”로 봐도 무방하다.¹⁵⁾

(13) 148조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產]

원문	受財者, 計贓, 以枉法, 各從重論。失覺學者, 減三等, 罪止答五十。
직해문	財物受贈爲在乙良 贓物數乙 計爲 枉法以 從重論齊 監臨官亦 遲晩看審現告不冬爲在乙良 減三等 答五十爲限 재물을 뇌물로 받으면 장물의 수를 계산하여 왕법으로 보되,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 감림관이 살펴보기를 게을리하여 적발하지 않으면 3등급을 줄이되 태 50을 한도로 한다.

(13)을 보면 ‘遲慢看審現告’라고 하였다. ‘遲慢’은 직해에서 주로 ‘遲慢覺察’이라고 하여 “감시를 게을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覺察’이 들어갈 곳에 ‘看審現告’가 쓰였다. 이 예문은 담당자가 자신의 일에 게을러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現告’는 고발이나 신고가 아닌 ‘적발’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봐야한다. 이에 따라 ‘現告’에 대해서는 “자수하다”와 “적발하다”의 의미와 용례를 사전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推刷

‘推刷’은 직해에서 ‘체송공문’ 조에만 3회 나타나고 “살살이 조사하고 점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한국고전번역원 출판본에서는 이를 전문 용어로 파악하여 “추쇄하다”라고 번역하였다.

15) 현대어역 『대명률직해』는 문맥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보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 261조 공문을 체송함 3조〔遞送公文〕

원문	凡各縣鋪長專一於概管鋪分往來巡視。提調官、吏每月一次，親臨各鋪刷勘。若失於檢舉者，通計公文稽留及磨擦、破毀封皮不動原封，十件以上，鋪長答四十，提調吏典答三十，官答二十。
직해문	凡 各驛丞段 全亦 道掌各驛良中 往來巡檢爲乎矣 每朔一度式以 親到推刷爲齊 知不得 遲慢推刷爲在乙良 公貼乙 遲留爲疥 皮封乙 裂破爲乎 罪例良中 通計爲乎矣 十道以上乙良 次知推刷人乙 答四十 書者乙良 答三十 驛丞乙良 答二十齊 각 역승(驛丞)은 오로지 길을 관장하여 각 역에 왕래하며 순찰·점검하는데, 매월 한 번씩 추쇄(推刷)하는 곳에 직접 간다. 알지 못하여 추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문서를 늦추어 머물러 두거나 길봉투를 찢은 죄의 예에 대해 통틀어 계산하여 10통 이상은 추쇄를 담당 한 사람에게 태 40, 서자(書者)는 태 30, 역승은 태 20이다.

‘推刷’는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은 한국한자어이다. 《한국한자어사전》에는 ① 받을 빚을 죄다 받아들임. ② 살살이 조사하여 죄다 찾아냄이라고 의미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는 비교적 후대에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준》을 보면 찾아 내어 들이는 대상이 ‘빚’에서 후에는 ‘노비, 백성’까지 확장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쇄

- ① 빚을 모두 받아들임
- ②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 ③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이를 통해 직해에서의 쓰임은 이른 시기의 용례로 파악이 되고 그 의미는 ‘문서’를 살살이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의 문서는 장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 ‘체송공문’ 조는 중국의 문서 행정에서 문서의 전달 방식과 관련된 것[遞送]이고 이 조항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각 포[鋪]에 있는 문서이다. 《한국한자어사전》의 ②번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적확하지는 않다.

3.3. 한국식 의미와 용법을 지닌 한자어

이 절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한국한자어로 다루지 않았던 어휘들로, 원문에도 나타나고 중국에서도 두루 쓰인 한자어이다. 하지만 직해에서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로 사용되어, 이를 한국식 의미와 용법을 지닌 한국한자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施行

『대명률직해』의 원문과 직해문에서 ‘施行’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직해에서는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가 있다.

(15) 56조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	
원문	若無故過限者，一日答一十，每十日加一等，罪止杖八十，竝附過還職。
직해문	各各已定限日內及赴任爲乎矣 無緣故過限 赴任不冬爲在乙良 一日是去等 答一十 十日是去等 加一等 杖八十爲限 <u>過名施行</u> 遣 赴任令是齊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록 부임하지 않으면, 1일이면 태 10이고 10일이면 1등급을 더하되 장 80을 한도로 하고, 죄명을 기록하고 부임하게 한다.
(16) 15조 유죄수의 가족 [流囚家屬]	
원문	若流、徙人身死，家口雖經付籍，願還鄉者，放還。
직해문	流徙人亦 身死爲去等 家口亦 必于 其村戶籍良中 <u>名字施行</u> 爲良置 自願還鄉爲在乙良 放還遣 유배되거나 천사된 사람이 죽으면, 그 가구는 비록 그 마을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스스로 원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놓아 보내 준다.

(15)의 ‘過名施行’은 “죄명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원문의 ‘附過’에 대한 역어로 직해에 자주 쓰인 표현이다(14회). 같은 의미로 ‘罪狀施行’이 1회 쓰이기도 했다. (16)를 보면 ‘名字施行’이라 하여 ‘施行’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施行’은 이두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한한》, 《한어》, 《중조》에는 모두 “실행하다, 처결·집행하다”로 의미 기술이 되어있다. “기록하다”의 ‘施行’은 한국식 쓰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 기술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2) 故失

‘故失’은 주로 ‘고의와 과실’이라는 의미로 양국에서 두루 사용되는 한자어로 법률용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직해에서는 “죽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가 관찰된다. 이때 그 대상은 동물에만 한정되어 쓰이며 兵律의 廢牧편에만 6회 나타난다. ‘故失馬’, ‘三匹故失’을 보아도 ‘故失’은 동물에 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 37조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

원문	若輒斷決，致罪有出入者，以故失論。
직해문	此亦中 啓課不冬 趣便以 決斷爲 他矣 罪乙 或輕或重令是在乙良 故失例論 이러한 경우 아뢰지 않고 멋대로 결단하여 남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면, 고의나 과실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한 예로 논한다.

(18) 兵律廢牧 목양축산불여법(牧養畜產不如法)조 [248조]

원문	凡牧養馬、牛、駝、騾、驢、羊，竝以一百頭爲率。若死者、損者、失者，各從實開報。死者，卽時將皮張、鬃、尾入官，牛筋、角、皮張亦入官。
직해문	凡 馬牛駝騾驢羊等乙 牧養令是乎矣 竝只 一百數以 爲限爲 故失令是旡 瘦弱令是旡 闕失令是在乙良 字細開坐辨報遣 故失 爲在乙良 卽時 皮果 鬃果 尾果等乙 納官齊 말·소·낙타·노새·나귀·양 등을 기르게 하는 데에 모두 100마리를 한 단위로 한다. 죽거나, 허약해지거나, 잃어버리면 자세히 사실을 기록하고 분별하여 보고하고, 죽은 것은 즉시 가죽과 갈기와 꼬리 등을 관에 들인다.

(17)은 ‘故失’의 일반적인 사용례이고 (18)은 동물의 죽음을 나타낼 때 쓰인 예이다. 앞서 언급한 ‘身故’처럼 ‘故’가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故失’은 이두사전, 《한국한자어사전》, 《중조》에는 없고, 《한한》, 《한어》에 있는데 모두 “고의나 실수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의 법률용어의 의미만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故失’의 또 다른 쓰임인 한국식 의미와 용법을 사전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磨鍊

‘磨鍊’은 현대국어 ‘마련, 마련하다’로 직해에서는 “조련/훈련하다”의 의미로 1회, “자세히 살피다”라는 의미로 2회 쓰였다. 전자는 양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쓰임이나 후자는 직해에서만 보인다. ‘磨鍊’은 이두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에만 “① 계획하다, ② 훈련하여 연마하는 것”으로 뜻

풀이가 되어있다.

(19) 230조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

원문	凡各處守禦官不守紀律，不操練軍士，及城池不完，
직해문	凡 各處防禦軍官員亦 紀綱法令乙 遵守不冬 軍士乙 易亦 磨鍊不冬爲旆 城池乙 堅實亦 修補不冬爲旆 각처의 방어하는 군관원(軍官員)이 기강과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군사를 바로 조련하지 않거나,

(20) 59조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

원문	凡各衙門官吏給由到吏部，限五日付勘完備，以憑類選銓注。若不卽付勘完備者，遲一日，吏典答一十，每一日加一等，罪止答四十
직해문	凡 各司官吏矣 解由文字乙 吏兵曹良中 到付爲良在等 限五日內 已前經歷事乙 磨鍊錄用令是乎矣 卽時付色磨鍊不冬 遲晚爲在乙良 一日是去等 書吏乙 答一十 每一日加一等爲乎矣 答四十爲限遣 각사의 관원이나 아전의 해유(解由) 문서를 이조와 병조에 보내면 5일 내에 이전에 처리한 일의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기록하게 한다. 바로 서류를 대조하여 검토하지 않고 지체할 경우, 1일이면 서리(書吏)는 태 10이고 1일마다 1등 급을 더하되 태 40을 한도로 하고,

(19)는 양국에서 모두 쓰인 “조련하다, 훈련하다”의 용례이고, (20)는 원문의 ‘付勘’에 대한 역어로 쓰인 예이다. ‘付勘’은 중국의 문서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두 문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비교·조사·검토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를 직해에서 ‘磨鍊’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예는 대체로 “~가 마련하여 아뢰라”라는 곳에 쓰이고 있어 “헤아려 갖추다”의 현대국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 ()처럼 직해의 용법과 비슷한 용례도 있다.

(21) 세종 4년(1422) 11월 14일 기사

원문: 一, 各官守令將教官實仕、身病、式暇等故, 明白磨鍊, 報監司置簿, 殿最之日, 考其勤慢啓聞。

현대어역: 각 고을의 수령은 교관(教官)의 실지로 출근한 것과 신병(身病)과 휴가 등 사고로 결근한 것을 명백히 마련(磨鍊)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치부하였다가, 성적의 우열을 매기는 날에 그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아뢰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磨鍊’의 “자세히 살피다”라는 의미와 용례가 사전에 추가되어

야 한다.

4.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金鐘埧(1983/2014), 『韓國 固有漢字 研究』, 보고사.
- 박성중(1997), 차자표기의 어휘론,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61-77.
- 박성중(1998), 고대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박성중(2003a), 大明律直解의 韓國漢字語 一考察, 민족문화논총 28, 61-83.
- 박성중(2003b), 『大明律直解』 吏讀의 예비적 고찰, 진단학보 96, 289-321.
- 박성중(2005), 韓國漢字의 一考察, 구결연구 14, 51-96.
- 박성중(2011),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29-59.
- 박성중(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 송기중(1997), 借字表記의 文字論的 성격,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5-29.
- 이 용(2021), 통일신라시대 이두 자료에 나타난 한자어, 구결연구 46, 87-116.
- 진윤정(2016), 대명률직해에 사용된 조선한자어 연구-유형 분류와 의미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사전류>

1. 이두사전

- 장지영 · 장세경(1976/1990), 『이두사전』, 산호.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배대온(2003), 『歷代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부록 「특수용어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남풍현 외(202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 한국한자어사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3. 한한대사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4. 중조대사전, 선문대학교 출판부.

5. 한어대사전

‘『대명률직해』의 어휘’에 대한 토론문

박진호(서울대학교)

『대명률직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발표자의 내공이 돋보이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해석과 주장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한국고전번역원 『대명률직해』 1~4(이하 ‘번역원역주’)의 율문 역주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함께 더 고민해 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제기합니다.

1. 頃下

예문 (9)를 ‘번역원역주’에서 동사로 번역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동사 ‘施行’ (기록하다)의 목적어로 쓰였으므로 “사유”라는 의미의 명사로 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문 (7)에 대한 ‘번역원역주’의 번역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雜頃下推遣 延拖還給不冬爲在乙良’을 ‘여러 핑계를 대어 미루고 질질 끌면서 돌려주지 않으면’이라고 번역했는데 ‘雜=여러’, ‘頃下=핑계를 대어’, ‘推遣=미루고’, ‘延拖=질질 끌면서’, ‘還給=돌려주지’, ‘不冬爲在乙良=않으면’과 같이 대응시켜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번역원역주’는 예문 (7)의 ‘頃下’를 ‘핑계를 대다’라는 동사로 번역한 셈입니다. 발표자께서 이 번역에 동의한다면 ‘頃下’에 동사적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발표자께서 이 번역에 동의하지 않고 예문 (7)의 ‘頃下’가 명사라고 생각한다면, 예문 (7)에 대한 ‘번역원역주’의 번역과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다”라는 의미를 직해에서 ‘頃下(목적어 명사) 推(타동사)’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 推刷

예문 (14)의 ‘推刷’에 대해 발표자는 “문서를 살살이 조사하고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율문은 ‘刷勘’이라고 되어 있는데, ‘刷勘’은 ‘照刷’와 ‘磨勘’이라는 두 단어에서 각 한 글자씩 따서 줄인 것이고, 照刷는 72조 ‘照刷文卷’, 磨勘은 73조 ‘磨勘卷宗’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照刷는 행정문서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아문에서 업무를 처리한 뒤 이와 관련된 문권을 정리해 두는데, 감사관(감찰어사, 제형안찰사, 分司)은 담당 구역의 각 아문을 순행하면서 그 아문에서 해당 기간 동안 처리한 문권을 검토합니다. 일처리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그 문권에 ‘照過’라고 기입하고, 일처리가 지체되었는지,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다른 잘못을 덮으려고[規避]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표기합니다. 이렇게 조쇄한 문권은 해당 아문에 돌려보내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문에서 적절한 추후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磨勘은 조쇄 후의 추후 조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쇄하여 각 아문에 돌려보낸 문권은 한 분기(3개월) 안에 적절한 추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 분기 뒤에 照磨所에서 이들 문권에 대해 추후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검사하는데, 이를 磨勘이라고 합니다.

72조의 직해문에서는 ‘照刷’를 ‘刷卷’이라고 번역했고, 73조의 직해문에는 ‘磨勘’에 대한 번역어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吏律에 속하는 72, 73조에서 일반 행정 아문의 공문서 처리를 규정했다면, 兵律에 속하는 261조에서는 水馬驛·遞運所·急遞鋪의 공문서를 遞送(릴레이 식으로 송달함)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현의 鋪長(일종의 감사관)은 관할구역 내의 鋪들을 순행하면서 공문서 송달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문서 송달이 지체되었는지, 문서의 결봉이나 원봉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매달 점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당 鋪의 鋪兵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뒤늦게 드러났을 경우 애초에(매달 점검할 때)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鋪長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261조의 직해문에서 ‘刷勘’을 ‘推刷’로 번역한 것은, 공문서 처리 및 정례적인 감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刷勘’이 ‘照刷·磨勘’의 줄임말임을 포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刷勘’의 ‘勘(=磨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해문은 (철저한 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번역문이기 때문에, 원문과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직해자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율문의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 용어에 대해 직해에서 일관성 없게 번역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磨鍊

예문 (20)에 대해 율문 ‘付勘’에 대한 역어로 ‘磨鍊’이 쓰였다고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율문의 ‘付勘’을 ‘已前經歷事乙 磨鍊錄用’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付勘’의 뜻을 ‘두 문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비교·조사·검토한다’라고 한 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59조 ‘官吏給由’는 관리의 정기적인 인사고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각 관리에 대해 상급 관사에서 그의 이력·치적 등을 적은 문서(由帖 또는 由라고 함)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확인시킨 뒤, 거기에 평가를 추가하여 상부에 올립니다. 이런 과정을 차례로 거쳐 인사고과 문서(由帖·由)가 중앙의 吏部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給由라고 합니다.

吏部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인사고과 문서를 다시 각각의 적절한 관서에 보내어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대조·검토하게 합니다. 이를 ‘付勘’이라고 하는데, 이는 ‘移付(各司)查勘’의 줄임말입니다. ‘付勘’의 ‘付(=移付)’가 직해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일단 문제입니다.

73조 磨勘卷宗의 ‘磨勘’도 감사관이 1차적으로 검토한 문서를 다시 2차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이고, 59조 官吏給由의 ‘付勘’의 ‘勘’도 각 관사에서 1차적으로 작성한 인사고과 문서를 중앙에서 다시 2차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문에서는 이러한 2차적 검토를 ‘磨勘’으로 표현하거나, 한 글자로 줄일 때는 ‘勘’으로 줄이고 있는데, 직해에서는 이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거나(73조), ‘磨鍊’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59조). 직해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행태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고, 율문의 ‘磨勘’의 의미(2차적 검토)를 배경으로 삼아 직해의 ‘磨鍊’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감’, ‘마련’ 등이 그 후에 큰 의미 변화를 겪은 것

도 흥미롭습니다.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 발표자료집
국어사학회 + 구결학회

자유 주제 발표
<국어사학회>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차례

1. 서론
2. 『조선어사전』의 증보
3. 『조선어사전』의 표준어
4. 결론

1. 서론

1938년에 발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하 ‘조선’)』은 8만 7천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한국 최초의 국어사전이다.¹⁾ 1938년 7월 박문서관에서 초판이 발행되었고 같은 해 12월 재판이 발행되었으며, 1940년 12월에 영창서관에서 7천여 개의 표제어가 추가된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이하 ‘수정’)』이 발행되었다. 이 사전은 이후 1960년대까지 여러 이름과 편집본으로 수십 차례 재간행되어 20세기 중엽까지 널리 활용되었으며(황용주 2016:103-111)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이 완간되기까지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매개하며 국어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조선』이 편찬된 1930년대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이하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하 ‘표준말’)」(1936)이 발표되는 등 국어의 표준화와 규범화가 진행된 시기였지만, 그와 동시에 외래 신어의 급증으로 어휘적 혼란이 극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조선』이 당대의 언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었는지, 그

1) 1910년대에 조선광문회에서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집필하였으나 발행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원고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일부분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1925년에 이문당에서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 발행되었지만 이는 보통학교 교과서에 쓰인 6,000여 개의 어휘를 수록한 학습사전으로 범용 사전이 아닌 소규모의 특수 사전이었다.

리고 당시의 어휘적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사전학과 국어학사 서술에서 최초의 국어사전으로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 왔고, 20세기 전반기 어휘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도 그 표제어와 뜻풀이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이 사전 자체에 대한 천착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조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민지(2011)은 『조선』 초판을 대상으로 일러두기의 내용과 사전의 체제를 개괄하고, 이 사전의 특징으로 역사 및 제도, 관직과 관련된 고유명사가 일부 포함되어 백과사전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 이두를 수록하고 이두 색인을 붙인 것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 영어 외래어를 수록할 때 어두의 ‘g, d, b, s, j’를 경음화하여 표기하였다는 점, 접미파생어는 개별 단어를 표제항으로 삼은 반면 접두파생어는 해당 접두사의 뜻풀이 내에 해당 파생어들을 묶어서 제시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수정』을 대상으로 한 황용주(2014)는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시구조와 관련해 표제어의 어종, 자음, 음절 수 등을 계량화하였고, 미시구조와 관련해 표제어의 구성 성분, 품사, 원어, 뜻풀이 풀이말, 전문어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황용주(2016)은 『조선』의 출판 이력을 정리하고 일러두기 내용을 토대로 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을 충실히 따랐지만 「표준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옛말의 풀이가 『신자전』의 훈과 유사하다는 점, 한자어 뜻풀이가 조선총독부 사전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안예리(2020)은 1930년대 사전들의 외래어 수용 양상을 분석하며 『조선』에 실린 외래어의 특징을 개관하였고, 이종극의 『모던조선외래어사전』과 『조선』의 외래어 수용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전의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 중에는 문세영이 이운재의 사전 원고를 도용했다는 이희승의 주장에 반박하며 문세영의 생애와 『조선』의 편찬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박용규(2011a, 2011b, 2011c)의 연구도 있다.

이처럼 사전의 형식과 편찬 과정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지

만,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조선』과 『수정』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전반의 기술 내용과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당대의 언어 현실과의 비교를 통해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ㄱ’ 항 표제어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수정』으로 가며 달라진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차이점 중 사전의 성격이나 당대의 언어 현실과 관련해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표준말」과 비교하여 표준어에 대한 문세영의 관점 및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조선어사전』의 증보

1938년 7월 박문서관에서 『조선』 초판이 발행되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최초의 국어사전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고 몇 달 만에 초판 1,000부²⁾가 매진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매진 이후에도 학교 및 단체의 도서관, 학생과 지식인들의 주문이 쇄도하자 박문서관은 전속 인쇄소에서 철야 작업을 거듭해 그해 12월 재판³⁾을 2,000부 발행하였다⁴⁾.

그런데 재판이 나온 지 불과 2년 만인 1940년 12월에 문세영은 만여 개의 표제어를 추가하여 『수정』을 출판했다. 『수정』은 한국어 사전 편찬사에서 다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전이다. 사전의 수정 증보판은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말들을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간의 흐름과 언어의 변화가 수정 증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전의 경우는 발행된 지 2년이 채 안 되어 수정 증보판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 증보의 내용이 언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증보 과정에

2) 1939년 1월 1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單 두 坪 되는 마루에서 朝鮮語辭典 完成」에서는 『조선어사전』 초판이 1천 부가 매진되어 재판을 내게 되었다고 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1939년 1월 11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永遠不朽의 功績을 싸흔 朝鮮語辭典再版遂發賣」에서는 초판 2천 부가 매진되었다고 하여 수치에 차이가 있다.

3) 재판에서는 내용의 수정은 없었지만 초판에서 발견된 낙자와 오자를 바로잡았다.

4) 「永遠不朽의 功績을 싸흔 朝鮮語辭典再版遂發賣」, 『조선일보』 1939.1.11. 재판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박용규(2011:79)를 참고하였다.

서 언중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사전의 증보 과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수정』의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고침판을 내면서’에는 (1)과 같은 기술이 있다.

(1) 그리하여 다시 수정(修正)과 증보(增補)를 꾀하고 곧 붓을 들어 부분 부분이 수정을 더하고 그위에 일만마디가 넘는 말의 어휘를 추가하여 이제 새로이 이 『수정증보조선어사전』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이 이처럼 빠르게 된것은 오로지 각지방에 숨은 유지(有志) 여러분이 붓을 갖추어 지방의 숨은 말 책에 빠진 어휘들을 제공하여 학계의 아름다운 협력을 받은 까닭임을 절실히 느끼는바입니다. (『수정』 1-2면)

각 지방의 유지들이 『조선』에 빠져 있는 말, 즉 각지의 방언이나 기타 누락된 단어들을 제보해 준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증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기출판된 사전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은 문세영의 몫이었지만 추가된 표제어에는 언중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보 내용을 분석해보면⁵⁾ 사전 편찬자의 관점과 언중들의 인식 간의 격차 혹은 타협의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의 ‘ㄱ’ 항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주표제어와 가표제어를 모두 합해 ‘ㄱ’에서 ‘끓섬’까지로 총 12,717개이다. 『수정』의 경우도 ‘ㄱ’에서 ‘끓섬’까지이지만 ‘ㄱ’ 항의 표제어 수는 총 13,897개로, 『조선』보다 1,180개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수정 증보 과정에서 상당수의 표제어가 추가되었고 또 일부 표제어가 삭제되며 발생한 것인데, ‘ㄱ’ 항의 경우 『조선』의 표제어 중 『수정』으로 오며 삭제된 것이 34개, 『조선』에 없던 표제어가 『수정』으로 오며 추가된 것이 1,214개였다. 삭제된 표제어들을 살펴보면 ‘고브탕이: 名 「고부랑이」에 보라’⁶⁾와 같이 오폭기에 해당하는 가표제어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는 추가된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1>은 ‘ㄱ’ 항에 한하여 추가된 표제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개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5) 김민지(2011:213-215)에서 『조선』과 『수정』을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분석하며 표제항 배열 순서 오류 수정, 동음이의어 배열 순서 조정, 다의어 의미 부호 변경, 표제항의 표기 일부 수정, 표제항 추가 등을 언급하였다.

6) 『조선』의 일러두기에서는 ‘~에 보라’로 풀이한 가표제어에 대해 “발음을 잘못하는 말이나 철자를 그릇 쓰는 말들”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1〉 ‘ㄱ’ 향 추가 표제어

유형	개수	비율(%)
일반	584	48.1
~의 사투리	443	36.5
~에 보라	59	4.9
~와 같음	56	4.6
일본어 차용어	20	1.6
~의 옛말	16	1.3
~의 준말	15	1.2
~의 이두	9	0.7
반복형	4	0.3
영어 차용어	2	0.2
~의 심만이말	3	0.2
~의 속어	3	0.2
합계	1214	100

〈표 1〉에서 ‘일반’으로 분류한 것은 표제어 자체나 뜻풀이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경우로, 『조선』에서 누락되어 있던 어휘들이 새로이 추가된 사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이 증보되는 과정에서 표제어가 추가되었다면 해당 표제어는 언어 변화의 결과를 반영한 것, 즉 초판과 증보판 사이에 생겨난 신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조선』에서 『수정』으로 오며 추가된 ‘일반’ 표제어들은 ‘간하다: 여변 [하여·한] 他 음식에 소금·간장들을 치다.’ 등과 같이 원래부터 널리 쓰였지만 초판에서 누락되었던 단어가 실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최초의 국어사전이자 개인이 편찬한 사전이라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 보면, 일단 추가된 표제어 중 상당수가 ‘~의 사투리’로 풀이된 방언이었다는 점이고, 비율은 높지 않지만 ‘일본어 차용어’와 ‘반복형’의 경우 『조선』에는 거의 실려 있지 않다가 『수정』으로 오며 해당 부류가 대폭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 절의 남은 부분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1. 방언

수정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표제어 중 두드러진 유형은 ‘~의 사투리’로 풀이된 방언이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추가된 ‘ㄱ’ 향 표제어 중 36.5%에 해당하는 443개가 방언에 해당된다. 몇몇 예를 보이면 (2)와 같다.

- (2) ㄱ. 가꾸루 副 「거꾸로」의 사투리.
 ㄴ. 가늘라 名 「갓난아이」·「어린애」의 사투리.
 ㄷ. 가렵다 形 「가렵다」의 사투리.
 ㄹ. 가르-보다 他 「홀기어 보다」의 사투리.
 ㄹ. 까수나 名 「제집애」의 사투리.
 ㅂ. 까지-불 名 「반딧불」의 사투리.
 ㅅ. 강심-살이 名 「고생살이」의 사투리. [하다 自]
 ㅇ. 개뜨벙이 名 「뚜껑」의 사투리.
 ㅈ. 끼붓-끼붓 副 「기웃기웃」의 사투리.

(2)와 같이 『수정』의 ‘ㄱ’ 항 중 ‘~의 사투리’로 풀이된 표제어는 모두 522개인데 그중 85%에 해당하는 443개가 초판에는 없던 표제어였다⁷⁾. 즉, 이 사전의 방언 정보는 상당 부분 전국 곳곳의 독자들이 제보해 준 ‘지방의 숨은 말’이 사전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문세영은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 시절을 빼고 줄곧 서울에서 살았던 서울 토박이였고, 그런 만큼 단독으로 편찬한 사전에 방언 표제어를 수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한계를 독자들의 제보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셈인데, 최초의 국어사전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대식의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2>는 『조선』과 『수정』에 실린 방언 표제어 중 ‘가볍다’, ‘가위’, ‘꼬리’, ‘고동어’, ‘고양이’의 대응 방언을 20세기 초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방언 조사⁸⁾ 결과를 반영한 『朝鮮語方言の研究』(1944)에서 찾아 해당되는 지역을 ‘●’로 표시한 것이다. 가장 왼쪽에는 대응 표준어를 제시하였고, 『조선』에서부터 실려 있던 표제어에는 음영 표시를 하였다. 즉, ‘개뿔다’, ‘가새, 가시개, 가시새’, ‘뽕대기’, ‘고망어’, ‘괴더기’는 초판에서부터 실려 있었지만 나머지 음영이 없는 표제어는 모두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일부 『조선어방언사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형태도 있

7) 그 밖에도 ‘갱기미’처럼 가표제어에서 방언으로 뜻풀이가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 『조선』 갱:기미 名 「갱지미」에 보라.

- 『수정』 갱:기미 名 「갱지미」의 사투리.

8)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 조사에 대해서는 야스다 도시아키(2020)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방언 조사 내용에 관해 본고에서는 이상규·이순형 교열본 『조선어방언사전』을 활용하였다.

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말샘』의 방언 정보를 참고하고 ‘●*’로 표시해 두었다.

<표 2> 방언 표제어와 『조선어방언사전』의 비교 결과

표준	방언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볍 다	개불다							●	●	●	●				
	가깝다	●	●												
	가깝다		●												
	갑작하다			●	●	●									
	개굽다													●	
	개굽다		●					●	●		●		●	●	
	거겁다								●*					●*	
가 위	가새	●	●				●	●	●	●	●	●	●	●	
	가시개										●	●	●	●	
	가시새														
	가예			●*					●*						
	가웨				●	●									
	강애			●	●										
꼬 리	꼴대기												●	●	
	꼬랑뎡이		●						●		●	●	●	●	
	꼬래기	●*	●*												
	꼬랭기		●												
고 동 어	고망어	●*	●*			●*	●*								
	고도예	●*													
	고마이		●												
고 양 이	괴더기											●*			
	개나이														
	고내	●													
	고내기												●		
	고냉이	●	●	●				●							●
	고냥이														
	고내	●													
	고애	●	●												
	고앵이												●		
	공애	●	●												
	광이			●											
	광지												●		
	괘이					●									
	괴내기												●		
	귀앵이										●	●			

<표 2>를 통해 『조선』에서 『수정』으로 가며 수록 방언의 지역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몇 개의 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후 전수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하겠지만, ‘ㄱ’ 항의 경우 『조선』에는 주로 서울 이남 방언형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증보 과정에서 평안도나 함경도 방언형이 다수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이전에 편찬된 한국어와 외국어의 대역 사전 중에도 방언을 수록한 사전들이 있었다. 파리와방정교회의 『한불자전』(1884)과 게일의 『한영자전』(1897) 및 『한영대자전』(1931) 등이다. 『한불자전』에서는 방언 표제어에 ‘Provinc.’ 라는 약호를 붙였고 게일의 사전들에서는 ‘(Prov.)’ 라는 약호를 붙였다. 게일은 『한영자전』을 편찬할 때 『한불자전』을 참고했는데, 방언 표제어를 비교해 보면 『한불자전』에는 방언이 아닌 일반 어휘로 실려 있는 표제어에 대해 『한영자전』에서 방언 표지를 추가한 경우나 『한불자전』에 아예 실려 있지 않은 말이 『한영자전』에 방언으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안예리 2021:74-75). 문세영 자신이 서울말 화자였음을 고려할 때 『조선』 편찬 시 기존에 편찬된 이중어사전들의 방언 정보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사전학사의 관점에서 근대 이중어사전과 국어사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일본어 차용어

『조선』과 『수정』에 실린 외래어 표제어는 원어에 따라 영어 차용어와 일본어 차용어로 대분된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 차용어의 경우 『조선』에서부터 등재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어 차용어의 경우는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일본어 차용어들을 살펴보면, 초판 발행 이후 새로 유입된 말이 아니라 ‘간빠이’, ‘구쓰’, ‘기모노’ 등과 같이 20세기 초부터 일상어로 널리 쓰이던 말들이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3)은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ㄱ’ 향 일본어 차용어의 예이다.

- (3) ㄱ. 가까리 (カカリ) 名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곳. 또 그 사람. 掛. 係.
 ㄴ. 가께아시 (カケアシ) 名 구보(驅步). 駟足.
 ㄷ. 가다가끼 (カタガキ) 名 견서(肩書). 肩書.
 ㄹ. 가시끼리 (カシキリ) 名 죄다 빌어 쓰는# 것. 貸切.
 ㄹ. 가바 (カバ) 名 「커버」에서 온 말.
 ㅅ. 가에 (カヘ) 名 인쇄물 교정에서 보기 흉한 글자를 갈아 넣으라는 말.
 ㅅ. 가와세 (カハセ) 名 위체(爲替). 爲替.

- ㅇ. 간빠이 (カンバイ) 名 술잔을 들어 축복하고 그 술잔의 술을 죄다 마시는#
것. 乾杯.
- 스. 가라메루 (キャメル) 名 「캐라멜」에서 온 말.
- え. 켩깡-바라이 (ケンクワンバラヒ) 名 찾아온 사람을 문간에서 쫓아 보내는#
것. 玄關拂.
- ㄱ. 구미 (クミ) 名 ① 동아리. ② 패를 갈라서 일하는 곳. 組.
- ㅌ. 구쓰 (クツ) 名 구두. 靴.
- ㅍ. 기모노 (キモノ) 名 일본# 옷. 著物.
- ㅎ. 기모찌 (キモチ) 名 마음. 기분(氣分). 氣持.

이러한 단어들이 『조선』에 실려 있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로 인한 누락이
라기보다 편찬자의 의도적인 처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3)의 예를 보면, ‘가
께아시’, ‘가다가끼’, ‘가바’, ‘가와세’, ‘가라메루’, ‘구미’,
‘구쓰’, ‘기모찌’ 처럼 대응 한국어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
세영은 『조선』 출판 시 이러한 일본어 음역어들을 한국어 어휘로 받아들이
지 않고 대응 한자어나 영어 차용어, 고유어만 등재했었다.

반면 『조선』에서부터 실려 있던 일본어 차용어들은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
가 마땅치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4)는 『조선』에 실린 ‘ㄱ’ 향 일본어
차용어 전체를 제시한 것이다.

- (4) ㄱ. 가나 (カナ) 名 イロハ (いろは) 사십 칠# 자의 총칭. 假名.
- ㄴ. 가다루 (カタル) (カタル) 名 점막(粘膜)의 거죽에 나는 염증(炎症) 加答兒.
- ㄷ. 가루다 (カルタ) (カルタ) 名 두꺼운 종이에 물건의 형상 또는 노래의 귀절
들을 적은 작란감의 한# 가지.
- ㄹ. 가마보꼬 (カマボコ) 名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밀가루를 섞어서 찌서
굳힌 식료(食料).
- ㄴ. 가방 (カバン) 名 ① 가죽이나 쓰꾸들로 싸서 만든 상자. 여행할 때에 가지
고 다니는# 것. ② 「돈지갑」의 사투리.
- ㄷ. 가스데라 (カステラ) 名 밀가루에 달걀과 설탕들을 섞어서 만든 과자의 한#
가지. 雪麩. (Castilla)
- ㅅ. 게다 (ゲダ) 名 일본 나막신.
- ㅇ. 구루마 (クルマ) 名 ① 짐을 싣는 수레. ② 「인력거」(人力車)와 같음.
- 스. 기니네 (キニネ) 名 化 기나수의 껍질의 알칼로이드. 해열약으로 씀. 規尼
涅.
- え. 기사미 (キサミ) 名 썬 담배. 살담배.

(4)의 단어들은 당시 널리 쓰이던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는 단어들이임을 알 수 있는데, 문세영은 난무하던 일본어 단어들 중 이러한 부류만을 선별하여 국어사전에 등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전의 증보 과정에서 대응 한자어나 고유어, 혹은 영어 차용어가 존재함에도 상당수의 일본어 차용어를 추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ㄱ’ 항에 한정해 볼 때 『수정』에 실린 영어 차용어는 총 49개였는데 그중 47개가 『조선』에서부터 실려 있던 말인 반면, 『수정』에 실린 일본어 차용어 26개 중 『조선』에 실려 있던 단어는 10개뿐이었고 나머지 16개는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었다. 추후 전수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분석을 통해 볼 때에도 증보 과정에서 상당수의 일본어 차용어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앞서 살펴본 방언의 경우처럼 독자들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상어로 널리 쓰이는 일본어 차용어들이 빠져 있다는 제보가 반복적으로 들어왔다면 편찬자로서도 언중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2.3. 반복형

증보판으로 오며 해당 부류가 대폭 보완된 예로는 형용사 반복 구성이 있다. 형용사 반복 구성 중 ‘-나’를 매개로 하는 ‘머나멀다’, ‘크나크다’는 초판에서부터 실려 있었지만, ‘가깝디가깝다’ 등 ‘-디’를 매개로 한 형용사 반복 구성은 초판에는 ‘자디잘다’와 ‘잘디잘다’의 단 2개만 실려 있다가 증보 과정에서 해당 유형의 표제어가 다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몇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ㄱ. 가깝디-가깝다 ㅂ변 [까워·까운] 形 그중에서 제일 가깝다
- ㄴ. 가깝디-가깝다 ㅂ변 [벼위·벼운] 形 그중에서 제일 가깝다
- ㄷ. 거깝디-거깝다 ㅂ변 [벼위·벼운] 形 그중에서 제일 거깝다
- ㄹ. 검:디-검:다 {띠따} 形 그중에서 제일 검다
- ㅁ. 곱디-곱다 ㅂ변 [고와·고운] 形 그중에서 제일 곱다
- ㅂ. 곱디-곱다 形 그중에서 제일 곱다

ㅅ. 길:다-길:다 ㄹ변 [기니·긴] 形 그중에서 제일 길다

ㅇ. 깊다-깊다 形 그중에서 제일 깊다

본고에서는 ‘ㄱ’ 항에 해당하는 예만 보였지만, ‘-디-다’ 형의 형용사 반복 구성은 초판에는 만 수록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었다. ‘ㄱ’ 항 외의 추가 목록을 제시하면 (6)과 같다.

(6) 누르디누르다, 다디달다, 달디달다, 두겁디두겁다, 뜨겁디뜨겁다, 맑디맑다, 맵디맵다, 무겁디무겁다, 묽디묽다, 밋디밋다, 쓰디쓰다, 시디시다, 얇디얇다, 알디알다, 이쁘디이쁘다, 짜디짜다, 짜르디짜르다, 찰르디찰르다, 찰르디찰르다, 차디차다, 크디크다, 푸르디푸르다, 흐리디흐리다, 희디희다

3. 『조선어사전』의 표준어

국어사전과 표준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여러 변이형이 존재할 때 무엇을 표준으로 삼는가는 사전에서 무엇을 주표제어로 삼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전 편찬에 앞서 표준어의 사정이 이루어진 한국어의 경우, 표준어 목록은 국어사전 편찬의 주요 기준이 되었고, 국어사전은 표준어 확산의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표준어 사정 결과를 담은 조선어학회의 「표준말」과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목록을 비교하는 것은 표준어와 국어사전의 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편찬 과정에서 문세영은 조선어학회의 어문 규정을 적극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은 1938년 7월 10일에 발행되었지만 ‘지은이 말씀’을 보면 탈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1936년 10월 28일이었다. 그런데 탈고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조선어학회의 「표준말」이 발행되었다. 이후의 회고담에 따르면 문세영은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 결과에 따라 탈고했던 원고를 여러 차례 수정하였고 결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야 초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또한 문세영 자신도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조선』의 집필 과정에서 조선어학회의 이운재와 한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조선』은 「표준말」의 표준어를 충실히 반영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로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

왔다.

「표준말」의 본문은 크게 ‘같은말(同義語)’과 ‘비슷한말(近似語)’로 나뉘는데, 일러두기에 따르면 “같은말은 그 여럿 가운데에서 표준말 하나를 가려잡았고, 비슷한말은 제각기의 獨特한 뜻을 밝혀서, 각각 獨立한 표준말로 認定하였다.” 즉, ‘같은말’ 부분에서는 어느 하나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표준어로 정하였고, ‘비슷한말’ 부분에서는 각각을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구별지은 것이다. (7)은 「표준말」에 실린 ‘같은말’ (7ㄱ)과 ‘비슷한말’ (7ㄴ)의 예이다.

(7) ㄱ. ㄱ과 ㄴ의 通用

【ㄱ을 취함】

가스랑이 (名) 小刺

까스랑이

까스렁이

까치랑이

까치렁이

ㄴ. 강밥 물안만밥

된밥 硬飯

(7ㄱ)은 초성의 ‘ㄱ’ 형과 ‘ㄴ’ 형이 통용되는 단어들 중 ‘ㄱ’ 형인 ‘가스랑이’를 표준어로 선정한 경우이고, (7ㄴ)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강밥’과 ‘된밥’의 의미를 전자는 물을 말지 않고 먹는 밥으로, 후자는 조리 과정에서 되게 지어진 밥으로 구별하여 규정한 경우이다. 문세영은 사전 편찬 과정에서 이러한 표준어 목록을 참고했다고 하였는데, (7)의 예에 해당하는 표제어들이 『수정』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보이면 (8)과 같다.

(8) ㄱ. 가스랑이 名 「가스랭이」에 보라

까스랑이

까스렁이 名 「까스랭이」에 보라

까치랑이

까치렁이 名 「까치랭이」에 보라

ㄱ’. 가스랭이 名 ① 작은 가시 ② 벼·보리들 이삭 끝에 달린 뾰뾰하고 짙갈한 털 같은# 것. 가스랭이. 까치랭이.

까치랭이 名 「가스랭이」와 같음.

ㄴ. 강밥 名 ① 강다짐으로 먹는 밥. ② 「눌은밥」의 사투리.

된밥 名 ① 질지 않고 되게 지은 밥. ② 국이나 물에 말지 아니한 밥.

(8ㄱ)을 보면 「표준말」에서 ‘가스랑이’를 표준어로 선정한 것과 달리 문세영은 이를 ‘가스랭이’의 오류형으로 보아 가표제어로 처리했고, (8ㄴ)와 같이 「표준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가스랭이’를 주표제어로 삼았다. (8ㄴ)을 보면 문세영이 ‘강밥’과 ‘된밥’을 풀이하며 ①의 뜻에서는 「표준말」의 규정대로 의미를 구별하되 ②의 뜻을 추가하여 ‘된밥’이 국이나 물에 말지 않은 즉, 강다짐으로 먹는 밥이라는 ‘강밥’의 뜻으로도 쓰인다고 밝혀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리는 주된 의미를 통해 규범의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차적인 의미로서 당대의 언어 현실에서 두 단어가 뒤섞여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세영은 조선어학회에서 선정한 표준어의 목록을 사전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수정』의 ‘ㄱ’항 표제어를 중심으로 「표준말」의 표준어 목록과 『수정』의 주표제어 목록의 일치 정도를 분석해 보고 차이가 있는 경우 주로 어떤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은 「표준말」과 『수정』의 ‘ㄱ’항 표제어 등재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표 3> 「표준말」의 표준어 중 ‘ㄱ’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수정』 등재 양상

표준어		빈도	%
주표제어		338	79.0
가표제어	~와 같음	30	7.0
	~에 보라	23	5.4
	~의 사투리	4	0.9
	~의 속어	1	0.2
	~의 준말	10	2.3
미등재		22	5.1
합계		428	100

<표 3>에 따르면 ‘ㄱ’으로 시작되는 표준어 목록이 『수정』에 주표제어로 실린 비율은 79.0%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나머지의 경우 표준어가 주표제어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 그중 표준어가 가표제어로 실린 경우는 15.8%였는데 주표제어와 의미는 동일하지만 비표준형임을 뜻하는 ‘~와 같음’으로 풀이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종의 오류형으로서 ‘~에 보라’로 처리된 경

우가 그다음이었다. 그 외 준말이나 사투리, 속어로 기술되기도 했고, 아예 표제어 목록에 속하지 못한 경우도 5.1%였다. 이어지는 각 절에서는 표준어가 주표제어로 실린 경우와 가표제어로 실린 경우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3.1. 표준어가 주표제어로 실린 경우

아래 예에서 ‘㉠’은 「표준말」의 표준어를, ‘㉡’은 「표준말」의 비표준어를 나타내며, 해당 표지 뒤에 『수정』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보였다⁹⁾.

- (9) ㉠. ㉠ 곳 名 ① 처소 위치 ② 땅 시골 ③ 거쳐하는 장소 있는 자리 ④ 가리치는 방향
 ㉡ 곧 名 「곳」에 보라 處
- ㉠. ㉠ 감기 (感氣) 名 의 추위가 피부를 엄습하여 오한·두통이 나는 병 고뿔 感崇
 ㉡ 강기 名 醫 「감기」(感氣)에 보라
- ㉠. ㉠ 거느리다 他 ① 앞에 데리고 있다. ② 끌고 가지 가다. 率.
 ㉡ 거나리다 他 「거느리다」의 옛말
- ㉠. ㉠ 기지개 名 몸이 고단할 때에 팔·다리를 펴는# 것 欠伸
 ㉡ 지지개 名 「기지개」의 사투리
- ㉠. ㉠ 갈빗대 名 사람 또는 동물의 가슴을 형성하는 뼈 곧 등골뼈에서 가슴 한복판으로 굽은 좌우 열두# 쌍으로# 된 뼈. 肋骨.
 ㉡ 가릿대 名 「갈빗대」와 같음.
- ㉠. ㉠ 거르다 르변 [걸러·거른] 他 체 기타 물건의 구멍을 통하여 찌끼는 남기고 알천만 뽑아내다. 바치다.
 ㉡ 걸르다 르변 [걸러·걸른] 他 「거르다」와 같음.

(9ㄱ)과 (9ㄴ)을 보면, 표준어에 해당하는 ‘곳’과 ‘감기’는 『수정』에서 온전히 뜻풀이가 되어 있지만 ‘곧’과 ‘강기’는 ‘~에 보라’로 가표제어로 제시되었다. 『수정』의 일러두기에서 ‘~에 보라’로 풀이된 말들이 발음을 잘못된 말이나 철자를 잘못 쓴 말들이라고 한 것처럼, ‘곧’은 ‘곳’의 철자를 잘못 쓴 말에, ‘강기’는 ‘감기’를 잘못 발음한 말에 해당된다. (9ㄷ)과 (9ㄹ)의 ‘거나리다’와 ‘지지개’는 각각 ‘거느리다’와 옛말

9) 이하 다른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 ‘기지개’의 사투리로 기술되었다.

한편, <표 1>에서 「표준말」의 표준어가 『수정』의 ‘ㄱ’항에서 주표제어로 등재된 338건 중 107건은 (9口), (9日)과 같이 비표준어가 ‘~와 같음’으로 표준어의 같은 말로 실린 경우였다. 일러두기에서 문세영은 같은 뜻을 가진 여러 말 중에 표준이 될 만한 말에 주해를 달고 다른 말들은 그것과 「같음」이라고만 적었다고 하였다. 즉, ‘~와 같음’으로 풀이된 가표제어는 ‘~에 보라’로 풀이된 말들처럼 오류형은 아니나 비표준어로서 등재된 것이다.

또한 338건 중 26건에 불과하지만 문세영이 「표준말」의 표준어를 주표제어로 등재하면서 비표준어에 대해서도 주표제어 자격을 준 경우도 있었다.

(10) ㄱ. ㉠ 금불이 {부치} 名 황금으로 만든 물건의 총칭.

㉡ 금속 (金屬) 名 化 금속원소(金屬元素) 및 그 화합물. 쇠불이.

ㄴ. ㉠ 강샘 名 ① 투기하는# 것. ② 남의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하다 自]

㉡ 강짜 名 강샘하는# 것. 또 그# 사람.

ㄷ. ㉠ 거꾸로 副 ① 위가 아래로 앞이 뒤로 되는 모양. ② 사물이 그 자리를 바꾸어 아주 딴# 것이 되는 모양. ③ 도리어.

㉡ 꺼꾸로 副 「거꾸로」를 힘있게 쓰는# 말.

(10ㄱ)의 ‘금속’은 「표준말」에서는 ‘금불이’의 비표준어로 규정되었지만 문세영은 두 단어의 뜻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별도의 표제어로 풀이하였다. (10ㄴ)의 비표준어 ‘강짜’는 『조선』에서는 “名 「강샘」과 같음. [하다 自]”로 풀이되어 표준어인 ‘강샘’의 동의어로 기술되었지만 『수정』으로 오며 ‘강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추가되어 가표제어가 아닌 주표제어의 자격을 얻었다. (10ㄷ)의 ‘꺼꾸로’는 「표준말」에서 ‘거꾸루, 꺼꾸루’와 함께 ‘거꾸로’의 비표준어로 제시되었지만 문세영은 ‘거꾸루’와 ‘꺼꾸루’는 오류형으로 보면서도 ‘꺼꾸로’에는 주표제어의 자격을 주며 잘못된 발음이 아니라 ‘거꾸로’를 힘있게 쓰는 말이라고 하였다.

「표준말」에 대한 이견은 단어 개개의 실제 쓰임에 대한 판단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특정 음운 현상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한 측면도 있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말」에서 ‘금불이’는 ‘금주조물(金鑄造物)’의 뜻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당시 자료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일반적인 금속을 녹여 만든 물건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의 뜻으로 쓰였다. 문

세영은 「표준말」의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금불이’와 ‘금속’을 표준어와 비표준어 관계로 보지 않고 각각의 실제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또한 「표준말」은 ‘강짜’를 ‘강샘’의 비표준어라고 하였지만, 당시 문헌에서 ‘강샘’의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강짜’의 예는 다수 확인된다. 『수정』에서 ‘강짜’를 별도의 주표제어로 본 것은 이러한 언어 현실을 의식한 처리로 생각된다.

하지만 ‘꺼꾸로’의 경우 개별 단어 차원이 아니라 평음과 경음의 대치와 관련해 문세영이 「표준말」과 다른 견해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수정』에서 ‘꺼꾸로’는 ‘거꾸로’를 힘있게 쓰는 말로 풀이되었는데, 이는 동작의 크기나 상태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이를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가 하는 발화 태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11)은 『수정』의 ‘ㄱ’항에서 뜻풀이에 ‘힘있게 쓰는 말’이라는 메타술어가 사용된 표제어를 모두 뽑은 것이다.

(11) 까딱거리다 自 「까딱거리다」를 힘있게 쓰는 말.

깜빡깜빡 副 「깜박깜박」을 힘있게 쓰는 말.

깜작거리다 自 他 ① 쉬지 않고 놀다. ② 「깜작거리다」를 힘있게 쓰는 말.

깜작이다 他 「깜작이다」를 힘있게 쓰는 말.

깡뚱깡뚱 副 「깡뚱깡뚱」을 힘있게 쓰는 말. 깡창깡창. 깡충깡충.

깡뚱하다 여변 [하여·한] 形 「깡뚱하다」를 힘있게 쓰는 말.

까웃거리다 他 「까웃거리다」를 힘있게 쓰는 말.

꺼꾸러지다 自 「거꾸러지다」를 힘있게 쓰는 말.

꺼불거리다 他 「거불거리다」를 힘있게 쓰는 말.

꺼불꺼불 副 「거불거불」을 힘있게 쓰는 말.

건뚫건뚫 副 「건뚫건뚫」을 힘있게 쓰는 말.

『수정』의 기술에 따르면 ‘까딱거리다’는 ‘가만가만 흔들거리다.’의 뜻인데 이를 ‘까딱거리다’라고 쓴다고 해서 흔들리는 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단지 말할 때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수정』에서 강도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뜩하다’를 ‘「가득하다」보다 정도가 강할 때에 쓰는 말’이라고 풀이한 것처럼 정도가 강하다든지 정도가 심하다든지 정도가 굵다든지 소리가 크다든지 등 의미 차이를 나타내

는 메타술어를 사용하였다. 「표준말」에서는 평음과 경음의 교체로 인해 동작의 크기나 상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각각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는 「표준말」의 ‘비슷한 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표준어가 가표제어로 실린 경우

「표준말」의 표준어가 『수정』에서 주표제어의 자격을 얻지 못한 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확인된다. 먼저 움라우트 현상의 반영 여부에 대한 「표준말」과 『수정』의 차이가 있었는데, (12ㄱ)은 「표준말」에서 움라우트 미실현형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수정』에서는 실현형을 주표제어로 삼은 경우, (12ㄴ)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12) ㄱ. ㅁ. 고장이 名 「고쟁이」에 보라.

ㅂ. 가스랑이 名 「가스랭이」에 보라.

ㄴ. ㅁ. 글쟁이 名 「글정이」에 보라.

「표준말」에서는 ‘고장이’, ‘가스랑이’ 등 미실현형이 표준어로 지정된 반면 『수정』에서는 ‘고쟁이’, ‘가스랭이’와 같이 실현형이 주표제어로 실리기도 했고, 반대로 「표준말」에서는 ‘글쟁이’를 표준어로 삼았지만 『수정』에서는 ‘글정이’를 주표제어로 등재했다.

20세기 초 서울말에서는 ‘이’ 모음 역행동화가 매우 생산적이었고 동화의 습관이 강했기 때문에 맞춤법 제정 및 표준어 사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최전승 2020:388).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이러한 원칙은 표준어를 선정할 때에도 유지되었지만 표준어 심의 과정에는 서울 특유의 발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볼 때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말들을 걸러내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도 출생 위원들이 각 단어의 표준어 여부에 대해 일차 판결을 내리지만, 각 도의 인구에 비례해 구성된 지방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단어가 쓰이는 지역을 조사하고 전체 위원의 표결로 표준어를 결정한 것이다. ‘가랑이’와 ‘가랭이’ 중 ‘가랑이’가, ‘가자미’와 ‘가재미¹⁰⁾’ 중 ‘가자미’가, ‘곰팡이’와 ‘곰팽이’ 중 ‘곰팡이’가, ‘고장

이’와 ‘고쟁이’ 중 ‘고장이’가 표준어로 선정된 것은 전국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서울 특유의 발음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에서 통용되는 발음을 표준어에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깍대기, 꼭대기, 가난뱅이, 갈매기’ 등 일부 움라우트 실현형을 표준어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표준말」에서 ‘ㅏ’와 ‘ㅑ’의 통용에 대한 부분(pp.11-12)을 살펴보면 ‘ㅏ’형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가 34건, ‘ㅑ’형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가 31건이었다. 이는 개재자음이 [-설정성]에 속하고 그 쓰임이 오래되어 동화의 정도가 매우 강해 어법에 일치되는 발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최전승 2020:28). 『수정』에서도 「표준말」에서 제시한 움라우트 비실현형 표준어가 주표제어로 반영된 경우가 많았지만 (12)와 같이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가스랭이’나 ‘고쟁이’가 ‘가스랑이’나 ‘고장이’에 비해 더 널리 쓰인다는 문세영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표준말」과 『수정』의 처리가 불일치한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13ㄱ)은 「표준말」에서는 고모음 ‘ㅓ’가 쓰인 형을 표준어로 선택한 반면 『수정』에서는 저모음 ‘ㅘ’이 쓰인 형을 주표제어로 선택한 경우이고, (13ㄴ)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13) ㄱ. ㉡ 구나 感 「고나」와 같음.

㉡ 고두리 名 「고도리」에 보라.

ㄴ. ㉡ 고동 名 「고동」에 보라.

‘ㅘ>ㅓ’의 고모음화 현상은 20세기 초 서울말을 비롯한 중부 방언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로 인해 ‘ㅘ’와 ‘ㅓ’가 통용되는 표기가 널리 나타났다. 「표준말」에서 ‘ㅘ’와 ‘ㅓ’의 통용에 대한 부분(pp.22-26)을 살펴보면 ‘ㅘ’를 취한 경우가 47건, ‘ㅓ’를 취한 경우가 104건으로 고모음형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표준어 사정 위원들 간에 해당 고모음 실현형이 중부 방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통용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그럼에도 문세영은 「표준말」에서 표준어로 인정한 어미 ‘-구나’ 대신 ‘-고나’를, 고등어의 새끼를 나타내는 ‘고두리’

10) 당시 서울말에서는 움라우트를 억제하는 개재자음의 제약을 극복한 발음도 널리 나타났다.

대신 ‘고도리’를 주표제어로 삼았다.

20세기 초 서울말에서는 ‘ㄱ>一’의 고모음화도 널리 실현돼 ‘없다’를 ‘웁다’로, ‘-더라’를 ‘-드라’로 발음하는 일이 많았는데 「표준말」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체로 ‘ㄱ’형을 표준어로 삼았다. ‘ㄱ’와 ‘一’의 통용 예를 다룬 「표준말」 p.19에서는 ‘ㄱ’형이 표준어인 경우가 11건, ‘一’형이 표준어인 경우가 3건이었다. 고모음형을 표준어로 삼은 예는 어미 ‘-거든’과 ‘-든지’, 그리고 부사 ‘푸뜩푸뜩’이었는데 해당 경우 『수정』에서도 ‘一’형을 주표제어로 삼았다.

『수정』에서도 ‘ㄱ>一’의 고모음화와 관련해서는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 결과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는데, 유독 접미사 ‘-뜨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표준말」의 ‘ㄱ’와 ‘一’의 통용 부분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고 ‘ㄷ’과 ‘ㅌ’의 통용 예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조선어학회는 ‘깨뜨리다’, ‘떨어뜨리다’와 같이 접미사 ‘-뜨리-’가 쓰인 경우를 표준어로 제시하였으나 『수정』에서는 해당 단어들을 ‘깨떠리다’, ‘떨어떠리다’ 등 ‘-떠리-’의 파생어의 오류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ㄱ’항 표제어뿐 아니라 사전 표제어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13) ㉮ 구부러뜨리다 他 「구부러떠리다」에 보라

㉮ 깨뜨리다 他 「깨떠리다」에 보라

㉮ 끊어뜨리다 他 「끊어떠리다」에 보라.

㉮ 넘어뜨리다 他 「넘어떠리다」에 보라

㉮ 떨어뜨리다 他 「떨어떠리다」에 보라

㉮ 터뜨리다 他 「터떠리다」에 보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표준말」과 달리 『수정』에서 품사 통용어에 대해 품사별로 표기를 다르게 설정한 경우이다. ‘ㄱ’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같이’인데, (14ㄱ)은 「표준말」의 기술, (14ㄴ)과 (14ㄴ')는 『수정』의 기술을 보여준다.

(14) ㄱ. 같이 (副) 如, 共

같이

- ㄴ. 가치 副 함께. 한가지로. 서로.
같이 {가치} 副 「가치」에 보라.
- ㄴ'. 같이 {가치} 助 사물을 비교할 때에 쓰는 토.
가치 助 「같이」에 보라. 如.

「표준말」에서는 ‘如’의 의미로 쓰일 때나 ‘共’의 의미로 쓰일 때나 표준형을 ‘같이’로 선정하였다. 「표준말」에서는 두 경우 모두 품사를 ‘副’로 표시하였지만, 『수정』에서는 ‘共’의 의미는 부사로, ‘如’의 의미는 조사로 나누고 그 형태 역시 부사일 때는 ‘가치’로, 조사일 때는 ‘같이’로 구별하여 쓰도록 했다. 『수정』 전반에 걸쳐 품사 통용어나 다의어 등에 대해 의미나 기능에 따라 표기를 구별하고자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결론

지금까지 문세영의 『조선』과 『수정』을 대상으로 증보 과정에서의 변화와 「표준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증보판으로 오며 달라진 점 중 이 발표에서는 『수정』에 실린 방언과 일본어 음역 차용어, 그리고 반복형 형용사의 대부분이 증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증보 과정에서는 그 밖에도 표제어의 형태나 음장, 뜻풀이 등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면 관계상 논의하지 못했다. 또한 이 발표에서는 『수정』의 표제어 목록과 「표준말」의 표준어 목록을 비교하여 문세영이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 결과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는 했지만 당시 서울말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움라우트나 고모음화 등 특정 음운 현상과 관련해서 「표준말」과 다른 판단을 보인 경우가 있었고, 「표준말」에서 비표준어로 제시한 단어가 표준어와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고 판단된 경우 그 의미를 가려서 별도의 표제어로 삼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표는 『조선』과 『수정』 전문을 입력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계량화된 분석 결과를 통해 사전 전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ㄱ’항 표제어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추후 표제어 전체를 검토했을 때 수정되어야 할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발표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최초의 국어사전이 편찬되기 전에 간행되었던 한영 이중어사전이나 한일 이중어사전 등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민지(2011),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7, 역락, 199-217.
- 문한중(1994), 「청람 문세영의 사전편찬 意義 考」,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11), 「『조선어사전』 저자 문세영 연구」, 『史叢』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7-102.
- 박용규(2011a),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9-300.
- 박용규(2011b), 「조선어사전 저자 문세영 연구」, 『사충』 7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77-102.
- 박용규(2011c), 「이희승의 문세영 《조선어사전》 비판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427-453.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신영철(1938), 「文世榮先生 지은 朝鮮語 辭典」, 『한글』 61, 한글학회, 12-15.
- 신하영(2013), 「20세기 초 서울 방언의 고모음화와 모음 합류에 대한 고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을 중심으로」, 『어문학』 121, 한국어문학회, 1-25.
- 안예리(2020), 「1930년대 사전의 외래어 수용 양상: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과 『조선어사전』(1938)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관점』 5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7-34.
- 안예리(2021), 「근대 한국어와 게일의 한영사전」, 『기독교사상』 754, 대한기독교서회, 64-105.
- 야스다 도시아키(2020),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한국학연구』 5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33.
- 오구라 신페이 저, 이상규·이순형 교역(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 이병근(1986),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8-35.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희승(1992), 「人間 李允宰: 人物 評傳」, 『10월의 문화인물』, 국립국어연구

원, 9-14.

정희창(2015), 「표준어의 성립과 변화: “표준말 모음(1936)”에서 “표준국어대사전(1999)”까지」,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연구, 305-332.

정희창(2018), 「표준어 어휘 항목의 수립과 전개 과정: 국어사전 일치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6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99-134.

조재수(1984), 『국어사전 편찬론』, 과학사.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최전승(2001), 「1930년대 표준어의 선정과 수용 과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36, 국어문학회, 235-311.

최전승(2020), 『근대국어 방언사 탐구』, 역락.

황용주(2014),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전학회, 111-139.

황용주(2016), 「《朝鮮語辭典》의 편찬과 현대 한국어문학: 《朝鮮語辭典》의 출판 이력과 사전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 42, 반교어문학회, 99-132.

‘최초의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에 대한 토론문

이준환(전남대학교)

안 선생님의 이 글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초판과 수정증보판을 비교하여 『조선어사전』에 실린 어휘의 성격을 당대적 맥락에서 표준어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전에 편찬된 이중어사전과의 관계도 고려해 가면서 집필된 것으로, 『조선어사전』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이기 이전에 독자로서 『조선어사전』의 틀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한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로서 어떤 자세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자극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하오니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선어사전』이 편찬될 무렵의 국어의 현실을 표준화와 규범화가 진행되었으나 외래 신어의 급증으로 어휘적 혼란이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고, 이런 어휘적 혼란을 『조선어사전』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는 한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어사전』의 「지은이 말씀」이나 「일러두기」를 보면 이 사전이 당시의 국어가 어휘적 혼란을 겪었기에 정돈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편찬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선어사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로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문세영은 「지은이 말씀」에서 사전의 역할을 “말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글을 닦는데 가장 요긴한 곳집이 되는 것”으로 보고, “평일에 모아 두었던 어휘로 밑천을 삼고 그 위에 널리 고금을 통하여 많은 문헌에서 조선말과 인연이 있는 어휘를 두루 뽑아 한 체계를 세워 이 조선어사전을 만들기로 스스로 맹서하였습니다.”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두기」에서 “순전한 조선말과 이두는 물론이요 한문으로 된 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온 말 및 학술상 용어를 ㄱㄴㄷ의 차례로 벌려 놓고 이에 대하여 낱낱이 우리

말로 알기 쉽게 주해한것입니다.”, “각 지방의 사투리도 될수있는대로 많이 수용하여 표준말과 비교하여 놓았습니다.” 에서 보듯이 당시 조선어의 현실을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는 태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해의 표준은 서울 중류계급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준으로 삼아 주해를 붙였습니다.” 와 같이 메타언어의 구사에는 표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세영은 당시 국어가 처한 현실을 혼란으로 보기보다는 시간, 지역, 외래어 등을 주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국어 어휘를 표준적인 메타언어를 설정하고 이용하여 기술하여 국어에 대한 훌륭한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두까지도 기술 대상으로 삼아 실어 놓은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국어가 보였던 다양성을 사전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어의 제시에서는 “한문 글자는 꼭 강희자전의 바른 획만을 좇지 않고 편의상 통속적으로 널리 쓰는 글자도 인용하였습니다.”, “한문 글자의 음도 꼭 옥편의 음만 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쓰는 음을 취하였습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의 자형과 한자음을 규범적인 처리로 일관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대로 반영하고자 한 태도가 나타나 표제어가 되는 것에는 규범적인 인식을 그리 드러내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수정증보에서도 ㄱ으로 시작하는 표제어를 대상으로 할 때 방언이 무려 36.5%가 늘어나고 영어 차용어와 일본어 차용어가 많이 늘어난 것도 당시 국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의 어종의 분포를 충실히 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문세영이 『조선어사전』 편찬에 조선어학회의 어문 규정을 적극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그대도 반영하지만은 않은 것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조선어사전』의 초판과 수정증보판을 보면 방언의 반영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일러두기」에서 순전한 조선말을 잘 알아야 하고, 「지은이 말씀」에서 사전이 글을 닦는데 요긴한 존재임을 제시한 것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술은 국어가 구어에서 지역별로 다양성이

크다는 현실과 글을 닮는 데에는 방언과 표준어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어 구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어 사용에서 도움을 줄 학습을 수월하게 하고자 한 동기가 이 사전 편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발표자께서도 『한불사전』이나 게일의 『한영사전』에서 방언을 두루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게일이 『한영사전』을 만들 때에 이창직과 함께 조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구어의 편차와 다양성이 크고 이를 통일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뜻풀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한양의 신뢰할 만한 화자들이 구사할 법한 양상이 드러나는 문장들과 비교해 보는 일이었다. 이것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기준이 되어 왔다.”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은 표제어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 쓰는 메타언어에서부터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표제어도 중요하지만 정의문 속에서 메타언어로 쓰인 용어들이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결국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이 규범적인 태도 지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표 3>에서 제시한 수정증보판에 실린 어휘들의 처리에서 ‘~의 사투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가표제어로 판단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와 같음.’, ‘~의 속어’, ‘~의 준말’의 형식으로 제시된 것도 그렇습니다. 가표제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제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 가표제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여 보아도 발표자께서 가표제어로 분류한 것 중에는 일반 표제어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부표제어는 따로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주표제어가 제시되어 있어서, 주표제어, 가표제어, 부표제어 사이의 관계 설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손수 구축해 가며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충실히 수행하

고 계시는 선생님의 한없는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소기의 발전이 있으시길 빌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소년’-‘청소년’의 개념과 의미 분화

이성우(한림대학교)

차례

1. 서론
2. ‘소년’, ‘청년’의 등장과 그 쓰임
3. ‘소년’, ‘청년’의 의미 변화와 ‘청소년’의 등장
4. ‘소년’, ‘청년’, ‘청소년’의 현대적 의미
5. 결론

1. 서론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소년’의 뜻을 검색하면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말샘>의 결과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1) 가. 소년 「001」 「명사」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나. 소년 「002」 「명사」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다. 소년 「003」 「명사」 『법률』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라. 소년 「004」 「명사」 『문학』 1908년 11월에 최남선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월간지. 서양 문물의 소개, 과학 지식의 도입과 계몽주의, 애국 사상의 고취 따위에 힘썼으며, 신문학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1911년 5월에 2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 중 (1가, 라)만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다. 단, <우리말샘>의 뜻을 존중했을 때, ‘소년’의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사내아이’이면서, ‘(성별 구분 없이) 젊은 나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소년’의 가장 주된 의미는 (1가)일 것으로 생각되나, (1나-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하는 부분은 (1나)인데, (1나)는

‘청년’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 청년 「001」 「명사」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나. 청년 「002」 「명사」 성인 남자.

(2)에 제시된 ‘청년’의 뜻풀이는 <우리말샘>에서 가져온 것이다. (2)에 제시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혹은 ‘성년’이라는 정보는 (1나)의 ‘젊은’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의미는 ‘소년’의 의미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년’보다는 ‘소년’이 더 어린 계층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의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뜻풀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3) 가. 청-소년 「001」 「명사」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나. 청-소년 「002」 「명사」 『법률』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

다. 청-소년 「003」 「명사」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은 <우리말샘>의 뜻풀이로, 이 중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3가)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청년’과 ‘소년’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본 셈으로, 어쩌면 실제로는 ‘청·소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뜻풀이는 ‘소년’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청년’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우리말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 분야의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고려하면, ‘소년’과 ‘청소년’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1다)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지칭하는데, (3다)의 ‘청소년’ 또한 ‘19세 미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3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 또한 ‘청년’의 뜻풀이 정보 ‘젊은’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년’, ‘청년’, ‘청소년’의 사전적 정보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직관으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소년’, ‘청년’, ‘청소년’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이 차지하는 의미 영역이

잘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즉, 보수적인 사전의 성격에 따라 ‘소년’, ‘청년’, ‘청소년’의 뜻풀이 정보가 예전의 쓰임을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현재는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가 달라져서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 영역이 잘 분화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¹⁾

이러한 가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

- (4) 가. ‘소년’, ‘청년’, ‘청소년’은 언제 등장하여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나. ‘소년’, ‘청년’, ‘청소년’은 어떻게 의미가 변화하였는가?
 다. ‘소년’, ‘청년’, ‘청소년’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보통 보수적이므로, ‘소년’, ‘청년’, ‘청소년’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의 뜻풀이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글의 가정대로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가 변한 것이라면, ‘소년’, ‘청년’, ‘청소년’의 등장 시기와 그 시기의 의미를 다룰 필요가 있다(4가). 그와 함께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 변화 과정도 논의해야 한다(4나). 각각은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소년’, ‘청년’, ‘청소년’의 현재 의미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4장에서 탐구하기로 한다. 그리고 5장은 결론으로 이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소년’, ‘청년’의 등장과 그 쓰임²⁾

이 장에서는 ‘소년’, ‘청년’이라는 어휘가 언제 등장하여 어떻게 쓰였는지 그 의미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최초 등장 시기와 그 의미를 파악해야 의미 변화 과정 및 현대의 쓰임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1)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 국어학계에서 다룬 바가 거의 없다. 국문학계, 역사학계나 철학계, 교육학계에서 살펴본 논의만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김대용 2010, 송인재 2010, 최성민 2012, 송인재 2022). 주로 개화기-일제 강점기 시기 자료나 언급을 바탕으로 ‘소년’, ‘청년’의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 과정을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 학문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아직 ‘청소년’의 개념사,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국어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서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흥미롭게도 ‘소년’, ‘청년’은 국어사 자료에서 비교적 쉽게 확인되나, ‘청소년’이라는 어휘는 국어사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 한국어 시기에 생성된 어휘로 생각된다. 물론 ‘청년’과 ‘소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해볼 것이다.

‘소년’에 대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 (4) 가. 모던 소년들히 닐오디 세 도즈기 이런 어던 형 두물 아니 너교라 호
고 <1579 삼강_동경 효 :27ㄱ-ㄴ>
나. 이에 갓가이 잇는 소년을 다 모도니 약이라 <1758 종덕 하:64ㄴ>
다. 악공이 나히 소년으로 이제 작위 우히 오르니 <1760 무목 10:14ㄴ>
라. 평양부의 엇던 큰 부즈의 집 외아달로 소년브터 주식만탐호야 <1913
눈물 844>
마. 오직 소년 과부는 버릴 거시 만약 샤치호면 <1887 성전:553>
바. 기중 소년 낭지 가장 감탄호여 비문을 즈청호여 짓고 <1858 월봉
2:22ㄱ>
사. 소년남자호나히 식벽빔을씩이고 홀로 오르락너리락호며 <1913 비파성
129>

(4)는 국어사 자료에서 ‘소년’을 검색한 것인데, 이러한 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소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린/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4가-나). 둘째는 ‘어린/젊은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다(4다-라). 첫째 의미는 관형사적인 용법으로도 쓰였던 것으로도 추정되는데, 이는 (4마-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4마-사)에서 ‘소년’은 ‘과부’, ‘낭자’, ‘남자’를 한정하여 ‘젊은/어린’의 의미를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소년’의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과부’나 ‘낭자’를 수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론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다음의 자료를 고려하면, 당대 언중들이 ‘소년’의 나이를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 (5) 가. 맞지 안는 관망을 쓰고 이십전 소년에 테슈에 다굴안만호 늙은이의복
을 입어노앗스니 <1908 빈상설 692>
나. 그 소년의 나은 이십 스오 세 가량시오 <1908 설중매 09>
다. 이삼십세 된 소년도 만코 <1902 신월 2:122>
라. 후의 공을 나호니 명을 괴라 호고 소년의 발달호여 십삼륙 세의 정
승 호니라後生公遂名琦 少年穎發二十入中秘三十六部點相位 <1852 태
상 1:23ㄴ>
마 그 소년이 분이 상토쫓까지 올나서 <1911 치악산 하 22>

(5)의 예문을 살펴보면, ‘소년’의 연령대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5가)를 고려했을 때, 20세 전의 사람을 ‘소년’이라고 지칭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후의 나이대의 사람에게도 ‘소년’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5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³⁾ 특히 (5다)를 주목할 만 한데, 30세의 나이의 사람이 ‘소년’의 범위 안에 들어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대가 모두 ‘소년’의 범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5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5라)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36세는 소년의 범위 밖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5마)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투를 튼 성인 또한 소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역사적으로 ‘소년’이 가리키는 연령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0대부터 30대 이전 나이대를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현대 한국어의 ‘소년’과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연령 범위는 ‘청년’과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20세기 이전 자료에서 ‘청년’은 어떠한 의미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6) 가. 적벽의 웅녘을 썬쳐시니 청년의 준성이 잇도다(赤壁遣雄烈 青年有俊聲) <1871 삼국지 10:114-115>

나. 청년[靑年] <1880 한불사전:588>

20세기 이전 자료에서 ‘청년’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청년’을 일본어에서 온 한자어로 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⁴⁾ 또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의 의미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다만 (6가)의 예를 고려했을 때, ‘청년’은 30대 초중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⁵⁾

3) 20대를 ‘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예 하나만을 들어보기로 한다(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

(1) 임사홍은 재상의 아들로서 소년(少年)으로 과거에 올라(士洪以宰相子, 少年登第)

위의 ‘임사홍’은 ‘연산군’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서, 흔히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임사홍은 1445년에 태어나 1465-1466년에 과거 시험에 통과하였는데(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이는 21살-22살에 과거시험에 급제했음을 의미한 것이다. 즉, <조선왕조실록>에서는 20대 초반의 나이 또한 ‘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었던 셈이다.

4) 이한섭(2022)를 따르면 ‘청년’은 일본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성민(2012: 229)에서는 ‘청년’이 일본에서 1880년 무렵 등장하였다고 밝힌다.

5) (6가)의 ‘청년’은 ‘주유’를 가리킨다. ‘주유(175-210)’가 적벽대전(208년)에서 조조를 맞아 싸울 때의 나이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이므로, ‘청년’은 그 나이를 의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특히 20세기 전기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의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년’을 국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으로 파악하였다고 한다(최성민 2012: 230). 하지만 20세기 극 초기에 생산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의 초기 의미는 다양하게 파악된다.

(7) 가. 이십안팎 청년 시딕라 흘것시오 <1914 금강문35>

나. 이십오세 가량이나 되여 보히는 청년 남즈이라 <1914 금국화009>

다. 이팔 청년 녀즈몐이 함부로 정쳐업시 나실슈도 업는터이라 <1908 한월 하 25>

라. 나희가 늙어도 그 모양은 청년 시딕와 갓흐니라 <1912 비행선 123>

마. 식문밖 닝동 스는 셔츄셔의 누의로 청년에 과부가 되어 <1911 목단화 15>

바. 옷독섯는스름은 일기 청년 녀학실이더라 <1912 추월색3>

사. 녀학교는 설립흐야 청년녀즈들이는 가라치며 오는 세월을 보느리라
흐고 <1912 추월색211>

아. 장츠 청년들을 그르쳐 인재를 비양흐자는 뜻도 합흐되 <1904 신월 4:446-447>

자. 이 청년들의 공부흐는 목적은 학상에 문명흐이 만스에 웃듬이 되며
<1902 신월 2:250>

차.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직금이 일할 새이올시다 <1904 신월 4:23>

먼저 (7가-라)의 경우, 당대 사람들이 ‘청년’의 연대를 대략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예문이다. 구체적으로 (7가-다)에서 드러나는데, ‘이팔’, ‘이십 안팎’, ‘이십 오세’와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10대 후반에서 20세 중반까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계선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7라)를 통해 ‘늙다’의 반대되는 어휘로 ‘청년’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청년의 의미가 ‘젊다’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청년’의 의미에는 나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7마 참고)

(7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은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이로 인해 성별을 가리키는 어휘와 결합하여 ‘청년’의 성별을 드러내었다. 이는 (7나, 마-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년’을 ‘나라의 인재’, ‘문명의 대상’, ‘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포착된다(7아-차). 이러한 의미는 앞선 연구에서 다룬 ‘청년’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⁶⁾⁷⁾

이처럼 ‘청년’의 의미는 ‘소년’과 유사한 점이 있다. 20대의 사람을 지칭할 때, ‘청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년’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20세기 초기에는 ‘청년’과 ‘소년’의 사용에 다소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 ‘청년’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기에 수입된 어휘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년’과 ‘청년’은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이라는 어휘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소년’, ‘청년’의 의미 변화와 ‘청소년’의 등장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소년’과 ‘청년’의 의미가 국어사적으로 상당히 유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년’이 일본어에서 유입된 것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기였으므로, 그 시기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과 ‘청년’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각각의 영역을 확보해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 ‘청소년’이라는 어휘가 등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년’의 쓰임에 대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다음은 1920-1923년 사이에 출간된 주요 신문 자료에서 사용된 ‘소년’의 예문을 가려 뽑은 것이다.⁸⁾

- (8) 가. 작일 본보에 게재한 바 금일 백원을 기부한 全瑩弼(전형필)군은 종로 사당목에 거주하는 십오세의 소년으로 <1920.07.12 동아일보>
나. 7월 3일 오후 8시부터 함흥청년회관 내에서 십삼세부터 19세의 소년으로 조직된 일삼구양용단창립축하식을 開한바 <1920.07.12 동아일보>
다. 高原郡郡內面德池市(고원군군내면덕지시)에서는 二十歲以內少年(이십세이내소년)으로 幼成會(유성회)를組織(조직)하야 <1920.08.14 동아일보>

6) (7아-차)와 같은 20세기 극초기의 ‘청년’의 의미로 인해 최남선이 1914년 ‘靑春’이라는 잡지에서 ‘청년’을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본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도 있다(최성민 2012: 231).

7) 최성민(2012: 230)에서는 ‘1900년대 들어서 국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세대인 ‘청년’들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낼 희망으로 여겨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8) 신문에서 ‘소년’이 쓰인 문장을 뽑기 위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를 검색하였으며, 연대 순으로 하여 1920-1923년까지를 검색하였다. 1920-1923년까지를 검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920년대 초기에 사용된 ‘소년’의 의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함이었다.

- 라. 십팔구세가량의 소년은 즉시 그 광우리에다가 손을 너허 돈 너흔 지
갑을 날내게 집어가지고 <1921.06.16 동아일보>
- 마. 十二歲(십이세)의 少年(소년)이 二哩半長距離競走(이리반장거리경주)에
參加(참가)하야 <1921.08.14 조선일보>
- 바. 십이세이상 십칠세이하의 소년 사십여인을 규합하야 <1922.01.20 동아
일보>
- 사. 二十(이십)안팎된 少年(소년)들도 "물드린 옷"을주면 <1922.01.15 동아
일보>
- 아. 當地二十歲未滿(당지이십세미만)의 少年(소년)들이 모히여 <1922.03.04
동아일보>
- 자.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이라도 피울 이십미만의 소년들이 마치고 대패
로 동모를 삼아 <1923.11.16 동아일보>
- 차. 少年間(소년간)의 爭鬪(쟁투)끝해 십륙세의 아해가 죽어 피해자 고소
로 취조중 <1923.02.20 동아일보>
- 타. 少年期로부터 青年期에 至하기까지의 學校生活은 확실히 堅獄과 같은
生活이다 <1923.05.16 조선일보>
- 파. 義務를 負할 자는 老年事會를 後하고 少年階級을 버서나서 青年이요
壯年이라고 할 것은 勿論이었다. <1921.10.12 동아일보>

(8)은 당시 ‘소년’의 나이대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예문들이다.
(8가-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에는 ‘소년’을 대개 10대로 인식하고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8사-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소년’을 20세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8차)의 경우 또한 주
목할 만한데, ‘소년’과 ‘아해’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소년’은 10대의 ‘사람’을 가리켰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⁹⁾ ‘아이’와 ‘소년’이 비슷한 개념을 나타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¹⁰⁾ 또한 앞 장에서 밝혔듯이, 이전 시기에는 ‘소년’과 ‘청년’의

9) 1920년대의 ‘소년’ 또한 [+남성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년’과
함께 [+여성성]을 가진 ‘소녀’라는 단어가 1920년대에 쓰이기는 하지만, ‘소년여자’와 같은 단어가
1920년대에도 여전히 쓰이는 까닭이다.

예) 少年女子(소년여자)가 逃亡(도망) <1923.08.11 조선일보>

10) 연령을 의미하는 ‘X年’의 단어 중에 ‘소년-소녀’만이 성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유년, 청년, 성년, 장년, 노년’에 맞춰 [+여성성]을 나타내는 *유녀, *청녀, *성녀, *장녀, *노
녀와 같은 단어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기 어렵지만, 1인칭 겸양을 의미하던 ‘소녀’가
3인칭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또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연
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인칭 겸양의 소녀를 ‘小

의미 구분이 다소 모호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8타-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타-파)에서는 ‘소년기’ 다음을 ‘청년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대 사람들은 어떠한 나이대의 사람을 ‘청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까.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9) 가. 四月二日付로 公立商業學校設立의 認可를 受하였는데 此가 北鮮商業教育의 嚆示로 現今創立事務에 奔忙中인 바 修業年限은 參個年으로 入學資格은 滿十二歲以上滿十八歲以下로 (중략) 將來有爲의 青年은 速히 入學하기를 希望한다. <1920.05.04 동아일보>

나. 조선사람의 간부 여섯 사람을 체포하고 그와 동시에 무수한 증거품을 압수하였는데 이 학생단 중에는 대개 이십 내외의 청년이 만코 <1920.05.28 동아일보>

다. 처음으로 맞나본 學生은 십팔세 쯤 되는 청년인데 <1920 0608 동아일보>

라. 십륙일에세금당에서 리석구시를 협박하여 지나간 십륙일오후한시경에 시내다옥당(茶屋町(다옥정))일백구십번디리석구(李錫九(이석구))시집에 이십삼사세가량된청년이 인력거 차부 한사람을 다리고와서 <1920 0618 동아일보>

마. 此演說者는 메텐시아라 稱하는 今年二十六歲의 青年인데 <1920.07.06 동아일보>

바. 광복군영결사대당 김영털은 평안북도녕변 사람으로 이십팔세의 청년 인대 <1920 08. 24 동아일보>

사. 全國十九歲以上二十六歲(전국십구세이상이십육세)까지의 青年(청년)에 對(대)하야 <1921.01.21조선일보>

아. 卽二十歲以上三十歲未滿(즉이십세이상삼십세미만)의 青年(청년)이 가장 多數(다수)를 占(점)하였스며 <1921.04.18 조선일보>

자. 大概三十歲 (대개삼십세)의 青年(청년)으로 猶太系統(유태계통)이 多(다)하다<1921.01.22 조선일보>

차. 三十二歲(삼십이세)의 青年政治家(청년정치가) "하밀톤"을 大藏卿(대장경)에 其他人材(기타인재)를 殆(태)히 網羅(망라)하야 <1921.05.02 동아일보>

타. 오학소는 평안북도 郭山읍내 사람으로 방금 삼십륙세의 청년이라

女’로, ‘소년’에 대응하는 ‘소녀’는 ‘少女’로 구분하여, 동음이의어로 제시하고 있다.

<1920 0909 동아일보>

파. 趙(조)○○)라는 삼십칠세의 청년 한 명을 검거하였는데 <1921.07.12 동아일보>

(9)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대는 10대 후반~30대 중후반이다. (9가-다)는 청년의 나이대를 10대 후반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9타-파)는 30대 중후반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0년대 초반에는 ‘청년’에 포함되는 연령대가 비교적 넓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청년’의 연령대는 ‘소년’의 연령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바로 10대 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8라)와 (9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 사람들이 10대 후반의 사람을 ‘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 10대 후반의 연령층을 보통 ‘청소년’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이라는 어휘의 등장 시기와 의미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청소년’을 검색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된다.¹²⁾ 1920-23년에 다수 검색되던 ‘청년’, ‘소년’과 달리, ‘청소년’은 1921년에 단 1건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1925년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¹³⁾ 대략적으로 1920년 중반부터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1920-1930년대에 ‘청소년’이 쓰인 예문을 통해 ‘청소년’이 가리키는 연령대의 범위를 확인하기로 한다.

(10) 가. 二十歲 이하의 靑少年에 대하여 吸煙禁止令을 發하고 <1929.04.03 조선일보>

11) ‘청년’의 범위에 30대가 포함되는 것이 다소 특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도 30대는 종종 청년의 범위에 들어가는 듯하다. 최근의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 34세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2) ‘청소년’이라는 형태도 다소 특이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소년’을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면, 형태가 ‘청소년’이 아니라 ‘소청년’의 형태로 나타나야하지 않나 한다. 보통 ‘유소년(유년+소년)’, ‘청장년(청년+장년)’과 같이 ‘낮은 연령층+높은 연령층’의 순서로 두 연령층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러한 경향이 맞다면, <우리말샘>에서는 청장년을 靑壯年, 중장년을 中壯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中長年으로 고쳐야한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어휘의 생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탐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에 기대보려고 한다. 참고로 1920년대에는 ‘청소년’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소청년’이 아주 소수지만, 확인되기도 한다.

예) 資本家の 極限度인 搾取의 目的物은 靑少年勞働者들이다. <1924.09.08 조선일보>

13) 1922년에는 2건, 1923년 8건, 1924년 11건, 1925년에 69건이 검색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9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혹시 몰라 ‘청소년’, ‘청소년’ 등으로도 검색해봤으나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나. 國粹黨의 第二期黨員의 編入規定을 定한 바 右는 十萬의 十八歲以下의 靑少年이 入黨하거나 <1928.02.10 조선일보>

다. 府內에 十三四歲로부터 二十五六歲까지의 靑少年 <1925.03.16 동아일보>

라. 二十一歲以下 十六歲까지의 靑少年에 對하야는 <1925.11.14 동아일보>

마. (대평면)은신임면장이 불과 이십사세의 靑少年임으로 면의위신과 사무처라등 무엇을 보든지 불합당하다하야 <1929.09.14 동아일보>

바. 대개 열 살로부터 수물 대여섯까지의 靑少年이었는데<1935.06.20 동아일보>

사. 朝鮮男女靑少年은 만히 參加하기를 바란다. (중략) 靑年部 一等 二百圓 (중략) 少年部 三十圓 一人 <1928.01.25 조선일보>

아. 全間島靑少年蹴球大會를 十三日부터 東五일까지 (중략) 靑年팀이 八 소년팀이 十 <1935.09.20 동아일보>

(10)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靑少年’의 연령폭은 꽤 넓다. 10대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10가-나), 20대 중반까지 가리키는 예문(10다-마)도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문은 바로 (10바)이다.

이러한 ‘靑少年’의 연령폭은 ‘靑年’과 ‘소년’의 연령대를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3)에서 확인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에 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문은 바로 (10사-아)이다. (10사)를 통해 우리는 ‘조선靑少年’을 ‘靑年부’와 ‘소년부’로 나누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0아)에서는 ‘靑少年대회’가 ‘靑年팀’과 ‘소년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靑年’이 30대까지 가리킨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1920-30년대’에 사용된 靑少年의 연령대는 30대까지 가리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2장에서 살폈듯이, ‘소년’과 ‘靑年’이 가리키는 연령대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0대를 ‘소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靑年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10대 후반의 경우에는 ‘소년’으로도, ‘靑年’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靑少年’은 192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1920년대 중반부터 사용 양상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데, 그 의미는 ‘소년’과 ‘靑年’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1920년대에 파악된 ‘소년’이나 ‘청년’의 연령폭은 현대의 관점과도 상통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의미가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물론 ‘소년’이나 ‘청년’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그 변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한다.

4. ‘소년’, ‘청년’, ‘청소년’의 현대적 의미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소년’, ‘청년’, ‘청소년’의 의미 변화, 특히 의미하는 연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¹⁴⁾ 먼저 ‘소년’의 연령대를 직접적으로 드러는 예문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11) 가. 나이 겨우 십삼세된 소년이 대담하게도 어른들과 공모하여 『다이아』 십삼개를 훔쳐내어 팔아먹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있다 <1950.02.26 동아일보>

나.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이십 세미만의 소년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950.03.22 동아일보>

다. 십칠팔이 되니 벌써 수염나고 감때 굳은 떡거머리 총각으로서의 소년 대장이 되어 <1950.04.08 동아일보>

라. 충무로 일(一)가 삼(三) 모 교회 강당에서 십사오(十四五)세가량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의식을 잃고 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52.05.03 동아일보>

마. 지난 십팔(十八)일 오후 삼(三)시경 칠(七)、팔(八)세가량 된 소년들이 괴뢰군이 감추고 간 폭탄을 발견하여 가지고 놀던 중 <1952.05.23 동아일보>

바. 만 칠(七)세부터 십칠(十七)세까지의 소년들을 위한 천막으로 <1952.10.07 동아일보>

(12) 가. 이를 조종하기 위해 14세의 소년소녀 신지 레이 아스카가 뽑혀 그들이 인류를 지키며 자아를 발견해간다는 얘기. <2000.01.03 동아일보>

14) 자료는 ‘고려대학교 동아일보코퍼스(<http://corpus.korea.ac.kr/donga/>)’를 선택하였다. 여기서는 194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동아일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보다 이용이 다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기가 현대식 표기로 다 바뀌어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에서 표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11세의 영국 소년이 높이 135m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만 앞니 세 개만 부러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았었다고. <200.03.30 동아일보>

다. '비금도(飛禽島) 소년' 이세돌 3단(17)의 염원은 이뤄질까? <2000.04.06 동아일보>

라. 두 살 때 글을 깨우친 여섯 살짜리 미국 소년이 고교과정까지 초고속으로 마친 뒤 대학에 등록해 기초 교과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2000.02.17 동아일보>

마. 미 당국은 극적으로 구조된 6세 소년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마이애미에 있는 친척집에서 살도록 허용했다. <2000.01.07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1950년대 기사만을 대상으로 '소년'을 검색해보면 '소년'의 연령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바로 20대 미만의 연령층을 곧 '소년'이라고 보았던 듯하다. 다만 이전 시기와 비교되는 부분인 (11마-바)이다. (11마-바)에서는 10대 미만의 연령층에도 '소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소년'의 연령층은 (12)와 같이 21세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대 미만의 연령층을 '소년'이라고 명명한 (12라-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소년'의 연령대는 이전 시기와는 다소 구분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년'은 1900년대 이전에는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 가리켰고, 1920년대에는 10대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10대 미만의 연령을 가리킬 때에도 '소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게 된 셈이다. 이는 곧 '소년'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진 경로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자리한다. 하나는 '청년'이라는 단어의 유입이다. 20대를 가리킬 수 있던 '소년'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에 '청년'이 유입되면서 '소년'의 연령 범위가 10대로 축소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의미였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한정되는 모습도 포착된다.

(13) 가. 팔세이상 삼십세미만의 청소년과 부녀들중 결식자가 四할이나 되는 매우 안타까운 형편에 <1946.07.21 동아일보>

나. 靑少年, 壯年層의 結核問題는 더욱 더 큰 것이다 <1955. 03.12 경향신문>

다. 아직도 二십대 청소년의 순결과 정의감과 정열을 잃지 않고 있다는

15) '개구리 소년 유괴사건'과 같이 '소년'이 10대 미만을 가리키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것은 장한 노릇이라 했다. (1955.12.03 경향신문>
 라. 이들은 대부분 대학 출신의 청소년들로서 그동안 후진 개발국가를
 순회하면서 <1960.08.04 동아일보>
 마. 대낮에 공공연히 범행하고 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한 10대 20대의
 청소년 범죄가 많았다 <1980.01.14 동아일보>

- (14) 가. 손해보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이십 세미만의 청소년
 에게는 자동차 보험을 꺼려 할 만큼 젊은이들의 사고율은 높다.
 <1960.04.07 동아일보>
 나. 둘째로는 십이 세로부터 이십세 내외의 한국청소년들이 현 정부 공
 격의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1960.04.13 동아일보>
 다. 앞날이 창창한 십대 대의 젊고 젊은 청소년들이 스승이라고 믿고
 <1960.06.04 동아일보>
 라.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 일삼세에서 일팔세 정도의 청소년들은 모두
 가 평균 이~삼개 서클에 가입해서 <1970.04.03 동아일보>
 바. 모범 청소년: 이OO(17·서울 성산 재건교2년), 문OO(18·여·서울중앙
 여자상업고교 2년), 안OO(16·釜山동아고교 2년), 김OO(16·京畿道 양평
 개군 중 3년), 이OO(16·江原화천 상서중 3년) (중략)

앞 장에서 확인했듯이, ‘청소년’의 연령폭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것이
 었다. 이는 곧 10-30대까지를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1950년대 이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3)에서
 드러난다. (13)에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추정하면 10대에서 20대를 두루 가
 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3가)와 같이 ‘30세 미만’ 또한 ‘청소년’의 범
 위에 넣을 수 있음을 주목할 수 있으며, (13나)와 같이 장년층 아래의 나이대
 로 ‘청소년’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0대 중후반의 나이대를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포착되는데, 이는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가)와 같이 20대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4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10대 중후반의 나이대는
 ‘청년’ 혹은 ‘소년’에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청소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정리하자면, 20세기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범위는 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용어로서의 ‘청소년’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혹은 ‘소년’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연령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청소년’이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가 생명력을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년’의 연령 범위를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청소년’이 10대 중후반의 나이대를 지칭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중후반까지도 포괄할 수 있었던 ‘소년’의 연령대가 하향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소년’이 10대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를 가리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한정된 것이 ‘청년’의 의미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5) 가. 적들은 이곳에서 십팔세부터 삼십칠세까지의 청년 남녀를 강제 동원하여 군대로 보내었으며 <1950.10.17 동아일보>

나. 이십오(二十五)、육(六)세가량 되는 청년 이(二)명이 가게에 들어와 『담배』를 사줄 터이니 <1952. 09.13 동아일보>

다. 지난 이(二)십일 상오 칠(七)시 삼(三)십분경 시내 태평 동 대동(大東)제강소에 삼(三)십 오(五)세가량으로 보이는 청년 일(一)명이 찾아와서 <1952.10.22 동아일보>

라. 이날 하오 팔시 사〇분 경 이칠세가량의 청년 한 명이 동의원에 찾아와 급한 환자가 있다고 <1960.03.10 동아일보>

마. 조〇〇(32)씨 집에 이칠세가량의 청년 일명이 찾아와서 <1960.03.31 동아일보>

바. 세시반경 삼십세 전후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전기 「코트」를 세탁하여 달라고 맡기면서 <1960.04.03 동아일보>

사. 성동갑구 당원 이〇〇(38)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 청년 이외에 <1960.04.07 동아일보>

아. 군복 차림의 삼십대 청년 이명에게 <1970.03.03 동아일보>

자. 서울 영 일 | 삼이 칠일호 코로나 택시를 탄 이십대 청년 사명이 <1970.12.22 동아일보>

차. 육군 모 사단 소속 강신일 소령 집에 군복 차림을 한 이십대 청년 삼명이 들어와 <1970.12.30 동아일보>

타. 20대 청년 1명이 정씨의 부인 김〇〇씨(31)를 마구 때리고 <1980.01.14 동아일보>

파. 김〇〇씨(72) 집에 20대 청년 2명이 들어가 <1980.01.15 동아일보>

하. 20대 청년 1명이 아는 체하며 <1980.01.31 동아일보>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10대 후반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자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즉, 20-30대의 사람만을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청년’의 연령 범위가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가리키던 ‘청년’이 20대에서 30대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성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10대 후반부를 가리키는 ‘청소년’이라는 확실한 용어가 등장하면서, ‘청년’이 가리키던 연령 폭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종합하자면, 10대 후반을 가리키는 ‘청소년’이라는 어휘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1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까지 가리키던 ‘소년’의 연령 범위가 10대 미만에서 10대 초중반까지로 이동하고,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지칭하던 ‘청년’의 연령폭이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¹⁶⁾

5. 결론

- 생략

16)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학교급제의 영향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을 지칭하게 되면서, ‘초등학생’ 이하의 학령은 ‘소년’이 되고, ‘대학생’ 이상의 학령은 ‘청년’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소년’의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고,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소년체전’의 참가 범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참고 문헌】

- 김대용(2010), 방정환의 ‘어린이’와 ‘소년’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32-2, 1-20.
-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한섭(2022), 일본어에서 들어온 우리말 어휘 5800, 박이정.
- 송인재(2010), ‘초기 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기원과 성격’,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45, 53-77.
- 송인재(2022), ‘현대 중국의 청년 담론’,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성균 차이나브리프 10-2, 124-131.
- 최성민(2012), ‘청년’ 개념과 청년 담론 서사의 변화 양상,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50, 227-248.

고려대학교 동아일보코퍼스: <http://corpus.korea.ac.kr/donga/>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청년’-‘소년’-‘청소년’의 개념과 의미 분화”에 대한 토론문

최준호(서울대학교)

1.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자어는 표기가 같기 때문에 의미도 동일할 것이라 예상되기 쉬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을 듯합니다.

- (1) ㄱ. 현대 한국어에서 ‘소년(少年)’ - ‘청소년(靑少年)’ - ‘청년(靑年)’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고유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
- ㄴ. ‘소년’은 1900년대 이전에는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를, 1920년대에는 10대를 가리켰으나, 20세기 중반부터는 10대 미만의 연령을 가리킬 때도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 ㄷ. ‘소년’이 지시하던 연령대는 점점 낮아졌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청년’이 수입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또한, ‘청년’이 지시하던 연령대는 높아졌는데, 이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변화이다.

선생님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소년’, ‘청년’, ‘청소년’의 사전적 정보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직관으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소년’, ‘청년’, ‘청소년’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이 차지하는 의미 영역이 잘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들은 스펙트럼을 이루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나이를 두고도 화자에 따라 ‘소년’ 혹은 ‘청소년’으로,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혹은 ‘청년’으로, 또 ‘청년’ 혹은 ‘중년’, ‘장년’으로 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전 기술 역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 ㄱ. 소년(少年)

- 「1」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 「2」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 「3」 『법률』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ㄴ. 청-소년(靑少年)

- 「1」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ㄷ. 청년(靑年)

- 「1」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2」 성년 남자.

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과 ‘청년’ 사이의 연령대를 지시할 수 있다는 의향이 추가되어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3. 이 발표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한자어의 의미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는 단어인 ‘소년’, ‘청소년’, ‘청년’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은 개화기 이후, 일본과의 영향 관계가 설정된 이후인 듯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들 단어가] 언제 등장하여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도 연구 질문으로 삼으셨기에, 보다 정밀한 기술을 위해서는 한글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화기 이전의 한문 문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선생님께서는 ‘靑年’이 문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를 인용하시어 일본에서 수입된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류 등의 조선의 한문 문헌에는 ‘靑年’이라는 단어가 꽤 나타납니다.

- (3) ㄱ. 사신은 논한다.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한결같이 편리한 대로만 하고 법례(法例)를 따르지 않는다. 옛적에는 나이가 늙은 재상이 아니면 초헌을 타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청년(靑年) 재상이라도 2품만 되면 모두 멋대로 탔고, 왕자(王子)와 부마(駙馬)들도 또한 마음대로 탔다.(史臣曰: “今時士大夫, 一從任便, 不拘法例。古則年老宰相外, 無乘輶軒者, 今則靑年宰相, 若陞二品, 則皆乘之不憚, 王子、駙馬, 亦任然乘之。”) <중종실록 1544년 5월 27일>
- ㄴ. 세자(世子) 광해군(光海君) 이혼(李瑄)은 청년(靑年)으로서 자질이 영발(英發)하여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모두 경복하고 있으므로(世子光海君 李瑄者, 靑年英發, 該國臣民, 盡皆傾服) <선조실록 1593년 9월 19일>

그런데 이러한 예문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청년’이 일본어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어대사전》에서는 ‘靑年’에 대해서, “① 나이가 젊다. 혹은 젊은 때. 15세에서 30세 전후의 단계(年紀輕; 年輕的時候。指人十五六歲到三十歲左右的階段。) ② 젊은 사람(指年輕人。)”이라고 의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항 ①의 예문으로는 당나라 문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항 ②의 예문으로는 1900년대 중반 이후의 문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¹⁾ 한편, 《일본국어대사전》의 표제항 ‘靑年’의 경우, 시절과 관련된 뜻풀이는 없고, “14~15세부터 20대 정도의 사람을 이른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일본어에서 수입되었다고 할 때, ‘청년’이 지시하는 바가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들어온 것인지 살펴보고 기술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청년이다’, ‘그 사람은 이제 장년이다’는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은 가능한 반면, ‘*이 노년은’, ‘*이 장년은’은 불가능합니다. 한문 문헌에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에서 ‘청년’이 수입되었다는 기술이 조금 더 세밀해진다

1) 毛澤東 《〈中國農村的社會主義高潮〉的按語》二四: “靑年是整個社會力量中的一部分最積極最有生氣的力量。”
丁玲 《一九三〇年春上海(之一)》五: “除開他們夫婦外, 還有三個穿西裝的靑年。”

면 보다 정밀한 어휘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지점입니다. 발표문에서 “이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少年’의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년등과(少年登科)’와 같은 단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少年’이 꼭 [+남자]를 지시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어에서도 이와 평행한 의미 변화가 관찰됩니다. 아래는 <일본국어대사전>의 ‘少年(しょうねん)’ 항목입니다.

- (4) 나이가 어린 것. 또 그 시기. 소년 시대. 또 그러한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젊은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이르지만, 현재는 보통, 소학교, 중학교 즈음의 남자를 말함.(年の少ないこと。また、その頃。少年時代。また、その人。年の若い者。若者。若人。男女ともにいうが、現在でふつう、小学、中学ごろの男子にいう。)

이렇게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영역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언제부터 자리잡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어휘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

정한대로(가천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생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의어'
3. 어휘 사용의 변화와 의미 확장
 - 3.1. 거품
 - 3.2. 띄값
 - 3.3. 교통정리
4. 맺음말

1. 머리말

단어 '거품'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의어(polysemous word)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전에 기술된 (1)의 뜻풀이에서 현재의 공시적 양상이 잘 드러난다.

(1) '거품'의 <표준>(2023) 뜻풀이

<1>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예 맥주 거품

예 거품을 걷어 내다.

<2>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예 최운은 이제 거품까지 뿜으며 고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3> 유리 따위의 투명한 물질을 만들 때에,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

게 된 부분.

<4>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거품 경제

예) 거품이 빠진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1)에 제시된 <1>은 ‘거품’의 첫째 의의(sense)로 기술된 기본의미이다. 반면 밑줄 친 <4>는 한때 ‘거품’이 비유적으로 쓰이며 발생한 임시적 의미가 <1>의 기본의미와는 독립된 별도의 의의로서 어휘 내항에 추가된 것이다.¹⁾ 이는 단어의 기본의미가 특정 동기에 따라 사용 환경의 변화를 거치며 새로운 의의로 자리 잡은 통시적 결과이기도 하다. (2)처럼 복합어 ‘거품화’ (거품+-화)가 (1)의 확장의미인 <4>와 밀접한 의미로 만들어진 사실에 주목할 때, 다의어의 개별 의의가 독립된 지위로 단어 형성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된다.

(2) ‘거품화’의 <표준>(2023) 뜻풀이

어떤 현상에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가 됨. (후략)

예) 경제의 거품화

이때의 확장의미 <4>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히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1)과 같은 현재의 사전 기술만으로는 과거의 언어 사실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확장 의미의 초기 모습을 살피는 작업은 당시 언중들의 언어생활을 담고 있는 과거의 시기별 기록을 관찰하고 추적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수행 가능한데, 이때 신문 기사에 기록된 각 문장들은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는 증시침체 (중략) ‘거품론’ 또는 ‘일

1) 다의어에 의한 의미 확장은 매우 효율적인 인지 전략이다(임지룡 2018: 286). 인지적 관점에서 환유와 은유로 대표되는 ‘개념적 전이(conceptual shift)’를 활용하여 의미 확장이 전개되는데, 특정 개념적 실체를 다른 개념적 실체로 투사하는 사상(mapping) 과정을 거치며 확장 의미가 맥락 내에서 의미 변이의 결과로 실현된다.

시적 대유행론’ <한겨레 1990.7.19.(사회)>

나. ‘거품 경제’ 징후 국내서도 뚜렷 (중략) 주식 폭락사태 부풀려진 거품 소멸 현상일 뿐 <한겨레 1990.7.24.(경제)>

다. 거품經濟와 재정규모 / (중략)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지금 거품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0.7.25.(경제)>

(1)에 소개된 ‘거품’의 <4> 의미는 1990년 7월의 특정 시점부터 (3)의 방식으로 신문 지면에 새롭게 등장한다. (1)의 <4>에 제시된 예(거품 경제, 거품이 빠진 부동산 경기)에서 관찰되듯이 이는 전형적으로 경제 문제와 관련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의 기사를 참고할 때에도 ‘증시, 부동산, 재정’ 등에 관한 <경제> 분야에서 단어 ‘거품’이 등장한 것인데, 이러한 특징이 1990년 7월 무렵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특정 시기에 진행된 언중의 어휘 사용 변화가 주어진 문장 맥락 안에서 한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고, 그 확장 의미가 곧 다의어의 생성을 전인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3)의 기사는 의미 분화의 초기 모습을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

(4) ‘거품’의 사전별 뜻풀이²⁾

사전	뜻풀이 ³⁾
<큰사전>(1957) ‘거품’	<1> 물이 공기를 머금어서 속이 비어 물 위에 뜬 방울.
<대사전>(1982) ‘거품’	<1> 액체가 기체를 머금어서 속이 비어 둥글게 부푼 방울.
<금성판>(1991) ‘거품’	<1> 액체가 공기를 머금고 둥글게 부풀어 물 위에 뜬 잔 방울.
<표준>(1999) ‘거품’	<1>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4> <u>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꺾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u>
<표준>(2023) (누리집)	<1>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2) 이하 각 사전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표기하였다. <대사전>(국어대사전), <금성판>(금성판 국어대사전), <표준>(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고려대한국어대사전)

‘거품’	<4> <u>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u>
<고려대>(2023) (누리집) ‘거품’	<1> (기본의미) 액체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3> <u>어떤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u>

(4)에 제시된 ‘거품’의 사전별 뜻풀이를 참고할 때에 (3)의 용법이 사전에 반영된 것은 <표준>(1999)부터이다. 1990년 7월 기사에서 관찰되는 어휘 사용의 변화가 이듬해에 출간된 <금성판>(1991)에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신어의 조사 연구>(1994, 6쪽)에서 ‘거품’의 새로운 의미가 신어로 소개되었던 사실을 참고한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도 (3)의 ‘거품’ 의미는 신어 수준의 지위에 있었으며 1999년에 비로소 <표준>(1999)에 <4> 의의로 등재됨으로써 공식적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⁴⁾ 물론 ‘거품’은 일찌감치 <큰사전>(1957)에서부터 <1>~<3>의 의미를 지닌 다의어로 이미 인정되어 왔기에 <4>의 등장이 새로운 다의어의 탄생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의미만을 지녔던 단의어(monosemic word)가 위

3) (4)에 제시되지 않은 확장의미의 사전별 기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전	뜻풀이
<큰사전>(1957)	<2> 입으로 내 뿜는 속 빈 침방울. <3> 유리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게 된 잔 방울.
<대사전>(1982)	<2> 기포(氣泡) <3>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들.
<금성판>(1991)	<2>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표준>(1999)	<2>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3> 유리 따위의 투명한 물질을 만들 때에,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게 된 부분.
<표준>(2023) (누리집)	<2>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3> 유리 따위의 투명한 물질을 만들 때에,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게 된 부분.
<고려대>(2023) (누리집)	<2> 입가에 내뿜어진, 속이 빈 침방울. <4> 유리나 그 밖의 투명한 물질을 만들 때 공기가 들어가서 속이 비게 된 곳.

4) 기존 단어가 다의적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다의적 확장(임지룡 1997), 다의적 재활용(문금현 1999), 의미적 신어(남길임 외 2018, 2019, 정한데로 2022)’로 논의된 바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다의적 현상을 ‘의미적 신어’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장의미를 새롭게 얻게 된다면 이는 ‘다의어 생성’ 차원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가 된다.⁵⁾

이 글은 생성 차원의 다의어 연구를 목표로, 신문 기사에 반영된 시기별 어휘 사용의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다의어의 초기 생성 현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어휘 변화와 다의어 생성의 핵심 요인으로서 화자(를 둘러싼 사회)의 어휘 사용 변화에 주목하고, 기사 문장에 기록된 변이 의미와 사전 뜻풀이에 기록된 공인 의미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새로운 형태의 출현을 전제한 보통의 단어 형성은 외현적인 결과물을 통해 그 현상이 비교적 쉽게 관찰되지만, (3)과 같은 비유적 쓰임으로 촉발된 과정은 개별 문장 내 어휘 사용의 의미 변이(meaning variation) 양상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자료와 방법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관심 대상 어휘를 한정하고 신문 자료에서 관찰되는 어휘 사용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다의어 생성에 관한 연구 가능성을 살필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생성’과 ‘변화’를 기준으로 과정적 시각에서 ‘다의어’를 새롭게 논의한다. 본격적인 내용의 3장에서는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 온 다의어 ‘거품, 떡값, 교통정리’를 대상으로 삼아, 3.1~3.3에서 사전과 신문 기사 자료에 나타난 시기별 특성을 각각 정리하고 분석한다.

2. 생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의어’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기호’의 기본 속성을 떠올린다면, ‘단어’에 관한 연구는 ‘형태’와 ‘의미’의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이 글은 ‘분석’ 또는 ‘변화’와 대(對)를 이루어 그동안 널리 쓰여 온 ‘형성’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포괄적인 외연을 지닌 ‘생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형태 없이 새로운 의미만이 추가된 ‘다의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형성’(形成, formation)보다는 ‘생성’(生成, generation)의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추가 논의는 2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5) ‘단어 생성’에 관한 세 접근

	언어 현상		단어 생성 유형
가.	새로운 의미, 새로운 형태	→	단일어, 복합어
나.	새로운 형태	→	축약어
다.	새로운 의미	→	다의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와 같은 3가지 언어 현상에 기인한다. (5가)는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경우로, 새롭게 등장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일어를 창조하거나 기존 형태를 조합하여 새로운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유형이 있다. 이와 달리, (5나)와 (5다)는 각각 ‘형태’와 ‘의미’의 새로움이 선택적·배타적으로 반영된 언어 현상을 가리킨다. (5나)는 기존 단어의 의미를 유지한 채 새로운 형태로 달리 표현된 경우, (5다)는 기존 단어의 형태를 유지한 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⁶⁾

주지하듯이 단어형성론의 주류적 흐름은 (5가), 그중에서도 ‘복합어’ 형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반려동물(반려+동물), 누리꾼(누리+-꾼), 소개팅(소개+(미)팅)’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의미)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 형식(형태)을 복합(합성, 파생, 혼성)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경우에 집중해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어 형성은 곧 복합어 형성’이라는 일종의 등식까지도 암묵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반면, (5나)처럼 ‘형태’의 새로움이 선택적으로 반영된 언어 현상은 뒤늦게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섬(←시험), 생선(←생일 선물), 치맥(←치

6) 새롭게 등장한 이들을 신어의 한 유형으로 체계 내에서 설명한다면 새로움의 기준(형태 또는 의미)이 무엇인지를 근거로 ‘형태의미적 신어, 형태적 신어, 의미적 신어’로 달리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5가~5다) 유형에 각각 대응된다(정한데로 2022: 48). 신어(新語, neologism)는 그 용어(新, neo)에서 드러나듯이 형성과 사회적 수용의 시점(時點) 개념이 더해졌을 뿐 일반적인 단어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 새롭게 진입한 단어를 범주화하여 ‘신어’로 명명한 대상을 (5가~5다)처럼 형태와 의미에 기초하여 각 단어의 본질적인 속성에 따라 재분류한다면 해당 층위에서는 ‘복합어, 축약어, 다의어’로 유형화될 것이다. 한편, 남길임 외(2018: 55-56), 남길임 외(2019: 136)는 신어의 하위 유형을 ‘형태적 신어, 의미적 신어, 문법적 신어’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의 ‘형태적 신어’는 (5가), ‘의미적 신어’는 (5다)에 대응하며, ‘문법적 신어’는 품사 범주를 달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한데로(2022: 43-44)를 참고할 수 있다.

킨과 맥주)’과 같은 이른바 ‘축약어’가 (5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다. 축약어를 단어 형성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임지룡 1997, 구본관 2010, 구본관 외 2015, 최형용 2016, 정한데로 2019)과 축약어를 단어형성론 체계에서 배제하는 입장(송원용 2007)이 공존하는 것은 (5나)가 주변적인 연구 대상에 머물러 온 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⁷⁾ (5)의 체계는 전자의 입장처럼 단어 형성 체계 안에서 축약어를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와 비교할 때, 특정 단어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 (5다)는 사실상 단어형성론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에서 살펴본 ‘거품’의 확장의미에 관해서는 어휘의미론에서 ‘다의어 분석’의 결과로 각 의의가 기술될 뿐, ‘다의어 형성’으로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⁸⁾

그러나 (5)와 같이 ‘형태’와 ‘의미’의 두 기준을 균형적으로 바라본다면 ‘단어 형성’의 외연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5나)의 ‘축약어’와 (5다)의 ‘다의어’ 역시 각각 형태와 의미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단어의 출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형성’(形成, formation)이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 외현적 ‘형식’(形式, form), 형태(形態)’와 밀접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 형태와 의미의 균형적 접근을 강조한다면, 새로운 의미의 출현도 포괄할 만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용어를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이 글은 ‘형성’을 대신하여 ‘생성’(生成, generation)을 활용하고자 한다.⁹⁾ 형태와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범용 가능한 무표적인 용어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의어 생성’은 (5다)의 ‘생성’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변화’ 차원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7) 고영근 외(2008: 251-252), 남기심 외(2019: 239-240)는 ‘한자어 형성’에 관한 별도의 절에서, ‘한국은행 → 한은; 대한민국 → 한국’과 같은 대상을 ‘약어화에 따른 한자어 합성어 형성’, ‘절단에 의한 한자어 형성법’으로 각각 다루고 있다.

8) 반면, 기존 단어가 형태는 유지하나 이전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는 다의어 형성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의미 소멸 및 대체에 따른 어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 ‘생성’이라는 단어가 일찍이 언어학계에서 ‘generative grammar’(생성 문법)의 번역어로 쓰여 왔기 때문에, ‘생성’이 지닌 내포적 의미가 특정 이론과 밀접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챗봇, 생성 AI’ 등으로 해당 용어가 널리 쓰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언어 결과를 창조해 내는 현상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도 중립적 차원에서 ‘생성’ 용어를 쓰고자 한다.

(6) 단어의 ‘의미 변이’와 ‘의미 변화’

① 공시적 의미 변이 [의미 비유]	→ 등재	② 통시적 의미 변화 [의미 확장]
$A[①] + \alpha \rightarrow A[①']$		$A[①] > A[①, ②]$

특정한 상황 맥락(context)에 따라서 한 단어의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의미 변이’라고 하는데(Murphy 2010: 83), ‘겉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3)의 초기 ‘거품’이 이에 해당한다. 공시적으로 부여된 단어의 임시적 의미는 다의어 생성을 촉발한다. 그리고 임시 자격의 의미는 (6)의 도식과 같이 점차 해당 단어의 확장 의미로 고정화되기도 한다(정한테로 2012: 34). 단어 A, 즉 기본 의미만 지닌 ‘A[①]’는 특정 상황의 맥락 의미(α)를 반영하여 비유 등의 방식으로 ‘①’로 달리 실현될 수 있다. 이때의 임시적 ‘①’은 단어 A에 내재된 의미가 아니지만, 등재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고정화된 후에는 A의 어휘 내향에 포함된 ②의 확장 의미로 변화를 겪는다. 이전의 ‘A[①]’는 단어의 지위에 있었으나, 등재 이후의 ‘A[①, ②]’는 다의어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A[①] > A[①, ②]’의 과정은 시간적 흐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등재 전후로 어휘 내향 및 어휘 체계의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통시적 과정으로 파악된다.¹⁰⁾

(7) 가. 결과적 차원의 다의어: 복수의 의미(의의)를 지닌 단어

나. 과정적 차원의 다의어: 새로운 의미 생성(①)으로 의미 변화(②)를 거친 단어

정리하자면, 다의어는 (7)의 두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7가)는 결과적 차원에서 다의어의 공시적 양상에 집중한 것으로, 그동안 어휘의미론에서 다

10) 이를 통시적 과정으로 파악한 것은 완전한 다의어로의 변화가 A[②]의 등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등재 개념은 화자 개인 내부(어휘부 등재)의 미시적 차원 또는 사회적 공인(사전 등재)의 거시적 차원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루어 온 사전적·내포적 의미 기술과 관련한다. 이와 달리 과정적 차원에서 다의어에 접근한다면 (7나)처럼 2가지 언어 현상을 아우르게 된다. 새로운 임시적 변이 의미로부터 촉발된 ‘① 의미 생성’, 그리고 기존 단어와 변별되는 결과로 드러난 ‘② 의미 변화’의 두 측면에서 다의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휘부 내 다의어의 등장은 이전에 없던 단어의 ‘생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 출현한 확장 의미가 단어의 또 다른 의미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기존 어휘에서 전개된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형태적 차이가 없을지라도 전후 두 어휘 간에 의미적 차이(단어의 對 다의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는 변화(②)의 결과인 것이다. 일견 단어의 생성(①)이 항상 새로운 형태를 전제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5)의 체계와 (5다)의 유형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동안의 단어형성론이 형태에 치중해 온 배경에 따른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

3. 어휘 사용의 변화와 의미 확장

이 장에서는 신문 기사에 기록된 특정 어휘의 사용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적 관찰함으로써 오늘날 다의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의 초기 의미 확장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 (8) 가. ‘의미가 다름’ 신어(국립국어연구원 1994): 거품, 겨울잠, 노른자위, 마당발, 못질, 소방수, 솜방망이, 콩가루 등
- 나. 다의적 확장(임지룡 1997): 개미, 교통정리, 군살빼기, 꺾기, 냉기류, 떡값, 물갈이, 텃밭 등
- 다. 다의적 재활용(문금현 1999): 거품빼기, 교통정리, 꺾기, 떡값, 물갈이, 셀프, 영계, 원샷, 티프가이 등

기존 형태에 의미적 확장이나 축소 등의 변화가 일어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적 신어’ (남길임 외 2018, 2019, 정한데로 2022 등)가 통용되

고 있다. 일찍이 의미적 신어에 대응하는 예가 몇몇 선행 연구에 소개된 바 있는데, 그 일부 목록은 (8)과 같다. 우리는 복수의 연구에서 중복하여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해당 의미가 사전에 등재됨으로써 꾸준히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온 단어를 조사하고 그중 최종 관찰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는 ‘거품, 떡값, 교통정리’ 세 단어로, (1) 단일어와 복합어의 구성적 다양성, (2) 특정 시기 또는 사건에 따른 변이 의미의 변별성, (3) 형태 및 의미 기준의 단계적 신어 생성의 전형성을 고려하여 대표 예시를 선정한 것이다.

〈표 1〉 조사 대상 및 수집 방법

- 조사 대상: 거품, 떡값, 교통정리 (3개)
- 조사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5종)
- 조사 기간: 1920년 ~ 1999년¹¹⁾
- 빈도 산정 기준: 대상 단어의 출현 기사 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접근 가능한 신문 5종을 대상으로 삼아, 해당 단어의 시기별 쓰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3.1. 거품

오래 전부터 단어 ‘거품’은 대상의 ‘내용이 없는 상태’ (9가), ‘일시적 속성’ (9나),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상’ (9다) 등을 비유하는 상황에서 쓰여 왔다.

(9) 가. 거품 같은 행운의 꿈바람에 온갖 미천을 다 바친 터이라 의사를

11) 이때 신문별 창간 연도는 1920년(동아일보, 조선일보), 1946년(경향신문), 1966년(매일경제), 1988년(한겨레)으로 각각 차이가 있는데, 1990년대로 갈수록 신문 기사 수(지면 수)가 증가한 점까지 고려하여 개별 어휘의 출현빈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 제시한 출현빈도는 조건이 엄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조사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도 전후로 분포가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쓰임을 달리하는 모습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바 이 글에서는 그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각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를 여유도 없이 <조선일보 1947.11.6.(사회)>

나. 모든 生活이 거품처럼 一時的이고 傳統의 美를 發見할 수 없는
混亂의 이 거리를 거를 때마다 <경향신문 1947.11.20.(생활/문화)>

다. 질투심이 거품처럼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1962.8.29.(생활/문화)>

(9)는 ‘같은, 처럼’을 덧붙임으로써 직유의 방식으로 표현된 비유적 구성의 예이다. 각각 ‘행운, 생활, 질투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품’의 다양한 속성을 빌려와 달리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추가 표지 없이 ‘거품’ 형식만으로 의미 변이 차원의 다른 해석을 직접 도출한 예도 다수 확인된다.

(10) 가. 信用 流通을 尤甚케 하여 거품 資本과 擬制 資本을 招來하여 <경향신문 1947.1.9.(경제)>

나. 뒤숭숭한 생활의 거품 속에서 명신이의 그림자가 물방울처럼 파
득 떠오르다가는 혹 꺼지고 하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1952.9.27.
(생활/문화)>

다. 따라서 生産費 論爭은 表面에 나타난 거품에 지나지 않고 問題의
核心은 <동아일보 1956.9.18.(경제)>

라. 人生의 덧없는 浮沈의 거품을 돌아보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來日
을 위하여 <경향신문 1960.10.31.(생활/문화)>

(10)은 ‘자본, 생활, 논쟁, 인생’ 각각을 ‘거품’에 빗대어 ‘껍데기만 있고 속은 차 있지 않은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1)의 <4>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4)의 시기별 사전 기술 현황을 참고할 때, (10)의 1940~50년대 용례는 ‘거품’의 고정된 확장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공시적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의미와 변별된다.

(11) 가. 共和黨측은 1盧 2金의 강세를 「거품」으로 보고 “서울의 最大표
는 浮動표”라고 단정하면서 결코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있다. <경향신문 1987.12.1.(정치)>

나. 실질 가치와 괴리된 머니게임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매일경제 1987.10.23.(경제)〉

다. 民主黨으로의 무조건적 통합은 平民黨이 金씨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거품 政黨」이었음을 自認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동아
일보 1988.3.17.(정치)〉

(11)의 ‘거품’ 역시 ‘속이 빈, 금방 터질 것 같은’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는 출현 용례 내 ‘거품’ 앞뒤로 문장 부호(「 」)를 표기함으로써 비유로 실현된 변이적 의미를 강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이때의 ‘거품’ 이 사전에 등재된 수준의 보편화된 표현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처럼 1940년대부터 (1)의 <4>와 관련한 용법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4)를 참고할 때 <금성판>(1991)까지도 이를 ‘거품’의 고정화된 의미로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품’의 쓰임을 신어 차원에서 인정하게 된 것은 ‘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쓰임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이다.

(12) 얼마 전 日本 미쓰비시 종합연구소가 펴낸 「全예측-1990년대의 日本」이라는 책도 (중략) 이 연구소의 마키노 노보루 氏는 (중략)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는 현상을 「거품經濟」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990.7.4.(경제)〉

‘거품 경제’ (Economy bubble) 또는 ‘버블 경제’는 경제 분야에서 쓰여 온 전문 용어로 알려져 있다.¹²⁾ 그러나 (12)에서 확인되듯이 ‘거품 경제’의 용어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일본의 거품 경제 현상’에 관한 국내의 관심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와 함께 경제 영역에서 ‘거

12) 위키백과 ‘거품경제’ 항목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거품경제>) (검색일: 2023.8.1.)

‘거품경제’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자산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를 말한다. 어원은 18세기 영국에서 남해회사 거품사태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략)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バブル景気)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부풀려진 일본의 경제 거품이었다. 1992년 초, 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일본 경제가 침체되었다.

품’ (거품 경제, 거품 현상)의 출현빈도가 신문 지면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13) 가. ‘거품 경제’ 징후 국내서도 뚜렷 / 최근 주가와 땅값이 폭등했다가 폭락,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위 ‘거품경제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겨레 1990.7.24.(경제)>

나. 거품經濟 거품政治 <매일경제 1990.7.25.(경제)>

다. 거품經濟와 재정규모 / (중략)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지금 거품 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0.7.25.(경제)>

당시 초기 기사에서 ‘비누거품 현상, 비누거품 주가’와 같은 관련 단어들의 출현도 일부 확인되지만, 고정화된 구성으로 가장 강력하게 분포를 확장한 것은 ‘거품경제’이다.¹³⁾ 1990년 전후로 관찰되는 ‘거품경제/버블경제’의 출현빈도를 통해서 급진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빈도 1위, 2위).¹⁴⁾

<표 2> ‘거품경제/버블경제’의 출현빈도 (1989~1999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거품경제	0	9	50	226	163	138	129	139	142	170	85
버블경제	0	13	17	49	36	21	27	27	23	16	10
계	0	22	67	275	199	159	156	166	165	186	95

13) ‘비누거품 현상, 비누거품주가, 버블경제’ 등과 관련한 기사 예는 다음과 같다.
가. 86년 이후 3년여 동안 증시가 高速 성장을 한 데 뒤따르는 「비누거품」(bubble effect) 현상의 후유증으로 설명해 온 <동아일보 1990.7.25.(경제)>
나. 비누거품株價有感 (중략) 장기화되고 있는 증시침체를 설명하는 논거로 과거의 주가가 비누거품(Bubble)처럼 부풀어 있었던 때문이라는 <매일경제 1990.7.26.(경제)>
다. 신한중합연구소의 「버블경제와 금융기관경영」이라는 논문이 소개되고 그에 대한 탁월한 비판이 잇달으면서 버블(거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 1990.8.3.(경제)>
14) ‘거품경제’는 ‘거품경제, 거품經濟, 거품(버블)경제, 거품(Bubble)경제’, ‘버블경제’는 ‘버블경제, 버블經濟(경제), 버블(Bubble)경제’로 출현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여 빈도를 확인한 결과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거품경제/버블경제’의 출현 기사 수가 199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인 쓰임을 보인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직후에도 소폭 증가한 결과가 확인된다. ‘거품경제/버블경제’가 견인한 ‘거품’의 새로운 의미(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는 1990년대를 거치며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한다.

(14) 가. 재무부는 금리지도를 『현실금리에서의 거품 빼내기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 1992.1.21.(경제)>

나. 경제에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동아일보 1992.5.4.(경제)>

다. 경제적 성장의 거품이 겉혀 궁핍하지는 않으나 풍요하지도 않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 <매일경제 1993.1.1.(경제)>

<표 2>와 같이 ‘거품경제, 버블경제’ 출현빈도가 정점이었던 1992년 이후로, 각 신문의 <경제> 지면을 중심으로 의미적 신어로 쓰인 ‘거품’의 단독 출현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거품 빼내기, 거품을 제거하다, 거품이 걷히다’ 등과 같은 은유적 표현도 활발하게 관찰된다. 의미적 신어, 즉 훗날 <표준>(1999)에 ‘거품’ <4>로 등재된 의미가 당시 어떠한 출현빈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면 뚜렷한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난다.

<표 3> 다의어 ‘거품’의 ‘의미적 신어’ 출현빈도 분포 (1987~1993년)

연도	전체 ‘거품’ 출현빈도	‘의미적 신어’ (<표준>(1999)의 <4>의 출현빈도 (전체 출현빈도 내 비중)
1987	75	0 (0%)
1988	90	0 (0%)
1989	93	0 (0%)
1990	151	31 (20.5%)
1991	347	121 (34.9%)
1992	737	588 (79.8%)
1993	608 ¹⁵⁾	431 (70.9%)

15) 검색 결과상 1993년 조선일보의 ‘거품’ 출현 기사 수가 322회이지만, 이는 당시 조선

〈표 3〉에서 확인되듯이, 1990년을 기점으로 (12)~(13)과 같이 활용된 ‘거품’ <4>의 빈도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물론 전체 ‘거품’의 출현빈도도 1989년~1992년 사이에 ‘93회→151회→347회→737회’로 증가폭이 크지만, 특히 ‘거품’ <4>는 같은 기간 ‘0회(0%)→31회(20.5%)→121회(34.9%)→588회(79.8%)’로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맞는다. 특히, 1992년의 ‘거품’은 의미적 신어인 <4>가 기본의미를 포함한 나머지 <1>~<3>의 출현빈도를 압도하며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2년은 ‘매일경제’ 기사에 등장하는 ‘거품’ 총 265개 가운데 92.5%에 해당하는 245개의 ‘거품’이 <4>에 대응한 점이 주목된다.¹⁶⁾ 경제지라는 특성에 따라 경제 기사가 주를 이루기에 훨씬 더 압도적인 비율로 ‘거품’ <4>가 등장한 것이다.

‘거품’ <4>의 출현빈도 증가는 ‘거품현상, 거품경기’, ‘경제거품, 부동산거품’과 같은 ‘거품X, X거품’ 복합 구성의 등장과도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표 4〉 ‘거품X, X거품’ 구성의 출현빈도 (1989~1999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거품X	거품현상 (버블현상)	0	5 (2)	10 (3)	33 (2)	35 (2)	28 (4)	19 (3)	44 (6)	48 (7)	26 (2)	54 (8)
	거품가격	0	0	6	2	1	3	3	13	49	16	8
	거품경기	0	0	1	19	14	19	11	8	19	34	26
	거품경영	0	0	0	0	1	0	1	2	6	5	1
X거품	경제거품	0	0	1	7	1	0	1	1	9	6	15
	부동산거품	0	0	2	2	0	2	1	2	21	17	13

일보에 연재된 〈거품 시대〉 작품 제목을 포함한 결과이다. 작품명에 쓰인 ‘거품’ 수 (183회)를 제외하면 조선일보는 139개 기사에 ‘거품’이 출현하며, 그중 ‘거품’ <4>는 90회(64.7%)이다. 1993년 전체 608회는 위 상황을 고려한 수치이다.

16) 1992년에 확인된 전체 ‘거품’ 출현빈도와 ‘거품’ <4> 출현빈도의 신문별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전체 ‘거품’	142	113	265	151	66	737
‘거품’ <4>	106 (74.6%)	87 (77.0%)	245 (92.5%)	108 (71.5%)	42 (63.6%)	588 (79.8%)

	가격거품	0	0	0	0	0	0	1	5	14	64	39
	추가거품	0	0	0	4	1	0	0	1	1	1	15

‘거품’ <4>의 출발점이 된 ‘거품경제/버블경제’를 제외한다면, <표 4>에서 1990년 당시 출현 구성으로는 ‘거품현상/버블현상’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후 ‘거품가격, 거품경기’의 ‘거품X’ 구성과 ‘경제거품, 부동산거품’의 ‘X거품’ 구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전 시기에 걸쳐 관련 복합 구성이 꾸준히 출현하였다. <표 4>에 음영 표시된 상위(1위, 2위) 고빈도 출현 연도가 1990년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부터 한국 사회에 ‘경제적 거품’에 관한 논의가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았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정리하자면, 1990년 ‘거품경제’라는 복합 구성으로부터 촉발되어 경제분야의 의미적 신어로 등장한 ‘거품’ <4>가 1990년대를 거치며 다의어의 한 확장 의미로서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기 시작한다. 이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거품X, X거품’ 복합 구성은 ‘거품’ <4>의 의미와 용법이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표준>(1999)에 이르러 새롭게 사전에 추가된 ‘거품’ <4>의 등장은 그 변화가 공식적으로 다의어 ‘거품’에 반영된 결과이다((4) 참고).

3.2. 떡값

단일어인 ‘거품’과 달리, ‘떡값’은 복합어로서 다의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준>(2023)에서 ‘떡값’은 3가지 의미로 기술된다.

(15) ‘떡값’의 <표준>(2023) 뜻풀이

<1>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떡값을 주다.

예 이번 설에는 떡값이 얼마나 될까?

〈2〉 공사 입찰 따위에서, 담합하여 낙찰된 업자가 이에 관련된 다른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담합 이익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최우리가 너희 패들같이 공사장 간부들에게 빌붙어 인부들 피나 빨아먹더냐, 아니면 입찰 판에서 떡값을 뜯더냐. ≪황석영, 객지≫

〈3〉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계장은 업자에게 떡값으로 받은 돈 때문에 해직됐다.

그런데 <표준>(2023)의 ‘떡값’ 〈1〉~〈3〉은 기본의미라 할 만한 ‘떡의 가격’을 배제한 채 확장의미로만 기술된 점이 특징적이다.¹⁷⁾ 이는 <표준>(2023)뿐만 아니라 이전 사전으로부터 이어져 온 결과로 확인된다.

(16) ‘떡값’의 사전별 뜻풀이

사전	뜻풀이
<큰사전>(1957)	(미등재)
<대사전>(1982) ‘떡값’	〈1〉 <속> 음력설이나 추석 때, 회사 등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 수당. 〈2〉 <속> 공사(工事) 입찰에서 담합(談合)하여 낙찰된 업자가 다른 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담합 이익금.
<금성판>(1991) ‘떡값’	〈1〉 설이나 추석 때 회사 등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속되게 이르는 말. 〈2〉 공사(工事) 입찰에서 담합(談合)하여 낙찰된 업자가 다른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담합 이익금을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1999) ‘떡값’	〈1〉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공사 입찰 따위에서, 담합하여 낙찰된 업자가 이에 관련된 다른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담합 이익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표준>(2023)에 표제어 ‘값’의 한 의미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존재하기에 ‘떡값’의 기본의미를 사전에 포함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금값, 물값, 밥값, 약값’ 등이 <표준>(2023)에 등재된 사실을 참고할 때, 표제어 ‘떡값’의 기본의미를 사전에 올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u><3>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u>
<표준>(2023) (누리집) ‘떡값’	(<표준>(1999)와 동일함.)
<고려대>(2023) (누리집) ‘떡값’	<u><1> 업자 등이 공무원이나 관리들에게 명절 인사 따위의 명목으로 상납하는 돈을 속되게 이르는 말.</u> <u><2> 공사(工事) 입찰에서, 담합하여 낙찰된 업자가 다른 업자들에게 낙찰을 포기한 대가로 나누어주는 돈을 속되게 이르는 말.</u> <u><3>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속되게 이르는 말.</u> <u><4> (기본의미) 떡을 만들거나 사는 데 드는 가격.</u>

(16)과 같이 <큰사전>(1957)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던 ‘떡값’이 <대사전>(1982)에서 표제어로 등장한 후 <표준>(2023)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본의미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사전>(1982)을 참고할 때, 당시 속어(<속>)로 인정되던 단어만을 사전에 올린 결과가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때 <대사전>(1982)에 2개의 확장의미가 동시에 올라 있는 것은 1982년 이전에 일찍이 <1>과 <2>의 의미가 널리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고려대>(2023)은 <4>의 기본의미를 포함한 점에서 다른 사전과 차별화된다. 그리고 말뭉치에 근거하여 고빈도 의의 순으로 배열된 <고려대>(2023) 사전의 특성상 <1>이 가장 높은 출현빈도로 파악되는데, 이는 <표준>(1999)의 <3>에 해당하며 <금성판>(1991) 등 이전 사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의의라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의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의미가 급격한 출현빈도 상승에 힘입어 <고려대>(2023)의 첫째 의의로 기술된 것이다. 기본의미가 저빈도로 마지막 <4>에 위치한 것과 대비된다.

(17) 가. 노임을 받지 못한 일용노무자들이 구정을 당해서 밀린 노임 중 떡값이라도 보태어 달라고 당국에 <조선일보 1960.1.28.(사회)>

나. 특히 李哲承 總務는 이날 아침 “떡값이 없어 故郷에 내려가지

못하고 (후략)” <경향신문 1961.2.15.(정치)>

다. 상여금 또는 떡값을 받아 연휴의 「플랜」을 짜고 있다. <경향신문 1963.10.1.(사회)>

라. 떡값은커녕 처량한 野黨 假拂遮斷에 겹친 生活苦 <동아일보 1965.9.11.(정치)>

(17)은 <표준>(2023)에 등재된 ‘떡값’ <1>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예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확인된다. 굳이 문장 부호(「 」) 없이도, 특정 맥락으로 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당시에 ‘떡값’이 상여금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8) 가. 또한 담합에 가담하면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사례금을 받고 <경향신문 1965.1.11.(경제)>

나. 여타업자는 경쟁 회피에서 오는 극대이익을 분배받는데 이를 “떡값” 이라고도 합니다. <매일경제 1966.7.12.(경제)>

다. 「승인파」 깡패 홍 모(36) 등 5, 6명이 김 씨 사무실에 찾아와 소위 「떡값」(입찰담합비·보통 입찰액의 1할)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1967.5.26.(사회)>

라. 이때 업자들 사이에는 소위 「떡값」이란 것이 오고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동아일보 1968.5.4.(정치)>

<표준>(2023)의 ‘떡값’ <2>에 대응하는 초기 자료는 (18)과 같다.¹⁸⁾ 1965년에 관련 용법이 지면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쓰임이 관찰된다. 문장 부호(“ ”, 「 」)(18나~라) 또는 괄호 안 보충 설명(18다)을 포함하거나 부사 ‘소위’와 공기(18다, 라)하는 모습에서 당시 ‘떡값’ <2>의 용법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7)의 ‘떡값’ <1>이 보여준 모습과 차이 나는 결과이다. ‘떡값’ <1>과 <2>

18) ‘떡값’ <2>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자유당 시절 小公동파 두목 洪 모, 明동의 李 모 부하였던 崔 모 등이 입찰 깡패로 이름을 날린 선구자. 입찰 전 업자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가격과 낙찰 회사를 정하는 것을 업자들은 “떡을 친다”고 말한다. <경향신문 1968.7.4.(사회)>

의 신문 출현 시점은 <표준>(2023) 내 의의 기술 순서와 일치된 양상을 보인다.

(19) 가. 金 씨는 지난 六六년 三월 釜山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중략) 계약 때마다 공사금의 五~一五%에 해당하는 코미손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69.5.1.(사회)>

나. 한마디로 이번 의혹사건에서 등장한 뇌물은 건설업계서 흔히 말하는 「떡값」에 해당했던 커미션으로 처음에는 각종 공사의 입찰에 있어 응찰자들이 담합(談合)한 후 낙찰자가 떨어진 나머지 업자에게 공사비의 1~2할을 떼어서 분배해 주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시공관청 등이 공사를 맡기면서 받는 돈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조선일보 1969.5.1.(경제)>

다. 업자 간 “떡값” 이 公務員 뇌물로 바뀌어 (중략) 자유당 때부터 건축업자들 사이에 떡값이라고 불리면서 공사계약을 둘러싸고 업자들이 먹던 부정한 이윤은 이제 고급 공무원의 뇌물로 변질 <경향신문 1969.5.3.(사회)>

이후 <표준>(2023)의 ‘떡값’ <3> 용례가 신문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부터이다. 한 광역단체 시장이 특정 건설사를 상대로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받아온 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떡값의 새로운 용법과 의미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른다. (19나, 19다)는 기사를 통해 ‘떡값’ <3>이 <2>로부터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 가. 연말 떡값 등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1993.12.30.(정치)>

나. 경찰 및 공무원들에게 추석과 연말에 떡값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경향신문 1994.10.15.(사회)>

다. 10억 공사 따내려 술·골프 등 2천만 원 향응 원청업체 임직원들에 명절마다 떡값 상납 <한겨레 1995.2.7.(경제)>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떡값’ <3>의 용법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관찰된다(<표 5> 참고). ‘연말, 추석, 명절’ 등과 공기하는 상황에서도 그 의미는 <1>이 아닌 <3>으로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연말, 추석’ 등에 지급된 ‘떡값’ 이지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 (<1>)이 아닌,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달된 돈’ (<3>)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 가. 젊은 여자를 발길로 차서 原因은 떡값으로 是非 <동아일보 1933.6.20.(사회)>
- 나. 떡값은 돈으로 주고 시원은 덤으로 받고 <동아일보 1933.7.9.(사회)>
- 다. 술값 떡값이라기보다도, 약처고자가 재물과 권세 앞에 수모받는 <조선일보 1949.11.19.(생활/문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확장 의미와 달리, 기본 의미의 용례는 언제부터 신문기사에 등장하였을 것인가? <표준>(2023)에 없는 기본 의미, 즉 ‘떡의 가격’에 대응하는 용법은 훨씬 이른 시기인 1933년에도 그 용례가 확인된다. 출현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당 의미가 기사에 등장한다. ‘떡의 가격’이 고려대(2023)에서 <4>로 기술된 사실도 기본 의미가 가장 드물게 출현한 언어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5> 다의어 ‘떡값’의 연도별 출현빈도

연도	총계	‘떡값’의 의미(sense)			
		<0>	<1>	<2>	<3>
1933	3	3	-	-	-
⋮					
1949	1	1	-	-	-
1950	1	1	-	-	-
⋮					
1960	2	1	1	-	-
1961	1	0	1	-	-

∴					
1965	5	1	3	1	-
1966	5	2	1	2	-
1967	4	0	2	2	-
1968	5	2	1	2	-
1969	17	2	5	4	6
1970	9	0	6	0	3
1971	4	0	4	0	0
1972	4	0	4	0	0
1973	5	0	4	0	1
1974	4	1	1	0	2
1975	5	0	3	1	1
1976	11	1	6	0	4
1977	19	0	2	9	8
1978	17	1	7	0	9
1979	11	0	3	5	3
1980	16	1	9	3	3
∴					
1991	66	0	7	8	51
1992	55	3	3	11	38
1993	115	4	12	1	98
1994	115	3	0	0	112
1995	234	0	8	3	223
1996	221	0	3	1	217

〈표 5〉를 통해 ‘떡값’의 의미에 따른 출현빈도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0〉으로 표시된 기본의미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그 쓰임이 관찰되는 반면, 나머지 〈1〉~〈3〉은 1960년대부터 초기 용례가 확인된다. 이때 ‘떡값’ 〈1〉~〈3〉은 순차적으로 각각 1960년, 1965년, 1969년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1〉~〈3〉의 의미 간에 의미적 유연성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상황 맥락에 따라 ‘명절 상여금, 입찰 담합 이익금, 뇌물’로 변별되기는 하나, ‘추가로 더해진 돈’이라는 의미가 관통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회색 음영은 각 연도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의미를 표시한 것인데,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1969년에 ‘떡값’ 〈3〉의 첫 등장과 함께 높은 출현빈도가 확인된다. 당시 건설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시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9)처럼 다량의 기사가 등장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은 출현빈도 변화로 나타났다.

둘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떡값’ 〈3〉의 분포가 다른 의미를 압도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다. 매년 정치권 기사로 ‘떡값’ 명목의 뇌

물 수수, ‘떡값 사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기사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3>의 출현빈도가 확대되었다.

셋째, 1993년과 1995년에 ‘떡값’의 전체 출현빈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결과가 관찰된다(55회→115회, 115회→234회). 1993년부터 건물 부실 공사와 관련하여 정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의 뇌물(‘떡값’ <3>)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를 거치면서 신문 기사에서 ‘떡값’ <3>의 출현이 급증한다.

<표 5>에서 관찰되듯이 1960년대 이후로 <1>의 분포가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는 <3>이 <1>을 압도하며 분포가 역전된다. <표준>(2023)의 <3>의 의미가, 말뚝치의 출현빈도에 근거하여 의의 순서를 배열한 <고려대>(2023)에 서는 <1>에 대응한다는 사실도 <표 5>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3.3. 교통정리

‘교통정리’도 의미적 신어로 다루어져 온 대표적인 단어로서 형태론적으로는 ‘떡값’과 마찬가지로 복합 구성의 다의어에 해당한다. <표준>(2023)에 풀이된 다의어 ‘교통정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2) ‘교통정리’의 <표준>(2023) 뜻풀이

<1>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차의 통행을 규제·지시·유도하는 일.

예 네거리에서 교통경찰이 교통정리에 한창이다.

<2> (속되게) 일 처리나 회의 과정 따위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함.

예 학생들이 싸우고 있으니 선생님이 가서 교통정리 좀 하세요.

(22)의 ‘교통정리’는 앞서 언급한 두 단어와 달리 의의가 단 2개뿐으로 간소하다. 또한 <큰사전>(1957)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사전 등재 현황을 검토해 보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이후에 다의어로 사전에 등재된 사실도 확인된다.

(23) ‘교통정리’의 사전별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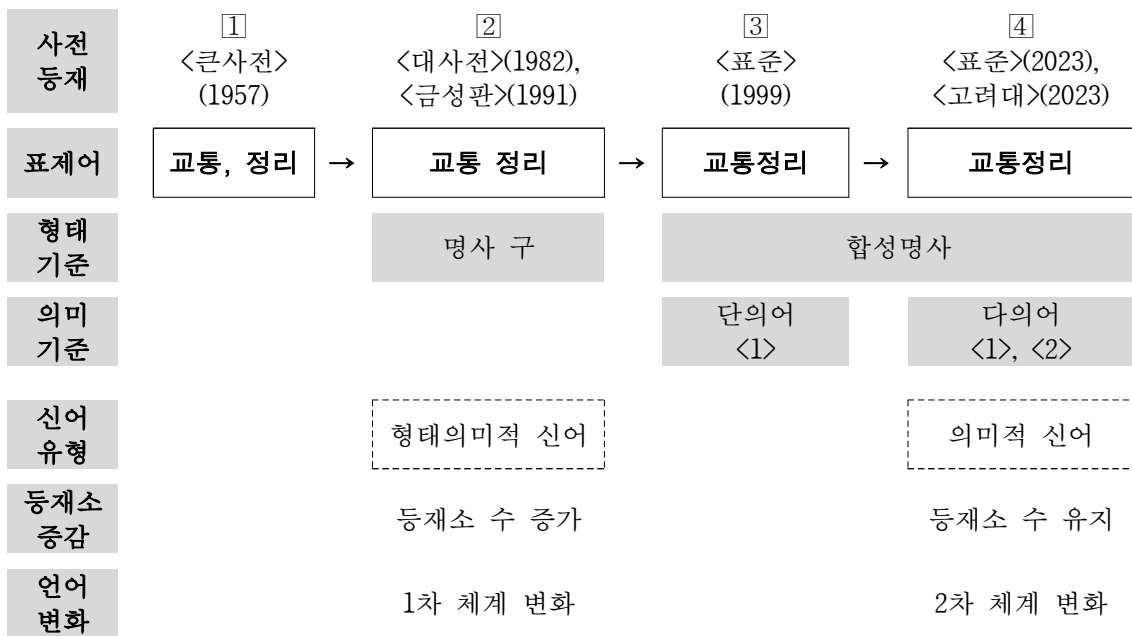
사전	뜻풀이
〈큰사전〉(1957)	(미등재)
〈대사전〉(1982) ‘교통 정리’	도로 교통 또는 선박·비행기 따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그 밖의 정리원이나 신호기·표지·방송·통신 따위를 이용해서 통행을 규제·지시·유도하는 일.
〈금성판〉(1991) ‘교통 정리’	혼잡한 거리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을 정리하는 일.
〈표준〉(1999) ‘교통정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차의 통행을 규제·지시·유도하는 일.
〈표준〉(2023) (누리집) ‘교통정리’	〈1〉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차의 통행을 규제·지시·유도하는 일. 〈2〉 (속되게) 일 처리나 회의 과정 따위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함.
〈고려대〉(2023) (누리집) ‘교통정리’	〈1〉 (기본의미) 혼잡한 거리에서 차나 사람의 통행을 질서 있게 바로잡음. 〈2〉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를 질서 있게 바로잡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으로부터 ‘교통정리’ 구성의 역동적인 형태·의미적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큰사전〉(1957)에는 관련 예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대사전〉(1982)에는 명사 구 ‘교통 정리’가 올라 있으며, 〈금성판〉(1991)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된다. ‘교통정리’가 합성 명사, 즉 단어로서 사전에 명확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표준〉(1999)에서부터이다. ‘구’에서 ‘복합어’로의 문법적 변화가 표제어 기술에서 잘 드러난다.

〈표준〉(1999)의 ‘교통정리’가 복합어로 인정되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교통정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 통행을 규제하는 일’로서의 단어 지위를 지녔다. 이후 〈표준〉(2023)과 〈고려대〉(2023)에서는 ‘교통정리’가 다의어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¹⁹⁾ 다의어로서의 온전

19) 〈표준〉(2023)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거품’ 〈4〉와 ‘떡값’ 〈3〉이 ‘비유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교통정리’ 〈2〉는 ‘속되게’ 정도로 부연하고 있어 기술상에 차이가 있다. 반면 〈고려대〉(2023)의 ‘교통정리’ 〈2〉는 앞선 예들과 유사하게

한 지위는 1999년 이후인 2000년대에 확립된 것으로 보아 ‘교통정리’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다의어로 판단 가능하다.



〈그림 1〉 ‘교통정리’의 통시적 변화

①에서 ④까지 각 단계별로 사전에 기술된 표제어와 뜻풀이를 통해 이들의 형태 및 의미 특성을 〈그림 1〉로 정리할 수 있다. ‘명사 구 → 합성명사’, ‘단의어 → 다의어’의 형태, 의미 생성의 방향이 확인된다. 이를 (5)에서 언급한 ‘신어 유형’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② 단계는 ‘형태의미적 신어’ 생성으로, ④ 단계는 ‘의미적 신어’ 생성 단계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두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명사 구)를 구성한 반면, 후자는 기존 형태의 변화 없이 새로운 의미를 표현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미적 신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등재소 수 측면에서 볼 때, 형태의미적 신어의 출현은 새로운 구성 형태의 등장으로 인한 어휘부 등재소 증가를 뜻하는 반면, 의미적 신어는 형태 기준의 등재소 수에 증감이 없기에 전후 수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유의 방식으로 뜻을 풀이하고 있다.

언어 변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두 신어 유형 모두 체계 변화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의미적 신어가 외현적 형태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다의어 생성 차원에서 어휘 내향의 변화를 만드시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각각 <그림 1>과 같이 ‘1차 체계 변화’, ‘2차 체계 변화’로 달리 명명할 수도 있다.

‘교통정리’의 실제 사용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신문 지면에서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24) 가. 京城 中 繁雜한 場所인 本町通의 交通整理에 伴하여 京城運送業者側에서는 頗히 不滿의 聲이 <동아일보 1920.6.25.(사회)>

나. 사진은 종로 사거리의 교통정리를 하는 광경 <조선일보 1920.9.10.(사회)>

다. 경찰서 압해 서서 교통정리하는 조선 순사의게 무슨 음식덤을 물으닛가 <동아일보 1922.9.15.(사회)>

일찍이 1920년대 초 신문 기사에서 ‘교통정리’(交通整理, 교통정리)가 관찰된다. 다만 그 출현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큰사전>(1957)에 ‘교통정리’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당시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교통정리’의 출현은 꾸준한 증가 양상을 띠면서(<표 6> 참고),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등의 지면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25) 가. 교통정리와 같이 權力에 의한 통제가 통하기 쉬운 일은 統制方式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 1962.10.14.(정치)>

나.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행정은 교통정리와 같다. <경향신문 1966.8.24.(경제)>

다. 自由主義 經濟秩序下에서의 政府의 役割은 교통정리와도 같은 것 <동아일보 1968.3.13.(경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계 질서를 바로 잡는 행위’를 비유하는 상황

에서 직유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9)의 ‘거품’에서도 직유를 활용한 초기 사용 양상이 평행하게 관찰된 바 있다. (25)에서 ‘교통정리’는 ‘권력 통제, 경제 행정, 정부 역할’과 공기하는 등 기본의미와는 차별화된 맥락 환경에 쓰이면서 변이 의미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²⁰⁾

(26) 가. 一種의 보다 나은 教育의 「交通整理」는 보다 나은 敎員이라는 交通巡警과 그의 上官인 教育行政家 <동아일보 1965.2.23.(사회)>

나. 電波의 交通整理라는 受任 사항에 대한 職權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아일보 1966.1.24.(정치)>

다. 이를테면 선진국에서는 産業再編成이라고 하여 産業의 交通整理를 서둘러 있고 <동아일보 1969.10.18.(생활/문화)>

라. 연출자는 舞臺의 交通정리 정도의 기능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1970.4.21.(생활/문화)>

(26)은 직유의 방식 없이도 ‘교육의 교통정리, 전파의 교통정리, 산업의 교통정리’ 등처럼 ‘교통정리’의 변이적 의미 해석이 원활하게 파악되는 예이다. 특히, ‘정부’와 공기하는 용례가 상당수 확인되는데 경제, 사회, 문화 차원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 ‘교통정리’가 다수 등장한다.²¹⁾

20) ‘하늘의 교통정리, 바다의 교통정리’와 같이 ‘지상’에서의 교통정리뿐만 아니라 ‘하늘, 바다’ 환경에서 쓰인 ‘교통정리’ 용례도 1950년대~1970년대 자료에서 확인된다.

가. 하늘의 交通整理. 하늘을 向해서 쏘아 올리는 人工衛星의 數가 부쩍 늘어가는지라 整理가 必要하게 되었다는 <동아일보 1959.6.20.(정치)>

나. 김포공항 콘트럴타워에서 하늘의 交通정리를 맡아 조종사들의 귀여움을 받아오던 <조선일보 1968.10.20.(사회)>

다. 경비정들은 어선이 바다에 나가는 날이면 빠짐없이 뒤따라 나가 「바다의 交通정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1972.2.12.(정치)>

21) 관련 추가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는 길을 닦아놓고 交通整理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선일보 1967.1.1.(경제)>

나. 政府는 交通整理만 하고 自動車가 달리건 사람이 걸어가건 <동아일보 1971.1.4.(경제)>

다. 政府에서 하는 것은 交通整理인데 交通整理를 잘하기 위해서도 <조선일보 1971.10.10.(생활/문화)>

라. 앞으로 정부는 물가 交通정리를 해서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경향신문 1974.12.11.(경제)>

〈표 6〉 다의어 ‘교통정리’의 ‘의미적 신어’ 출현빈도 분포 (1965~1999년)

연도	전체 ‘교통정리’ 출현빈도	‘의미적 신어’ (〈표준〉(2023)의 〈2〉)의 출현빈도 (전체 출현빈도 내 비중)
1965	29	1 (3.4%)
1966	52	1 (1.9%)
1967	54	2 (3.7%)
1968	40	1 (2.5%)
1969	51	3 (5.9%)
⋮		
1977	37	2 (5.4%)
1978	51	10 (19.6%)
1979	72	18 (25.0%)
1980	57	19 (33.3%)
1981	98	28 (28.6%)
1982	86	23 (26.7%)
1983	81	35 (43.2%)
1984	85	61 (71.8%)
1985	60	28 (46.7%)
1986	64	30 (46.2%)
1987	66	27 (40.9%)
1988	125	92 (73.6%)
⋮		
1995	258	199 (77.1%)
1996	227	162 (71.4%)
1997	188	145 (77.1%)
1998	258	237 (91.9%)
1999	164	137 (83.5%)

의미적 신어로서의 초기 ‘교통정리’ 〈2〉 용례는 1965년 기사에서 확인되는데, 그 후로도 10여 년 넘게 의미적 신어의 비율은 1~6% 사이의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후 크게 2가지 변화의 흐름이 관찰되는데, 하나는 1978년부터 ‘교통정리’ 〈2〉가 두 자리 수 비율로 분포가 확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8년 이후로 ‘교통정리’ 〈2〉가 기본의미인 〈1〉을 양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한 점이다. 그리고 〈2〉와 〈1〉의 분포 역전 현상은 1990년대 말까지 꾸준히 지속된다.

(27) 가. 重化學 분야의 사업계획을 청취. (중략) 「교통정리를 해주어야겠다」는 업체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 <경향신문

1978.2.18.(경제)>

나. 주요 重化學 부문의 가동률이 26~60%선에 머물러 重化學 부문의 교통정리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79.5.26.

(경제)>

다. 重化學 교통정리에 상공부는 免責 급급 <매일경제 1979.5.28.(경제)>

라. 重化學 재조정, 교통정리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前任 경제팀에 의해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지만 <경향신문 1979.12.22.(경제)>

먼저, 1978~1979년에 이르러 ‘교통정리’ <2>의 빈도가 급증한 것은 당시 ‘중화학 공업에 관한 정부의 산업 분야 재조정’이 ‘교통정리’로 비유되어 널리 쓰이면서 의미적 신어의 <2> 용법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기사에서 ‘교통정리’ <2>는 특히 <경제> 지면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²²⁾ 가령 1979년 기사에서 ‘교통정리’ <2>는 총 18회 등장하는데, 세부 분포는 ‘경제 15회, 정치 1회, 사회 1회, 생활/문화 1회’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8) 가. 기존세력과 湖南 출신 인사들이 대거 몰려 희망함에 따라 오히려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실정이나 <동아일보 1988.3.12.(정치)>

나. 與 후보는 地方을, 野 후보는 대도시를 지망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렵다. <경향신문 1988.3.15.(정치)>

다. 이에 따라 民主黨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조선일보 1988.3.23.(정치)>

라. 일부 공천 내정자를 교체하는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나 <매일경제 1988.3.28.(정치)>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988년은 ‘교통정리’ <2>의 용법이 <정치> 지

22) <표 6>에서 1984년이 이례적인데, 정치권에서 ‘해금(解禁) 인사들의 교통정리’ 관련 기사가 전반기에 자주 등장하면서 ‘교통정리’ <2>의 출현빈도가 <정치> 지면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해이다. 앞선 1979년 상황(‘경제 15회, 정치 1회, 사회 1회’ 등)과 비교할 때, 1988년은 ‘교통정리’ <2>가 전체 92회 중에서 ‘정치 59회, 경제 19회, 사회 7회, 스포츠 4회’ 등으로 나타나 큰 변화를 드러낸다. 10년 전과 달리 ‘교통정리’ <2>가 <정치> 지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8년 4월 26일에 진행된 13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공천을 위한 지역 및 후보자 조정 과정에서 ‘교통정리’ 표현이 활발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1988년의 변화가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지면서, ‘교통정리’ <2>는 매년 <정치> 지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다. 아울러 1997년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며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재조정과 함께 ‘교통정리’ <2>는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다.

1960년대부터 이미 ‘교통정리’의 변이 의미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의미적 신어로서의 ‘교통정리’ 출현이 급증하였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기본의미 <1>의 출현빈도와 후대에 발생한 확장의미 <2>의 출현빈도가 역전되어 1990년대 말까지 그 양상이 지속되었다. 임지룡(1997), 문금현(1999)에서 ‘교통정리’의 다의적 용법이 언급되었을 정도로 당시 언중들에게 그 존재는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전>(1982), <표준>(1999) 등에 ‘교통정리’가 다의어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공시적 의미 변이를 인정하면서도 비유적 의미가 아직 완전하게 ‘교통정리’의 확장의미로 자리 잡지 않았다고 본 당시 사전 편찬자들의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확장의미 <2>가 사전에 오르며 명시적으로 ‘교통정리’는 다의어로 인정받게 된다.

4. 맺음말

(생략)

【참고 문헌】

<논저류>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2010), 단어형성론 논의의 확장을 위하여: 양정호(2008)에 답함, 형태론 12-1, 형태론, 111-119쪽.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표준 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남길임·이수진·강범일(2019), '프레임'의 언어학: 의미적 신어 '프레임'에 대한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65, 한국어의미학회, 135-163쪽.

남길임·이수진·최준(2018), 웹 말뭉치를 활용한 의미적 신어의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55-84쪽.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국어학회, 295-325쪽.

송원용(2007), 국어의 단어형성체계 재론,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105-126쪽.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지룡(1997), 새 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29, 국어교육연구회, 1-33쪽.

임지룡(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정예은(2022), 한국어 신어의 문화 맥락 의미 형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한데로(2012), 어휘 변화의 세 방향: '보-'를 중심으로, 형태론 14-1, 형태론, 25-52쪽.

정한데로(2015),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국어학 74, 국어학회, 233-266쪽.

정한데로(2017),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국어학회, 119-152쪽.

정한데로(2019), 발견을 위한 한국어 단어형성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정한데로(2022), 신어 형성에 관한 몇 문제, 한국어 의미학 76, 한국어의미학

회, 27-63쪽.

정한데로(2023), 신어 형성과 어휘 변화: 의미적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2023년 공동 학술대회(2023.4.22., 이화여대) 발표 자료집.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ssidan, A.(2013), "Dynamics of semantic change: detecting, analyzing and modeling semantic change in corpus in short diachron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e Lumiere - Lyon 2.

Cruse,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rphy, M. L.(2010), Lexic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류, 보고서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23), 고려대한국어대사전(누리집).

국립국어연구원(1994), 신어의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23), 표준국어대사전(누리집).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네이버(Naver)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이희승 편저(1982), 국어대사전(수정 증보판), 민중서림.

한글학회(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어휘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에 대한 토론문

오규환(동덕여자대학교)

정한대로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단어어가 다의어가 되는 현상, 즉 ‘다의어의 생성’을 편의상 ‘다의어화’라고 하겠습니다.

1. 사전에서 ‘거품’의 쓰임을 신어 차원에서 인정하게 된 것과는 무관하게, ‘거품’이 다의어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8쪽의 “공시적으로 부여된 단어의 임시적 의미는 다의어 생성을 촉발한다.”라는 진술은, 맥락상 임시적 의미가 주어진 단어는 다의어로 보기 어렵고 사전의 뜻풀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될 만큼 의미가 고정되어야 다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맥락상 더해진 임시적인 의미와 사전의 뜻풀이에 추가될 만큼 고정된 의미가 비슷하다면, 결국 맥락상 임시적인 의미가 더해진 단어도 넓은 의미의 다의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더욱이 사전이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다의성을 모두 포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의 뜻풀이를 바탕으로 다의어화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제 용례들을 바탕으로 다의어의 생성을 논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맛집’은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곳’(청바지 맛집, 후드티 맛집)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후자의 의미는 아직 사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발표자의 관점에서 ‘맛집’은 다의어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 발표문에서는 크게 ‘단의 단일어의 다의어화(거품)’, ‘단의 합성어의 다의어화(떡값, 교통정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후자는 ‘합성어의 다의어화(떡값)’과 ‘단의 명사구로부터 어휘화한 합성어의 다의어화(교통정리)’를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정리’의 생성 과정을 명사구가 합성 명사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떡값’도 명

사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려대>의 처리처럼 ‘떡값’이 ‘떡을 만들거나 사는 데 드는 가격’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표문 25쪽의 <그림 1>의 ② 단계 ‘명사구’로 표시된 ‘교통 정리’를 의미적 신어로 보셨는데 명사구까지도 의미적 신어로 범주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특정 단어의 사용(출현)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다의 분화를 촉발하는 요인인지, 아니면 특정 단어의 사용(출현) 빈도와는 무관하게 다의 분화가 일어났고, 다의 분화가 일어난 표현이 자주 쓰인 것인지의 선후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4. ‘기존 단어가 형태는 유지하나 이전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는 다의어 형성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의미 소멸 및 대체에 따른 어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각주 8번의 논리라면 다의어화도 결국에 ‘의미 추가에 따른 어휘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다의어화를 새로운 단어(의미적 신어)의 생성으로 본다면, 다의어의 의미 소멸에 따라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하나만이 남게 되는 현상인 단의어화도 새로운 단어(의미적 신어)의 생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존에 맺고 있던 형식과 의미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표준>에 따르면 ‘보람’은 ‘약간 드러나 보이는 표적.’,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하여 표를 해 둠. 또는 그런 표적’,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일의 가치.’ 등을 뜻하는 다의어로 처리되고 있는데 제 직관으로는 앞의 두 의미(sense)는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마지막 의미만이 주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보람’은 어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해야 할까요? 단의어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5. 지엽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의 OED에 제시된 ‘bubble’의 뜻풀이를 고려하시어 ‘거품’의 다의어화가 혹시나 번역 차용에 의한 것이 아닌지는 검토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 figurative.

2.a. Anything fragile, insubstantial, empty, or worthless; a deceptive show.

1598-

In quot. c1665: a worthless person.

- 1598** *Bullette*, bubbles, vanities, trifles.
J. Florio, *World of Wordes* 51/2 ...
- 1598** To see this Butterflie, This windie bubble taske my balladry.
J. Marston, *Scourge of Villanie* ii. vi. sig. E6 ...
- 1616** Seeking the bubble Reputation Euen in the Canons mouth.
W. Shakespeare, *As you like It* (1623) ii. vii. 152 ...
- c1665** Why should a Woman dote on such a Bubble?
in *Roxburghe Ballads* (1886) vol. VI. 254 ...
- 1735** How have I doated on this empty bubble, This world of vanity, this scene of trouble!
N. Munns, *Horneck's Fire of Altar Versified* 51 ...
- 1845** Nothing new in Mexican affairs, which I still think is a mere bubble to induce the offer of mediation from England or France, and thus give them (Mexico) a chance to creep out of an awkward position.
G. G. Meade, *Letter* 23 August in *Life & Letters* (1913) vol. I. 22 ...
- 1931** The pseudo-scientific notion of perpetual progress he considers to be a deceptive bubble which should be pricked.
International Journal Ethics vol. 41 182 ...
- 2008** An ephemeral bubble in which the artifice would help to suspend the horror.
S. Reynolds, translation of 'F. Vargas', *This Night's Foul Work* (2009) 320 ...

[Show fewer quotations](#)

제愚問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